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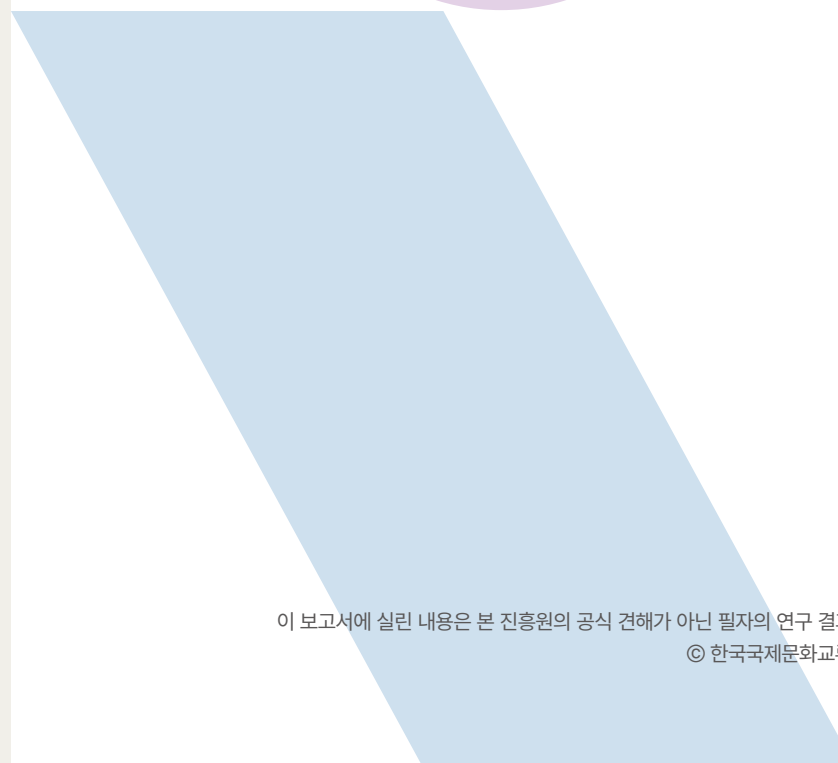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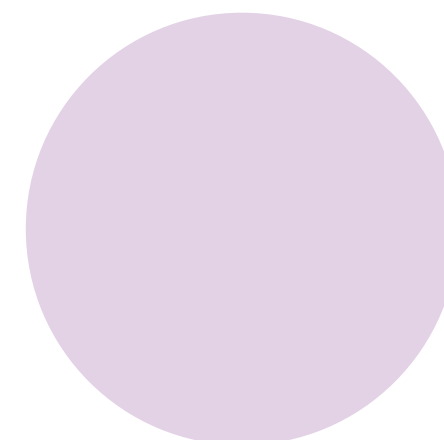
2026-2028

문화예술산업 중심

국제문화교류의 국가별 정책

트렌드 분석 및 전망 연구

문화예술산업 중심
국제문화교류의 국가별 정책
트렌드 분석 및 전망 연구
(2026-202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01 연구배경	8
02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01 연구범위	10
02 연구방법	11
03 연구 추진체계	12

제2장
문화예술산업과
국제문화교류의
개념, 정책적
전환 및 흐름

제1절 국제문화교류를 둘러싼 대내 환경	
01 국제문화교류의 주요 패러다임 변화	16

제2절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예술산업 개념	
01 국제문화교류의 국내외 개념 및 확장	31
02 문화예술산업의 개념 및 정의	41

제3장
국가별
국제문화교류
정책 분석

제1절 분석 프레임 및 비교 요소	
01 분석 대상 국가 선정 방향 및 기준	50
02 분석 프레임 및 비교요소	51

제2절 국가별 정책 구조 분석	
01 미주: 멕시코	52
02 오세아니아: 호주	55
03 유럽: 영국	58
04 유럽: 스위스	61
05 아시아: 한국	64

06 아시아: 태국	67
07 아프리카/중동: 이집트	70

제3절 국가별 정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01 국가별 국제문화교류 정책 비교 분석	73
02 국제문화교류 정책 기조의 전환	76

제4장
국제문화교류
트렌드 및
변화요인

제1절 STEEP 및 텍스트마이닝 기반 거시환경 분석	80
제2절 트렌드 후보군(이머징 이슈) 도출 및 구체화	97
제3절 전문가 조사 및 검증	102
제4절 최종 트렌드 선정	123

제5장
문화예술산업
기반 국제문화교류
정책 전망 및 시사점

제1절 2026-2028년 국제문화교류 정책 방향 예측	140
제2절 정책 시사점	141
제3절 정책 수요자를 위한 전략적 제안	143

참고문헌	146
------	-----

부록	1. 면접조사	156
	2. 국가별 국제문화교류 정책	170

표 | 목차

표 1-1	연구 대상 선정의 주요 근거	10
표 2-1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현황	17
표 2-2	국제문화교류의 제도·전략 차원에서 본 단계적 변화	18
표 2-3	2011~2013년 국제교류 주요방향	19
표 2-4	국제문화교류 패러다임 축 변화	23
표 2-5	2023년 ‘문화교류’ 키워드 리포트 (2023.2.~2023.12.)	29
표 2-6	2024년 ‘문화교류’ 키워드 리포트 (2024.1.~2024.12.)	29
표 2-7	2025년 ‘문화교류’ 키워드 리포트 (2025.1.~2025.12.)	30
표 2-8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주요내용	31
표 2-9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34
표 2-10	유네스코 국제문화협력 제 4조	35
표 2-11	국가별 국제문화교류 용어 활용 및 운영 특성 비교	36
표 2-12	국제문화교류 vs 문화외교 vs 공공외교 비교분석	37
표 2-13	「공공외교법」 주요내용	38
표 2-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주요내용	39
표 2-15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정의	41
표 2-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문화산업 및 콘텐츠의 정의	42
표 2-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상 콘텐츠의 정의	42
표 3-1	주요국 국제문화교류 분석 틀	51
표 3-2	멕시코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기별 추진 배경 및 흐름	52
표 3-3	멕시코 문화부 및 외교부 국제문화교류 발전 흐름	53
표 3-4	멕시코 원주민 중심 국제문화교류 주요 특징 및 문화적 의미	54
표 3-5	호주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기별 추진 배경 및 흐름	55
표 3-6	호주 원주민 중심 국제문화교류 주요 특징 및 문화적 의미	57
표 3-7	영국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기별 추진 배경 및 흐름	58
표 3-8	영국 국제문화교류 관련 제도·정책 주요 내용	59
표 3-9	영국 문화예술 부분 국제문화교류 전달기관	59
표 3-10	영국 국제문화교류 주요 특징 및 문화적 의미	60
표 3-11	스위스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기별 추진 배경 및 흐름	61
표 3-12	스위스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적 근거 주요 내용	62
표 3-13	스위스 기관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63
표 3-14	스위스의 국제문화교류 주요 특징 및 문화적 의미	63
표 3-15	한국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기별 추진 배경 및 흐름	64
표 3-16	한국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적 근거 주요 내용	65
표 3-17	KOFICE의 주요 업무	65
표 3-18	한국 국제문화교류 주요 특징 및 문화적 의미	66
표 3-19	태국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기별 추진 배경 및 흐름	67
표 3-20	태국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적 근거 주요 내용	68
표 3-21	태국 국제문화교류 주요 특징 및 문화적 의미	69
표 3-22	이집트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기별 추진 배경 및 흐름	70
표 3-23	이집트 기관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71
표 3-24	이집트 국제문화교류 주요 특징 및 문화적 의미	72
표 4-1	주요 7개국 사회적 요인 분석	81
표 4-2	주요 7개국 기술적 요인 분석	82
표 4-3	주요 7개국 경제적 요인 분석	84
표 4-4	주요 7개국 환경적 요인 분석	85
표 4-5	주요 7개국 정치적 요인 분석	86
표 4-6	국가별 주요 상위 단어 분석	90
표 4-7	LDA 토픽 모델링 결과	91
표 4-8	이미징 이슈 선정 기준	97
표 4-9	STEEP – 텍스트마이닝 연결을 통한 이미징 이슈 후보군 도출	98
표 4-10	이미징 이슈 후보군	101
표 4-11	FGI 전문가 리스트	102
표 4-12	델파이 조사 전문가 리스트	106
표 4-13	델파이 1차 응답 결과	108
표 4-14	‘문화적 권리·원주민, 그리고 윤리적 교류’ 현재 및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가 이유	109
표 4-15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IP보호부터 문화유산 아카이빙까지’ 현재 및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가 이유	110
표 4-16	‘소프트파워의 ‘안보 자산화’와 시스템 수출 전략’ 현재 및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가 이유	111
표 4-17	‘다양성의 산업적 발견’ 현재 및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가 이유	112
표 4-18	‘이동성의 제약과 지방 소멸을 넘는 글로벌 연대, 공동체 회복’ 현재 및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가 이유	113
표 4-19	‘탄소 발자국과 ‘슬로우 모빌리티’로의 전환’ 현재 및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가 이유	114
표 4-20	델파이 2차 응답 결과(현재 영향력 수준)-(1/3)	117
표 4-21	델파이 2차 응답 결과(현재 영향력 수준)-(2/3)	118
표 4-22	델파이 2차 응답 결과(현재 영향력 수준)-(3/3)	119
표 4-23	델파이 2차 응답 결과(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1/3)	120
표 4-24	델파이 2차 응답 결과(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2/3)	121
표 4-25	델파이 2차 응답 결과(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3/3)	122

그림 | 목차

그림 1-1	연구의 추진 프로세스	12
그림 2-1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단 파견 50주년 기념 유럽순회 공연 및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	19
그림 2-2	한-라오스 수교기념 및 순방 문화행사 및 아태지역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20
그림 2-3	2022년도 국제문화교류 관계도 분석 및 연관어 분석	26
그림 2-4	2025년도 국제문화교류 관계도 분석 및 연관어 분석	27
그림 2-5	국제문화교류 진흥 기본계획	32
그림 2-6	국제문화교류 지원체계	33
그림 2-7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국제문화정책 협력체계	33
그림 2-8	외교부 공공외교(문화) 공연 및 오디오 사업	38
그림 2-9	ODA 추진체계	40
그림 4-1	국가별(멕시코) 텍스트마이닝 의미망 분석	93
그림 4-2	국가별(호주) 텍스트마이닝 의미망 분석	93
그림 4-3	국가별(영국) 텍스트마이닝 의미망 분석	94
그림 4-4	국가별(스위스) 텍스트마이닝 의미망 분석	94
그림 4-5	국가별(한국) 텍스트마이닝 의미망 분석	95
그림 4-6	국가별(태국) 텍스트마이닝 의미망 분석	95
그림 4-7	국가별(이집트) 텍스트마이닝 의미망 분석	96
그림 4-8	델파이 2차 응답 결과(지역 간 불균형과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115
그림 4-9	델파이 2차 응답 결과(창조산업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자산화)	116
그림 4-10	델파이 2차 응답 결과(글로벌 플랫폼 vs 국가 문화 주권의 충돌)	116

-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PART

·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01

1. 연구 배경

- 국가브랜드 전략, 문화예술산업 진출 등 통합적 관점에서 국제문화교류 정책이 중시됨
 - 과거 단순 전사·공연 차원에서 진행되던 국제문화교류가 중요 정책의제로 인식되면서 일부 국가는 문화예술을 국가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프랑스 외무부 산하 Institut Français는 “France’s Soft Power Plan (2021–2025)”에서 다자 간 협력 및 민간 연계 중심의 문화외교 강화를 명시하고, 예산 30% 이상을 민간 문화단체 협업 프로젝트에 배정
 - 과거 문화교류가 창작자 중심의 ‘작품 소개’에 머물렀다면 현재는 기획, 제작, 유통, 투자 등 전 단계 결합의 문화예술산업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음
 - 이에 국제교류도 ‘서비스 및 솔루션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하게 됨
-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문화교류 방식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경향을 보임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과 지역 간 불균형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문화교류는 디지털 전환형, 공동 제작형, 주제 기반형(기후, 인권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음
- 정부는 K-컬처 기반 한류 확산과 더불어 적극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국제문화교류 사업 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공공부문 사업체는 65,584개사 중 5,932개사로 9.0%에 해당함
 - 국제문화교류 사업 활동의 목적은 ‘정보 지식 공유 혹은 전문역량 강화’(28.7%)가 가장 높고 사업 수행 시 어려움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 부족’(16.9%)이 2019년 대비 상승
 - 이처럼 국내 국제문화교류가 더욱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정보 부족의 한계가 있음
- 문화예술산업 기반 국제문화교류 정책 트렌드의 구조적 분석 필요
 - 단편적 사례 수집이 아닌, 각국의 정책 배경과 구조적 전환 요인 등을 함께 파악하는 심층적 분석을 통해 미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 필요
 - 국내 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예술가, 단체, 문화예술 산업 관련 기업 등 정책 수요자들의 전략적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 제공이 요구됨

2. 연구목적

- 주요국의 정책 사례 비교·분석해 구조적 특징과 변화 요인의 체계적 진단
 - 문화예술산업 전략이 고도화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권역별 정책 모델의 다양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외교 자산으로 문화예술산업을 활용하는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 또한 디지털 기술, 국제 질서, 기후위기 및 사회적 의제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를 예측하고 각국의 대응 방식 진단
 - 비대면 환경, 지역 간 불균형, 기후 및 인권 등의 이슈가 교류 방식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정책 수립자 및 실무자에게 실질적 전략 수립 기반 제공
 - 국제문화교류 정책 패러다임과 국가별 흐름 분석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 방향과 트렌드 제시
 - 국내 국제문화교류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련 정보 부족 및 실행 노하우의 한계로 정책 효과성이 미비
 -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와 실무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략 가이드라인 및 기초자료 제공
- 문화예술 기반 국제문화교류의 협력형 정책 모델 재편 요구
 - 주요국의 국제문화교류는 특히 다자 간 협력, 민간 파트너십,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교류 모델이 빠르게 부상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영국 British Council은 ‘Connections Through Culture’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예술가 및 예술 단체 간의 온라인 협업을 지원(예: 영국과 미얀마 아이디어 교환의 협업 ‘The Moments’ 현대 미술 워크숍)

연구범위 및 방법

02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최근 3년간(2022~2024) 및 향후 3년간(2026~2028)으로, 문화예술산업 기반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전략 현황과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트렌드를 전망함

- 기술 발전과 사회구조 변화 속도가 빠른 현시점에서 변화 흐름을 더 민감하게 포착하고, 정책적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및 향후 각 3년으로 설정함

▪ 대상적 범위

• 본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문화예술산업 관점에서 국제문화교류를 주도한 사례가 풍부한 6개국(멕시코, 영국, 스위스, 호주, 태국, 이집트)으로 선정함

-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국가를 안배하여, 지역별 특수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분석 대상국은 선정 목적에 따라 2가지 층위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문화예술산업 기반 국제문화교류 정책이 이미 고도화되어 정책 모델로서의 참조 가능성이 높은 정책 성숙형 국가로 영국, 호주, 스위스를 포함했으며, 둘째 현재 정책 고도화의 과도기에 있거나 지역 내 협력 거점으로서의 전략적 잠재성이 높은 신흥 협력형 국가로 멕시코, 태국, 이집트를 포함함

표 1-1 연구 대상 선정의 주요 근거

구분		내용
미주	멕시코	MONDIACULT 개최국으로서, 문화공공재 담론 등 글로벌 문화정책의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외교적 리더십 보유
유럽	영국	창조산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예술산업과 문화산업을 통합 지원하는 모델을 갖추고 브렉시트 이후 국제시장 환경 반영의 필요성
	스위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매개 기관인 '프로 헬베티아(Pro Helvetia)'가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기관 운영 및 국제교류 전략 비교 가능
오세아니아	호주	지리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교류 거점 역할이며 깊은 역사를 가진 '원주민' 예술을 국제문화교류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함
아시아	태국	한국을 벤치마킹하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역동적 파트너 국가로 총리 직속으로 '소프트파워 국가 전략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함
아프리카/중동	이집트	선진국에 문화유산 데이터 접근권을 제공하고 디지털 복원 및 아카이빙 기술을 이전 받는 '기술-자원 교환형 모델'을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두 층위의 구성은 보편적 트렌드와 각 지역의 특수성을 동시에 포착하기 위한 방법론적 선택임

▪ 내용적 범위

• 문화예술산업 개념 및 국제문화교류의 정책적 전환과 흐름 분석

- 문화예술산업 및 국제문화교류의 주요 개념 정의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업 현황
- 사회환경 및 국제관계 변화 흐름 및 디지털 발전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유형 및 방식의 변화

• 주요 국가별 국제문화교류 정책 구조 및 전략 분석

- 주요국 정책 추진 배경, 법·제도, 전략 목표, 예산 및 사업유형, 민관 협력 구조 등 정책 분석
- 국가별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국가브랜드 제고, 콘텐츠 수출, 창작 생태계 지원 등 문화예술산업과의 연계 점점 심층 분석

• 국제문화교류 트렌드 및 변화 요인 도출

- 디지털 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의제, 지정학적 리스크 등 환경요인 분석과 이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트렌드 분류 및 핵심 키워드 도출

• 향후 국제문화교류 정책 전망 및 시사점 제언

- 기존 정책 모델의 진화 방향,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적 정책 전망 제언
- 시와 정책 수요자를 위한 구체적/전략적 제안 도출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정책자료 분석

• 주요국 정부 및 문화교류기관의 정책 문서, 백서, 연차보고서 등 자료 수집 분석

• 국내외 유관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 선행연구 검토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업 성과보고서 및 국제교류 관련 DB 활용

▪ 전문가 조사 및 인터뷰

• 문화정책 및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2회 이상)

• 국제문화교류 실무자 대상 FGI

• 정성적 분석을 통한 정책 수요 도출

• 연구 단계별 자문위원회 운영²

▪ 정책 트렌드 분석 및 예측기법 활용

• STEEP 분석을 기반으로 기술·사회·환경 변화 요소 분류

• 주요 키워드 및 트렌드 군집 분석(텍스트마이닝 등)

• 국가별 정책 변화 흐름과 주요 분기점 도출을 위한 유형 분류

| 2 연구 설계 단계부터 결과 도출까지 문화예술·콘텐츠·국제문화교류 분야 전문가 3인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서면 자료(중간 단계는 FGI로 갈음)를 거쳐 연구의 타당성과 완결성을 검증함

3. 연구 추진체계

- 본 연구의 추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1절 국제문화교류를 둘러싼 대내 환경 변화

2절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예술산업 개념

2

PART

● 문화예술산업과
국제문화교류의 개념,
정책적 전환 및 흐름

국제문화교류를 둘러싼 대내 환경 변화

01

1. 국제문화교류의 주요 패러다임 변화

가. 제도·전략 차원에서 본 단계적 변화

① 도입기(1990년대)

▪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이후 전통예술과 문화외교 중심 우호 수단적 도구

•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한 전시·공연과 ‘한국문화의 해’ 행사 등 친선을 위한 행사형 문화외교가 급증하였으며 이를 위한 전담 부서가 신설됨

- 1962년 문교부 문예국 아래 ‘문화교류과’ 신설과 정부 조직개편 계기로 국제문화교류 사업인 민속예술 단 해외 파견, 국제문화행사 참여 및 유치 등이 추진되었으며 이후 1971년 12월에는 문화·공보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해외공보관³이 신설됨⁴

- 1988년부터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 남북 문화교류 추진과 1990년 문화부가 공보처와 분리되면서 문화부 내 문화정책국 소속으로 국제교류과가 편제됨. 이후 1991년 「한국재단법」 제정,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KF) 설립 등 국제문화교류 기반의 토대를 점차 마련하기 시작함⁵

② 공공외교·소프트파워 결합기(2000년)

▪ 국가브랜드 담론 확산으로 국제문화교류·문화외교 구축 및 확대

• 문화교류를 통한 타국과의 쌍방향 협력을 증진하고 문화 및 홍보 활동의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가브랜드 전략으로 국제문화교류를 활용함

- 참여정부(2003-2008)에서 문화정책국 아래 국제문화협력과를 신설하면서 ‘국제문화협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국가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문화동반자사업’⁶이 추진됨

- 2003년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KOFICE))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전신인 한국어 교육 기관들의 운영 강화에 힘입어, 국제문화교류 기반이 점차 확산됨

- 2005년 기존 국정홍보처와 문화관광부에서 분리·운영되고 있던 문화홍보원을 문화관광부에서 통합 및 개정해 문화원으로 일원화와 시켰으며 이를 연계한 코리아센터를 확충함⁷

3 해외공보관은 2024년까지 해외문화홍보원의 전신이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이었던 해외문화홍보원을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내 조직으로 편입하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

4 해외문화홍보원, (https://www.korean-culture.org)

5 신혜선, 조효정. (2023). 대외문화정책 담론의 변천과 국가 상황에 맞춰 국가적 대응을 옹호하는 한국별 국제문화교류의 개념 고찰. 문화예술경영학연구, 65-95.

6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문화동반자(현 한류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문화 관련 행정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7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7 문화정책백서」

- 8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 9 외교통상부(2004), 「2003년 외교백서」
- 10 이상열(2016), 「한국문화 세계화 전략 연구 - 재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국가 차원 국제문화교류 추진을 위한 제도적 논의와 국제회의 참여 등 움직임이 시작됨

- 당시 국가브랜드 순위 32위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국가이미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함⁸

- 특히 이 시기 국제문화교류는 제도적 뒷받침과 국제 문화외교 무대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문화협정 체결 및 UN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다자 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⁹

③ 문화예술산업·창조경제 융합기(2010년대)

▪ 한류문화의 확산과 문화예술·콘텐츠 중심 교류 협력

• 한류 기반 콘텐츠산업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국제문화교류는 문화예술·콘텐츠 수출과 긴밀히 연결되는 전략으로 확장됨

- 2010년대 국가브랜드 제고 정책은 국가발전 전략 방안의 일환으로써, 한류라는 시대적 조류와 문화산업을 수단으로 활용하며 협력이 강조된 국제문화교류 정책이 마련되었고, 시행 주체의 다각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됨¹⁰

- 2017년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에 따라, KOFICE가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18년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이 수립됐으며, 이후 코로나 19 등 팬데믹 상황을 반영한 2차 개정안이 발표됨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15개 시도 지자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가 제정됨

표 2-1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현황

법규명	제정일	소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2023-03-06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2018-01-11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2019-12-26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2019-10-31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산업과
경주시 국제문화교류관 관리 및 운영 규정(훈령)	2025-05-20	행정안전국 총무새마을과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2018-08-15	문화체육실 문화정책관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2022-10-11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	2018-10-05	문화예술관광국 문화예술과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2021-05-26	문화국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2019-09-26	문화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2018-11-12	문화체육관광국 한글문화도시과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2020-05-21	문화융성국 문화예술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2017-12-29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2019-05-3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2019-03-29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④ 디지털대전환·포용성 중심기(2020년대)

▪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대전환과 포용적 회복에 기반한 국제문화교류

• K-컬처 확산에 따른 국가 소프트파워 성장에 맞춰 국제사회의 선제적 협력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국제문화교류 전략 수립

- 2023년 「제2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23-2027)」이 수립되었으며 3대 추진전략으로 ▲K-컬처의 새로운 힘, 글로벌 솔루션 플랫폼 ▲미래세대 해외진출을 위한 기회의 창, K-컬처 ▲K-컬처가 이끄는 국제사회 연대와 성장을 설정함
-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에서 국제문화교류 분야의 주요정책은 ▲세계 무대 속 K-아트 ▲한국어·태권도·전통문화 세계확산 ▲글로벌 문화교류 확대로 국제사회 속 한류문화의 수요 반영과 국제사회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¹¹
- 현행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문화예술분야의 공연·전시에 한정되지 않고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 제작·유통까지 포괄하며, 이에 따라 국제문화교류의 범위가 수출과 성장을 지향하는 ‘민간-공공 협력 거버넌스’로 확장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KOFICE,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CAST)”

- 한류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및 한류 외연 확대를 위해 ‘한류 IP’와 중소기업을 일대일 매칭해 뷰티, 패션 등의 연관 산업에서 해외시장 타겟 상품 개발의 기회를 제공
- KOFICE가 IP를 연결하는 ‘IP 매칭형’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IP를 확보하는 ‘IP 자율형’으로 구분되며, 한류스타가 상품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공공-민간의 협력으로 개발부터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



자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표 2-2 국제문화교류의 제도·전략 차원에서 본 단계적 변화

구분	년도	주요 정책	주요 내용
도입기	~1990년	- 1971년 해외공보관 신설 - 1991년 한국국제교류재단 설립	- 전통예술 중심 문화외교 - 국가이미지 개선 및 국제행사의 도구적 국제문화교류
공공외교·소프트파워 결합기	2000년대	- 2005년 문화동반자 사업추진 - 2003년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설립	- 국제문화협력 추진 기반 확립 - 본격적인 문화교류 사업 실시 - 문화관련 다자 논의 참여(유네스코 총회 등)
문화예술산업·창조경제 융합기	2010년대	- 2017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 2018년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 일방향에서 쌍방향 협력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 위해 한류 활용 - 전담기관 지정 및 최초 국가계획 수립
디지털 전환·포용성 중심기	2020년~	- 2023년 「제2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 K-컬처 및 콘텐츠 기반 확대 - 신기술 활용 및 디지털 포용 강조 - 국제사회에서 선제적 역할 수행 - 민간-공공 협력 거버넌스

나. 국제문화교류의 변화 양상

① 전통적 국제문화교류

▪ 국가 및 공공 주도의 국제문화교류

• 초기 국제문화교류는 중앙주도 문화외교 차원 일방향 형태 중심으로 전개되며 외교관계 및 문화협력 협정에 근거한 전통예술 중심 해외파견 전시·공연 교환이 이뤄졌음

- 교류 주체가 외교·문화 부처, 해외문화원 등 국가·공공 부문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하향식(top-down) 구조의 성격이 두드러졌으며, 현지의 수요나 상호호혜적 관계 형성이 다소 미흡하였음
- 교류 내용은 공연예술, 전통문화 등 문화예술 영역이 주를 이루었으며, 우호관계 조성, 국가이미지 제고 등 상징적 효과 중심으로 추진됨



자료: 외교통상부(2004), 「2003년 외교백서」

그림 2-1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단 파견 50주년 기념 유럽순회 공연 및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

• 이후 유네스코 회원국으로서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과 국제사회 내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아래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한 정책적 변화가 나타남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 업무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48호(2008.11.13.)) 의거 향후 문화교류방향, 권역별 문화교류 중점사항을 제시한 2011~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계획을 수립하였음¹²

11 문화체육관광부(2025),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12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표 2-3 2011~2013년 국제문화교류 주요방향

구분	내용
문화교류 3대 원칙	(쌍방향 문화교류) 우리 문화사절단 파견 및 상대국 문화사절단 접수 동시진행 (상호주의) 파견국과 접수국간 교류비용에 대한 합의를 통해 상호주의 원칙하에 계획 수립 (선택과 집중) 특정 지역,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교류 및 홍보 실시
문화교류 3대 방향	(문화교류 다변화) 주요 선진국 외에 동·북유럽,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등 교류가 미흡했던 문화권과의 교류확대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 마련) 일방적 문화전파 형태 프로그램이 아닌 어울림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 수준을 높이는 문화협력 지향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기회) 국립단체의 창작역량 및 해외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우수민간단체 발굴 및 해외진출기회 활성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②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국제문화교류

▪ 다층 주제와 목적의 결합

• 문화산업, 문화다양성 담론이 확산되면서 국제문화교류는 단순한 행사나 홍보를 넘어 다층적인 주제와 목적을 결합하며 상호성 기반 쌍방향 교류로 확장됨

- 특히 2017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은 국제문화교류를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재위치시키며, 국제문화교류는 상호성에 기반한 관계 형성과 공동의 문화 경험 축적을 핵심 가치로 삼고, 공공외교·해외진출과 구별되는 고유한 정책 목적을 가지게 되었음

- 기본방향은 문화교류 콘텐츠의 다양화, 지역의 다변화, 쌍방향성 확대로,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가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문화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동유럽·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의 교류 지역 다변화로 일방적 문화전파 형식이 아닌 쌍방향적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것임¹³



그림 2-2 한-라오스 수교기념 및 순방 문화행사 및 아·태지역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자료: (상)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문화예술정책백서」,
(하)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문화예술정책백서」

- 또한 국내 문화예술 분야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교육 및 해외 파견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속 프로젝트 공모·선정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지속적 연계와 확장을 도모함

- UNESCO의 문화다양성,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국제적 논의를 반영하여, 문화권리, 포용, 연대와 같은 공공성이 교류의 주요 지향으로 통합되고 있음

- 2010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후 2017~2021년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 간 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며 유네스코, ASEF(아시아-유럽재단), IFACCA(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구연합) 등 문화예술 관련 국제기구에서 각국과 문화자원·역량을 교류 및 협력해 소통함¹⁴

- 2023년 6월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열린 제9차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3~2027년 아시아-태평양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유네스코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위원국 활동을 발판으로 삼아 유럽 내 K-컬처 확산을 지원하는 계기 마련¹⁵

13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문화예술정책백서」

14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문화예술정책백서」

15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 문화예술정책백서」

③ 글로벌 환경 재편과 대응 양상

▪ ‘대면 교류’의 진정성과 디지털의 역할 재정립

• 팬데믹 이후 비대면 교류가 ‘대안’으로 자리 잡는 것으로 보였으나, 현장에서는 오프라인으로 결국 회귀하며 문화교류의 본질이 사람 간의 만남과 공감에 있음을 방증함¹⁶

- 국제 공동 제작이나 협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기획자·창작자 간의 깊은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므로 대면 교류가 필수적임¹⁷

- 비대면 교류는 현장성의 부재와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 피로감 누적 등으로 인해 완전한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존재

- 즉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예술적 기교, 즉흥적 호흡, 현장의 분위기와 우연히 발생하는 아이디어의 확장 등 대면 교류는 디지털의 계획된 알고리즘이 줄 수 없는, 화면 너머로 주고받기 어려운 가치를 만들어 냄

• 디지털 전환을 대면의 완전한 대체가 아닌, 대면 교류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한 보완적·혼합형 교류 인프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불필요한 항공 이동을 줄여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서도 핵심단계(신뢰 형성, 현장 조율 등)는 대면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음

▪ 실질적 디지털 전환: 효율화와 확장의 도구

• 디지털 전환은 콘텐츠 자체의 디지털화보다 ‘교류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로 이동하며 사전 논의 등 기후위기 대응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효한 전략으로 작동함

- 본격적인 인력 파견 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미팅을 통해 아이디어 조율, 실현 가능성 논의를 실시하는 등 대면 교류의 시간적·공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디지털 협업 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공연과 전시는 현장에서 진행하되, 이를 고품질 영상화 혹은 라이브화를 통해 현장 방문이 어려운 해외 관객에게 ‘2차 유통’하는 ‘하이브리드 유통 모델’이 자리잡음

- 일회성으로 소멸되어 버릴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콘텐츠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최근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이 병행되고 있음

- 단일 장르의 공연·전시 중심에서 벗어나, 원천 IP를 웹툰, 게임, 메타버스 등 다양한 장르로 변주·확장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기반의 공동 제작이 활성화됨

• 결과적으로 디지털은 교류의 공간이기보다 교류를 성립시키는 운영 체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책도 인력과 예산 집행의 효율화 방향으로 정렬되는 추세임

16 UNESCO(2022), 「Re | Saping Policies for Creativity」

17 British Council(2022), 「Cultural Relations in a Digital Age(2021~2022)」

■ 기후행동 기반의 레지던시 : 주제에서 방식으로의 전환

- 물리적 거리 이동의 제한을 두는 대응을 넘어 기후 위기 최전선 국가와 예술가가 만나 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교류가 부상하고 있음
- ‘환경’을 주제로 한 단순 작품 전시를 넘어, 예술가가 환경단체나 관련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교류의 주체가 ‘생태적 책무성’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
 - 독일 외무부에서는 피지, 필리핀 등 기후 위기 대응에 취약한 20개국의 협약체(V20, Vulnerable 20) 내 주요 연구소와 협력하여 ‘기후행동 레지던시’를 운영하며, 독일 예술가를 파견하고 반대로 해당국 예술가를 독일 연구소로 초청해 각 3개월씩 공동 리서치를 수행하고 있음¹⁸
 - 영국문화원은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교류 지원금 심사 시 ‘기후변화 대응’ 및 ‘문화다양성’을 최우선 선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¹⁹
- ‘교류를 얼마나 했는가’보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 있게 했는가’로 평가 기준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며 향후 물리적 이동에 따른 탄소발생 관리, 지역사회 파트너십 등 책임 기반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지정학 및 안보 리스크 확대와 ‘리스크 기반 교류’

-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국제문화교류에서 협력의 대상과 방식, 거버넌스 재조정과 관계 구축을 넘어 리스크 관리(계약, 보험, 안전, 윤리 등)를 포함하는 추세임
 - 분쟁, 외교 갈등, 제재 환경, 비자·입국 규제, 안전 이슈 등은 교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이에 대응하여 파트너십 다변화, 지역 분산 등을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남

■ 문화다양성·포용성·윤리 기준의 제도화

- 국제문화교류는 가치 지향적 정책 의제인 ‘포용, 공정, 접근성, 다양성’과 결합되면서 단순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원·심사·평가 기준으로 제도화되는 추세임
- 단순 참여국 확대를 넘어, 문화예술계 내부의 소수자 배려, 지역 생태계 자립, 신진 창작자 기회 제공,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 기준으로 삼아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류의 질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Equity: the Arts and Disability Associated Plan’을 통해 장애인 예술가와 관객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함
 - 유럽의 ‘Europe Beyond Access’ 프로그램은 EU의 자금지원하에 2027년까지 장애 예술가를 위한 최대 규모의 국제 협력을 지속할 예정임

다. 패러다임 변화의 축

- 앞서 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전환, 기술 경쟁,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복합적 환경 변화는 국제문화교류의 기존 틀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문화교류는 단순 행사 중심의 교류를 넘어 교류를 실행하는 주체(Who), 내용 및 형태(What/How), 정책 목표(Why)라는 세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표 2-4 국제문화교류 패러다임 축 변화

구분	변화 축	주요 내용
주체 구조	단일 주체 → 다층 네트워크	- 국가 중심에서 공공·민간·지자체·국제기구가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 거버넌스로 재편 - 법·계획·조례·전담기관을 통해 협력 구조의 제도화
	국제적 협력 구조 확장	- AI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주권 및 창작 윤리 보호를 위해 국제적 협력 구조 마련
내용·형태	전통예술 중심 → 콘텐츠·플랫폼 결합 복합 구조	- 전통예술·단발성 행사에서 콘텐츠·플랫폼이 결합된 장기·복합형 프로그램과 온·오프라인 연계 교류로 확대 - 비대면 교류에서 현장 중심으로 회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과 아카이브 등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및 고밀도 교류	-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큐레이션 및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활용을 통한 교류 정밀도 제고
정책 목표	우호 이미지 → 소프트파워·브랜딩 → 포용·연대·지속가능	- 이미지·브랜딩 중심에서 문화다양성, SDGs 등 공공가치와 사회적 기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목표가 확장 - 환경, 지정학문제, 리스크 관리 등 국제사회 이슈 대응

① 주체 구조 변화

■ 단일주체(국가)에서 다층네트워크로

- 국제문화교류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심의 단일 구조에서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 중앙정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과 종합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문화교류 전담 기관 지정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문인력 양성 기능을 체계화하며 특히 중앙-지방-민간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주체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영역에서는 조례 제정과 자체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간 교류뿐 아니라 도시·지역까지 교류 단위가 다변화되며 국가 주도의 일방향 구조에서 다층적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에 기반한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18 Climate Action Artist Residencies Homepage(<https://www.climateactionartistresidencies.org/>)

19 British Council ‘Connections Through Culture’ Homepage(<https://arts.britishcouncil.org/projects/connections-through-culture-grants>)

▪ 디지털 환경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구조 확장

- 인공지능(AI)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창작자 권리 보장 모델 및 디지털 문화자산 보호를 위한 국가 간 정책 협력이 강조됨
- 단순 행정적 네트워크를 넘어 디지털 주권과 창작 윤리를 수호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 연대라는 새로운 주체 간 협력 층위 형성

② 내용·형태 변화

▪ 전통예술 중심에서 콘텐츠, 플랫폼 기반의 복합 구조로 전환

• 전통예술 중심의 단발성 행사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콘텐츠, 창조산업,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된 복합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한류의 흐름이 K-컬처로 확산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력 정책으로 등장하고 콘텐츠 산업 성장, 온라인 교류 확산 등이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회성 공연·전시 중심에서 레지던시, 공동제작, 문화 ODA 등 장기·연속형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음
- 오프라인 중심 교류는 디지털 협업 도구, 플랫폼 기반 등 비대면·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문화교류가 국제사회 의제와 연계되면서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형 사업이 증가하면서 문화행사 제공을 넘어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복합적 정책 수단으로 발전함

▪ 대면-디지털 방식 재편

• 팬데믹 시기 비대면 교류가 확산되었으나, 이후 현장은 다시 대면 중심으로 회귀하며 국제문화교류의 본질이 사람 간 만남과 공감, 현장 경험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있음

- 디지털 전환은 교류 자체의 대체가 아니라, 사전 조율과 아카이빙, 2차 유통 등 교류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접근성 확대를 위한 보완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

▪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및 고밀도 교류

• 최근에는 AI와 인간의 창의성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관점의 실험적 창작과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된 큐레이션이 도입되면서 교류의 정밀도가 고도화되는 추세임

- AI를 활용해 개인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교류 콘텐츠를 제공하며, 국가 간 대형 이벤트보다 ‘소규모·고밀도 체험형 교류’가 등장

③ 정책 목표 변화

▪ 우호 이미지 → 소프트파워·브랜딩 → 포용·연대

• 국제문화교류의 정책 목표는 ‘우호 이미지·국가 위상 제고 → 소프트파워·국가브랜딩 → 포용·연대·지속가능 발전’으로 단계적으로 확장됨

- 초기에는 외교 환경 속에서 우호적 관계 형성과 국가 이미지 제고가 국제문화교류의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으나, 이후 소프트파워와 국가브랜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국가브랜딩과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이 중요한 목표로 부상함

- 최근에는 문화다양성, 문화권리, 포용·연대, SDGs 등 글로벌 아젠다가 부각되면서, 상호 이해와 공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정책 목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 규범의 변화와 국내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정책 목표 변화는 국제문화교류가 단순한 이미지 제고 수단을 넘어, 포용과 연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포괄적 문화정책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함

▪ 기후행동·포용성 기반 교류

• 기후위기, 지정학·안보 리스크, 문화다양성 담론이 결합되면서 기후행동과 책임성을 교류의 주제가 아니라 방식 자체에서 구현하려는 레지던시·공동 리서치 등이 확대되고 있음

- 교류의 양적 기준보다 기후환경 대응, 리스크 관리, 소수자·장애·지역·신진 예술가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보상 등 포용성과 윤리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라. 담론 및 현장 리포트를 통해 본 최근의 교류 현황

① ‘국제문화교류’ 키워드 뉴스 빅데이터 흐름 파악 개요

▪ 언론 담론에 나타난 국제문화교류의 주요 이슈 변화의 구조적 변화 분석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국제문화교류’를 키워드로 언론 보도의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함

- 분석 시점은 2022년과 2025년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여, 코로나 회복 국면에서 국제문화교류 담론의 변화 양상을 살피고자 함
- 키워드 빈도 분석과 함께 관계도 분석을 병행하여 단순 노출 빈도를 넘어 정책 주체, 실행 방식, 공간적 범위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해석하였음

▪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통한 거시 동향 파악

• 본 분석은 뉴스 보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실제 현장의 미시적인 교류 활동보다는 정부 보도자료 중심의 거시적 활동이 과잉 대표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님

- 따라서 수치상의 빈도보다는 키워드 간의 관계망 변화를 통해 공공주도에서 민간 및 실행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둠

• 빅카인즈 누리집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에는 ‘국제문화교류’ 키워드를 포함한 뉴스 보도 건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특정 시기에 집중된 보도로 인해 보편적 흐름을 완벽히 분석하기엔 한계가 있음

② 주요 내용

가. 2022년 국제문화교류 담론의 주요 특징

- 중앙·공공기관 중심의 제도적 담론 및 하향식 정책 집행과 국가 브랜딩 행사에 집중됨

• 관계도 분석 결과 '대통령', '국무총리', '공무원', '위원장', '공공기관'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남

- 이는 국제문화교류가 정부 주도하에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원회’, 공공기관, 행정 담당자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나, 행정 및 운영 주체가 상대적으로 강조됨

• '세계박람회', '포럼', '특별전', '설명회' 등 이벤트성 키워드가 다수 연결되어 나타남

- 특정 시점에 집중된 이벤트형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확인되며 이러한 키워드들은 대부분 공공 기관 주도의 교류 형태로 문화적 실험이나 공동 제작형 교류보다 정책 홍보, 국가 이미지 제고에 무게가 실려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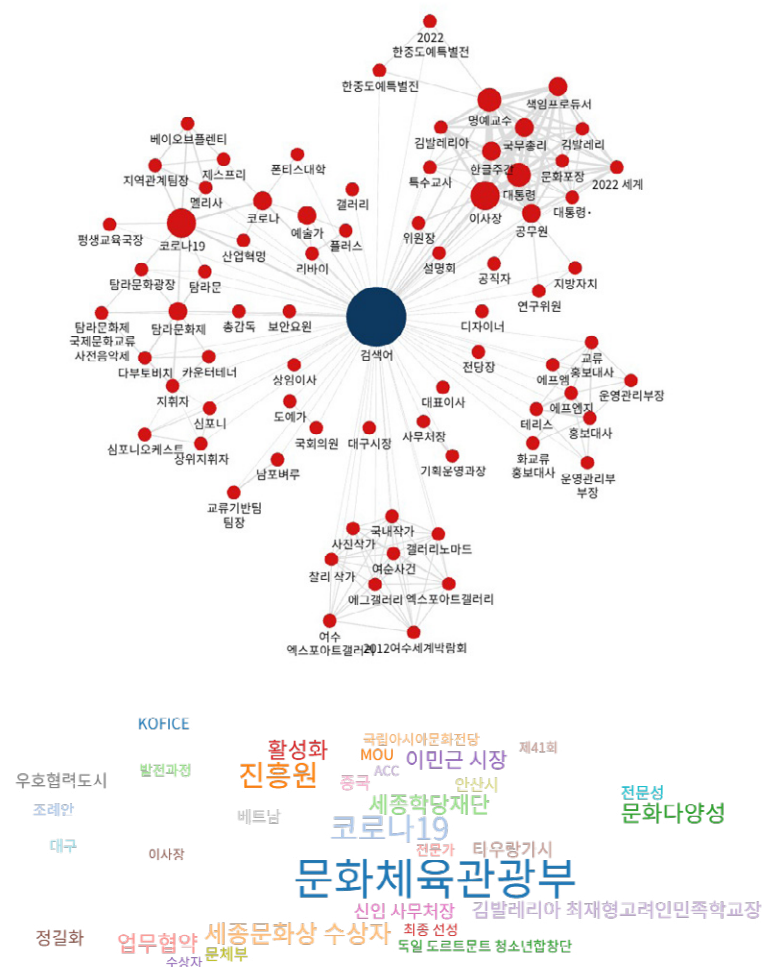


그림 2-3 2022년도 국제문화교류 관계도 분석 및 연관어 분석

자료: 빅카인즈 누리집(<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나. 2025년 국제문화교류 담론의 주요 특징

- **창작자, 실행 주체 중심의 실질적 교류 담론으로의 전환**

• 2025년 관계도 분석 결과 ‘대통령’, ‘공무원’ 등의 행정이 키워드가 이전보다 더 외곽으로 밀려나고, ‘연출가’, ‘예술가’, ‘청년예술가’, ‘입주작가’, ‘예술감독’ 등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

- 이는 국제문화교류의 담론이 행정적 절차나 지원 제도 중심에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교류하는 핵심 주체들로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줌

- 미래지향적 가치와 구체적 협력 의제 등장

- 기존 행사명에서 '인공지능', '지속가능', 'MOU', '해외 진출' 등 키워드가 등장하며, 기술 융합이나 산업적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국제문화교류가 단순 행사 차원을 넘어, 계약 및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콘텐츠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함

- 즉, 국내 문화예술의 실질적인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이 주요 의제로 부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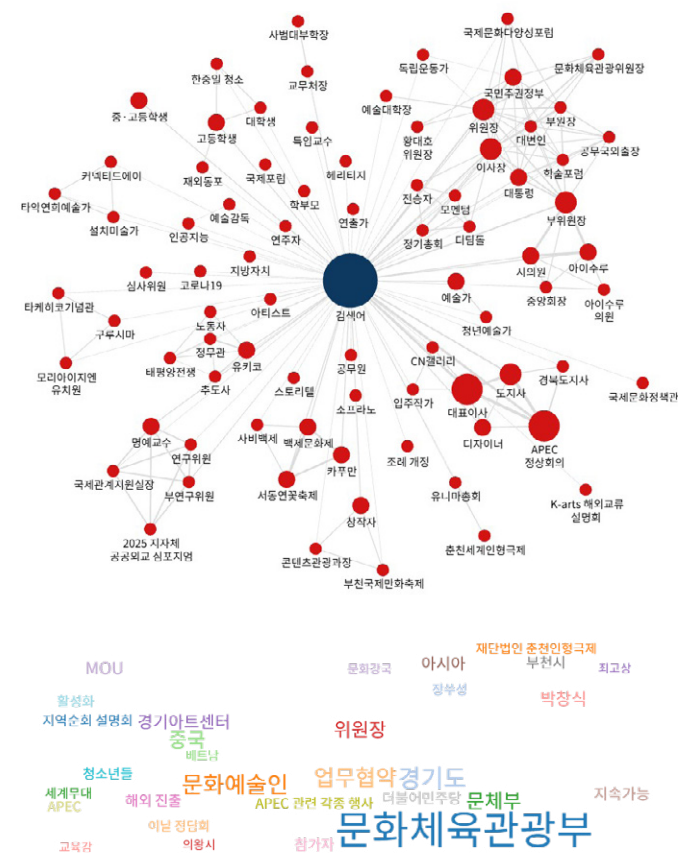


그림 2-4 2025년도 국제문화교류 관계도 분석 및 연관어 분석

자료: 빅카인즈 누리집(<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① ‘국제문화교류’ 키워드 해외통신원 흐름 파악 개요

▪ 범사회적 환경 변화와 현장의 담론을 포착하기 위한 탐색적 도구로 분석 실시

- 본 분석은 제목에 '문화교류' 키워드가 포함된 리포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범위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힘
 - 리포트의 제목, 국가, 등록일 등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본문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은 포함하지 않음
 - 특정 국가(캐나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2023년 8건 중 6건, 2024년 12건 중 5건) 나타났는데, 이는 '2024-2025 한-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의 영향으로 정책적 우선순위, 현지 통신원의 취재 환경, 양국 간 자발적 교류 활성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당해 연도 KOFICE 해외통신원 선발 국가 확대, 신규 통신원 채용, 혹은 '상호문화교류의 해'와 같은 기관의 정책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본 리포트 흐름 파악은 전 세계 문화교류의 보편적 통계로 해석하기보다, KOFICE의 해외통신원 사업 속에서 포착된 현장 담론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도구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② KOFICE 해외 통신원 리포트 ‘문화교류’ 키워드 분석(2023~2025년) 파악 주요 내용

- KOFICE의 데일리 발행 통신원 리포트를 최근 3년 동안(2023년 2월~2025년 12월)의 내용을 연도별로 재분류하여 문화교류 주요 이슈와 변화를 분석함
 - 2023년은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양자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다양한 예술장르에 대한 탐색이 진행됨
 - 2024년에는 문화교류 정책·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비를 통해 문화교류 대상국 및 지역이 다변화하며, 문화교류의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2025년에는 다자·지역협력을 통한 문화교류 생태계 구축 등 네트워크의 확대 측면에서 동아시아 역내 다자 간 문화교류가 활성화되며 특히 개인창작자 교류 생태계가 형성됨

가. 2023년 문화교류 리포트 주요 키워드

▪ 양자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역사적 맥락에서의 문화교류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짐

- 캐나다는 조선후기 책거리(2023. 12. 18.), 뉴미디어 아트(2023. 10. 04.), 포용적 예술(2023. 09. 19.), 한국 도자기(2023.04.07) 등 전통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한 문화교류가 진행됨
- 베트남에서는 교육기관 중심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됐으며, 특히 호치민시한국교육원(2023. 12. 28) 운영과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족 문화교류의 밤'(2023. 12. 28) 개최 등을 통해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와의 교류에 대한 관심이 나타남
- 이처럼 국가 간 일대일 방식의 문화교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교류'의 키워드 '한국문화'(2023. 09. 18), '한국 도자기로 열어가는 문화교류'(2023. 04. 07) 등 관련 보도에서 나타나듯 한국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교류의 방향성이 주로 논의됨

표 2-5 2023년 '문화교류' 키워드 리포트(2023.2.~2023.12.)

등록일	국가	리포트 제목
2023-02-26	캐나다	한국 도자기로 열어가는 문화교류
2023-04-07		문화교류의 키워드 '한국문화'
2023-09-18		포용적 예술로 한국 캐나다 문화교류가 확장되다
2023-09-19		뉴미디어 아트로 열어가는 문화교류
2023-10-04		[문화정책/이슈]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캐나다 공연, 양국의 문화교류를 든든히 하다
2023-10-19	베트남	조선후기 책거리를 통한 문화교류
2023-12-18		2023년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족 문화교류의 밤
2023-12-28		베트남 국제문화교류의 중심, 대한민국 교육부 부설 호치민시한국교육원

나. 2024년 문화교류 리포트 주요 키워드

▪ 지역 다변화와 함께 정책적·제도적 문화교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

- 총 12건의 리포트가 발행되었으며, 캐나다(5건) 외에도 이탈리아(3건), 몽골(2건), 싱가포르, 미얀마, 스페인, 일본 등으로 대상 국가가 크게 다변화됨
- 2024년에는 '상호문화교류(Mutual Cultural Exchange)' 빈도가 높아지며 '쌍방향' 교류를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문화교류의 공간적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관찰됨
 - 한일 문화교류의 관광 거점, 요나고 기타로 공항(2024. 07. 31), 2024 한서문화교류한마당(스페인, 2024. 11. 29)과 같이 문화교류가 관광, 지역 개발 등과 결합

표 2-6 2024년 '문화교류' 키워드 리포트(2024.1.~2024.12.)

등록일	국가	리포트 제목
2024-03-28	몽골	[문화정책/이슈] 울란바토르 시립중앙도서관 조성사업과 한-몽 문화교류
2024-04-28	미얀마	미얀마 방문한 'K문화교류단'
2024-04-30	싱가포르	[언론분석] 아이유의 월드투어 '헤레(HEREH)'와 한-싱 문화교류
2024-05-22	이탈리아	[문화정책/이슈]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2024-2025 상호문화교류의 해' 개막 공연
2024-05-25		갓과 단테의 만남: '2024-2025 상호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발표
2024-06-30	캐나다	[문화정책/이슈]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선언한 한국과 캐나다
2024-07-26		[인터뷰] 캐나다와 한국을 잇는 문화교류의 가고 - 김예원 씨의 이야기
2024-07-31	일본(오사카)	[문화정책/이슈] 한일 문화교류의 관광 거점, 요나고 기타로 공항(Yonago Kitaro Airport)
2024-08-31	캐나다	[문화정책/이슈] 캐나다와 한국의 문화교류 ROM에서 새롭게 조명되다: 한국 전시의 새로운 장을 여는 권성연 큐레이터
2024-09-18		[문화정책/이슈] 제49회 토론토 국제 영화제 - 한국 영화의 빛나는 참여와 문화교류
2024-11-29	스페인	2024 한서문화교류한마당
2024-12-22	몽골	[인터뷰] 뮤지컬 공동제작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교류로 나아가다

다. 2025년 문화교류 리포트 주요 키워드

- 교류 대상국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의 비중이 확대됨과 동시에, 창작 생태계 중심 협력을 통한 문화교류의 관심이 증가함
 - 총 12건의 리포트 중 동남아시아 국가(인도네시아 3건, 베트남 2건, 필리핀 1건)가 절반에 해당함
 - 양자 문화교류 측면에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문화교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 보이며, 질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증가함
 - ‘문화교류로 더욱 돈독해지는 한-필 전략적 동반자 관계’(2025. 11. 09), 한-베 청년학술대회(2025. 12. 08)처럼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였으며, 이탈리아와의 상호문화교류의 해 로고 디자이너 인터뷰(2025. 01. 17)처럼 문화 상징과 브랜딩도 진행됨
- ‘공연예술’과 ‘전통문화’가 문화교류의 주요 채널로 부상함
 - ‘2025 한·베 음악콘서트 하노이를 감동시킨 문화교류의 무대’(2025. 10. 15), ‘한국-인도네시아 문화교류 매개체로서의 인형 문화’(2025. 01. 09), 진주실크등(2025. 09. 23), 인형 문화(2025. 01. 09) 등을 보듯이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교류 확산

표 2-7 2025년 '문화교류' 키워드 리포트(2025.1.~2025.12.)

등록일	국가	리포트 제목
2025-01-09	인도네시아	한국-인도네시아 문화교류 매개체로서의 인형 문화
2025-01-17	이탈리아	[인터뷰]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로고 디자이너 안드레아 베세라(Andrea Vecera)
2025-03-27	인도네시아	문화교류 지평 확대하는 한국인 크리에이터
2025-06-20	캐나다	[문화정책/이슈] 캐나다와 한국, 공공 영화와 창의 교육 통한 문화교류 확대
2025-09-23	인도네시아	진주실크등, 문화교류의 미래를 제시하다
2025-10-15	베트남	2025 한·베 음악콘서트 하노이를 감동시킨 문화교류의 무대
2025-11-09	필리핀	문화교류로 더욱 돈독해지는 한-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25-11-26	중국(북경)	[문화정책/이슈] 동방 고판화의 세계, 북경에서 만난 동아시아 시각문화교류의 장
2025-12-08	베트남	[한국-베트남 청년 학술대회] 양국의 문화교류와 정체성의 재발견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예술산업 개념

02

1. 국제문화교류 국내외 개념 및 확장

가. 국제문화교류의 정의

① 법제도적 정의

- 법령 및 국가계획에서의 국제문화교류의 정의
 - 2017년 제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기존의 「문화기본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에 기초를 두고 있던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제도적 기반의 근거가 된 법임
 - 한국문화 홍보와 국가 위상 제고 중심에서 출발해 점차 예술가 창작역량 강화, 작품 교류·유통 등으로 확장되는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사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됨
 - 즉,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법적 근거 아래 통합·지원하고, 국제문화교류를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격상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16개의 조문과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과 정의를 비롯하여 종합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해당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란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함)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 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함

표 2-8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제5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9.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연수 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문화교류 진흥 정책 기반 및 추진체계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1차(2018~2022), 2차(2023~2027))」이 수립되며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기본방향, 전략 및 세부과제가 추진됨

- 제1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로 기존 지원기관과의 역할중복과 협력 부족 상향의 지원 추진체계와 교류 대상 국가의 다양화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음

- 제2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전 세계로 통하는 독보적 매력의 K-컬처, 글로벌 시민과 동행하는 문화 솔루션 플랫폼’으로 1차 계획 이후 국제사회에서 교류 협력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공공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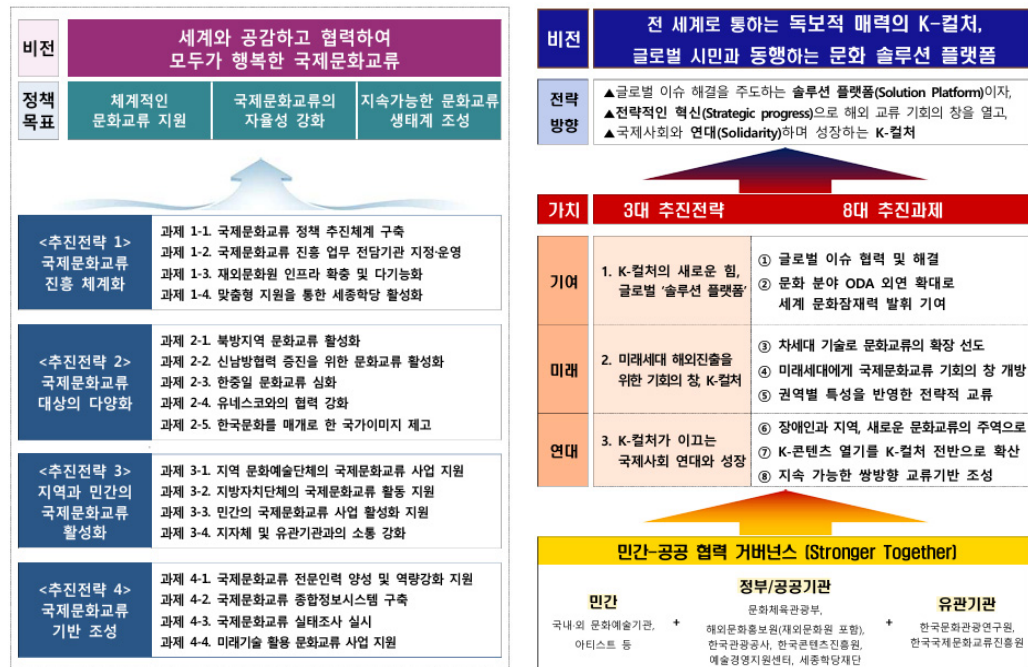


그림 2-5 국제문화교류 진흥 기본계획

자료: (좌)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우) 문화체육관광부(2023), 「제2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 2018년에는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이 지정되었음

- 기존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前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후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및 개편함

- 주요역할은 (매개기능) 국내외 문화교류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제공 기능, (연구기능)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 정책 연구 및 개발, (집행기능)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문화 ODA 사업, 수교 등 주요 계기 국제문화교류 행사 지원 등이 있음

해 외	재외문화원 (재외교류 거점)	세종학당 (재외교류 거점)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사무소	관광공사 해외지사
	27개국 32개소	54개국 171개소	5개국 6개소	4개국 4개소	2개국 2개소	22개국 32개소

① 주재국 현지 정보제공

② 활동상황 공유 및 건의

↓

① 국제문화교류 전략도출 및 조정

② 기반조정 및 협업사업 발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매개·연구·집행)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기획·총괄)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자문기구)

유관·협력기관

세종학당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회원회, 코트라, 한식진흥원 등

그림 2-6 국제문화교류 지원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문화교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 후, 4가지 전략 및 8가지 핵심과제를 담은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함

• 국제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우수한 문화적 역량을 토대로 전 세계적 한국문화에 대한관심증가를 활용, 정책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국제문화정책 개편추진'으로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및 타 산업 유관분야 협업의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아울러 전 세계에 있는 재외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이 K-컬처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소규모 행사들을 통합해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콘텐츠 번역 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의 과제가 포함돼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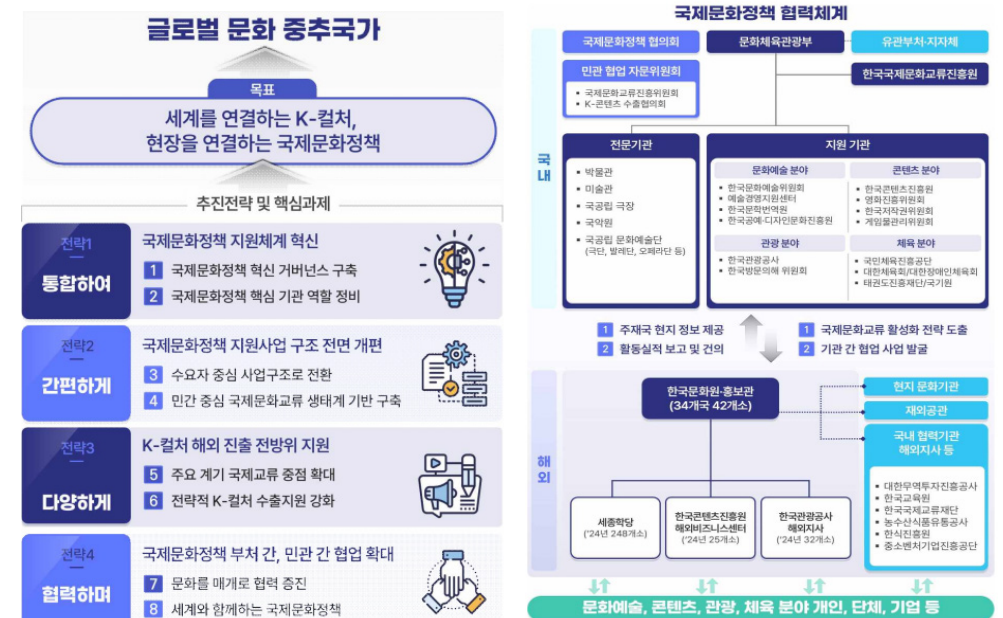


그림 2-7 (좌)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우)국제문화정책 협력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4),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표 2-9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전략	세부 과제
전략1 국제문화정책 지원체계 혁신	1-1. 국제문화정책 혁신 거버넌스 구축
	1-1-1. 국제문화정책 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
	1-2. 국제문화교류 핵심 기관 정비
	1-2-1. 문화원 기능·조직 재정립
	1-2-2. 문화원 프로그램 다양화, 참여범위 확대, 고품질화
	1-2-3. 세종학당 연계 문화프로그램 제공
	1-2-4.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전담기관 지위 확립
전략2 국제문화정책 지원사업 구조 전면 개편	2-1. 수요자 중심 사업구조로 전환
	2-1-1. 문화예술 민간국제교류활동 공모제도 재설계
	2-1-2. 민간·지역 예술인·단체 국제교류 기회 확대
	2-1-3. 주요 국제교류 사업 브랜드화
	2-2. 민간 기반 국제문화교류 생태계 구축
	2-2-1. 국제문화교류 전문 교육기관 개설 추진
	2-2-2. 문화원 및 해외 주요기관 인력 파견 확대
	2-2-3. 대학 협업 예비인재 양성
전략3 K-컬처 해외 진출 전방위 지원	3-1. 주요 계기 국제교류 중점 확대
	3-1-1. 코리아시즌 확대 개최
	3-2. 전략적 K-컬처 수출지원 강화
	3-2-1. K-컬처 해외 진출 분야 다각화
	3-2-2. 한류 콘텐츠 신시장 개척
전략4 국제문화교류 부처 간, 민관 간 협업 확대	3-2-3. K-컬처 수출 기반 마련
	4-1. 문화를 매개로 협력 증진
	4-1-1. 부처 간 협업으로 콘텐츠, 연관 산업 지원
	4-1-2. 부처 간 협업으로 K-컬처 홍보망 확대
	4-1-3. 문화원 자체시설 정보 제공
	4-2. 세계와 함께하는 국제문화정책
	4-2-1. 한류 축제, 국제포럼, 국제문화교류주간 개최
	4-2-2. 한류 수용성 제고
	4-2-3. 양방향 교류 촉진
	4-2-4. 수요 맞춤형 문화 ODA

※ 동 추진 일정은 추후 예산 반영 등 관계 부처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일부 변동 가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4),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데이터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류 대상국 및 지역을 넓히는 등 국제문화교류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음

- 2025년 단행된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국제문화교류 기능을 거시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한 ‘문화미디어산업실’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과거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중심의 홍보·외교적 접근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자산과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저작권 보호 체계를 하나의 가치사슬로 묶어 ‘문화산업의 글로벌 확산과 국익 창출’을 전면 지향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반영이며, 기존의 국제문화교류 기능 역시 이러한 산업적·종합적 거버넌스 체제 내로 흡수 및 고도화 재편되었음
- 재외문화원과 세종학당 등을 중심으로 K-컬처에 대한 수요와 교류를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와 공간적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 홍보 콘텐츠의 확산력을 제고하고 있음

① (코리아센터) K-컬처 유관기관 해외지사 집적화, ② (플래그십스토어) K-컬처 전시+체험+판매 공간, ③ (세종학당) 폭발적인 한국어 수요에 대응해 세종학당 확대,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AI) 활용 ‘i-세종학당’ 구축, ④ (가칭 K-시티) K-컬처를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공간 조성 구상 중²⁰

② 국제기구 및 국외에서의 정의

▪ 유네스코(UNESCO)의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및 문화간 대화와 문화다양성

- 유네스코는 1966년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을 통해 국제문화교류는 단순 사업이 아닌 인류 공동의 문화권리 및 책임의 관점으로 연결하고 있음
- 제3조에서 “국제 문화협력 원칙은 교육, 과학, 문화에 관련된 모든 지적, 창조적 활동을 포괄한다”라고 규정하며 협력의 범위를 공연·예술·학문·교육 등 넓은 문화·지적 영역 전체로 설정함
- 나아가 제5조에서 문화협력을 모든 민족·국가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면서 지식·기술·예술을 서로 나누는 것이 인류 공동의 책무라고 선언하고 있음

표 2-10 유네스코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제4조

제4조 양자간, 다자간, 지역간, 세계적인 다양한 형태로의 국제 문화협력 원칙의 선언목적은:
1. 지식의 보급, 재능의 촉진 및 문화의 증진
2. 국민들간의 평화적 관계 및 우호의 발전, 서로의 생활방식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의 산출
3. 유엔헌장의 원칙 적용에 대한 기여
4.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국민들의 예술, 문화의 향유,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뤄지는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의 공유, 문화생활의 증진 등을 가능케 하는 것
5. 세계 모든 지역사람들의 정신적, 물질적 수준의 향상에 있다.

• 또한 문화 간 대화(Intercultural Dialogue)와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통해 국제문화교류의 중점내용과 지향점을 설명하고 있음

- 유네스코는 문화 간 대화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과 집단이 상호 존중과 공감, 관점 전환의 의지를 바탕으로 의미 있게 소통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이를 통해 평화·인권·사회적 포용·문화다양성을 증진에 기초한다고 봄²¹

20 문화체육관광부(2025),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21 UNESCO (https://www.unesco.org/en/interculturaldialogue)

- 특히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 이후, 문화 간 대화와 문화교류는 모든 문화의 동등한 존엄성을 전제로 한 공정한 교류와 상호 풍요화의 과정으로 이해되며, 유네스코 중기전략에서는 포용적·평화로운 사회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수단으로 위치하고 있음

▪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입각한 국제문화교류

•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논의에서는 문화교류·문화 간 대화가 교육, 도시와 공동체, 평화 등 목표와 연결된 글로벌 시민성,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강조함²²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문화다양성 존중, 인권·기본적 자유 존중, 포용·평화·비차별, 장기적 파트너십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면서 유네스코와 같은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음

▪ 국가별 문화외교 및 국제문화교류 지칭

• 국제문화교류의 개념은 국가별 언어와 문화,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가지며 문화외교, 국제문화협력, 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정책 등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음

- 위조미어스키 외(Wyszomirski, Burgess & Peila, 2003)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국제문화교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정책상 문화외교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련 법안 및 문서상에서는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s)도 교차 사용하는 것이 확인됨²³

- 반면, 유럽 국가 및 대영제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국가(예: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에서는 국제문화정책(ICP) 또는 국제문화협력(ICR)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²⁴

표 2-11 국가별 국제문화교류 용어 활용 및 운영 특성 비교

국가	용어	담당부처	전담기관	주요정책방향	비고
프랑스	문화외교	유럽·외교부 문화부	프랑스 문화원	· 프랑스 창의문화산업(CCI) 홍보 · 문화다양성(인적교류) · 불어권 네트워크 활동 확산	중앙집중형 외교부와 문화부 공동 예산 조달
미국	문화외교	국무부 교육문화국	-	· 외교 및 국익 중심 (국제관계 대응) · 민주주의 확산, 문화다양성 · 허위정보 대응 등	스미소니언 협회 (문화유산 중심) 및 NEA 등과 간헐적 협력
독일	문화협력 대외문화정책	외교부	독일 문화원	· 독일어 확산 · 국제문화협력 프로그램 운영 · 문화 사회 정치적 일상을 동반한 복합적 독일 이미지 확산	중간조직(Mittler) 성격의 문화원 문화의 정치적 활용에 대한 현장의 민감함 인식 및 반영
영국	문화협력	외교부	영국 문화원	· 영향력 있는 후세대 리더십 집중 · 예술 문화 교육 영어 활용 ·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형성	정치로부터 ‘팔길이원칙’ 해외 현장에서 장기적 신뢰 형성
일본	국제문화교류	외교부	일본 국제교류 기금	· 일본-국제사회 간 우호 관계와 연대 조성 · 일본어 확산 · 아시아지역 문화교류센터 설립 운영 · 학술 및 인적 교류	문화청(MEXT) 산하 문화청 (Agency for Cultural Affairs)에서 문화예술교류 지식재산 보호 등 실행

자료: 신혜선, 조효정(2023), 「대외문화정책 담론의 변천과 국가별 용어 활용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 국제문화교류의 개념 고찰」, 『문화예술경영학연구』, pp.65-95.재인용

22 UN (<https://www.un.org/en/academic-impact/cross-cultural-collaboration-achieve-sdgs>)

23 신혜선, 조효정(2023), 「대외문화정책 담론의 변천과 국가 상황에 맞춰 국가적 대응을 옹호하는 한국별 국제문화교류의 개념 고찰」, 『문화예술경영학연구』, pp.65-95.

24 신혜선, 조효정(2023), 「대외문화정책 담론의 변천과 국가 상황에 맞춰 국가적 대응을 옹호하는 한국별 국제문화교류의 개념 고찰」, 『문화예술경영학연구』, pp.65-95.

③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와의 관계

▪ 상호성 기반 관계형성 중심의 국제문화교류

• 국제문화교류는 문화외교·공공외교·해외진출과 일부 행정 영역이 중첩되나 단방향 홍보 혹은 시장 개척보다 상호성에 기반한 관계 형성과 공동의 문화 경험을 중시함

- 반면 문화외교·공공외교는 외교 목표를 최우선에 두는 대외 전략으로 해외진출·수출은 시장수익을 1차 목표로 하는 산업·경제 전략이라는 점에서 개념적, 구조적 차이가 있음

• 초기 문화교류는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었으나 2017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이후로 정밀한 개념과 범주 분류가 이뤄지면서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국가 간 상호 이해 및 협력을 통해 문화 자체의 발전을 우선적 목적으로 추진됨

- 따라서 국제문화교류는 국익 증진을 위해 문화를 외교적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이 아닌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해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문화 경험 축적을 목적으로 함

표 2-12 국제문화교류 vs 문화외교 vs 공공외교 비교분석

용어구분	국제문화교류	문화외교	공공외교
주체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개인	정부기관 및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	정부기관 및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
목표	문화 자체의 발전 및 문화 간 이해와 대화 추구,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이해관계 추구	정치적, 경제적 국익 증진, 국가 이미지 제고	국가 이미지 제고, 상호이해라는 과도기적 목표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국익 증진
대상	상대국 일반 국민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	상대국 정부, 상대국 일반 국민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	상대국 일반 국민
성과지표	과정 중심	결과 중심	결과 중심
사업형식	쌍방향 교류 중심	쌍방향의 교류도 있으나 일방적 홍보 및 선전형식도 포함	쌍방향의 교류도 있으나 일방적 홍보 및 선전형식도 포함
사업내용	문화예술	문화예술	문화예술에 국한되지 않음
국가승인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 사이에도 민간기관들 통해 지속적 교류 가능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들 사이의 양자 협약 또는 다자 간 협약에 의해 체결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들 사이의 양자 협약에 의해 이루어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 외교부 공공외교 및 문화를 통한 공공외교

• 2016년에 제정된 「공공외교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공공외교를 추진함

- 「공공외교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함

표 2-13 「공공외교법」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6-2030)」은 ‘국민과 함께 K-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성장과 평화에 기여’ 비전 아래, ①K-이니셔티브를 통한 국익 증진 ②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③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 등 3개 목표를 담음

-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융복합 공공외교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재외공관 중심 협업 강화, 국민의 공공외교 직접 참여 기회 확대를 제시함

- 문화를 통한 공공외교는 ‘한국주간행사’, ‘주요외교계기 기념행사’, ‘재외공관 문화 전시장화 사업’, ‘스포츠 공공외교’, ‘문화공동위 및 문화협정’, ‘해외주요 박물관, 미술관 한국어 오디오가이드 확대 사업’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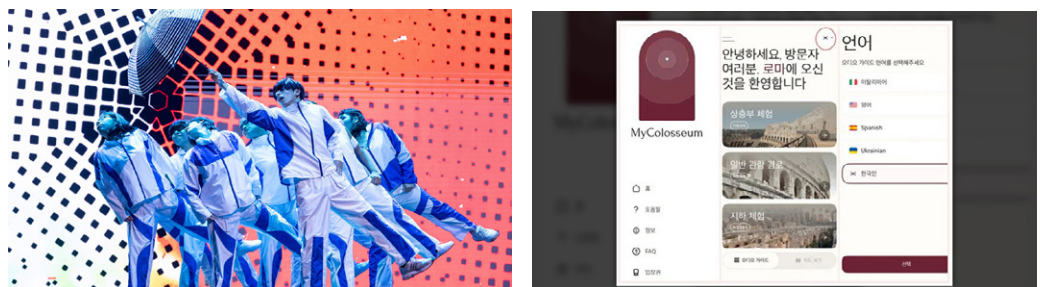


그림 2-8 외교부 공공외교(문화) 공연 및 오디오 사업

자료: 외교부(<https://www.mofa.go.kr>)

▪ 외교부 공적개발원조(ODA)사업

•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국제기구 협력에 따라 정부는 크게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협력으로 나누어 이원화 된 형태로 ODA 추진 및 지원 중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 간 개발협력을 말함

표 2-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5.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이란 이자율·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 국제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6.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의 비전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으로 ①포용적 ODA, ②상생하는 ODA, ③ 혁신적 ODA, ④ 함께하는 ODA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함

• **현행 ODA 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기반으로 ‘총괄·조정기관 - 주관기관 - 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이뤄져 있음**

- 시행기관은 수출입은행(EDCF)·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으로 2024년 기준 총 46개 시행기관이 1,976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²⁵



자료: ODA통합누리집, (<https://odakorea.go.kr>)

그림 2-9 ODA 추진체계

•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의 주도로 지속 가능개발목표(SDGs) 달성과 상생협력 ODA를 추진함**

- ODA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며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최빈개도국 및 저중소득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의 총 ODA는 2024년 기준 39억 달러(잠정치)로, 국민총소득(GNI)의 0.21%에 해당함²⁶

- 우리나라 ODA 주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사업은 경제·보건분야의 비중이 높고 문화분야의 규모는 비교적 적은 편이나, 박물관 건립,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등 문화 ODA를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K-컬처를 연계한 문화 ODA를 확대하고 있음

* 개도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경제발전을 위해 수원국 문화콘텐츠를 토대로 현지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추진(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광융합교육센터 건립 등)²⁷

•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협력의 디지털 문화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 등 융합형 문화 분야 ODA가 추진되고 있음**

25 ODA 통합누리집(<https://odakorea.go.kr>)

26 OECD(https://www.oecd.org/en/publications/development-co-operation-profiles_04b376d7-en/korea_d358baed-en.)

27 관계부처 합동(202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2. 문화예술산업의 개념 및 정의

가. 주요 법령에 따른 개념 및 정의

▪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정의 및 범위**

• **문화예술의 범위는 전통예술부터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며 ‘창의성과 표현활동 자체’뿐 아니라 ‘그 결과물’도 문화예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음**

- 이는 문화예술의 정의가 ‘활동’과 ‘결과물’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창작물의 유통·활용·재해석 과정도 문화예술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문화산업은 ‘업으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예술과 산업의 결합한 개념이며, 여기에 문화예술 용품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는 점은 콘텐츠 외형·상품화 가능성을 내포함**

- 결과물의 산업화뿐 아니라, 예술과 관련된 소비재(굿즈, 디자인 상품 등)도 문화산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문화산업’의 정의에서 ‘문화예술의 창작물’을 언급하며 창작활동과 그 산업적 활용 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은 상호 분리가 아닌 연속적 개념으로 볼 수 있음**

표 2-15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정의

구분	내용
문화예술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문화산업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상 ‘문화산업’ 및 ‘콘텐츠’의 정의 및 범위**

• **문화산업의 정의는 단순 창작에서 끝나지 않고, 유통·소비·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산업 구조’를 전제로 함**

- 산업 범주에 예술성과 상업성을 함께 포괄하는 ‘융합형 산업군’임을 명시하며 공연, 미술품, 전통을 활용한 생활디자인 제품까지 포함되고, 문화예술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다양한 방식과 층위를 반영함

- 디지털·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 동시대 콘텐츠 환경에 맞춰 그 범주를 확대하여 멀티미디어, 모바일 콘텐츠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콘텐츠 산업 변화 흐름을 법령 수준에서 포괄함

나. 법령상의 개념들이 갖는 한계점

▪ **현행 법률 간의 개념적 차이와 광범위한 중첩 문제**

• **‘문화예술’, ‘문화산업’, ‘콘텐츠’,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가 부분적인 중복과 사용 목적 혹은 적용 대상의 불일치로 정책 적용의 혼선과 해석상의 모호성을 유발함**

- 가령, 공연, 애니메이션, 미술품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 활동의 결과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는 산업의 일부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콘텐츠 또는 그 산업으로 중복 규정됨

• **용어의 범주와 규정이 정책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의되고 있어, 예술성과 산업성, 창작과 유통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반해 법적 분류체계는 여전히 이원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기술발전과 장르 융합 흐름에 대응하는 유연한 법적 분류체계의 미비**

- 현실의 콘텐츠·예술 산업은 장르 간 융복합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법령은 여전히 산업별 분절적 구분이나 전통 중심 개념에 머물러 있음

-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메타버스 기반 퍼포먼스, 실시간 스트리밍 기반 공연 등은 법상 문화예술, 콘텐츠 등의 개념 어디에도 명확히 포함되지 않거나 이중 적용됨

- 이는 새로운 형식의 창작이나 유통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등의 제도적 기준 마련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음

▪ **콘텐츠 개념의 정보 중심 정의는 창작·예술 맥락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 콘텐츠를 부호·문자·영상 등의 정보 단위로 정의하고 있는 점은, 기술 기반 유통 시스템이나 플랫폼 중심 산업에 적합하나, 예술적 맥락(작가성, 서사, 문화적 맥락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포

표 2-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문화산업 및 콘텐츠의 정의

구분	내용
문화산업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사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콘텐츠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
콘텐츠산업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 포함)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상 ‘콘텐츠’의 정의 및 범위**

• **콘텐츠 정의는 ‘정보’의 구조로 규정되어 형태보다 ‘의미 전달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정의가 ‘부가가치 창출’ 및 ‘서비스 제공’을 핵심 조건으로 명시**

- 이는 단순 창작물을 넘어, 경제적 기여 가능성과 소비자 접점을 포함한 산업적 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음

표 2-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상 콘텐츠의 정의

구분	내용
콘텐츠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
콘텐츠산업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 포함)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사업

다. 선행 연구에서의 문화예술산업 개념

① 문화예술산업 개념 관련 이론적 논의

■ 예술 고유 특성 중심의 산업 정의

-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²⁸에서는 예술산업을 '복제예술산업'과 구분되는 '창작예술산업'으로 구분함

- 공연, 미술, 공예, 문학 등 예술 분야의 창작물을 산업 수단을 통해 기획·생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에 주목함. 또한 산업화 논의에서 예술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적 지원과 체계화 필요성을 강조

-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 연구」²⁹에서 예술산업을 '예술성과 경제성의 균형'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함

- 공연·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시장 기반 산업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함. 법·제도 정비 필요성과 원작 중심의 시장 활성화를 통한 '예술창작산업', '예술복제산업', '예술유관사업'의 3단 구도를 제안

■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연계 중심 구조화

- 「문화예술산업 특수분류체계 개발 연구」³⁰는 문화예술산업을 창의성과 문화적 표현에 기초한 산업까지를 포괄해 규정하고, 예술성과 산업성을 동시 고려한 특수분류체계를 제안함

- 「2022 콘텐츠산업 중장기 시장전망 연구」³¹에서는 콘텐츠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규정하면서, 예술을 콘텐츠산업의 창의적 원천으로 간주함

- 특히 정책·산업·기술·소비자 관점에서 예술을 포함한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예술 관련 산업의 성장 요인을 콘텐츠산업의 흐름 속에서 파악함

- 문화예술산업에서의 산업은 창작 및 실연업, 기획 및 제작, 출판업, 시설 및 공간 운영업, 유통 및 판매업, 교육 및 향유 서비스업, 보존 및 아카이브업, 지원서비스업 등으로 볼 수 있음

■ 정책 기반 산업화 전략 모색

- 「예술의 산업화 추진방향 연구」³²에서는 예술소비, 연관 산업,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예술의 고용 창출 효과를 근거로 한 정책 개입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음

- 「예술산업 미래전략 연구」³³는 예술산업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민간 협력 기반 중장기 전략을 설계함. 예술지원과 산업지원 간 균형을 강조하며, 민간 투자유치와 공공재로서의 예술 기능을 함께 고려한 전략 제안

28 양건열·임학순·최범(2006),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9 박종웅·박경신(2015),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0 양혜원·전진영(2021), 「문화예술산업 특수분류체계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1 유형선(2022), 「2022 콘텐츠산업 중장기 시장전망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32 박종웅·박경신(2016), 「예술의 산업화 추진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3 성열홍(2016), 「예술산업 미래전략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 예술의 산업적 범주화와 체계 정립 중심

- 「예술산업 특수분류 개선 연구」³⁴에서는 예술산업을 「문화예술진흥법」상 예술분야에 한정해 정의하며, 콘텐츠산업과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전통예술 중심으로 분리함

- 또한 산업 분류의 명확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능 중심 및 가치사슬 기반의 유연한 분류체계를 제시

② 문화예술산업 개념 관련 이론적 논의 시사점

■ 예술성과 산업성의 공존 전략 수립

- 예술 고유의 창의성과 표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의 산업 정의가 필요

- 산업적 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예술의 다양성과 실험성 등이 축소될 위험이 있어, 제도 설계 시 예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

■ 유연하고 다층적인 산업 분류 정립

- 문화예술산업은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기능 중심 및 가치사슬 기반의 분류 원칙이 필요

- 장르 혼종과 온·오프라인 융합 구조를 반영해 창작·기획·유통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유연한 분류가 요구됨

- 예술은 콘텐츠산업의 창의적 원천으로 기능하며, AI·XR 등 신기술 기반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예술의 산업적 위상은 콘텐츠 산업 내 위치와 연동되어 재정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 설계 시 '예술+기술+시장' 연계 전략이 필요

라. 본 연구의 문화예술산업 정의

① 문화예술산업의 정의 목적 및 기본방향

■ 문화예술산업의 정의 목적

- 문화예술산업은 예술성과 산업성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이 충돌하는 개념으로 '창의성'이나 '심미성' 등 가치 지향성과 '시장성', '유통' 등 경제 지향성이 공존해 왔음

- 뮤지컬, 미술품 등은 시장 수요와 가격 결정이 이뤄지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예술의 원형 콘텐츠가 산업적 포맷으로 전환될 경우 분명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이뤄짐. 이렇듯 순수예술이라 하여 모두가 비상업적 영역은 아님

35 문화예술은 국가 및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나, 일반적으로 문학·미술·무용·연극 등 순수예술과 국악·공예 등 전통예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본 연구에서도 이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문화예술'이라는 용어 사용하고자 함

36 국가별로 '콘텐츠 산업', '창조산업', '창의산업'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개념을 지칭하며,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콘텐츠, 대중문화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 **법령, 정책, 분류체계 등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각 주체의 해석 방식과 범위의 설정이 모호하다는 한계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정립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함**

-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을 공공 가치 중심으로 규정하되, 산업 측면에서는 불완전한 포괄성을 가지는 반면,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 연구」는 예술의 산업화를 '기획-창작-유통-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활동의 구조화로 보며, 예술 고유 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시장 기반 가치사슬로 재편하는 정책을 제시함

• **'한류'의 확산 이후 순수예술 역시 국제 콘텐츠 교류의 주요 원형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통예술, 공연예술, 미술 등 K-콘텐츠의 기저 자원으로 활용되며, 콘텐츠화, 플랫폼화, 산업화의 흐름에 결합되고 있음**

■ 문화예술산업을 정의하는 기본 방향

• **'문화예술산업' 자체의 엄격한 학술적, 법적 정의가 아닌, 문화예술산업 중심 국제문화교류 정책 분석을 위한 재정의를 통해 트렌드를 파악 및 교류방식을 모색을 우선으로 함**

•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인 KOFICE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순수예술, 전통예술)³⁵과 문화산업(대중문화, 콘텐츠 등)³⁶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설정**

-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르를 기준으로 삼되, 산업적 파급력을 고려해 조정

• **'문화산업'은 일반적으로 수익 창출을 전제로 하나, 예술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활동 및 가치 창출 활동을 넓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 순수예술 역시 시장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우며 기존 전통적인 예술교류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산업적 주체와 활동을 포함하여 국제문화교류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자 함

- 플랫폼, 매개자,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산업적 활동을 통한 새로운 국제문화교류 방식 포함

■ 문화예술산업 정의

• **본 연구에서의 '문화예술산업'은 명확한 법적 정의나 기존 분류체계상의 중첩 문제를 인정하고, 문화예술영역 전반에서 경제적 활동과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

- 즉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산업적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융복합 영역 전반이 본 연구가 규정하려는 문화예술산업의 핵심 범위임

• **연구 목적에 따라 KOFICE의 한류 기반 사업구조를 참고하여, 국제문화교류 트렌드를 파악하고 새로운 교류 방식을 모색**

- KOFICE의 주요 사업은 한국 문화예술을 해외에 소개하고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협업을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문화예술 콘텐츠의 국제적 확산과 교류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이뤄짐

• **기존 예술가 중심의 교류를 넘어, 플랫폼, 매개자, 에이전시 등 다양한 산업적 주체와 활동을 통한 국제 문화교류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정의**

②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산업의 범위

■ 주요 포함 영역

•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 영역인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분야를 다루되 '건축' 분야 제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출판,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캐릭터, 대중음악' 문화콘텐츠 영역을 포함하되,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은 제외**

• **개인이나 집단이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 소통을 목적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과 그 결과물을 모두 포함**

■ 주요 제외 영역

• **신문, 라디오, 잡지 등과 같이 매체 중심의 특성을 가지는 미디어 산업**

• **건축 분야는 법령상 문화예술로 분류되나, 산업적 속성이 이질적이므로 제외**

- 건축은 예술적 가치 외에도 공학적·인프라적 속성이 강해 제외하였음

•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은 산업 활동의 성격 및 최종 산출물의 주된 특징에 따라 제외**

- 지식정보 및 콘텐츠 솔루션은 기술적 도구의 성격이 짙으며, 문화적 공감을 기반으로 둘 수 없어 제외하였음

1절 분석 프레임 및 비교 요소

2절 국가별 정책 구조 분석

3절 국가별 정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3

PART

● 국가별 국제문화교류 정책 분석

분석 프레임 및 비교 요소

01

1. 분석 대상 국가 선정 방향 및 기준

■ 권역별 특화된 정책 기조와 선도적 제도 실험의 다각적 분석

- 분석대상 국가는 문화예술산업 중심 국제문화교류에 있어 보편적 흐름과 특수성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 권역별 대표성과 정책 모델의 차별성이라는 핵심 기준으로 선정함

- 일부 국가 중심의 연구를 탈피하기 위해 미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중동 등 5대 권역을 포괄하여, 대륙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각 권역 안에서도 단순 시장 규모가 아닌, 타 국가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정책 기조나 제도적 실험을 수행 중인 국가를 우선 선정하였음

■ 권역별 정책 모델의 다양성과 균형 확보

- 특정 문화권이나 선진국 중심의 편향을 배제하고, 권역별 정책 모델의 다양성과 국가 발전 단계의 균형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 미주(멕시코), 유럽(영국, 스위스), 아시아(태국), 오세아니아(호주), 아프리카/중동(이집트)을 살펴봄으로써, 권역별 정책 모델의 다양성, 국제문화교류 추진 방식 차이의 비교, 그리고 각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조망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단일 문화권이나 특정 선진국 중심의 편향을 배제하고, 선진국, 신흥국, 지역 리더국이 모두 포함된 종합적 분석이 가능함

■ 특정 정책 및 혁신적 심화 사례 포괄

- 선정된 국가들은 문화유산 보존 중심의 교류를 넘어, 자국의 문화자산과 지정학적 강점을 전략적으로 결합하고 있음

- 특히 문화산업을 매개로 예술·교육·기술을 연결하는 등 국제문화협력의 방향을 고도화하고 있음

-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북미이나 문화적·인종적으로 남미에 속해 모두를 포괄하며, ‘몬디아컬트(MONDIA CULT)’ 개최국으로서 문화공공재 담론 등 글로벌 문화정책의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외교적 리더십 보유함
- 영국은 창조산업의 개념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문화예술(전통적 예술)과 문화산업(콘텐츠 산업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모델을 확립하고, 높은 문화예술 점유율과 함께 브렉시트 이후 세금 문제, 비자 등 변화하는 국제시장 환경 반영
- 스위스는 KOFICE와 같은 유사한 성격의 매개 기관인 ‘프로 헬베티아(Pro Helvetia)’가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기관 운영 및 국제교류 전략 비교가 가능함

- 호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점이자 ‘원주민’ 예술을 국제문화교류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한 예술교육 및 창조산업의 연계를 통한 인재육성과 대학, 문화기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 학제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혁신적 접근 방식을 보여줌
- 태국은 아시아 신흥 콘텐츠 시장으로서 한국의 발전 경험과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해 타국가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역동적 파트너 국가로 정부의 문화와 관광 융합정책을 통해 해외 공동제작, 전통문화 현대화, 한류와의 접점 확대 등 새로운 분석 가능성 제공
-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모두 포괄하는 허브 위치로 고대 문명과 이슬람 문화유산을 외교자 산화하는 대표적 사례를 제공해 데이터 주권과 기술 협력 모델 분석 가능

2. 분석 프레임 및 비교 요소

■ 주요국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 정책적 구조적 특징과 변화 요인을 진단함으로써, 한국에서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앞서 2장에서 정립한 ‘문화예술산업’의 개념적 범위를 적용하여 분석 대상을 선별하였음

■ 주요국 정책 비교 분석을 위한 구조적 검토 기준

- 본 분석 프레임은 국제문화교류가 문화외교의 수단이나 산업전략을 넘어선 광의의 문화교류 측면에서 각국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정책의 구조를 포괄하고 있음

- ‘법·제도 및 예산’, 디지털 전환 및 문화적 포용성 등의 ‘최근 변화 및 이슈’, ‘교류 유형 및 범위’ 등 핵심 축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적 구조를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도록 함

표 3-1 주요국 국제문화교류 분석 틀

구분	내용
정책 비전 및 목표	국제문화교류 정책이 지향하는 바
추진 체계	중앙/지방정부, 전담기관, 민간 간 역할 구분 및 운영구조
법·제도 및 예산	관련 법령, 제도적 기반, 예산 편성 및 지원체계
주요 추진 전략	교류 방식, 콘텐츠 활용, 디지털 전략 등
교류 유형 및 범위	양자/다자, 시민사회 중심 등
대표사례	지속 추진 중인 상징적 사업, 플랫폼, 기관 등
최근 변화 및 이슈	디지털 전환, 지정학적 변화, SDGs 연계 등 최근 동향

- 단, 추진체계 항목 중 ‘민간’은 정책 및 제도 문서를 중심으로 한 분석의 특성상 정부와의 협력 구조를 중심으로 파악하였기에, 민간 주도 활동에 대한 세부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의 분석 대상국의 일반 현황, 상세 정책 현황 등의 방대한 자료는 연구의 가독성과 분석의 집중도를 위해 [부록]으로 수록하였음

- 제3장의 제2절의 본문은 국가별 비교 요소와 전략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서술함

국가별 정책 구조 분석

02

1. 미주: 멕시코

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법·제도

① 정치적 배경 및 도입

- 1910년 혁명 이후 문화 민족주의와 국가 개혁 전략안에서 인디오-메스티소 문화를 재발견하며 문화외교를 국가 발전과 이미지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 1990년대 국립문화예술위원회(CONACULTA) 설립으로 해외 ‘멕시코 문화원’ 설치를 계기로 문화·외교·경제를 결합한 문화외교가 제도화하고, 2015년 문화부 신설 이후에는 외교부·관광부·교육부와 연계한 문화산업·문화유산·지역 기반 국제문화교류로 발전함

표 3-2 멕시코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기별 추진 배경 및 흐름

구분	주요 특징	세부 내용
~1990년대	문화예술위원회 설립과 국제문화교류의 시초	- 대통령 직속기구 산하 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 및 멕시코 문화원이 북미 및 유럽 주요 도시에 설립 - 범아메리카 문화회의와 유네스코 창립 멤버 국가 - 문화다양성 보호를 주장하며 외교부에서 문화외교 개념 인식 -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의 영향력과 잠재력 확인
2000년대	문화동질성 활용한 문화유산 보호 중심 주변국과의 교류	- 문화외교와의 연계가 정착되는 시기(문화, 경제, 외교가 결합) - 문화정책을 경제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아 창의산업 육성 시작 - 유럽연합과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과 EU-멕시코 문화펀드 설립 등 국제기구형 협력 모델로 발전 - 외교부 내 문화외교 전담 부서 설치 및 문화외교적 국제문화교류 진행 - 국립문화예술위원회가 독립 기구로 설립, 멕시코 국제 협력개발청 신설
2010년대	문화부 신설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본격화	- 문화 부문 포함한 정부 부처의 재편과 문화부의 신설. 문화부, 관광부, 교육부 3부 형태 구축 - 외교부가 지역 중심 문화외교를 표방하며 문화유산 보존정책과 전통문화 복원을 강조하고 국제문화교류 및 협력 관계 형성
2020년대	외교부와 협력한 체제 구축	- 외교부와 본격적으로 협력하는 국제문화교류 시대 - 문화부, 외교부, 관광부, 교육부와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 - 문화유산보존, 문화동질성 구축을 위한 교류 중심과 국가 경쟁력 확보, 폭력적인 국가 이미지 쇄신 등을 위해 문화교류를 활용 - 디지털 플랫폼 활용 콘텐츠 중심 한국과의 양자 문화교류

② 주요 법 및 제도

- 성문법 체계 아래 문화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며 국제 협력과 문화권 보호, 국제개발협력을 동시에 법제화함

- 한-멕시코 문화협정(1966), 미주연합기구 문화협정, 유네스코 등 다양한 문화협력 양자·다자조약을 체결하며 국제교류의 법적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산하 문화부, 외무부 문화국, 국립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문화외교 사업과 관련 법령을 운영·집행함

- 이후 멕시코 정부는 2011년 「국제개발협력법(Ley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을 제정하여, 자국의 대외 및 국제 협력 활동을 규율하는 기본 법령을 마련함

- 2019년 멕시코의 헌법 개정으로 아프로멕시코인(Afro-Mexicanos)의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며 2022년 「원주민 및 아프로멕시코 공동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연방법(Ley Federal de Protección del Patrimonio Cultural de los Pueblos y Comunidades Indígenas y Afromexicanas)」이 제정되고, 공동체 문화유산의 무단 상업화 및 도용을 금지하고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③ 전담기관 및 거버넌스

- 외교부와 문화부가 협력하여 문화 정책, 문화 외교, 국제 개별 협력 업무를 유기적으로 분담하는 구조

- 문화부 산하 국제문화협력국은 국제문화교류 기획·집행을, 외교부 문화국은 해외 문화 홍보 및 다자 간 문화외교 협력을, 그리고 멕시코 국제 개발 협력 기구(AMEXCID)는 국제개발협력과 ODA·남남협력 사업을 담당함

- 국립문화예술위원회(CONACULTA)는 문화정책·국제교류 기반을 문화부가 흡수·승계하고, 국립도서관·국립인류학연구소·국립미술관 등 산하기관과 연계하여 축제·레지던시·유산보존 등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함

표 3-3 멕시코 문화부 및 외교부 국제문화교류 발전 흐름

연도	구분	내용
1959년~1970년대	외교부	- 국제문화보급기구로 출범하며 멕시코 문화를 해외에 알리자는 인식 확산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 교류를 제도화하며 1970년 교육 교류 개념 처음 도입
	문화부	-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문화정책 수립·예술 진흥·문화유산 보호 담당. 대통령 직속 기관 형태. 국제문화교류 일부 프로그램 운영 - 점차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확대. 해외 전시, 문화축제 지원, 멕시코 문화 홍보 활동 강화
1980년대~2000년대	외교부	- 문화외교가 국가 이미지 제고와 경제 협력 촉진의 수단이 됨을 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며 현재의 문화외교 방향으로까지 이어짐
	문화부	- CONACULTA 기능 흡수, 연방 부처로 독립. 내각 참여, 국가 문화정책 총괄.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 외교 공식 담당 - 문화정책 기획·집행, 문화유산 보호, 예술 지원,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외교부(SRE)와 협력하여 문화 외교 수행
2000년대~현재	외교부	- 전시 및 공연을 국제적으로 개최하기 시작 - 해외 문화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강화에 노력하는 시기
	문화부	- 해외 문화 전시, 교류 프로그램, 예술가 파견, 디지털 문화콘텐츠 확산 등 국제문화교류 활동 지속

나. 국제문화교류 주요 전략 및 사례

① 국제문화교류 정책 방향

▪ 문화 동질성을 활용한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외교 정책 및 실행 전략

- 멕시코의 국제문화교류는 주로 예술인 교류, 문화행사, 학술 및 교육 협력, 유산 보호, 미디어 및 창작물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특히 문화외교와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점이 특징이며,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축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기반으로 국가 간 교류와 멕시코 원주민 제도 기반 국제문화교류

- 멕시코는 스페인어권의 거대 문화권과 일정부분을 공유하며 전통적으로 스페인어 및 라틴문화권과 강한 연계를 활용한 국가 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문화적 자산(언어, 전통예술, 의례, 공예, 의복, 지식 등)을 중심으로 원주민 및 아프로멕시코인이 주체로 활동하고 문화 동질성을 활용한 국제교류로 커뮤니티 기반 문화교류, 문화유산 보호 및 국외 소장 문화재 회수 협력, 디지털 문화외교 전략을 추진함

② 주요 사업 및 사례

- 공동체 주도형의 문화관광·문화교육·전통지식으로 정체성을 교류하고 국제 협력 주체와의 문화외교 및 지역 연대를 확대하여 문화적 효과를 창출함

표 3-4 멕시코 원주민 중심 국제문화교류 주요 특징 및 문화적 의미

구분	주요 특징	문화적 의미
제도 기반	2022년 원주민 및 아프로멕시코인 문화유산 보호법 시행	문화 표현, 전통지식, 공동체 자율성의 법적 인정
교류 형태	공동체 주도 관광, 문화교육, 전통지식 네트워크	원주민이 '대상'이 아닌 '주체'로 교류 참여
협력 주체	UNESCO, 캐나다 교육기관, 미국 대학, 중미 원주민 네트워크	다자 간 문화외교 및 지역연대 확대
문화적 효과	자율성·지속가능성·정체성 강화	원주민 문화가 국제교류의 독립적 축으로 부상

2. 오세아니아: 호주

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법·제도

① 정치적 배경 및 도입

▪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일원으로 주변 국가 중심 문화외교 추진

- 호주의 다양성과 원주민 문화 보호, 문화산업의 혁신과 국제적 확장, 예술가 지원을 통한 문화 활성화 전략을 중점으로 설정됨

표 3-5 호주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기별 추진 배경 및 흐름

구분	주요 정책	세부 내용
~1990년대	「Creative Nation」(1994)	- 예술·문화유산·창조산업을 통합하는 첫 번째 문화정책의 반영 - 문화예술을 경제·사회·대외전략으로, 원주민 보호 문화와 문화산업 혁신, 국제적 확장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함
2000년대	DFAT와 AICC 중심 정책 추진	- 연방정부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가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지원 - AICC(Australia International Cultural Council) 중심 문화 외교(Cultural diplomacy) 시작됨
2010년대	「Creative Australia」(2013)	-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Creative Australia)」로 예술·문화산업 재구조화와 국제문화교류 지원을 공식화, 아시아·태평양과의 문화 관계 강화, 원주민 주체 프로젝트, 권리·지식에 참여할 것을 강조함 - 호주예술위원회 개편과 호주국제문화위원회(Australia International Cultural Council, AICC) 설립
2020년대	「Revive」(2023)	- 「Revive」라는 새로운 국가 문화정책 전략을 발표하며 해외 시장, 국제 교류, 문화외교 측면에서 원주민·다양성, 예술가 시대 환경 개선과 국제공동작업 능력 강화를 참여 전략으로 추진함

② 주요 법 및 제도

▪ 국가 예술기구 개편 및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문화예술 전략 체계 재구축

- 2023년 제정된 「Creative Australia Act」(2023)는 호주예술위원회를 개편 및 확장하여 국가 예술기구인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Creative Australia, CA)'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음
- 기존 호주예술위원회가 지닌 예술지원과 국제교류 기능을 보다 현대화하고,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와 예술가 환경 개선, 원주민 문화 보존 및 발전을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제정임
- 「Revive: a place for every story, a story for every place」(2023)에서 문화·예술을 국가 발전 전략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임

③ 전담기관 및 거버넌스

- 문화정책 핵심 기관인 CA와 문화외교를 위해 만든 외교통상부 산하 자문 및 조정기구인 호주국제문화위원회(Australia International Cultural Council, AICC)를 중심으로 추진함
- CA의 모기관은 1975년 설립된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로 2012년 거버넌스 및 설립 근거에 대한 검토 이후 「호주예술위원회법」이 제정됨
- AICC는 문화예술을 단순히 국내정책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교 및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 활용하며 타국 간의 문화교류 증진 및 관련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호주 문화외교 핵심기관임

나. 국제문화교류 주요 전략 및 사례

① 국제문화교류 정책 방향

▪ 원주민 문화 보존·보호 중요성과 아시아·태평양 중심 문화외교 전략 심화

- CA 및 연방정부가 '원주민이 자신의 문화와 이야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국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책적으로 채택함
- 문화외교나 국제교류에서 단순히 원주민 작품을 '수출'하거나 전시하는 것이 아닌 원주민이 주체적 권리를 행사하고 국제무대에서 동료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함
-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변화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세계 경제 및 문화지형에서 사회적 관계를 심화하려는 중심축으로 급부상하며 호주가 'Asia-capable'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사람-사람 간의 연결 및 문화·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함
- 예술가 글로벌 창작 생태계 강화 전략적 전환 배경 및 정책 프레임워크
- 예술가의 국제 협력활동을 국가 브랜드 제고 및 문화외교 전략, 호주 내부의 문화산업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특정 지역과 장르를 전략적으로 선정해 운영함으로써 예술가 및 단체의 국제적 활동을 위한 생태적 기반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음

② 주요 사업 및 사례

▪ 아시아·태평양 중심 문화외교 및 원주민 파트너십 전략

- 공동체 주도형의 문화관광, 문화교육, 전통지식을 통해 정체성을 교류하고 국제 협력 주체와의 문화외교 및 지역연대를 확대하여 문화적 효과 창출
- 단순히 원주민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해외 파트너와의 상호 교류 및 공동창작을 핵심으로 협력관계 설계 시 원주민 커뮤니티가 주도권을 가지고 문화적 지식 및 권리가 정당히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 중심 주요 사업
- 원주민위원회(First Nations Board) 감독하에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제도민 예술위원회(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Arts Board)의 유산과 1973년 원주민 예술가들의 첫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원주민 예술 및 문화 옹호 관련 사업을 운영함
- 국제문화교류 기금(International Engagement Fund)을 통해 호주 예술가, 창작자 및 문화단체가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는 상호교환형 국제교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약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 활동은 창작 협업, 문화교류, 지식 및 기술 공유 등이 있으며 단순 해외진출만이 아니라 양측이 참여하는 상호 교환의 형태임
- 국제 여행 기금(International Travel Fund)은 호주 예술가·창작단체 등이 해외 시장개발 또는 주요 국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한 여행비 일체 지원
- 국제 출판계 초청 프로그램(Visiting International Publishers Program)과 뮤직 오스트리아(Music Australia)를 통해 장르별 국제문화교류의 협력을 지원함

표 3-6 호주 원주민 중심 국제문화교류 주요 특징 및 문화적 의미

구분	주요 특징	문화적 의미
제도 기반	CA와 원주민위원회 중심 기금사업	원주민이 주체로서 활동하고, 예술·문화가 권리이자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교류 형태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하였으며, 디지털 확장, 블록형 국제교류기금 등 복합적인 방식	해외 파트너와 상호교류하면서 한 국가에 집중하여 깊이 있는 교류를 진행
협력 주체	CA, OzAsia 등 국제페스티벌과 전문단체가 연계된 거버넌스를 형성	국가·공공기관·축제·문화산업이 결합된 다층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교류 거버넌스 구축
문화적 효과	원주민과 다양한 집단의 국제 협력 확대와 예술가의 환경 보장과 디지털 시장 확보	국가 문화정체성과 국제 브랜드의 핵심으로 포용성과 가능성 중시 국제문화교류 모델 형성

• 아시아 중심 문화 페스티벌: 오즈아시아 페스티벌(OzAsia Festival)

- 오즈아시아 페스티벌(OzAsia Festival)은 아시아와 소통하는 현대예술 축제로 2007년 애들레이드 페스티벌 센터의 예술감독 더글러스 고티에(Douglas Gautier)에 의해 개최되었으며 2015년 이후 매년 한 국가에만 집중하던 프로그램 방식을 전환함

3. 유럽: 영국

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법·제도

① 정치적 배경 및 도입

▪ 세계화 흐름을 반영하여 창조산업을 핵심적으로 활용하면서 전략적인 교류 추진

• 2차 세계대전 종식을 기점으로 소프트파워 확대를 위한 문화전략이 본격화됐으며, 언어(영어)를 포함한 문화분야(문학, 연극, 음악 등)를 활용한 국제적 문화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함

- 1997년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Sports, DCMS)는 「창조산업 지형 문서(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s)」를 통해 창조산업을 공식화하고, 2011년 영국 시장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현 플랫폼으로서 '창조산업 위원회(Creative Industries Council)'가 출범함

• 2014년 영국 상원의 「현대사회의 설득과 권력(Persuasion and Power in the Modern World)」를 계기로 영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산을 위해 문화교류를 주목하였으며 이후 EU 탈퇴와 2020년 제도적 독립을 통해 독자적인 문화교류체제를 수립함

표 3-7 영국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기별 추진 배경 및 흐름

구분	주요 특징	세부 내용
~1980년대	대외문화교류위원회 출범과 왕실 헌장	- 1934년 대외문화교류위원회가 1936년 영국문화원으로 개편 됨 - 1940년 왕실 헌장을 통해 언어·문학·연극·음악 등 국제문화교류를 제도화
1990년대	DCMS 설립과 제도적 기반 마련	- 오늘날 국제문화교류의 태동이 된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설립 - 「창조산업 지형 문서」(1998)을 통해 창조산업이란 명칭을 공식화하고 국가자산이자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분야로 간주
2010년대	창조산업 위원회 출범 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 2014년 「현대사회의 설득과 권력」에서 문화·창조산업·교육·언론·영국 문화원을 핵심 소프트파워로 규정하며 핵심 영역으로 위치 - DCMS와 외무연방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가 국제문화교류를 담당하며 정책 추진체계 강화
2020년대	EU와 제도적 분리 및 FTA 협정 등 변화와 확립	- 브렉시트로 EU와 분리 후 FTA 협정을 체결하며 교류 확대 - 2023년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에서 2030년까지 수출·일자리 확대 목표를 설정하며 경제적 목표 이상으로 강조

② 주요 법 및 제도

▪ 창조산업 활성화를 통한 시장의 확대 및 국가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함

• 브렉시트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영국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주요 정책은 3가지로 정부조직과 산업이 공동으로 합의한 「Creative Industries Sector Deal」(2018)임

- 해당 정책은 DCMS, 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그리고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가 공동 수립하며 정부가 영국 창조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직접 지원한다고 명시함

표 3-8 영국 국제문화교류 관련 제도·정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Creative Industries Sector Deal (2018)	국제문화교류를 수출 및 외교 강화와 결합
Integrated Review (2021)	국제문화교류를 국가 외교 및 안보 자산으로 간주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2023)	국제문화교류를 경제·산업 목표와 직결함

③ 전담기관 및 거버넌스

▪ FCDO와 DCMS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를 담당하며 기관을 나누어 운영함

• 영국의 외교 담당 부서인 외무연방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는 소프트파워를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DCMS와 협력하여 국제문화교류 정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함

• DMCS는 국가 단위 문화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FCDO와 연계하여 영국의 국력 증대를 위한 전략으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수립을 담당함³⁷

- 문화예술 부문 국제문화교류 전담 기관은 영국문화원과 방송사 BBC World Service가 전담하고 문화산업 부문 국제문화교류 전담 기관은 DCMS의 총괄 아래 세부 장르별로 파트너 기관들이 직접 수행함

표 3-9 영국 문화예술 부문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구분	영국문화원	BBC World Service
소관부처	FCDO	DCMS
법적 지위	영국문화원 왕립헌장	BBC 왕립헌장
주요 임무	영어교육, 문화예술 교류, 문화유산 보호	국제 뉴스, 문화정보제공
국제문화교류 담당 업무	창의산업·문화정책을 수출·국가브랜드 전략과 연계	외교·안보 전략 차원에서 소프트파워 관리
국제문화교류 역할	교육, 공연, 전시, 학술 교류 등	글로벌 방송을 통한 영국 정보·가치 확산
재정 구조	자체 수입(영어 자격시험 수험료) 및 FCDO 보조금	자체 수입(수신료) 및 FCDO 보조금

자료: DCMS (n.d.); FCDO (n.d.)

37 DCMS. (n.d.).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ulture-media-and-sport>

나. 국제문화교류 주요 전략 및 사례

① 국제문화교류 정책 방향

▪ 국가-기관-민간 중심 3가지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 **국가(또는 정부) 차원, 문화예술 및 창조산업 관련 기관(또는 단체), 민간(또는 시민)단체 등 총 3가지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국가(또는 정부) 차원은 국제문화교류의 가장 거시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단위로, FCDO를 통해 양자-다자 간 형태의 국가(또는 정부) 간 교류 형태로 진행함
 - 문화예술 및 창조산업 기관(또는 단체)은 영국 내 유관기관이 해외에 있는 유사 기관과 직접 교류하는 형태의 전시 기획, 순회 전시, 교류전, 공동제작, 국제 행사 협력 등을 추진함
 - 민간(또는 시민) 단체는 NGO, 재단과 같은 조직과 개인 차원으로 구분되며, 개인 단위는 창작자와 수용자로 다시 세분화됨

② 주요 사업 및 사례

- **호주, 중국 등 양국 협력의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다양한 장르와 예술가의 참여를 유도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양방향 교류를 추진함**
 - UK-Australia Season(2021~2022)은 영국-호주 정부 주도 아래 추진된 예술기관·산업 간 협업 중심의 문화교류로 영국문화원과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가 공동 주관하며 문화예술산업 전 분야를 다룸
 - UK-China Connections through Culture(2006~)는 영국-중국 간 20년 이상 진행된 네트워킹 중심 문화교류 프로젝트로 영국문화원과 중국문화부가 협력한 지속가능 네트워크임

표 3-10 영국 국제문화교류의 주요 특징 및 문화적 의미

구분	주요 특징	문화적 의미
제도 기반	FCDO, DCMS, 영국문화원·BFI 등 문화기관을 창조산업과 연계하여 핵심축으로 위치	국제문화교류가 국가전략 수단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이 결합된 규모 확장 구조를 형성
교류 형태	정부 간 프로그램, 국제 공동제작·투어·레지던시·온라인 등 다층적 형식	교환·공동창작·네트워크 구축·디지털 기반으로 양방향 관계 형성 교류 모델 추진
협력 주체	국가·공공기관과 시민단체, 개인활동가·관객이 참여하는 협동구조 형성	다양한 계층이 연결된 거버넌스를 통해 범위를 확장하고 전반을 아우르며 활동하는 생태계 구축
문화적 효과	영국 문화예술산업의 시장 확대와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소프트파워 및 국가브랜드 강화	국가 홍보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을 통해 영국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순기능으로 작동

4. 유럽: 스위스

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법·제도

① 정치적 배경 및 도입

▪ 스위스 문화 정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문화정책 수립

- **1960년대 칸톤³⁸ 단위의 개별적인 문화법을 제정하며 각 지역 전통을 강조하면서도 연방 차원의 문화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함**
 - 스위스 문화재단은 2차대전 직전 1939년 스위스의 문화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1965년 연방법에 의해 공적 지위를 부여받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
 - 1975년 연방문화청(Federal Office of Culture, FOC) 설립으로 문화유산 보존 및 국가 정체성 유지에 초점을 둔 문화정책이 먼저 수립됨
- **1990년 이후 세계화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문화진흥계획 「문화진흥 개념」, 2000년 「연방 해외 스위스 이미지 이동법」, 2012년 「문화진흥법」 제정됨**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실효성이 약했던 스위스 문화재단의 역할이 강화되고 국가브랜드와 공공외교를 포함한 세부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11 스위스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기별 추진 배경 및 흐름

구분	주요 특징	세부 내용
~1980년대	스위스 문화재단 법제화 등 정책 추진	- 1960년대 칸톤의 초기 문화법 제정으로 예술진흥을 제도화함 - 1965년 스위스 문화재단(Pro Helvetia)의 법제화로 공식적인 외교정책을 수립 - 1975년 스위스 문화청(FOC)의 설립을 통해 문화정책 총괄 수립
1990년대~	「문화진흥개념」, 「문화진흥법」 제정과 기본계획 「문화 메시지」 수립	- 1990년대 연방차원의 새로운 계획인 「문화진흥 개념(Kultur-förderungskonzept)」을 통해 본격적 정책 추진 - 2000년 「연방 해외 스위스 이미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외무부(FDFA) 산하 스위스 대외 홍보처가 공공외교 전담기관 설립 - 2012년 「문화진흥법(KFG)」제정으로 연방정부 핵심 법률로 작동함

② 주요 법 및 제도

▪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진 법적 근거는 「연방헌법」과 「문화진흥법」으로 구분됨

- 「연방헌법」 제69조(Kultur, 문화) 및 제70조(Sprachen, 언어)에 의거, 스위스의 문화정책이 국가의 주요 임무 중 하나임을 파악할 수 있음
- 「문화진흥법」의 주요 목적은 스위스의 문화적 존재감을 국제적으로 강화하며 국내외 문화교류를 촉진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38 스위스를 구성하는 26개 광역자치단체(주)로, 독자적인 헌법과 의회를 갖추고 교육 및 문화 등에서 폭넓은 자치권을 행사하는 연방제의 기본 단위를 말함

- 「연방 해외 스위스 이미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스위스 대외 홍보처(Presence Switzerland)의 존재 및 활동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로 기능하며 목표는 스위스 대외 홍보처의 스위스 국가 이익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 스위스의 국제문화교류 주요 정책은 문화 메시지와 스위스 대외 홍보처 계획임

표 3-12 스위스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적 근거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연방헌법	연방 차원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문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근거로 기능
문화진흥법	스위스 연방의 문화지원과 국제교류 정책을 규율하는 기본법
연방 해외 스위스 이미지 증진에 관한 법률	스위스에 대한 긍정적 태도, 다양성, 혁신성을 홍보하는 국가 브랜딩 정책을 총괄

- 「문화 메시지」는 향후 4년간의 문화정책 방향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수행을 위한 지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며 스위스 대외 홍보처 계획은 스위스의 소프트파워 구성 및 스위스의 해외 이익 보호를 정책 목표로 함

③ 전담기관 및 거버넌스

▪ 문화정책 전문기관 FOC와 핵심 집행기관 스위스 문화재단과 대외 홍보처

- 스위스의 문화예술 진흥을 담당하는 FOC가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산업을 관리하며 스위스 문화재단은 구체적인 국제문화교류(레지던시, 해외 투어 지원 등)를 집행, 하는 협력 구조를 보임
- 스위스 대외 홍보처(Presence Switzerland)는 연방 외무부(FDFA) 소속의 공공외교 전담 기구로 2001년 관광이나 문화를 홍보하는 것을 넘어 스위스의 국가적 이미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전략을 목적으로 함

나. 국제문화교류 주요 전략 및 사례

① 국제문화교류 정책 방향

▪ 스위스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각 주체별 영역을 구분하여 교류를 추진함

- 국가는 전략적 방향 설정과 외교를 담당하며 연방 문화청은 국제기구(UNESCO 등)와의 협력, 국가 간 영화 공동제작 협정 체결, 문화유산 보호 및 반환과 같은 정부 대 정부(G2G) 차원의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함
 - 대외 홍보처는 하우스 오브 스위스(House of Switzerland)³⁹나 엑스포 국가관 운영을 통해 스위스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교류 활동을 전개함
 - 주(지자체)는 가장 중요한 교류 주체로 사실상 스위스 공공 문화 지출의 대략 90%는 연방 차원이 아닌 주(지자체) 차원에서 집행되며, 기관 차원은 크게 FOC 산하기관, 스위스 문화재단, 스위스 대외 홍보처,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음

39 스위스 대외 홍보처가 올림픽 등 국제 행사 개최지마다 현지에 설치하는 임시 국가 홍보관으로 스위스의 문화 및 경제 역량 등을 소개하는 민관협력 플랫폼임

표 3-13 스위스 기관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구분	내용
FOC	- 해외 도서관 및 아카이브와 문학/디자인 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 디지털 아카이빙 협력, 자료 교류 등을 수행 - 유럽 거장의 소장 작품과 조각품을 해외 미술관에 대여해주거나 해외 기관과 공동으로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스위스 작가들의 작품을 해외 미술관이나 비엔날레 등에 전시 추진
문화재단	- 전 세계 주요 거점에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여 스위스-현지 문화기관 연결 - 해외 거점을 통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위스 예술가와 현지 예술가 간의 국제 공동 제작을 기획하고 지원
대외 홍보처	- 자사 홍보 플랫폼에 스위스 문화예술가의 작품을 스위스의 혁신 사례로 활용

자료: FOC (n.d.); Presence Switzerland (n.d.); Pro Helvetia (n.d.)

② 주요 사업 및 사례

- 연방 문화청은 문화재 해외 이전 전문기구와 국제 문화재 반환 협력을 통해 문화재 밀거래 방지와 합법적인 반환을 통해 국가 간 양자 외교를 강화함
- 스위스 문화재단은 해외 스위스 사무소를 통해 아티스트 레지던시, 공동제작 펀딩, 현지 행사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간의 상호적인 관계와 시장 접근을 지원함
- 스위스 대외 홍보처는 대형 이벤트에서 하우스 오브 스위스, 메종 스위스⁴⁰ 같은 임시 플랫폼 운영을 통해 시민·관광객에게 개방된 문화경험을 제공하고 국가 이미지를 홍보함

표 3-14 스위스 국제문화교류 주요 특징 및 문화적 의미

구분	주요 특징	문화적 의미
제도 기반	법을 기반으로 문화청, 스위스 문화재단이 문화정책·국제교류를 각각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	문화정책과 국가이미지 전략을 분리·분담함으로써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을 형성함
교류 형태	문화 유산 협력, 해외 사무소 기반 교류, 레지던시 및 공동제작, 엑스포 국가관 등	단순 홍보가 아닌 국가적 책임과 네트워크, 국가 브랜딩 이벤트를 결합한 교류 모델
협력 주체	국제기구 협력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와 공공 연계 지자체, 기관의 역할이 활발	국가-지역-기관-민간 참여의 거버넌스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를 점차 확장함
문화적 효과	문화유산 양자 협정체결과 공조로 신뢰 구축과 스위스 문화브랜드 확대 효과를 창출	전략적 체계를 통해 국가브랜딩을 결합하여 각 주체의 다각적 국제문화교류 구축

5. 아시아: 한국

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법·제도

① 정치적 배경 및 도입

- 문화외교 수단에서 한류의 확산을 반영한 K-컬처 기반 국제문화교류
 - 초기에는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문화예술향외교 수단으로 활용하며 외교 다변화의 전략과 국가브랜드 제고의 일환으로 국제교류를 시도하였음
 - 이후 대외 정책과 연계하여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2020),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1차 2018~2022년, 2차 2023~2027년) 과 민관이 참여한 ‘한류협력위원회’,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의 지정 등 교류의 전문성을 확보함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 제작과 유통의 전 범위를 지원하며 협력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K-컬처를 포함한 양방향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함

표 3-15 한국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기별 추진 배경 및 흐름

구분	주요 특징	세부 내용
1980~90년대	법률과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예술진흥법」(197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1) 등에 국제문화교류 정의·지원 근거가 명시되며 법적 기반 마련 - 1991년 외무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설립으로 수단으로서 문화 역할 확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992) 제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등으로 한류·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 기반 마련
2000년대	문화예술 산업의 본격적 교류와 확산 체계 전문화	- 200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로 전환되며 국제 예술교류 지원 체계화 - 2006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설립으로 국제 유통·마케팅·인력 양성 등 예술의 산업적 지원이 강화됨 - 한류를 국가 소프트파워 핵심으로 대외 경제협력에 연계해 한국문화산업 교류재단 통해 한류 확산 지원을 전문화
2010년대~	양방향 교류와 국가 다변화를 통해 국제문화교류 강화	- 교류 지역을 다변화하고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2020) 수립, 민간 한류협력위원회 운영 및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 단순 수출에서 상호 교류·협력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 강화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 및 해외문화홍보원을 본부 조직으로 편입으로 주요 기관과의 교류망을 강화 - 2025년 조직 개편으로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국제문화교류 기능을 통합한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하며, 기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의 국제문화교류 기능이 이에 흡수 및 재편됨

② 주요 법 및 제도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2017) 제정으로 국제문화교류가 정부의 정책적 책무로 제도화됨
 - 문화교류를 중요 국가브랜드로 인식하며 정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교류 활동을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전담기관 지정,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단일 법률의 주된 목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법으로 이전의 개별 법률들이 단편적으로 다루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함
- 한류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2024) 제정
 - 국가 소프트웨어의 핵심 동력이자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한류가 자리 잡으며, 기존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체계적인 진흥 및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표 3-16 한국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적 근거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한류의 세계적 성장에 따라, 문화교류를 국가브랜드로 인식하며 정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교류 활동을 지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 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③ 전담기관 및 거버넌스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전담기관 지정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2003년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으로 출범해 2006년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18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지정됨
 - 민간과 공공의 중간 지원 조직 성격으로 출범했고, 한류 확산과 국제문화협력 지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K-컬처 부상 등 한류 활성화와 국가 간 상호이해 및 우호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관련 업무와 기능을 단일 전문기관으로 집중시킴
 - KOFICE 추진 사업은 정책적 역할에 따라 크게 ▲매개 ▲집행 ▲연구 총 3가지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17 KOFICE의 주요 업무

구분	내용
매개 기능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주체를 연결하고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매개자 역할 수행 *국가 간 문화이해 증진과 우호 증진을 위한 고위급 대화 채널인 ‘문화장관회의’ 및 ‘상호 문화교류의 해’ 등의 행사 지원과 해외 우수 플랫폼과 민간 예술 단체를 연결하는 쌍방향 국제문화교류 협업 지원 등
집행 기능	대규모 행사 개최와 직접적인 지원,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 *해외 주요 계기 또는 전략 지역 대상 한국 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코리아시즌’ 및 ‘수교계기 문화 행사’와 전문인력 해외파견 등
연구 기능	매년 해외 한류 현황 및 추이 파악 *「한류 NOW 웹진」, 「해외한류실태조사」, 「한류백서」, 해외통신원 운영 등

나. 국제문화교류 주요 전략 및 사례

① 국제문화교류 정책 방향

- 전통적인 문화교류를 넘어 제도적 협력의 안정성과 다양한 협력 파트너와 교류 강화
 - 신흥 전략 지역(아세안·중동·아프리카 등)을 주요 대상으로 장기 파트너십과 문화 ODA를 결합해 공공 및 민간 유관 기관 주관으로 현지 협력 주체를 확대함
 - 청년, 비수도권, 민간 등 다양성 사회계층과 집단을 포괄하여 글로벌 협업 역량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매개 역할 및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전략적 지원을 지향함

② 주요 사업 및 사례

- K-컬처를 매개로 패션·음식·관광 등 연관 산업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한류 일상화 사업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역량 강화사업 등 국제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
 - 전통예술과 현대 예술기법을 결합해 해외 축제(뒤셀도르프 카니발, 밀라노 디자인 위크 등)에 소개하고, 학술세미나·장인 워크숍으로 무형문화유산 가치 공유를 확장함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 사업을 ‘지역-국가-국제’ 단위로 연계하고, 다층적인 협력체계와 민간 주도 파트너십을 구축함에 따라 교류 주체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표 3-18 한국 국제문화교류 주요 특징 및 문화적 의미

구분	주요 특징	문화적 의미
제도 기반	문화미디어산업실, 전담기관, 지자체-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제도 기반의 구축	문화정책을 넘어 국가 전략 영역으로 자리 잡으며 복합 거버넌스를 형성
교류 형태	K-컬처 체험형 프로그램, 해외파견, 지자체 축제 교류와 민간 파트너십 등으로 다변화	이슈 기반 공동기획형 교류로 발전하며, 상호성, 지속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협력 주체	중앙,공공과 지자체,문화재단, 해외 문화원, 예술가·청년·지역 활동가·관광객이 함께 참여	역할 분담 다층 협력 구조를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교류 모델을 형성
문화적 효과	K-컬처의 산업적 도약과 연관 산업 확장,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전통·현대가 결합한 문화 정체성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한류를 매개로 경제·사회·문화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과 창의성과 포용성, 책임 있는 문화협력 국가라는 이미지 형성에 기여

6. 아시아: 태국

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법·제도

① 정치적 배경 및 도입

- 태국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소재로 K-pop 모델 벤치마킹 전략
 - 고전무용, 콘마스크(Khon Mask), 무에타이 등 전통문화를 활용해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광 수입 증대를 목표로 하는 문화외교를 추진하고,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전략적 교류를 확대함
 - 1960년 태국관광청 설립(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TAT)과 2001년 세계 최초의 체계적 가스트로디플로머시(Gastrodiplomacy)⁴¹인 ‘Thai SELECT’를 도입하고, 2002년 외무부 문화관계부를 설치하며 문화·음식·관광을 통합한 국제문화교류 제도 기반이 형성됨
 - 2020년대 들어 프라윛(Prayut) 정부의 5F 정책을 기반으로 세타(Srettha) 정부가 11개 창조산업·OFOS·THACCA 등으로 소프트파워 정책을 확장하며 K-팝 모델을 벤치마킹한 ‘전 국민 창의 인재 국가’ 비전을 추진하고 있음

표 3-19 태국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기별 추진 배경 및 흐름

구분	주요 특징	세부 내용
1980~2010년대	관광을 주력 사업으로 기반 마련	- 1960년 태국관광청(TAT) 설립으로 문화외교와 관광진흥의 연계 체계가 구축되며 인근 국가보다 앞서 문화·관광 브랜드를 선점함 - 2001년 시작된 ‘글로벌 타이 프로그램’과 ‘Thai SELECT’ 인증제는 음식을 핵심 소프트파워 자산으로 삼는 ‘가스트로디플로머시’를 체계적으로 활용 - 2002년 외무부 문화관계부 설립(후에 공공외교 정보부로 개편)과 함께 외무부·문화부·관광체육부·상무부 협력체계를 구축해 문화·음식·관광을 통합 추진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형성
2020년~현재	창조산업 연계와 벤치마킹을 통한 콘텐츠 강국 도약	- 프라윛(Prayut) 정부의 ‘5F 정책(Food, Film, Festival, Fighting, Fashion)’과 세타(Srettha) 정부가 11개 창조산업 정책으로 확장 - ‘문화부 2023~2027’ 계획에서 소프트파워 상품·서비스를 상위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 국제영화제 홍보와 글로벌 영화 타이틀 판매를 위한 전문 협사가 양성 등 유기적 문화 확산 전략을 추진 -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벤치마킹한 태국창작협회(THACCA)의 OFOS(One Family One Soft Power) 정책을 통해 창의적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전문인력과 네트워크를 구축 - 치앙마이 소프트파워 프로젝트 등 지방단위에 고부가가치 관광 개발과 ‘태국 공공외교상’ 운영

41 음식을 매개로 국가 간의 문화적 이해 증진 및 긍정적 국가 이미지 구축을 통해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 국가 간 만찬 및 공식 행사 시 자국 고유의 음식 소개 및 해외 자국 음식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일컬음

② 주요 법 및 제도

- 총리령과 특별법을 통해 소프트파워·창조문화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관리함

·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 설치’에 관한 총리령과 ‘태국 창조문화 진흥법’에 기반하여 12개 창조문화산업 분야를 설정하고 국가 계획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함

표 3-20 태국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적 근거 주요 내용

법·제도	핵심 내용
[총리령 제290/2566호]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 설치	소프트파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개발-실행 3단계 조직 체계를 통해 14개 창조산업 분야의 소프트파워 증진을 목표로 설정
[총리령 제216/2566호] 국가 소프트파워 개발위원회 설치	290호를 근거로 한 실행기구로 약 50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전 정부 차원의 ‘총동원 체계’를 구축
‘태국 창조문화 진흥법’ (THACCA법, 제정안)	국가 소프트파워 강화를 목적으로 총리실 주관 아래 태국창의문화진흥원(THACCA)을 공공기관(독립법인)으로 설립하고 12개 창조문화산업과 추가 지정 분야를 법적으로 정의
문화부 소프트파워 진흥 중기계획 (2023-2027)	문화부는 2023-2027년 중기계획에서 소프트파워 상품·서비스를 국가 상위 15개 수출 품목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

③ 전담기관 및 거버넌스

- 정부차원 3단계 위원회 체계를 통해 정책 전략 및 방향, 예산 배분 등을 결정함

·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 수립, 정책 방향 설정 예산 배분을 담당하며 국가 차원의 소프트파워 목표와 14개 창조산업 분야별 전략을 설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

- 국가 소프트파워 개발위원회는 실행·조정 기구로, 50여 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전 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로 구체적 방안과 부처별 역할 분담·협력 체계를 설계·운영함
- 음식·영화·패션·게임 등 14개 창조산업 분야로 구성된 분야별 산업 추진 소위원회를 조직해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과 성과관리를 담당하며 각 산업의 특성과 발전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 사업 기획, 성과 점검 등을 수행함

- 태국창의문화진흥원(THACCA) 주도 원스톱 정책 실행과 협력 구조

· 기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문화·창조산업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을 모델로 한 통합 문화산업 진흥기관임

- 정책 지원, 예산 조정, 연구개발, 컨설팅, 홍보, 투자 유치, 교육 훈련, 인프라 조성 등 창조문화산업 전 과정을 지원·추진하며 창조문화 진흥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

나. 국제문화교류 주요 전략 및 사례

① 국제문화교류 정책 방향

- 정부 주도 소프트파워 전략과 민간 콘텐츠·축제·관광 산업 결합 국제문화교류 모델

· 태국 문화부는 국제기구, 다자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THACCA는 각 분야별 공동제작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사업의 국제문화교류를 전개함

- UNESCO 등재 무형문화유산과 현대 콘텐츠인 BL⁴² 드라마, 음악, 페스티벌을 동시에 활용하며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제작사, 플랫폼, 시민사회가 협력구조를 보임

② 주요 사업 및 사례

- 유·무형 자산의 현대적 재해석과 민관 협업 기반의 교류 모델 구축

· UNESCO 무형문화유산(곤 가면무극, 마사지, 톰얌쿱 등)을 계기로 전통예술의 상업화와 관광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대표 축제인 ‘마하 송크란 세계 물 축제(Maha Songkran World Water Festival)’와 ‘Tomorrowland’ 페스티벌 태국 개최 등 관광과 축제의 글로벌 전략을 추진함

· BL 드라마와 음악, 페스티벌은 ‘GMMTV’와 ‘Be On Cloud’ 제작사와 글로벌 플랫폼(넷플릭스, iQiyi, WeTV 등)의 협력을 통해 공동 제작, 동시 방영, 촬영지 관광으로 연결되며 콘텐츠 기반 경제적 관광적 파급효과 창출함

· ICONSIAM, BACC, FAM Studios Bangkok, Cloud 11 프로젝트 등 민간·공공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연, 교육, 레지던시, 콘텐츠를 결합한 국제교류 플랫폼으로 기능함

표 3-21 태국 국제문화교류 주요 특징 및 문화적 의미

구분	주요 특징	문화적 의미
제도 기반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 THACCA, 문화부 등 정부 주도 소프트파워 체계와 전략 결합	전통문화·창조산업·관광을 통합 관리하며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반 마련
교류 형태	전통예술 공연, 국제 페스티벌, BL 드라마, 커뮤니티 극장, 체험 관광 등 다층적 형식	전통·현대, 온·오프라인 복합 교류 방식으로 상업적 성공과 지역 활성화 동시에 지향
협력 주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 단체, 지역 극단·예술가·플랫폼이 참여	정부 정책과 민간 창의성을 결합한 태국식 국제문화교류 모델을 형성함
문화적 효과	글로벌 브랜드화와 관광을 통한 콘텐츠 허브 부상, 데이터 기반 투자·협력 확대	경제적 수익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문화교류로 자리매김

42 남성 간의 로맨스를 소재로 한 드라마 장르(Boys' Love)로, 태국의 대표적인 콘텐츠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아 동남아시아·중화권 등지에서 폭넓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음

7. 아프리카/중동: 이집트

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법·제도

① 정치적 배경 및 도입

- 중앙통제에서 문화개방으로, 예술가·지식인의 참여를 통한 국제문화교류
 - 군사 쿠데타 이후 1952년 나세르 정권은 언론, 영화 등에 대한 검열을 계속하였으며 이후 1964년 대외문 화관계부가 폐지되고 문화부로 이관되어 독립함
 - 무바라크 푸진 정권(1981~2011년)에 이르러 문화부의 역할이 확대되며 해외 이집트 문화센터 설치와 국 제회의의 참석 등 국가차원 문화외교와 국제 협력을 추진함
 - ‘아랍문화의 미래(1997)’, ‘새로운 문화담론을 향하여(2003)’ 등 과 같은 회의는 아랍국가와의 관계 정 상화 시도를 지원하는 외교·문화 무대로 작동하며 세계화 속에서 이집트문화의 정체성을 보존 및 강화 하려는 담론의 발전과 국가 차원의 문화외교와 국제 협력 노력을 제도화함
 - 무바라크 퇴진 이후, 민간 주도의 예술활동과 국제문화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문화부-외교부 협력의 전 시·공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과 소프트파워 제고에 집중함

표 3-22 이집트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기별 추진 배경 및 흐름

구분	주요 특징	세부 내용
1950 ~1980년	지방문화확산과 문화부 기관 설립	- 1952년 나세르 집권 후 국가지도부 설치, 언론·영화 검열과 함께 문화·관광·박물관·극장을 국가가 직접 관리 - 1958년 문화궁전 건립, 문화카라반 운영과 예술가를 동원한 국가 프로젝트, 민속예술 보전과 검열이 지속됨 - 1964년 대외문화관계부 신설, 1967년 문화부로 이관되어 독립
1980 ~2010년 초	카이로 하우스 건립과 국제 협력 제화	- 이라크 정권에서 일본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며 정부·문화재단과 협력해 카이로 하우스(국립문화센터)를 일본 무상원조 건립 - 1990~2000년대 문화부 산하 자문기관인 최고문화평의회(SCC)가 ‘아랍문화의 미래’(1997), ‘새로운 문화담론을 향하여’(2003) 등을 주최
2011년 혁명 이후	적극적인 국제문화교류와 국제기구 활동	- 2012년부터 D-CAF(도심 현대 미술제)에서 국내외 예술교류, 협업, 워크숍 등 지속적인 공동창작 - 최고문화평의회(SCC)의 ‘이집트 문화의 미래’(2013) 담론 확대 - 지식인 주도 문화의 국가 주요 전략이자 정책 강조, 문화부·교육부·청소년부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세속·진보적 문화 구축

② 주요 법 및 제도

- 유물과 문화유산 보호에 맞춘 제한적인 법 체계 마련
 - 헌법에는 ‘시민의 문화권’, ‘창의 표현의 자유’, ‘문화 접근성 평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나, 실제 행정 및 법 집행 과정에서는 검열이 엄격하여 자율성이 제한됨
 - 문화예술과 예술가, 국제문화교류 관련된 별도의 포괄적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문화다양성 조약, 카이로 선언 등 일부 국제 협약에 있어 관련 내용이 제한적으로 명시됨
- 정부 주도하에 통합정책을 추진하며, 문화예술산업이 핵심요인으로 재정의되고 있음
 - 이집트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문화부 단독이 아닌, 국가 발전 전략과의 연계를 위해 다수의 부처가 연 계하는 구조로 이행되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2016년에 발표된 「이집트 비전 2030(Egypt Vision 2030)」을 기반으로 문 화 부문을 경제 핵심 동력 그리고 소프트파워 구축의 주요 수단으로 명시하며 국가 발전 전략과의 연계를 위해 문화부와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는 구조로 이행됨

표 3-23 이집트 기관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구분	내용
문화부	중앙대외 문화관계처를 통해 양자·다자 간 문화교류 협정을 이행하고, 해외 문화 행사를 주최·참가하며 이집트 문화콘텐츠의 확산을 총괄함
외교부	UNESCO 등 고위급 회의에 참여하고, 해외 주재 대사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집트 고유의 문화를 홍보하며,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을 일부 지원함
기획경제개발부	문화궁전, 박물관 현대화 등 문화 부문의 인프라 개발 및 개선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예술 창작 및 창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ODA와 연계한 문화프로젝트 재정 지원을 담당함
국제 협력부	민간 및 국제 파트너들이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부, 외교부 등 다수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국제문화협력 사업을 추진함

- 문화부 산하 ‘중앙대외문화관계처(إدارة العلاقات الثقافية)’⁴³는 이집 트의 문화적 소프트파워 증진 및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주요 창구로서 역할
 - 중앙대외문화관계처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예술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또한 문화예술산업 분야에 있어 국제 협력 협정 및 양해각서를 이행하고, 상호문화교류를 촉진 하며, 아랍 및 아프리카 대륙 모두를 포괄하는 지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문화적 리더십을 확보하 는 것을 목표로 함

43 Basant Gamil(2024. 9. 1.), بادتنب ازارق ردصي ةفاقثل رىزو، ةىجراخل افاقثل اشئىر فى ظل دب اعنار

나. 국제문화교류 주요 전략 및 사례

① 국제문화교류 정책 방향

- 고대 문명을 넘어 영화·공연예술·디자인 등 창의산업 중심 국제문화교류
 - 국제문화 행사, 양·다자 문화외교, 해외 문화 대표 시스템을 통해 국가 자원 및 국가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한 ODA, 디지털 전환, 공동 제작 등 산업과 결합한 교류방향을 지향함

② 주요 사업 및 사례

- 다각적 문화행사 연계 및 민간 기금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국제문화교류 모델 구축
 - 문화주간, 카이로 국제도서전 및 국제영화제 등 공연, 전시, 영화 등 공동 제작하며 국제적인 협력 모델과 네트워크를 확장함
 -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국제 협력 환경 조성과 유통·소비 구조를 확장하기 클러스터 맵핑 이니셔티브 카이로(Cluster Mapping Initiative)⁴⁴, 카이로트로니카(Cairotronica)⁴⁵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콘텐츠·협업 통합을 강화함
 - 국가 정체성을 반영한 아랍문화운동가들의 주도로 설립된 ‘Arab Fund for Arts and Culture’는 역량 강화를 위한 트레이닝 및 멘토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타국가 예술가 간 기술 및 경험을 교환하는 기반을 마련함

표 3-24 이집트 국제문화교류 주요 특징 및 문화적 의미

구분	주요 특징	문화적 의미
제도 기반	중앙대외문화관계처 등 중앙부처와 민간인 PPP 다층 거버넌스 공동 기획 및 집행	국가 발전 전략과 연계된 통합 거버넌스를 통해 문화외교를 동시에 전망 구조 형성
교류 형태	문화주간, 도서전, 영화제, 현대예술축제, 레지던시, 공동제작,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PPP 박물관 운영 등 복합적 방식	전통유산과 현대예술, 창의산업을 결합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결과를 공유하는 공유형 모델을 발전시킴
협력 주체	중앙, 지방, 민간단체, 소수·여성 예술가, 외국 문화원, JICA 등 다양한 파트너 참여	역할을 분담해 재정·기술·네트워크를 결합하며 국가자원 보완과 다층적 연대를 구축
문화적 효과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및 창의산업 진흥과 국제사회 이슈 국가차원 사회적 책임을 전략으로 함	고대문명과 소프트파워의 가치를 동시에 촉진하는 국제문화교류 모델을 제시함

44 클러스터 맵핑 이니셔티브는 도시연구단체 'CLUSTER(Cairo Lab for Urban Studies, Training and Environmental Research)'가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이빙 플랫폼으로, 카이로 도심의 유무형 문화유산, 창작공간, 창의산업을 지도화함

45 카이로트로니카는 2016년 시작된 뉴미디어 예술 축제로 예술과 기술의 접점을 다룸

국가별 정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03

1. 국가별 국제문화교류 정책 비교 분석

가. 국가별 정책 추진 전략 비교

① 산업 및 소프트파워 주도형

- 영국, 태국, 한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자 강력한 소프트파워 수단으로 인식하고, 산업 생태계 육성 및 글로벌 시장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음
 - 영국은 ‘창조산업’ 개념을 토대로 문화예술과 산업의 경계를 없애고, 국제문화교류 수출 및 국가브랜드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
 - 문화부와 외교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영국문화원, BBC 등을 소프트파워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며,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태국은 국가소프트파워전략위원회 및 THACCA 설립을 통해 ‘OFOS’ 정책을 추진함
 - 음식, 영화, 패션, 축제 등 핵심 문화자원의 산업화와 인재양성을 연계해 문화를 통한 소득 증대와 국가 이미지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추진
 - 한국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관 산업 동반 진출 및 ‘문화 매력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장르별 및 기능별 세분화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ESG 경영 및 다자 간 교류로의 질적 전환을 모색함

② 문화유산 및 문화외교 주도형

-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외교의 중심에 두며, 지역 내 리더십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멕시코는 최근 ‘MONDIACULT 2022’ 개최를 통해 국제 문화정책 담론을 주도하고, 문화유산 보호 및 반합 운동을 통해 문화주권을 강조함
 - 이집트는 ‘Vision 2030’을 통해 고대 문명 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빙 및 문화 인프라 구축, 중동과 아프리카권 문화 허브 역할을 수행함
 - 카이로 국제영화제, 도서전 등 역사 깊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 내 문화 리더십을 유지하고, UNESCO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유산 보존 역량 강화

③ 다양성 및 사회적 가치 주도형

- **다민족·다언어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부의 사회통합과 외부의 문화적 연결을 동시에 추구하며, 과정 중심의 교류를 중시함**
 - **멕시코**는 외교부와 문화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내 문화적 허브 역할 수행과 원주민 및 아프로멕시코인의 권리 보호 법제화로 포용적 문화외교 모델 제시
 - **호주**는 ‘Revive’ 정책을 통해 원주민 우선 원칙을 발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음
 - Creative Australia에서 예술가의 노동 환경 개선 및 공정 보상을 강조하고, 원주민을 국제문화교류의 핵심으로 내세움
 - **스위스**는 연방문화청과 프로 헬베티아의 이원화된 구조하에 언어적·문화적 다양성 보호를 우선시하는 교류를 우선 지원하고 있음
 - 중앙집권적 홍보보다 지역 사무소 중심의 현지 밀착형 교류, 레지던시 등 장기적 관계를 우선시하고, ‘신퇴’와 ‘혁신’이라는 국가브랜드를 문화교류에 투영함

나. 국가별 국제문화교류 방식의 유형화

- **국가별로 보유한 문화자산과 전략적 지향에 따라 교류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문화유산 중심의 전통적 문화외교에서 벗어나 산업·플랫폼·협력·의제 등을 결합한 다층적 생태계로 확장되는 공통된 흐름을 보임**
 - **전통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외교)** : 고대 문화유산, 클래식 예술단체의 순회공연 등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전통적 교류 방식
 - (이집트) 고대 문명 유산을 활용한 ‘미라 퍼레이드’, ‘GEM’ 개관 등 대형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국가 이미지 쇄신
 - (멕시코) 아즈텍 및 마야 문명 전시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종주국 이미지를 강화
 - **산업형(콘텐츠 수출 및 시장 확대)** :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 상업 콘텐츠의 IP 판매, 연관 산업 동반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교류
 - (한국) K-콘텐츠의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연관 산업 동반 효과를 극대화함
 - (태국) 음식, 영화, 패션, 페스티벌 등을 통해 태국 문화의 산업화와 글로벌 브랜딩 추진
 - (영국) ‘창조산업’ 시스템을 수출 전략화하여, 방송 포맷, 디자인, 건축 등 해외진출을 정부가 적극 지원
 - **플랫폼형(온·오프라인 유통 및 매개)** : 디지털 플랫폼, 아트 마켓 등 교류가 일어나는 장을 구축하여 유통을 매개
 - 전 국가에서 팬데믹 이후, 가상 전시 구축, 디지털 아카이빙, 온라인 스트리밍 구축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임

- 호주와 영국은 물리적 이동 없이도 교류가 가능한 ‘디지털 협업 펀드’를 조성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협력형(공동제작 중심 교류)** : 기획부터 리서치, 제작 등 전 과정을 해외 파트너와 함께하는 쌍방향 협업 교류
 - (호주) 국제 문화 교류 기금을 통해 호주 예술가와 해외 파트너 간의 공동 창작을 의무화하여 상호 협력 유도
 - (태국) 글로벌 플랫폼과의 공동 배급 전략 등 ‘공동 제작’을 문화교류의 핵심 구조로 발전시키고 있음
 - (이집트) 카이로 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램인 ‘필름 커넥션’은 국제 공동제작 마켓으로서, 영화 기획단계부터 투자자, 배급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을 촉진
- **의제형(글로벌 가치 실현)** : 기후위기, 인권, 문화다양성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문화를 도구로 활용하는 가치 지향적 교류
 - (영국) 영국문화원의 ‘Climate Connection’ 등 기후 행동을 문화교류의 핵심 테마로 설정
 - (멕시코) ‘MONDIACULT 2022’ 개최를 통해 전 세계 문화 정책의 의제를 설정하고, ‘문화적 권리’와 ‘다양성 보호’ 담론 주도

다. 교류 내용 및 주체의 전환 분석

- **주체의 다변화와 협력 심화를 통해 글로벌 의제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교류로 발전**
 - 교류 주체는 과거 외교부 및 문화부에서 독잡하던 교류 권한이 지자체, 민간으로 이양되며 특히 스위스는 지방정부가 교류의 실질적 주체가 되거나, 영국처럼 British Council과 같은 민간 전문기구가 주도하고 있음
 - 또한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교류에서 현지 큐레이터, 페스티벌 감독 등 ‘매개자’와의 협업을 통해 현지 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음
 - 완성된 작품을 단발성으로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 워크숍, 컨설팅, 공동 리서치 등 ‘협력의 과정’ 자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며 네트워크를 지속하게 함
 - 자국의 매력을 알리기에 급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젠더, 기술 등 동시대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음

2. 국제문화교류 정책 기조의 전환

- 7개 분석 대상 국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최근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일방향적 문화 전파를 넘어 상호 호혜적 협력,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교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보이고 있음

▪ ‘전파’에서 ‘협력’과 ‘공존’으로

- (국가 전략자산으로서의 위상 강화) 단순한 친선 교류를 벗어나 외교와 안보(영국 Intergrated Review), 경제 성장(태국 OFOS, 영국 창조산업), 사회 통합(호주 Revive 정책, 멕시코 원주민 보호 정책)을 위한 핵심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변화
 - 이는 문화교류가 문화산업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과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정치적 안보·외교 자산화의 수단으로 격상됐음을 의미
- (거버넌스의 분권화 및 민관 협력 확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전달 체계에서 벗어나, 전담 기구(Creative Australia, THACCA, Pro Helvetia, KOFICE 등)를 통한 전문적 교류를 추진하고 민간 및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거버넌스 협치’ 모델이 강화됨
- (가치 중심 교류 지향) 문화다양성, 기후위기 대응, 원주민 및 소수자 권리 보호 등 글로벌 의제를 교류의 핵심 테마로 설정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 강조
 - 원주민 보호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전 세계적인 ‘사회적 가치 변화’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임

▪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접근성 확장 및 ‘초국경’ 교류

- (시간·공간 제약 극복) 실질적 감동과 체험이 중요한 공연 및 전시는 오프라인으로 회귀하되, 사전 리서치, 파트너 매칭, 사후 아카이빙 등의 단계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임
- (기술 기반 장벽 해소) AI 기반 실시간 번역, 자동 더빙 기술의 도입으로 언어적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비영어권 국가 간의 직교류 및 마이너 장르의 글로벌 팬덤 형성이 가속화됨
- (가상 공간(Metaverse) 활용) 가상 박물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체험 등 몰입형 콘텐츠를 통해 물리적 방문 없이도 깊이 있는 문화 체험 기회 제공

▪ 관계 중심의 장기적 교류 선호 및 기후행동 기반 지속가능한 교류

- (탄소발자국 저감) 탄소 배출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물리적 이동인 만큼, 단발성 이벤트보다는 레지던시, 공동 창작 등 체류 기간이 길고 교류의 밀도가 높은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 뚜렷해지고 있음
 - 대규모 인력 이동이나 물자 수송을 수반하는 대형 전시·공연 대신, 현지 인력을 활용한 제작(Touring without traveling)이나 장기 체류형(레지던시) 교류 선호
 - 또한 작품은 이동하되 사람은 최소한으로 이동하고, 현지 테크니션이나 예술가와 협업해 작품을 구현하는 방식이 경제적 및 환경적 이유로 주목받고 있음

- (친환경 실천) 교류 사업 선정 및 평가 기준에 기후위기 대응 노력(재활용 자재 사용, 디지털 자료집 활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 이러한 슬로우 모빌리티와 기후행동의 실천은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예술계의 자발적인 응답임

3. 시사점

▪ 국제문화교류 패러다임의 보편적 수렴과 이슈 도출의 당위성

- 본 장에서 분석한 주요 7개국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변화는 각국의 특수한 정치·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했으나,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포용성 요구라는 전 지구적 환경 변화에 대한 공통된 대응 기조를 띠고 있음
 - 이는 국제문화교류가 단순히 홍보의 수단을 넘어, 전 세계적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 간 지속가능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함
- 기존의 ‘국가 주도·일방향적 문화 전파’에서 ‘다층적 거버넌스·관계 중심의 상호 협력’으로 중심축이 이동하였음
 - 향후 3년간 국제문화교류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변동성을 동반할 것인지에 대해 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본 장의 정성적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거시환경 요인을 심층 진단하고, 정책 문서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정량 분석을 교차 적용하여 미래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핵심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s)’ 후보군을 도출하고자 함

1절 STEEP 및 텍스트마이닝 기반 거시환경 분석

2절 트렌드 후보군 도출 및 구체화

3절 전문가 조사 및 검증

4

PART

- 국제문화교류
트렌드 및
변화요인

STEEP 및 텍스트마이닝 기반 거시환경 분석

01

1. 국제문화교류 환경 변화 STEEP 분석

가. 분석 개요

① STEEP 분석 적용 배경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전략과 사회적 가치가 결합된 복합적 정책 영역으로 재편

• 최근 국제문화교류는 단순한 국가 간 문화 소개나 일회성 행사를 넘어, 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적 요인과 긴밀히 연계되는 복합적 정책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지정학적 관계, 지속가능성 가치에 대한 국제적 요구 증대는 교류의 목적과 방식, 참여 주체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변화는 문화교류를 문화전달 중심에서 사회적 변화와 글로벌 가치 확산의 전략적 수단으로 전환시키고 있음

• 7개국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 변화의 체계적 분석을 위해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nvironmental, Political)을 적용함

② 분석 목적 및 방법

▪ 복합적 구조 이해를 위한 거시환경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STEEP 접근

• 본 절에서는 주요 7개국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TEEP 분석 방법론을 적용

- STEEP 분석은 거시 환경 요인을 5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검토해 국가별 문화교류 정책의 구조적 배경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틀로 활용됨

- 특히 문화예술산업 기반의 국제문화교류는 사회적 가치, 기술 변화, 시장 구조, 환경 문제 등 복합적으로 결합된 영역으로 단일 요인 중심 분석이 아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③ 분석 대상 및 범위

▪ 문헌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차별화된 전략 파악

• 분석 대상 국가는 멕시코, 호주, 영국, 스위스, 한국, 태국, 이집트로 총 7개 국가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각국 정부 정책 문헌,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보고서, 관련 사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요인별 주요 변화 동인과 정책 대응 방향을 비교·분석하여 국가 간 정책 환경의 차이를 식별함

- 국제문화교류의 거시적 동향을 도출하고, 분석 결과는 향후 국제문화교류의 트렌드 도출, 국가별 정책 방향 비교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됨

나. 국가별 STEEP 분석

① 사회적 요인(Social): 포용성 확대와 인구 구조 변화 대응

▪ 자국의 인구학적 변화와 전통적, 사회적 가치를 문화교류 정책의 핵심 기조로 반영

• 과거 문화교류가 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원주민 및 소수자의 문화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음

- 호주는 문화정책 'Revive'에서 '원주민 우선'을 선포해 모든 국제 프로젝트에 원주민 문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헌법 개정으로 '아프로멕시코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윤리적 검증을 사업 내용에 반영을 유도하고 있음

• 각국은 자국의 인구학적 위기를 문화교류로 타개하고자 함

- 태국은 LGBTQ+ 수용성을 앞세워 아시아의 퀴어 문화 허브를 자처하며 포용성을 산업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한국과 영국은 각각 다문화·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인적 교류를 통한 연대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표 4-1 주요 7개국 사회적 요인 분석

구분	내용
멕시코	- 2019년 헌법 개정으로 아프로멕시코인 권리 공식 인정 → 다문화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공동체 참여형 문화교류 기반 마련 - EU-멕시코 문화펀드(2009) 등을 통한 사회적 포용·문화적 다양성 확대 프로그램 활성화로 세대·계층 간 문화소외 해소, 상호 이해 증진
호주	- 원주민 문화의 중심화(국가문화정책 Revive)를 통해 '원주민 우선(First Nations First)'을 핵심으로 제시하며 원주민 예술 및 문화를 발전 전략으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원주민 주도의 국제 프로젝트·레지던시·전시 지원이 제도화되고 있음 - 예술가 권리 및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지원의 혜택이 대도시·주요기관 주류 예술에 편중될 위험이 있어 지방·소수자·원주민 커뮤니티의 지속적 참여 보장이 과제임
영국	- 관계의 연속성을 지향한 상호 이해 기반 국제문화교류 추진 - 국가 및 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 간 장기 파트너십을 포함, 창작자 간 레지던시 형태의 인적교류 등을 통한 상호이해의 장 마련
스위스	- 국내외 문화다양성 존중 및 상호관계 기반 교류 추진 - 스위스 내 다언어·다문화 배경 존중 및 해외 파트너와의 장기적 상호관계 구축 지향, 레지던시 등 인적교류 및 시민사회 자발적 교류 중시
한국	- ODA, 난민, 환경 등의 글로벌 이슈 연계사업을 통한 국제적 책임 및 연대 강화 - 수도권 및 대형기관 중심의 교류 집중으로 지역 문화주체의 국제문화교류 참여 기회 부족
태국	- LGBTQ+ 수용성 확산: BL 드라마 성공을 통해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성소수자 문화 인식 확산 - 다문화 수용도 증가: 88rising과의 협력에서 보듯 아시아 각국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향상 - 젊은 층 글로벌 문화 수용: 케이팝 영향을 받은 태국 아티스트들의 성공과 국내 팬층 형성 - 문화정체성 혼재: 글로벌 트렌드 추종과 태국 고유문화 보존 간 균형 필요

구분	내용
이집트	- 이집트는 약 1억 1,836만 명의 많은 인구수와 높은 청년층의 비율로 문화예술산업 분야 잠재적 소비시장으로 볼 수 있음 - 거대 콘텐츠 소비 잠재 시장 및 젊은 창작자 풀이 존재하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문화예술콘텐츠 허브 역할 - 25세 이상 성인 중 25% 이상이 문맹 상태이므로 출판과 문학 등의 문자 기반 콘텐츠 교류 접근성에 장벽이 되며, 디지털·시각·공연예술 등 비문자 문화교류 필요성 증대

②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 디지털 주권과 플랫폼 종속의 딜레마

▪ 거대 플랫폼 중심 구조 속 IP 주권 보호를 위한 과제

• 넷플릭스,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자국 콘텐츠와 데이터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

- 주요국 모두 글로벌 OTT를 통해 콘텐츠 수출 효과를 누리고 있으나, 동시에 쿼터제, 제작 기술 종속, 불법 복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 역시 AI 학습에 의한 저작권 침해 대응과 IP 주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마련에 집중함

▪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 수단으로서의 디지털·하이브리드 교류

•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아카이빙을 넘어 국제문화교류를 보완 및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코로나 기간 중 각국은 메타버스 공연, 온라인 레지던시, XR·VR 기반 전시,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등을 적극 도입하며 교류의 큰 변화를 꾀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다시 대면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하이브리드 방식의 교류가 확산되고 있음

- 따라서 아직 디지털 기술은 대면 활동을 대체하기보다는 이를 보완 및 확장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표 4-2 주요 7개국 기술적 요인 분석

구분	내용
멕시코	- 코로나 이후 디지털 문화외교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가상전시·온라인 공연·디지털 아카이빙이 활성화됨 - MONDIACULT 2022에서 제시된 “문화의 디지털 접근성·저작권 보호” 논의는 국제 협력의 새로운 기술분야 확장 가능성을 열었음 - 디지털 저작권 및 전통보호 기술·법제 미비
호주	- Creative Australia는 국제교류의 디지털·하이브리드 형태의 국제교류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교류의 확장성을 강조(온라인 스트리밍, 가상전시, 하이브리드 레지던시 등은 지리적 장벽을 낮추고 해외 관객·파트너와의 접근성을 확대) - 기술융합으로 새로운 창작·수출 경로 창출(게임·XR·음악 스트리밍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창작물 유통이 예술가·산업의 국제화 기회 제공) - 디지털 격차(접근성·역량) 문제

구분	내용
영국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제문화교류의 저변 확대 -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방문객 유치 등 대면 차원의 교류가 불가할 때 스트리밍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교류 정상화, 나아가 지역 간 저변 확대
스위스	- 문화 정책 내 디지털 전환 통합 및 지원 - 문화메시지 2025-2028은 ‘디지털 전환’을 핵심분야로 설정, 디지털·하이브리드 형식의 제작·유통 지원 및 디지털 문화유산 보존 목표 설정
한국	- 메타버스·AI 등 신기술 활용한 콘텐츠 제작, 유통 및 해외 홍보 시스템 구축 - 전통예술 및 무형유산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무대 진출 - AI 기반 예술창작 활성화 및 버추얼 아이돌·메타버스 공연의 확대(버추얼 그룹 ‘플레이브’의 오프라인 첫 번째 팬 콘서트에 티켓예매 7만 명 동시접속)
태국	- 스트리밍 플랫폼 확산으로 태국 콘텐츠의 글로벌 접근성 급속 향상 -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무명현, Mii랑고스티카리아스) - 디지털 페스티벌 기술: 투모로우랜드, 88rising 등 글로벌 수준의 무대기술 도입 - 도시와 지방의 인터넷 인프라 격차로 문화교류 참여가 제한적이며, 고급 제작 기술인력마저 부족한 상황임
이집트	- 디지털 이집트 정책 등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 혁신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첨단 기술 미비로 외국의 기술력을 끌어와 고대유적 VR, 3D 스캔 등으로 문화유산을 디지털 화하여 보존

③ 경제적 요인(Economic): 소프트파워의 산업화와 창작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의 수출 산업화와 국가 브랜딩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 문화를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핵심 자산인 ‘창조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음

- 영국은 문화예술을 창조산업으로 묶어 수출 확대와 투자 촉진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며 국제문화교류와 산업이 맞물려 연계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K-컬처를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한국을 벤치마킹한 태국은 11개 창조산업 육성을 통해 4조 바트 수익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광과 연계한 수익 창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순수예술·전통예술의 소외를 최소화하고 ‘공정 보수’ 체계 도입

•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장르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예술가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 한국은 대중문화 콘텐츠에 수익이 집중되는 반면 순수예술 및 전통문화 분야의 시장 자립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양극화 현상이 과제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호주는 예술가를 보호 대상이 아닌 ‘직업인’으로 인정하고 최저 임금 보장, 연금 등 노동 복지를 포함한 ‘공정 보수’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스위스 역시 당장의 상업적 결과물보다는 긴 호흡의 ‘리서치(과정)’ 단계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며, 창작활동 자체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함

표 4-3 주요 7개국 경제적 요인 분석

구분	내용
멕시코	- 멕시코의 문화외교는 소프트파워 전략과 맞물려 외국인의 멕시코 문화 수요를 창출하고, 이는 관광 및 콘텐츠 수출·문화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문화외교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협력·공공외교가 확대되면 경제외교와 문화경제가 결합되는 기회
호주	- 문화·창조산업은 관광·교육·콘텐츠 수출 등과 연계되어 GDP와 고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부는 Revive 정책을 통해 문화수출·창작산업을 국가경제 전략으로 연결 - 아시아·태평양 중심 시장의 다양화와 공공·민간 파트너십
영국	- 국제문화교류 기반 연관 산업을 통한 시장 확대 - 문화예술, 문화산업 영역을 창조산업으로 묶어 영국의 수출확대와 투자촉진 장치로 활용해 국제문화교류와 산업 활성화 간 선순환 구조를 이룸
스위스	- 국가 브랜딩을 통한 간접적 경제 이익 추구 - 문화를 국가브랜딩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혁신'과 '신뢰' 이미지 홍보를 통해 투자 유치 등 스위스의 전반적인 경제 이익 보호 목표
한국	- 문화산업이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이자 대외 경제협력 및 수출 확대 주도 역할 - 민간 기업의 자본력 및 전문성을 활용한 문화예술교류 인프라 구축 - 일부 대중문화 콘텐츠에 수익이 집중되고, 순수 및 전통예술 분야의 재정 자립 기반 취약
태국	- 11개 창조산업을 통한 4조 바트 수익을 목표로 설정하며 창조경제 확장 - BL 관광, 페스티벌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 증대로 문화+관광 연계 효과 - 민간 투자보다 정부 주도 정책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
이집트	- 영화·드라마 등 대중문화 콘텐츠 수출을 확대해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확대 - 고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과 연계된 공연예술, 기념품, 창작 상품 판매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높은 공공부채와 외환부족 등의 경제 취약성으로 순수예술 진흥 및 문화인프라에 있어 정부의 안정적 예산 확보 어려움

④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기후 위기의 적응과 책무성 강화

▪ 문화유산의 물리적 생존을 위한 대응과 탄소발자국 감축을 위한 노력

• 매년 경험하지 못했던 기후 변화로 인해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며 문화유산이 위협받고, 각국에서는 탄소발자국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과 계획을 확대하고 있음

- 이집트는 사막화로부터, 멕시코는 자연재해로부터 문화유산 손실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나, 이에 대응할 역량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 이에 이집트는 문화유산 접근권을 허용하는 대신 단순 기록 목적이 아닌 보호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 디지털 트윈, VR 전시 등 보존 기술을 이전받는 협력형 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친환경 대규모 투어와 페스티벌에 대한 환경적 책임이 강화됨

- 태국은 투모로우랜드 등 대형 페스티벌 유치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 페스티벌' 모델을 모색 중이며 한국은 K-팝 월드 투어 및 MD 제작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ESG 경영 도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향후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시 '탄소 저감 계획'이 필수 평가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음

표 4-4 주요 7개국 환경적 요인 분석

구분	내용
멕시코	- MONDIACULT 2022 선언에서 문화·환경 연계를 국제의제로 격상(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논의 확산) -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유산 손실에 대한 체계적 대응·복원 역량 부족
호주	- 지역공동체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담보
영국	- 분쟁 및 기후 위험지역의 문화유산 및 관련 기록 보존·복원, 지속가능 건축 및 디자인 등 환경 목표와 연계한 국제문화교류 추진
스위스	- 문화유산 보호 중심의 지속가능성 추구 - 문화메시지 2025-2028은 '지속가능성'과 '문화유산'을 핵심 분야로 포함하고 특히 국제적으로는 문화유산 보호에 중점 - 연방문화청(FOC)의 불법 문화재 반환 노력을 통해 문화적 지속가능성 실현
한국	- 문화기관 및 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대로 인한 지속가능한 문화활동 요구 증가 -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글로벌 환경의제 해결을 위한 예술프로젝트 역할 증대 - 대형 해외 투어 및 MD 제작 과정에서 탄소배출 문제에 대한 비판 증가 - 문화유산의 기후변화에 대한 보호 필요성 증대
태국	- 대규모 페스티벌의 환경 부담(투모로우랜드, Rolling Loud 등 수십만 관객 집중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 문화관광 증가에 따른 관광지 환경 보호 필요성 증대 - 해외 아티스트 초청 및 국제 관광객 증가로 인한 항공 운송 탄소 배출 문제 증대
이집트	- 사막화, 지중해 수위 상승, 나일강 수자원 부족 등 고대 유적 및 문화유산의 물리적 보존 문제 대두

⑤ 정치적 요인(Political): 문화의 안보 자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 문화외교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의 전략적 기반으로 강화

• 문화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외교 및 안보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상대국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며 국제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전략적 자산

- 영국은 창조산업을 안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호주는 외교부와 협업하여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멕시코 역시 문화외교를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하여 다자 간 무대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음

▪ 강력한 정부 주도형 정책 추진의 리스크와 정책 불확실성 경계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은 초기 추진력과 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하지만, 정권-대외관계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급변하는 구조적 리스크를 내포함

- 태국은 총리 직속 기구인 THACCA를 통해 소프트파워를 ‘국가 총동원령’ 수준으로 추진하나 정권 교체 시 정책 지속성이 우려되고, 멕시코 또한 정치적 의지에 따라 정책 기조가 급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호주도 국제문화교류를 국가적 우선과제로 격상하고 외교·무역·교육 전략과 연계했지만, 문화정책이 예산·정권 우선순위 및 외교관계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만으로는 정책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보여줌

표 4-5 주요 7개국 정치적 요인 분석

구분	내용
멕시코	- 문화외교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공식 채택 - 2015년 문화부 신설되며 문화외교 거버넌스 체계화 - 외교부·문화부·AMEXCID 간 협력 체계 구축 → 국가브랜드·소프트파워 전략에 일관성 부여 - MONDIACULT 2022 개최로 문화정책 국제 의제 주도국으로 부상하며 다자 간 무대 리더십 강화 - 미국과 멕시코 관계나 정권교체 및 문화 정책방향 전환 등 내부정치 변동 등이 문화교류 정책의 안정성 위협 가능성이 있음
호주	- 제도적 정비와 법·정책의 명시성(Creative Australia Act 2023 제정과 Revive3 정책은 국제문화교류를 국가적 우선과제로 삼을 기반 마련) - 외교·문화거버넌스 협업(DFAT-Creative Australia 연계는 문화프로그램을 외교전략과 결합시키는 강점) - 아시아-태평양 전략과의 일관성(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와 연계된 문화외교 우선순위는 외교, 무역,교육 전략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또한 문화정책은 정권과 예산 등의 우선순위 변화에 취약하며, 외교관계 변화로 인한 문화협력 제약이 따름
영국	- 영국 국력의 주요 자산으로서 소프트파워를 강조 - 국가전략에서 소프트파워 극대화를 공식화할 뿐만 아니라, 외교 및 안보전략의 핵심적인 자산으로 지위를 승격함 - 브렉시트로 인해 파트타임, 단기계약, 프리랜서 등의 짧은 고용 형태는 예술인들의 이동성 및 비자문제와 맞물려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영국과의 교류를 저해하는 주요 장벽으로 작용
스위스	- 공공외교 및 법적 프레임워크 기반 국제 협력 강화 - 문화를 공공외교 도구로 활용 - 명확한 법적·정책적 프레임워크(헌법, 문화진흥법 등) 기반 국제 협력 추진 - EU ‘크리에이티브 유럽’ 재가입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목표 - ‘영구중립국’ 지위를 통한 중립적 공간 및 대화의 플랫폼 제공 - 연방정부가 아닌 26개 주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주마다 문화에 대한 지원이 각기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통일된 국제문화교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한국	- 국제 기구 내 문화적 위상 증대 및 글로벌 문화규범 정립에 주도적 참여 -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의거한 전담기관 지정 - 주요 전담기관 간 역할 조정 및 예산 배분의 효율화 요구 증대

구분	내용
태국	- 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고위급 외교를 통한 강력한 정책 추진력 - THACCA 설립, 총리령 제정 등 체계적 법적 기반 구축 - 스레타 정부에서 패통타른 정부로의 정책 계승(정책 연속성) - 정부 주도 정책의 특성상 정권 변화 시 정책 변동 가능성과 리스크가 큼 - 미국(88rising), 벨기에(투모로우랜드) 등 외국과의 관계 변화 영향 - 지역 정치 갈등·ASEAN 내 문화주도권 경쟁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의 갈등 가능성
이집트	- 정부 차원에서 ‘이집트 비전 2030’ 등 장기발전 전략 수립 - 민간·외국인 투자자 유치 위한 개방정책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및 배급 파트너십에 긍정적 - 인접 국가와의 갈등 및 시나이 반도 테러 위험은 국제 문화행사, 관광 연계 프로젝트 등의 안전성을 위협

다. 거시적 외부환경 요인 종합분석

▪ 국제문화교류를 단일한 문화정책 영역이 아닌, 복합적 정책환경 속에서 재정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교류의 내용·주체·방식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음

•7개국의 STEEP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국제문화교류를 둘러싼 거시 환경은 국가별 여건과 정책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적인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문화다양성, 포용성, 공동체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제문화교류의 가치 기준이 확장되며 원주민·소수자 문화의 재조명, 젠더·세대·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상호 이해에 기반한 장기적 관계 형성이 주요 정책 목표로 부상하고 있었음
-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국제문화교류의 대면 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확장하며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하이브리드 레지던시, 디지털 아카이빙 등은 지리적 제약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교류 주체를 형성함. 그러나 저작권 보호와 플랫폼 의존 심화 등은 새로운 정책적 과제임
-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제문화교류가 문화예술 및 창조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연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음
- **넷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담론이 국제문화교류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며 문화유산 보존, 친환경 전시·공연 방식,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가능한 문화활동에 대한 확대되는 동시에 대규모 국제행사와 이동 중심 교류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증가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국제문화교류가 소프트파워 전략, 공공외교, 국가브랜드 정책과 긴밀히 결합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권교체, 외교관계 변화, 예산구조의 불안정성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텍스트마이닝

가. 분석 개요

① 텍스트마이닝 분석 대상

▪ 7개국 정책 자료의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국제문화교류의 핵심 이슈 도출

-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본 연구의 대상인 문화예술산업 중심 국제문화교류 정책 현황을 분석한 7개국을 대상으로 함
- 각 국가별 정책 문헌을 1차적으로 번역 및 해석하고 핵심 내용을 추려낸 정제된 데이터로 정책자료의 특수성과 물리적 한계가 있음
 - 각 국가의 정책 문서가 각기 다른 언어(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태국어 등)로 작성돼 있어 원문 직접 수집 및 통일된 전처리 적용에 현실적 한계가 있음
 -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타 정책과 달리 단일 부처나 단일 법령에 귀속되지 않고 외교부, 문화부,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부처의 문서에 산재해 있어, 수집 및 분석에 제약이 있음
 - 또한 각 문서별로 서술 방식도 상이하기에 원문을 직접 텍스트마이닝할 경우, 데이터 불균형으로 통계적 유의미함을 확보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본 분석의 결과는 각국의 정책 문서 그 자체의 언어적 특성보다 연구진의 정책 해석과 기술 방식이 포함됨
 - 즉 7개국의 객관적 정책 현황을 직접 측정하기보다, 연구진의 정성적 분석 결과에 담긴 핵심 의제와 그 연결 구조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시각화하는 분석으로 기능함

② 텍스트마이닝 분석 목적 및 방법

▪ 국제문화교류 정책 현황 분석 결과를 기반 향후 국제문화교류 잠재적 트렌드 도출

- 본 텍스트마이닝은 각국 정책 원문이 아닌 연구진의 3장 분석 원고를 대상으로 하며, 분석의 목적은 정책 문서의 객관적 분석보다, 연구진의 분석에 내재된 키워드 구조와 의제 연결망을 가시화해 STEEP 분석과 델파이 조사와의 교차 검증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음
 - 공동연구진이 작성한 원고를 정량적 데이터로 변환 및 분석함으로써, 연구진의 정성적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핵심 의제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텍스트에 내재된 각 키워드의 연결망을 분석해 전략의 차이점을 살펴봄
 - 또한 가장 많이 언급된 주류 담론뿐만 아니라 빈도수는 낮아도 특정 맥락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키워드를 살펴보고, 향후 3년을 주도할 잠재적 트렌드를 발굴하고자 함
- TF-IDF 가중치 및 의미 연결망 분석으로 정책 담론의 이슈와 키워드 간 관계 파악
- 언급된 단어의 빈도만을 상위권으로 추출할 경우 일반적인 행정 용어(‘지원’, ‘문화’, ‘사업’ 등)가 높게 나타나게 되어, 숨겨진 이슈와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고, 의미 연결망 분석을 복합적으로 진행함
 - (빈도 분석) 국가별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책 키워드를 파악하여 국가별 정책의 주류 담론 확인

- (TF-IDF 가중치 적용)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가중치는 낮추고 특정 국가나 특정 이슈에서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단어의 중요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빈도수는 낮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숨겨진 이슈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의미 연결망 분석) 특정 키워드가 어떤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지를 분석하여 단어 간의 관계성을 파악

나. 국가별 텍스트마이닝 분석

① 빈도 분석

▪ ‘산업’, ‘콘텐츠’, ‘경제’ 등은 7개국 정책을 관통하는 강력한 흐름으로 나타남

- 7개국에서 가장 주요하게 나타난 키워드는 ‘산업’, ‘콘텐츠’, ‘경제’, ‘디지털’, ‘플랫폼’, ‘기술’로 주요 단어들은 문화예술을 둘러싼 환경과 수단에 집중되어 있어 있으며 정책 무게 중심이 무엇을 지원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산업 및 경제 관련 키워드) 문화와 결합되어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산업과 관광으로 이는 7개국 정책 문서 전반에서 문화예술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나타냄
 - (매체 및 플랫폼 관련 키워드) 전통적인 공연장과 미술관보다 ‘플랫폼’, ‘디지털’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정책의 관심사가 물리적 공간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확장되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음
 - (협력 관련 키워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협력’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 누가 주도하느냐보다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해진 흐름을 반영함

▪ 약신호 키워드: 지속가능한 생태계와 정체성

-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낮지만(20위권 밖) 특정 국가나 주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정책의 빈 곳을 보완하고 있는 단어들로 확인됨
 - (가치 및 권리 관련 키워드) ‘원주민’, ‘권리’ 등 주로 멕시코와 호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키워드로 교류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들이 뚜렷하게 나타남
 - (지속가능성 관련 키워드)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문제가 문화 정책에 자주 등장함, 기후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재정적 자립, 인적 네트워크의 유지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교류 모델이 모든 국가 정책의 공통된 숙제로 나타남
 - ‘국제’, ‘해외’ 만큼 ‘현지’라는 단어도 빈출되었는데, 이는 정책이 국내에서의 준비 과정보다 현지 수요조사, 현지 파트너 발굴, 현지화 전략 등 실질적 현장 중심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음 알 수 있음
 - 단순한 ‘초청’이나 ‘파견’보다 ‘공동’의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
 - ‘파트너십’과 ‘전문인력’을 통해 단기적 프로젝트를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임
 - ‘정체성’과 ‘다양성’은 각국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문화교류의 경쟁력이 되고 있음

표 4-6 국가별 주요 상위 단어 분석

구분	상위 키워드(빈도수, 가중치)		약신호 키워드(빈도수, 가중치)	
멕시코	협력(86, 327) 문화외교(46, 145) 유산(45, 140) 원주민(44, 136) 보호(36, 105)	다양(33, 94) 외교부(30, 83) 교육(28, 76) 공동체(27, 72) 전통(25, 65)	경제(20, 49) 산업(20, 49) 위원회(16, 36) 디지털(14, 30) 유네스코(13, 28)	문화협력(12, 25) 축제(10, 19) 공동(9, 17) 정체성(9, 17) 지속가능(9, 17)
호주	원주민(65, 227) 예술(64, 222) 지원(53, 174) 아시아(37, 109)	문화외교(25, 65) 위원회(25, 65) 정책(22, 55)	기금(13, 28) 산업(13, 28) 파트너(13, 28) 다양(10, 19)	수출(10, 19) 거버넌스(7, 12) 노동환경(6, 10) 커뮤니티(6, 10)
영국	창조산업(51, 165) 공동(38, 113) 지원(36, 105) 협력(31, 86)	산업(26, 69) 영국문화원(25, 65) 교육(18, 42) 시장(18, 42)	소프트파워(13, 28) 기술(10, 19) 수출(10, 19) 전담(10, 19)	투자(10, 19) 네트워크(9, 17) 디지털(9, 17) 진출(9, 17)
스위스	연방(45, 140) 홍보(39, 117) 유산(30, 83) 문화재단(26, 69)	협력(21, 52) 문화재(18, 42) 현지(16, 36) 다양(15, 33)	공동(13, 28) 디지털(13, 28) 레지던시(13, 28) 언어(11, 22) 제작(11, 22)	브랜딩(9, 17) 지속가능성(8, 14) 전담(6, 10) 플랫폼(6, 10)
한국	지원(61, 209) 한류(44, 136) 산업(28, 76) 기관(27, 72)	협력(26, 69) 콘텐츠(23, 58) 전담(16, 36)	다양(13, 28) 진흥법(12, 25) 가치(11, 22) 협업(10, 19) 해외진출(9, 17)	양성(7, 12) 전문인력(7, 12) 플랫폼(7, 12) 공동(6, 10) 매개(6, 10)
태국	산업(74, 269) 관광(58, 196) 소프트파워(53, 174) 정부(49, 157) 협력(46, 145) 지원(42, 128)	민간(36, 105) 전통(35, 101) 콘텐츠(35, 101) 페스티벌(34, 97) 플랫폼(28, 76)	파트너십(20, 49) 공동(19, 45) 사회(18, 42) 다양(16, 36)	가치(15, 33) 송크란(15, 33) 네트워크(14, 30) 한국(12, 25)
이집트	협력(58, 196) 지원(37, 109) 유산(30, 83) 산업(28, 76) 민간(27, 72)	공동(24, 62) 기획(22, 55) 네트워크(21, 52) 다양(20, 49)	협업(16, 36) 기술(12, 25) 전통(12, 25) 청년(12, 25) 디지털(11, 22)	지속가능(11, 22) 현지(11, 22) 정치(9, 17) 파트너(9, 17) 플랫폼(9, 17)

표 4-7 LDA 토픽 모델링 결과

Topic	순위	키워드	중요도
1	1	산업	0.01981653
	2	국제	0.01946844
	3	국가	0.01889634
	4	정부	0.01409077
	5	공동	0.01385965
	6	해외	0.01349297
	7	전략	0.01220987
	8	문화	0.01184525
	9	중심	0.01028731
	10	정책	0.00974449
	11	예술가	0.00956684
	12	주요	0.00890413
	13	예술	0.00875809
	14	기반	0.00784586
	15	프로그램	0.00755077
	16	교류	0.00724338
	17	창작	0.00648595
	18	운영	0.00642823
	19	체계	0.00628774
	20	프로젝트	0.00593604
2	21	협력	0.03398418
	22	지원	0.02759611
	23	설립	0.00900105
	24	문화교류	0.00898481
	25	강화	0.00897341
	26	콘텐츠	0.00892335
	27	경제	0.00794314
	28	다양	0.00691701
	29	지역	0.00645783
	30	확대	0.00602496
	31	개발	0.00572886
	32	전통	0.0054086
	33	제작	0.00536517
	34	구축	0.0048726
	35	연계	0.00466537
	36	진흥	0.00450076

Topic	순위	키워드	중요도
3	37	기관	0.01879021
	38	외교	0.00946185
	39	교육	0.00881701
	40	문화예술	0.00824844
	41	원주민	0.00766783
	42	민간	0.00754663
	43	활동	0.00734456
	44	참여	0.0072639
	45	보호	0.00634484
	46	행사	0.00571081
	47	소프트파워	0.00536865
	48	홍보	0.0049652
	49	수출	0.00485898
	50	수행	0.00480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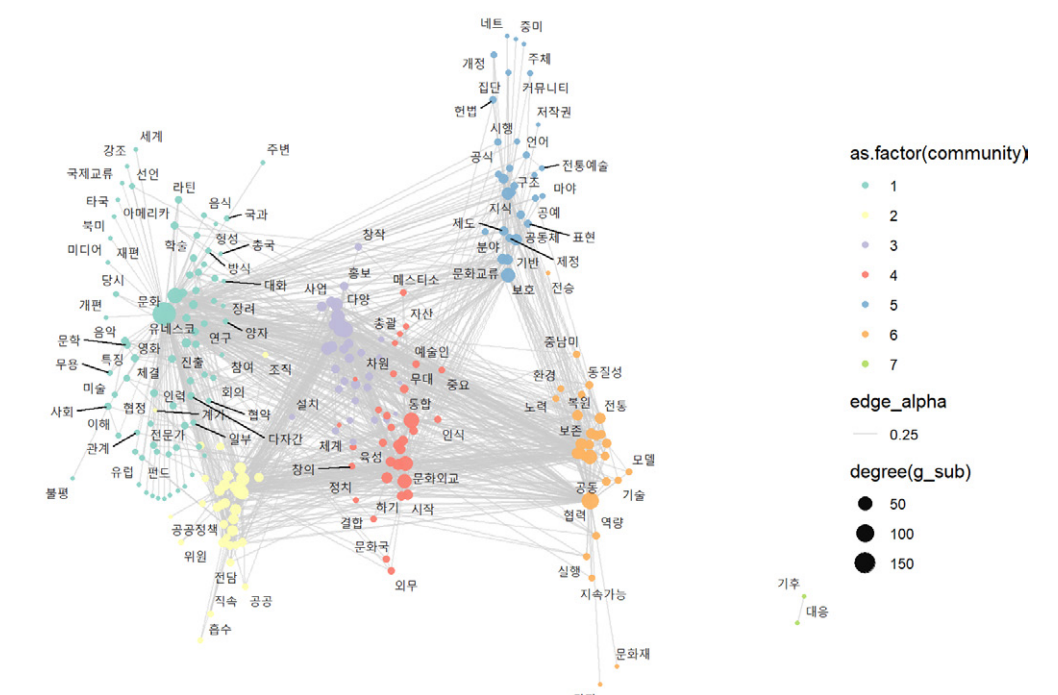


그림 4-1 국가별(멕시코) 텍스트마이닝 의미망 분석

② 의미 분석

■ 지원의 전제조건 강화(지원-기후-다양성-평가)

- 과거 '지원'이라는 키워드는 '창작' 혹은 '예술가'와 단순 연결되었다면, 이번 분석에서는 '기후', '다양성', '평가'와의 연결 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특히 영국과 스위스 정책에서 지원금은 탄소저감, 접근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와 연계되어 있음

■ 디지털의 영토화(디지털-플랫폼-수출-청년)

- 디지털 키워드는 '아카이방'이나 '보존'과의 연결성은 약해진 반면, '플랫폼', '시장', '수출' 등 비즈니스 용어와의 연계가 급격히 상승함
- 디지털은 더 이상 오프라인의 보조수단이 아니며, 그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게 됨

■ 국가를 건너뛴 도시 간 연대(지역-도시-국제-네트워크)

- 국가 키워드보다 지역과 국제가 직접 연결되는 빈도가 잦아졌으며, 국가를 거치지 않고 지역이 바로 해외와 연결되는 이른바 글로벌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남
- 멕시코나 영국의 경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지역 도시가 해외 파트너와 직접 공동 제작을 추진하는 맥락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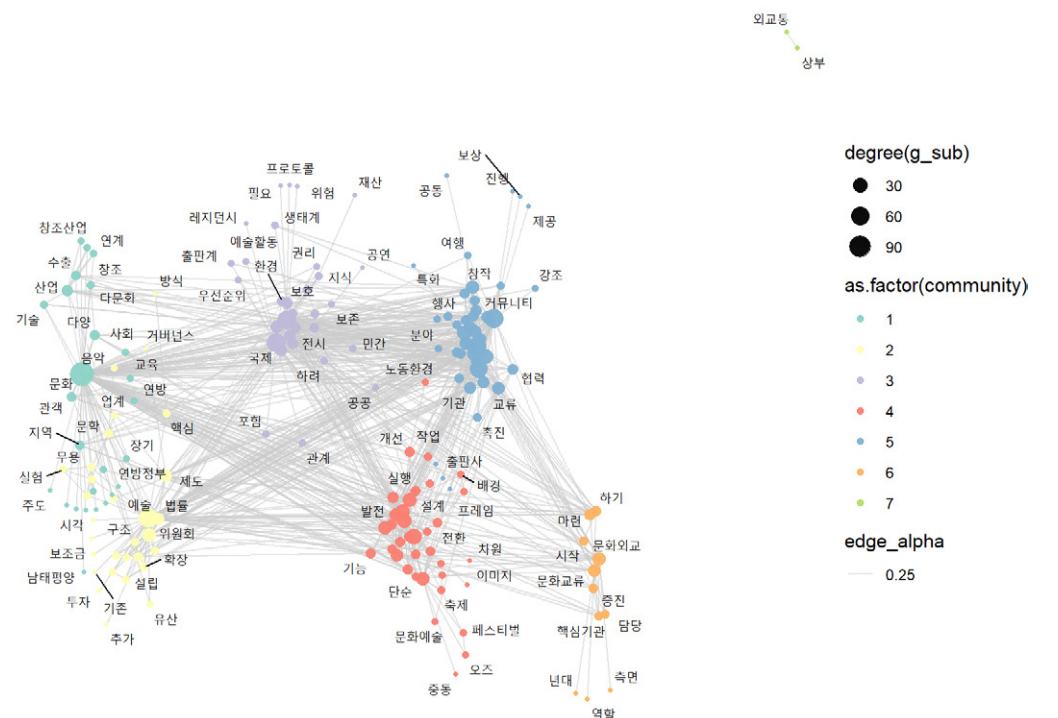


그림 4-2 국가별(호주) 텍스트마이닝 의미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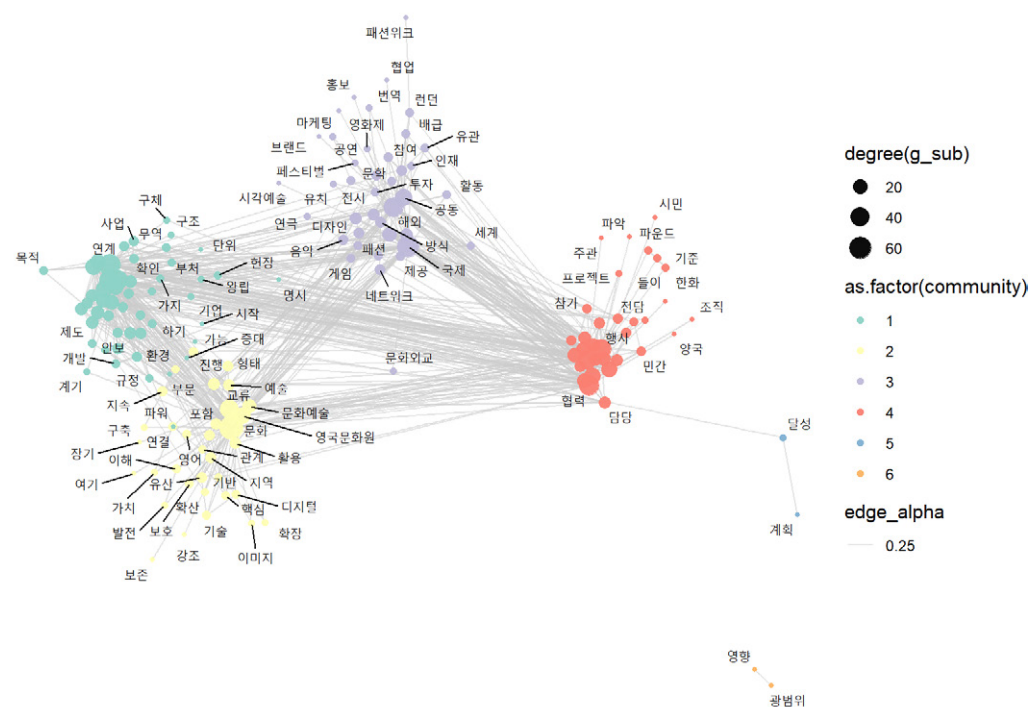


그림 4-3 국가별(영국) 텍스트마이닝 의미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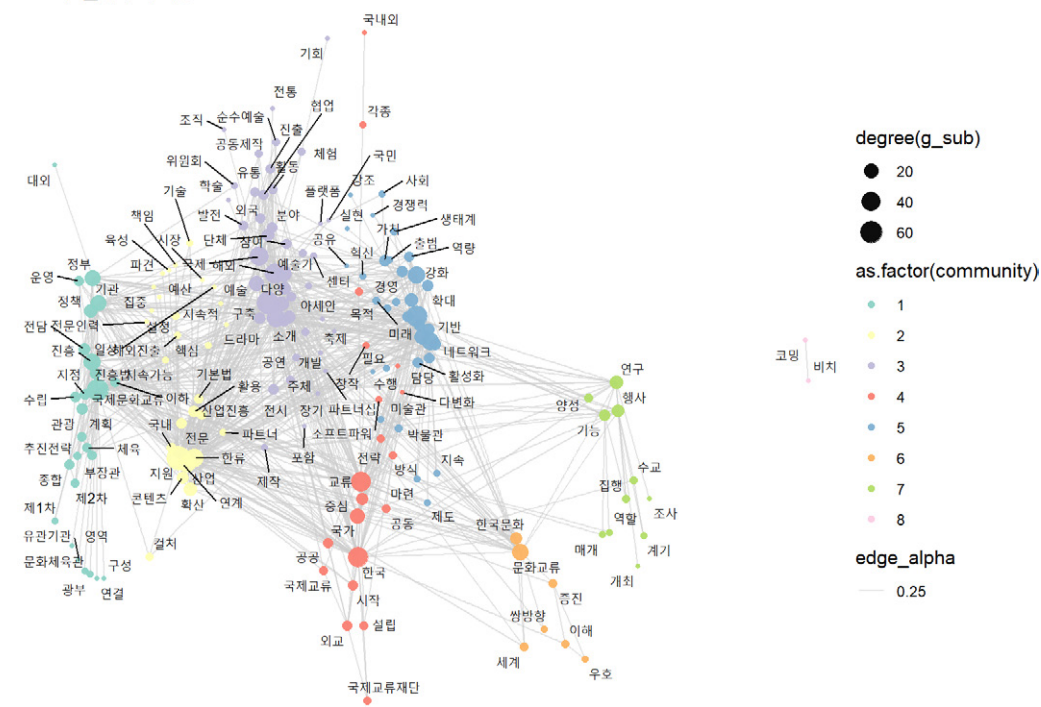


그림 4-5 국가별(한국) 텍스트마이닝 의미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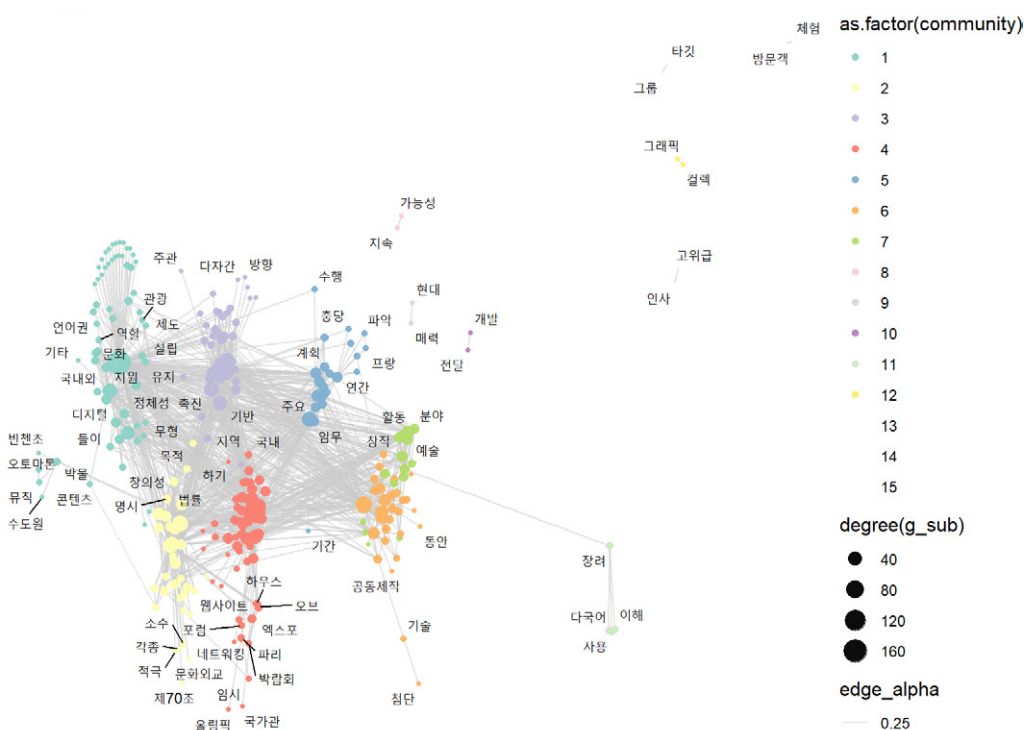


그림 4-4 국가별(스위스) 텍스트마이닝 의미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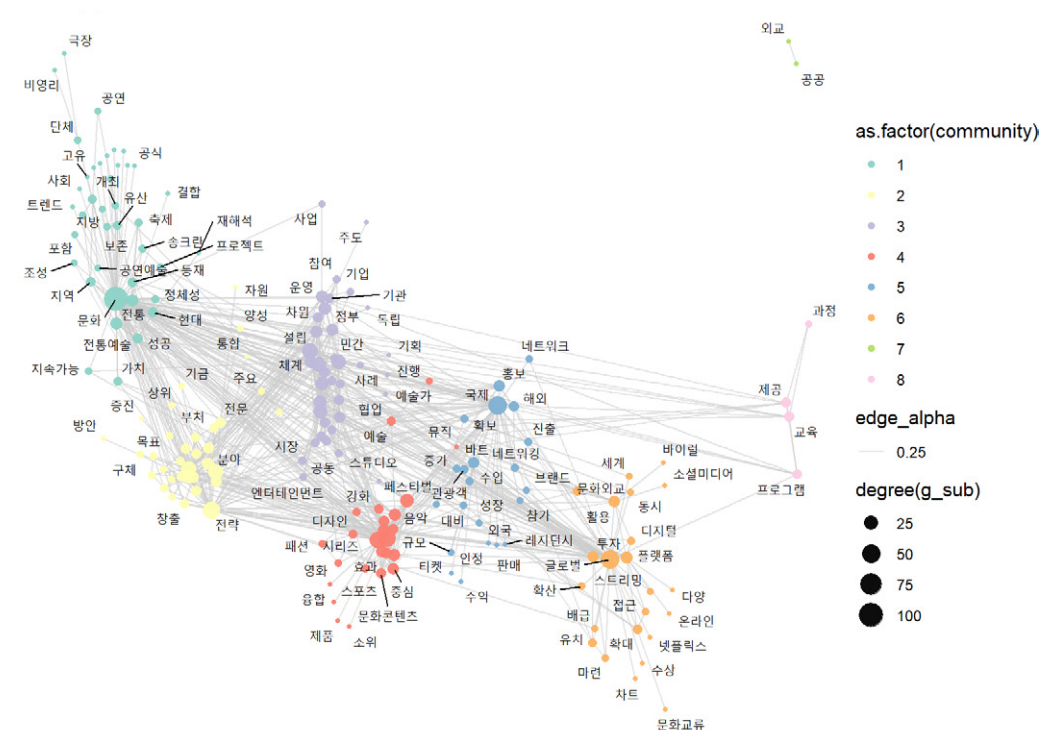


그림 4-6 국가별(태국) 텍스트마이닝 의미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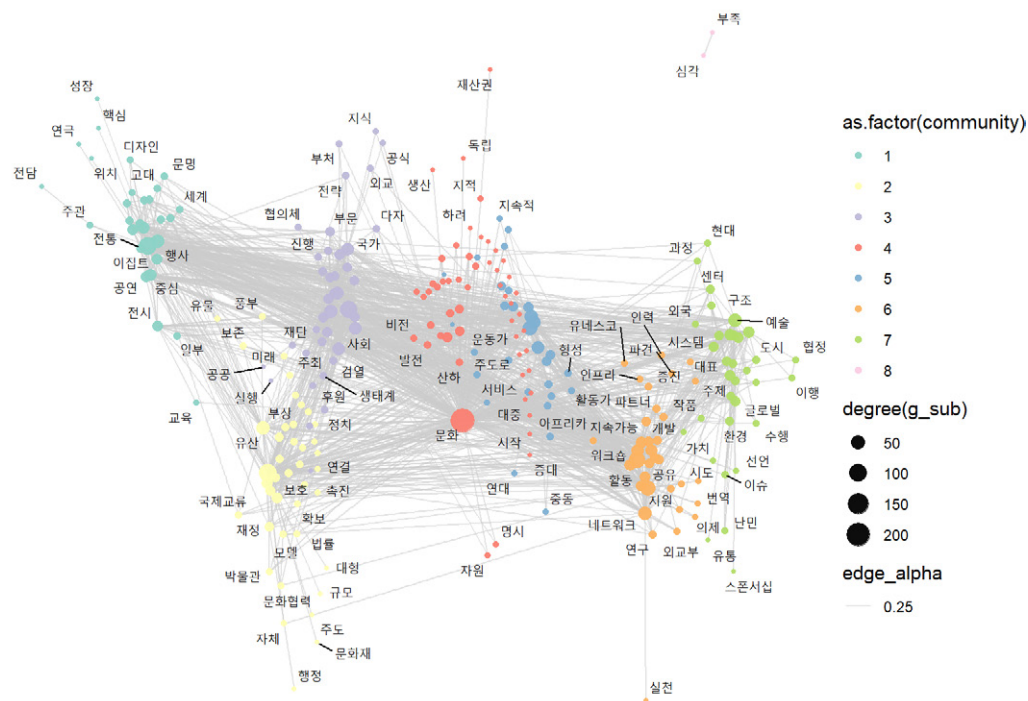


그림 4-7 국가별(이집트) 텍스트마이닝 의미망 분석

트렌드 후보군(이머징 이슈) 도출 및 구체화

02

1. 도출 개요

■ STEEP 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정책 이슈 후보군 도출

- 본 연구는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트렌드를 선정하기 위해 정량적 데이터 분석과 정성적 전문가 의견을 결합한 혼합 연구 방법을 적용함
 - 정량적 분석이란 연구진이 작성한 정책 현황 분석 원고를 텍스트마이닝하여 키워드 빈도, 의미망, 약신호 키워드 등의 수치 데이터로 변환 및 분석한 것을 의미하며, 분석 대상이 정책 문서 원문이 아닌 연구진 원고라는 점에서 객관적 담론 측정보다는 계량적으로 구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권역별 7개국의 정책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국가별 핵심 키워드와 빈도를 추출하여 연구진 분석에 내재된 핵심 의제와 키워드 구조 등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음
 - 미디어 스캐닝이 아닌 정책 현황 분석 보고서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제된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노이즈 제거와 동시에 단순 현상이 아닌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것임
- 이후 거시환경(STEEP)을 분석했던 결과를 결합하여 이머징 이슈 후보군을 1차로 도출하였음
- 도출된 예비 후보군의 타당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FGI를 수행하였으며, 실제 정책 수립에 유효한 이슈 후보군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함

■ 이머징 이슈 도출을 위한 선정 기준

- 이머징 이슈 후보군은 향후 3년(2026-2028) 간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핵심 이슈로서 작용될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4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였음

표 4-8 이머징 이슈 선정 기준

구분	내용
신규성	새로운 유형의 교류 방식 또는 기존 정책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의제
성장성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이자 대외 경제 협력, 수익 창출, 수출 확대, 산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분야
파급성	글로벌 의제와 연계 또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문화외교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
다차원성	정치, 기술진보, 글로벌 의제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 작용하는 구조

2. 이머징 이슈 도출을 위한 선정 과정 및 연결

- STEEP 분석과 텍스트마이닝 결과의 교차 검토를 통해 이머징 이슈 후보군 도출
 - STEEP 분석의 5개 요인별 핵심 발견과 텍스트마이닝 빈도와 연결망 분석 결과를 대응시켜 두 분석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이슈를 우선순위가 높은 후보로 분류
 - STEEP 분석이 거시환경 변화의 맥락을 제공했다면, 텍스트마이닝은 7개국 정책 분석 원고에서 반복적으로 부상하는 키워드와 연결망을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함
 - 두 분석의 연결 관계는 아래 표와 같음

표 4-9 STEEP - 텍스트마이닝 연결을 통한 이머징 이슈 후보군 도출

STEEP 근거		텍스트마이닝 근거	이머징 이슈 후보군
사회적 요인 (S)	원주민·소수자 문화 주권 제도화	원주민 / 권리 / 공동체 / 공동 / 윤리 / 다양 / 정체성 / 청년/ 언어	원주민 문화주권 기반의 공동체 및 보호 교류 모델
	포용성 기반 교류 의무화 및 다언어·다양성이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		탈식민 관행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재구성
	각국의 인구학적 변화		First Nations Protocol: 문화교류의 강제적 윤리 장벽화 다언어주의와 번역 지원의 산업화 인구 절벽 시대,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로컬 문화교류
기술적 요인 (T)	거대 플랫폼 종속 심화	디지털 / 플랫폼 / IP 주권 / 수출 / 협력 / 보호 / 레지던시	거대 스트리밍 기업 주도 글로벌 문화 수출 vs 국가 문화 주권 방어
	IP 주권 보호 과제 부상		IP 주권 없는 K-콘텐츠의 허상 디지털-하이브리드 레지던시 확산
	물리적 제약 극복을 위한 디지털-하이브리드 교류		도시 중심주의와 디지털 디바이드(격차)
경제적 요인 (E)	문화산업 전략적 수출	산업 / 창조산업 / 콘텐츠 / 다양 / 청년 / 해외진출 / 예술가 / 창작 / 지원/ 활동 / 보호	콘텐츠 판매를 넘어선 '창조 생태계 및 표준 패키지' 수출
			아시아의 쿼터 문화 허브 선점 전략 (핑크 이코노미)
			청년 실업의 탈출굴 '스타트업'으로서의 문화산업
			예술가의 노동자성 인정: 공정보수의 제도화
환경적 요인 (E)	탄소 저감의 지원 조건화	지속가능 / 기술 / 디지털 / 지원 / 문화유산	디지털 트윈: 기후위기로부터 유산 '백업'
	슬로우 모빌리티 부상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지원과 슬로우 아트 지원

정치적 요인 (P)	소프트파워의 외교·안보 자산화	소프트파워 / 외교 / 안보 / 문화외교 / 창조산업 / 다양 / 지원	창조산업이 외교 및 안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소프트파워의 정부 주도화와 탐다운 산업 육성
			수출국에서 기여국으로: K-컬처 ODA와 협력국 맞춤형 교류
			다양하고 실험적인 소규모 교류
			창조 노동력의 이동성 제약에 따른 공동제작 강제화

- 두 분석의 수렴 결과, '디지털 주권', '윤리 교류', '소프트파워 전략화', '다양성의 산업화', '글로벌 연대' 등을 중심으로 6개 대분류, 20개 이머징 이슈 후보군이 구성됨
 - STEEP 사회적 요인에서 원주민 및 소수자 문화 주권의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됐으며, 텍스트 마이닝에서도 '원주민', '권리', '공동체' 등의 키워드가 멕시코와 호주 원고에서 상위 빈도로 반복됨에 따라 '탈식민·문화적 권리·원주민, 윤리적 교류' 대분류에 다음 이슈들이 도출됨
 - 멕시코와 호주 모두 원주민 문화를 단순한 홍보와 볼거리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공동체의 권리와 주체성을 보장하며, 탈식민적 창작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확인되어, '원주민 문화 주권 기반의 공동체 및 보호 교류 모델', '탈식민 관행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재구성', 'First Nations Protocol: 문화교류의 강제적 윤리 강제화' 이슈 후보군을 도출
 - 텍스트마이닝 의미망 분석 결과 '디지털-플랫폼-수출' 간의 연결성이 가장 강한 관계망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STEEP 기술적 요인의 분석 결과와 상호 수렴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IP 보호부터 문화유산 아카이빙까지'의 정책적 흐름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함
 - 문화유산 디지털화 과정에서 데이터 접근권을 선진국에 내어주는 구조,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이 로컬 콘텐츠의 유통과 수익을 장악하려는 구조, 고도화된 IP 산업 속에서도 AI 학습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무방비한 현실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이 확인되어, '거대 스트리밍 기업 주도 글로벌 문화 수출 vs 국가 문화 주권 방어', '글로벌 표준을 향한 K-콘텐츠 IP 매니지먼트 전략', '디지털 트윈: 기후위기로부터 유산 백업', '디지털-하이브리드 레지던시 확산' 이슈를 도출
 - 소프트파워의 외교 및 안보를 자산화하려는 정치적 요인과 주요 국가에서 콘텐츠 수출을 넘어 정책 패키지 수출로 고도화되는 경제적 요인들이 확인됐으며, 텍스트마이닝에서 '소프트파워', '외교', '창조산업', '콘텐츠', '수출'이 상위 단어로 분석됨에 따라 '소프트파워의 안보 자산화와 시스템 수출 전략'으로 아래의 이슈들이 묶임
 - 영국은 창조산업을 외교·안보 자산으로 명시하고 태국 역시 정부가 소프트파워 전략을 내세우며 통제와 개입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여 '창조산업이 외교 및 안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소프트파워 정부 주도과 탐다운 산업 육성'이 이슈 후보군으로 도출됨

- 또한 문화행정 정책과 콘텐츠 제작 기술 등의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패키지화하여 수출하는 흐름과 이와 같은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협력국에 전수하는 ODA 관련 교류 흐름도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수출국에서 기여국으로: K-컬처 ODA와 협력국 맞춤형 교류’, ‘콘텐츠 판매를 넘어선 창조 생태계 및 표준 패키지 수출’ 이슈 후보군을 도출

- 또한 문화예술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예술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창작 환경의 공정 보수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려는 흐름이 포착돼 ‘예술가 노동자성 인정: 공정보수의 제도화’ 이슈 후보군도 추가함

• **사회적 요인에서 다언어·다양성·포용이 사회적 가치를 넘어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을 확인했으며, 텍스트마이닝 분석에서는 ‘다양’, ‘매개’, ‘언어’, ‘산업’, ‘청년’ 등이 반복해 등장하며 ‘다양성의 산업적 발견’이란 대분류 하위에 다음 이슈를 정리함**

- 스위스는 4개의 공용어를 사용하며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태국은 아시아의 보수적 환경을 역이용해 BL콘텐츠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핑크 이코노미를 육성하며, 이집트는 높은 실업률 속 창조산업을 고학력 청년 흡수를 위한 일자리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확인되어, ‘다언어주의와 번역 지원의 산업화’, ‘아시아의 퀴어 문화 허브 선점 전략(핑크 이코노미)’, ‘청년 실업의 탈출구 스타트업으로서의 문화산업’을 주요 이슈로 도출함

• **사회·환경적 요인에서 탄소 절감과 수도권 집중이 교류 기회의 구조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확인됐고, 텍스트마이닝에서 ‘현지’, ‘지역’, ‘레지던시’, ‘연방’, ‘디지털’과 같은 키워드가 반복 출현해 ‘이동성의 제약과 지방 소멸을 넘는 글로벌 연대’와 ‘탄소 발자국과 슬로우 모빌리티로의 전환’으로 아래의 이슈들을 대분류함**

-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인적 이동 제약을 현지 인력과의 공동제작으로 해결하고, 스위스가 칸톤 단위 분권 구조 기반 소규모 실험적 교류를 이어나가고, 한국은 지방 소멸 위기 속 유희공간을 레지던시로 활용하는 등의 흐름이 나타나, ‘창조 노동력의 이동성 제약에 따른 공동제작 강제화’, ‘다양하고 실험적인 소규모 흐름’,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지원과 슬로우 아트 지원’, ‘인구 절벽 시대,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로컬 문화교류’ 이슈가 도출됨

- 또한 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도시 중심주의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나타남에 따라 ‘도시(방콕) 중심주의와 디지털 디바이드’ 이슈를 도출

3. 이머징 이슈 후보군(총 20개)

• 위와 같이 문화예술산업을 둘러싼 국제문화교류의 거시적 환경을 분석하고, 주요 변화의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총 20개의 이머징 이슈 후보군을 도출하였음

- 도출된 20개의 이머징 이슈는 추후 추가적 분석을 통해 정교화될 후보군으로서 의미를 가짐

표 4-10 이머징 이슈 후보군

문항	
문화적 권리·원주민, 그리고 윤리적 교류	(이슈1) 원주민 문화 주권 기반의 공동체 및 보호 교류 모델
	(이슈2) 문화적 정체성 회복과 포용적 가치 기반의 국제문화교류 고도화
	(이슈3) First Nations Protocol: 문화교류의 강제적 윤리 장벽화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IP보호부터 문화유산 아카이빙까지	(이슈4) 거대 스트리밍 기업 주도 글로벌 문화 수출 vs 국가 문화 주권 방어
	(이슈5) 글로벌 표준을 향한 ‘K-콘텐츠 IP 매니지먼트 전략’
	(이슈6) 디지털 트윈: 기후위기로부터 유산 ‘백업’
	(이슈7) 디지털-하이브리드 레지던시 확산
소프트파워의 ‘안보 자산화’와 시스템 수출 전략	(이슈8) 창조산업이 외교 및 안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이슈9) 콘텐츠 판매를 넘어선 ‘창조 생태계 및 표준 패키지’ 수출
	(이슈10) 소프트파워의 정책 주도성 강화와 탐다운 산업 육성
다양성의 산업적 발견	(이슈11) 수출국에서 기여국으로: K-컬처 ODA와 협력국 맞춤형 교류
	(이슈12) 다언어주의와 번역 지원의 산업화
	(이슈13) 아시아의 ‘퀴어 문화 허브’ 선점 전략
이동성의 제약과 지방 소멸을 넘는 글로벌 연대, 공동체 회복	(이슈14) 청년 실업의 탈출구 ‘스타트업’으로서의 문화산업
	(이슈15) 창조 노동력의 이동성 제약에 따른 공동제작 강제화
	(이슈16) 다양하고 실험적인 소규모 교류
	(이슈17) 인구 절벽 시대,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로컬 문화교류
탄소 발자국과 ‘슬로우 모빌리티’로의 전환	(이슈18) 방콕 중심주의와 디지털 디바이드
	(이슈19)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지원과 슬로우 아트 지원
	(이슈20) 기후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교류 가이드라인

전문가 조사 및 검증

03

1. 전문가 FGI

가. FGI 개요

- 도출된 이머징 이슈 후보군에 대한 현장 적합성과 정책적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대상 FGI를 진행함

- 조사에 활용한 국가별 사례와 주요 이슈는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의 최근 3개년 문화정책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함

- 현장 전문가 FGI는 2025년 12월 4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회의실에서 각 분야별 7인이 참여해 진행됨
- 전문가들의 세부 분야는 국제문화교류,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의 분야로 나누어졌고, 가급적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도록 하였음

표 4-11 FGI 전문가 리스트

분류	소속 및 직책
국제문화교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사업본부장
지역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연구교수
문화예술	「월간미술」 편집장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해외진출팀장 프로듀서 그룹 도트 대표
콘텐츠	드라마 PD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객원교수

- FGI는 사전에 배포한 이머징 이슈 후보군 자료를 토대로 각 이슈의 현장 체감 여부 및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음

- 도출된 이머징 이슈 후보군이 각 장르별 실제 국제문화교류 현장에서 체감되는 이슈와 일치하는가?
- 각 이슈 중 가장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이슈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분석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이슈가 있는가?

나. FGI 주요 내용

- 탈식민·문화적 권리·원주민, 윤리적 교류

- 멕시코, 호주 등에서 원주민 권리 제도화 및 윤리적 교류 강화가 이미 장기간 진행되어 온 흐름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이머징한 이슈라기 보다는 국제문화교류의 기본 전제이자 당위적 흐름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호주, 멕시코 외에도 캐나다에서도 원주민 예술가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원주민 관련 이슈를 이머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이 전제들이 국제적으로도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후보군 유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수렴됨

“캐나다는 원주민을 우대하는 사업이 매우 많고 실제로도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며, 호주, 대만, 북유럽도 원주민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어요.”

“원주민 이슈가 향후에도 지속해서 주목받을 주요 의제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현시점에서 ‘이머징 이슈(신규 의제)’로 규정하기에는 실제 현장과의 간극이 큼니다. 정책 담론과 실무 필드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심층 리서치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IP보호부터 문화유산 아카이빙까지

- 글로벌 콘텐츠 주요 기업의 독점과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문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도 높은 체감도를 보인 이슈로 확인됨

- K-콘텐츠의 경우 IP를 비공식 채널로 소비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IP 주권 없는 콘텐츠 강국이라는 역설적 상황은 콘텐츠에만 국한되지 않는, 미술, 공연 등 장르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제기된 핵심 과제임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K-pop 등의 여러 콘텐츠에 대한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식으로 유통되질 않고 있어요. 볼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IP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정식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소비로 끝나는 국가들에 대해 제도적이나 정책적 접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 이동성의 제약과 지방 소멸을 넘는 글로벌 연대, 공동체 회복

- 영국·유럽의 예산 삭감과 비자 문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물리적 이동에 제약이 생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이 현장에서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음

- 브렉시트 및 경제위기 등으로 유럽 전반의 국제교류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대규모 공동제작이나 투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소규모 위주로 재편되고 있음

- 국제교류 자체보다 지역사회 기여와 내수 결속 중심으로 예산이 이동하는 흐름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는 유럽 전반의 방향임

- 디지털 및 하이브리드 교류는 물리적 이동의 완전한 대체제가 아닌 사전 관계 구축 또는 기후 대응 수단 정도로 기능하며, 실제 현장에서도 하이브리드 방식이 이미 병행 운영되고 있음
- 단발성 교류보다 복수 도시 투어 및 장기 체류형 레지던시 등 지속성을 갖는 교류방식이 기후 대응 기준과 맞물려 점차 선호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

“단발적 투어가 아니라 몇 개의 도시로 연장해서 투어하려면 최소 3~4개 도시 정도는 연계해 개최하기가 편해져야 되는데 있고, 레지던시 같은 경우도 단발적으로 일주일만 있는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다양한 시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게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고 있어요.”

“디지털만으로는 아직 제약이 커요. 실질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가야하는 것도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브렉시트 이후 대규모 공동제작이나 투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 탄소 발자국과 ‘슬로우 모빌리티’로의 전환

• 유럽과 영국을 중심으로 기후 책무성이 지원 심의의 필수 기준으로 이미 제도화되어 있음이 현장에서 확인됐고, 장르별 체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미술계는 갤러리 기후 연합 등 자발적 움직임이 활발하고, 공연계는 투어 시 단발성 공연을 지양하고 무대 세트는 현지 조달하는 등의 관행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기후 관련 논의가 아직 적으나, 대기업 중심의 ESG 경영 차원에서 접근이 일부 있는 정도임

“유럽에서는 극장들끼리 연합체를 구성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담은 ‘그린북’을 발간하고 국내에서 한국어 번역본을 만들어 공유한 바 있습니다.”

“공연, 미술, 미디어, 콘텐츠 등을 각각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공연과 미술은 물리적 이동을 수반하는 매체이므로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실질적 논의지점인 반면, 콘텐츠가 던지는 메시지는 다른 차원입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기후위기가 논의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내용상 그런 점을 반영하려는 일부 노력이 있을 뿐이며, 대기업 제작사에서 ESG 관련 콘텐츠를 선호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뿐입니다.”

■ 다양성의 산업적 발견

• 인종·젠더·장애를 넘어 ‘비인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다양성이 국제문화교류의 핵심 의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디아스포라는 오랜 기간 지속해서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음

- 태국은 쿼어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관광과 연계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미술 분야에서는 다양성이 이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코어 의제로 진입하는 추세임
- 이집트에는 청년 인구가 많지만 아직 스타트업 수행 역량이나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임

“다양성 측면에서도 다문화, 다인종, 언어, 성소수자, 비인간까지 포함된 큰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어느 국가보다 쿼어 문화를 재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를 관광 등의 상품과 연계하면서 핑크 이코노미라고 부를 정도로 전략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많아 허브로서 가능성이 크며, 청년 인구도 많지만 실제 스타트업 수행 역량이나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 시스템 수출 전략

• 단순 콘텐츠 판매를 넘어 제작 노하우 및 시스템 전체를 이전하는 방식의 교류가 이미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음

- 영국이 중국에 공연예술 프로덕션 전 과정의 노하우를 패키지화하여 판매한 사례와 콘텐츠 포맷 수출 및 한국 인력의 현지 투입 사례 등이 확인됨

“영국이 중국에 큰 규모의 프로덕션과 계약을 맺고 그 팀이 모두 중국으로 가서 노하우를 다 협력하는데, 무대팀, 기술팀, 제작 과정 등 모두 다 하나의 바이블이 되어요.”

“콘텐츠 분야 포맷 수출의 경우 중국이 한국의 것을 이미 다 가져갔으며, 중국이 빠르게 흡수해 더 이상 학습할 것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가. 조사 개요

■ 주요국 국제문화교류 정책 동향 분석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조사에 활용한 국가별 사례와 주요 이슈는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의 최근 3개년 문화정책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함

- 이를 통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주요 정책 이슈들이 국제문화교류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차 델파이 조사는 2026년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0개의 주요 이슈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2차 델파이 조사는 2026년 2월 11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됨

- 1차 조사에서는 선별된 이슈를 내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이슈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최근 국제문화교류 환경에서 나타나는 핵심 이슈들이 현재와 미래의 국제문화교류에 미칠 영향력 수준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영역별 주요 이슈의 중요도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파악함
-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이슈를 재분류 및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문화교류 정책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반영한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함

- 미래 시나리오 구성은 단순한 현상 기술에 그치지 않고 각 이슈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심화될 것인지 구체적인 변화의 양상으로 제시하여, 전문가들이 현재 영향력과 5년 후 미래 영향력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각 시나리오가 향후 국제문화교류에 미칠 영향력과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를 수렴하였으며 조사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총 13명이 참여하였음

표 4-12 델파이 조사 전문가 리스트

분류	소속 유형	인원
국제교류	지역문화재단, 정치외교 및 문화유산 관련학과 대학 교수, 국제협력기관 등	5명
문화예술	지역문화재단, 국립예술기관, 예술경영 및 문화예술 관련학과 대학 교수 등	5명
콘텐츠	문화콘텐츠 및 미디어 관련학과 대학 교수, 관련 연구소 연구원 등	3명

나. 전문가 델파이 조사(1차)

① 분석 주요 결과^{46, 47}

▪ 현재 영향력 수준은 ‘글로벌 문화 수출과 주권 방어’, 5년 후 미래는 ‘창조산업의 외교 및 안보 자산화’가 가장 높게 평가됨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현재 영향력 수준이 가장 높은 이슈는 평균 3.43점(5점 만점)을 받은 ‘거대 스트리밍 기업 주도 글로벌 문화 수출 vs 국가 문화 주권 방어’임

- 2위는 ‘글로벌 표준을 향한 K-콘텐츠 IP 매니지먼트 전략’(3.36점), 3위는 ‘문화적 정체성 회복과 포용적 가치 기반의 국제문화교류 고도화’, ‘First Nations Protocol : 문화교류의 강제적 윤리 장벽화’(각 3.14점) 등으로 나타남

- 반대로 현재 영향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평가된 이슈는 평균 2.50점을 받은 ‘아시아의 쿼터 문화 허브 선점 전략’로 나타남

•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이 가장 높은 이슈는 을 기준으로 평균 4.43점(5점 만점)을 받은 ‘창조산업이 외교 및 안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임

- 다음으로 2위는 ‘글로벌 표준을 향한 K-콘텐츠 IP 매니지먼트 전략’(4.36점), 3위는 ‘문화적 정체성 회복과 포용적 가치 기반의 국제문화교류 고도화’, ‘거대 스트리밍 기업 주도 글로벌 문화 수출 vs 국가 문화 주권 방어’(4.29점)로 나타났다.

- 반대로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이슈는 평균 3.14점을 받은 ‘콘텐츠 판매를 넘어서는 창조 생태계 및 표준 패키지 수출’로 나타났다.

• 현재 영향력 수준이 가장 높은 이슈에 대해 분석 결과 대부분 항목의 변동계수가 0.30 내외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합의 수준을 보임

- 특히 ‘콘텐츠 판매를 넘어서는 창조 생태계 및 표준 패키지’ 수출’(0.180), ‘창조산업이 외교 및 안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0.245) 등의 항목은 변동계수가 낮게 나타나 응답자 간 인식이 비교적 일관된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아시아의 쿼터 문화 허브’ 선점 전략’(0.464), ‘First Nations Protocol: 문화교류의 강제적 윤리 장벽화’(0.411) 등의 일부 항목은 변동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응답자 간 의견 차이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됨

•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이 가장 높은 이슈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항목에서 변동계수가 0.35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합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문화적 정체성 회복과 포용적 가치 기반의 국제문화교류 고도화’(0.143), ‘콘텐츠 판매를 넘어서는 창조 생태계 및 표준 패키지’ 수출”(0.160) 등의 항목은 변동계수가 낮게 나타나 응답자 간 인식이 비교적 일관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46 응답자 간 의견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합의도를 함께 분석함. 합의도는 응답자 간 의견이 얼마나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평균 대비 응답의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와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음

47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응답의 상대적 분산 정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변동계수가 0.30 이하이면 비교적 높은 합의 수준, 0.30~0.40은 보통 수준, 0.40 이상은 합의도가 낮은 수준으로 해석됨

표 4-13 델파이 1차 응답 결과

문항		현재 영향력 수준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균	표준 편차	변동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변동 계수
문화적 권리·원주민, 그리고 윤리적 교류	(이슈1) 원주민 문화 주권 기반의 공동체 및 보호 교류 모델	2.79	0.893	0.320	3.71	0.611	0.165
	(이슈2) 문화적 정체성 회복과 포용적 가치 기반의 국제문화교류 고도화	3.14	0.949	0.302	4.29	0.611	0.143
	(이슈3) First Nations Protocol: 문화교류의 강제적 윤리 장벽화	3.14	1.292	0.411	3.86	0.949	0.246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 IP보호부터 문화유산 아카이빙까지	(이슈4) 거대 스트리밍 기업 주도 글로벌 문화 수출 vs 국가 문화 주권 방어	3.43	1.089	0.318	4.29	0.726	0.169
	(이슈5) 글로벌 표준을 향한 'K-콘텐츠 IP 매니지먼트 전략'	3.36	1.082	0.322	4.36	0.745	0.171
	(이슈6) 디지털 트윈: 기후위기로부터 유산 '백업'	2.79	0.802	0.288	3.86	0.770	0.200
	(이슈7) 디지털-하이브리드 레지던시 확산	2.93	0.997	0.341	3.93	0.917	0.233
소프트파워의 '안보 자산화'와 시스템 수출 전략	(이슈8) 창조산업이 외교 및 안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3.14	0.770	0.245	4.43	0.852	0.192
	(이슈9) 콘텐츠 판매를 넘어선 '창조 생태계 및 표준 패키지' 수출	3.21	0.579	0.180	4.14	0.663	0.160
	(이슈10) 소프트파워의 정책 주도성 강화와 탐다운 산업 육성	3.00	0.784	0.261	3.14	0.864	0.275
	(이슈11) 수출국에서 기여국으로: K-컬처 ODA와 협력국 맞춤형 교류	3.14	0.864	0.275	4.00	0.784	0.196
다양성의 산업적 발견	(이슈12) 다언어주의와 번역 자원의 산업화	3.00	0.784	0.261	3.93	0.829	0.211
	(이슈13) 아시아의 '귀어 문화 허브' 선점 전략	2.50	1.160	0.464	3.29	1.139	0.347
	(이슈14) 청년 실업의 탈출구 '스타트업'으로서의 문화산업	2.79	0.802	0.288	4.00	0.784	0.196
이동성의 제약과 지방 소멸을 넘는 글로벌 연대, 공동체 회복	(이슈15) 창조 노동력의 이동성 제약에 따른 공동제작 강제화	2.93	1.141	0.390	3.57	0.938	0.263
	(이슈16) 다양하고 실험적인 소규모 교류	2.86	1.099	0.385	3.57	0.852	0.238
	(이슈17) 인구 절벽 시대,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로컬 문화교류	2.86	1.027	0.359	3.79	0.975	0.258
	(이슈18) 방곡 중심주의와 디지털 디바이드	3.07	1.207	0.393	3.57	1.158	0.324
탄소 발자국과 '슬로우 모빌리티'로의 전환	(이슈19)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지원과 슬로우 아트 지원	3.00	1.177	0.392	3.93	1.207	0.307
	(이슈20) 기후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교류 가이드라인	3.07	1.072	0.349	4.00	1.038	0.259

② 현재 및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가 이유

■ 문화적 권리·원주민, 그리고 윤리적 교류

- 문화적 권리·원주민, 그리고 윤리적 교류 분야는 문화다양성, DEI, ESG 등 글로벌 가치 확산과 함께 국제문화교류 담론에서 점차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
- 최근 국제문화교류는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와 보호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상업적 이익과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가 앞서 있어, 국가별 상황에 따라 큰 격차가 있다고 언급됨
- 향후 5년간은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 기준과 제도로 구체화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함. First Nations Protocol과 같은 윤리적 교류 기준의 확산, 집단 지식재산권 및 공정 수익 분배 논의의 본격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과 운영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4-14 '문화적 권리·원주민, 그리고 윤리적 교류' 현재 및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가 이유

평가항목	현재 영향력	5년 후 영향력
국제 담론 및 정책 의제화	(부상중) 문화다양성·DEI-ESG 확산과 함께 원주민 문화 주권이 국제문화교류 분야의 중요 의제로 부상. 일부 국가에서 전통지식·문화 표현 권리 보호를 제도화하는 사례 등장	(확대 전망) 문화적 정체성·EDI 가치 확산과 함께 원주민 문화 주권 논의가 국제문화교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중요성 확대 예상. 공동체 권리 보호·집단 지식재산권 이슈 본격 부상 가능성
윤리적 교류 모델 인식	(인식확산) 단순 문화 소개를 넘어 공동체 권리 존중·수익 환원·의사결정 참여 등 책임 기반 협력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중	(기준화 가능성) First Nations Protocol 등 윤리적 기준이 문화교류 사업의 운영 원칙으로 점차 확산될 가능성. 공정한 수익 분배·권리 보호 체계 구축이 주요 정책 이슈로 제기
실제 현장 영향력	(제한적) 논의가 선언적·규범적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 실제 국제문화교류 사업·문화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적 논리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경향	(전환 가능성) 단순 교류를 넘어 가치·신뢰 기반 협력 구조로 변화 가능성 제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및 운영 체계 마련 필요성 대두
국가별 제도화 수준	(편차 큼) 일부 국가에서 제도화 진행 중이나 국가·지역별 사회적 인식과 정책 적용 수준의 차이가 커 국제적 표준으로 정착하기엔 이른 단계	(모니터링 필요) 원주민 문화 보호·공동체 권리를 반영한 정책·제도적 논의 확대 예상. 단, 국가별 격차는 지속될 수 있어 국제 표준화 과정에 대한 지속적 대응 필요

■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IP보호부터 문화유산 아카이빙까지

-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현재 국제문화교류 분야에서 중간 수준의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으나, 향후 5년간 그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AI·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문화예술의 생산·유통 방식과 국제문화교류의 형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콘텐츠 IP 보호, 디지털 아카이빙이 핵심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 이에 각국은 글로벌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맞서 자국 콘텐츠 보호와 문화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관련 제도·윤리 기준 마련은 아직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 간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 역량 격차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 향후 5년간은 디지털 환경이 국제문화교류의 기본 전제로 자리 잡는 구조적 전환이 예상되는데, 디지털 트윈·AI 기반 아카이빙 등이 문화유산 보존의 주요 수단으로 확산되고, 디지털-하이브리드 레지던시·온라인 협업 플랫폼 등 새로운 교류 방식도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 보유 국가와 미보유 국가 간 격차 심화, 데이터 접근권 불균형 등 새로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IP 보호 체계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음

표 4-15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IP보호부터 문화유산 아카이빙까지' 현재 및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가 이유

평가항목	현재 영향력	→ 5년 후 영향력
디지털 전환·플랫폼 유통 구조	(재편 중) 스트리밍·글로벌 플랫폼 확산으로 문화콘텐츠 유통 구조 급변. AI·디지털 기술이 문화예술 생산·유통 및 국제문화교류 방식 전반에 영향. IP 보호·데이터 거버넌스·디지털 아카이빙이 핵심 정책 이슈로 부상	(구조적 전환) 온라인 플랫폼·가상공간·디지털 협업이 국제문화교류의 핵심 인프라로 정착. 물리적 교류 보완을 넘어 디지털 환경이 교류의 기본 전제로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 전망
문화주권·콘텐츠 IP 보호	(긴장 확대) 글로벌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맞서 각국의 자국 콘텐츠 보호·문화주권 정책 강화. 저작권·수익 배분·AI 학습 데이터 활용 관련 국제 논쟁 및 제도 대응 필요성 증대	(쟁점 심화) K-콘텐츠 등 자국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IP 보호·활용 전략의 중요성 증대. 창작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수익 분배 체계 마련이 핵심 정책 과제로 부각
산업적 기회·문화적 위험	(기회·위험 공존) 글로벌 플랫폼은 콘텐츠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문화콘텐츠 획일화·문화 정체성 약화·국가 간 협상력 격차 등 새로운 문제 야기. 창작자 권리 보호와 국제 협력 모델 구축이 과제로 제시	(불평등 심화 우려) 기술 보유 국가와 미보유 국가 간 디지털 격차 심화 가능성. 데이터 접근권 불균형·창작자 협상력 약화 등 새로운 불평등 문제 발생 우려. 디지털 격차를 고려한 정책 대응 필요
문화유산·디지털 보존 및 활용	(진행 단계)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국가 간 디지털 인프라·기술 역량 격차 존재. 관련 제도·윤리 기준도 충분히 정립되지 않아 전반적 영향력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	(본격 확산) 디지털 트윈·AI 기반 아카이빙 등이 기후위기·재난·분쟁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으로 확산. 가상 관광·문화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활용 가능성도 확대 전망
디지털 기반 국제 협업 모델	(등장 및 실험 중) 문화 ODA·국제 협력 등 새로운 교류 방식이 등장하고 있으나 제도·인프라 정비는 아직 진행 단계. 기술 확산 속도 대비 정책·윤리 기준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	(다변화) 디지털-하이브리드 레지던시·온라인 협업 플랫폼 등 새로운 교류 방식 확산. 물리적 이동 감소·협업 범위 확대의 장점이 있으나 기술 접근성 격차·대면 교류 감소의 한계도 병행 고려 필요

▪ 소프트웨어의 ‘안보 자산화’와 시스템 수출 전략

- 소프트웨어의 안보 자산화와 시스템 수출 전략은 현재 국제문화교류 분야에서 중간 수준의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으나, 향후 5년간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산업을 국가브랜드 강화 및 외교적 영향력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단순 콘텐츠 수출을 넘어 디지털 아카이빙·문화정책 가이드라인 등 제도·기술·운영 모델을 패키지화하여 수출하는 전략도 나타나고 있음
- 문화 ODA 및 정책 협력 모델 역시 새로운 교류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가별 정책 환경과 산업 구조의 차이로 인해 영향력 수준은 아직 편차가 크다는 의견이 있음
- 향후 5년간은 국가 간 소프트웨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주도 정책 강화와 민간 창작 생태계 위축 사이의 균형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한국의 문화산업 정책 경험과 K-콘텐츠 사례가 국제 정책 모델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방적 확산이 아닌 공동 창작과 협력 기반의 교류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4-16 ‘소프트파워의 ‘안보 자산화’와 시스템 수출 전략’ 현재 및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가 이유

평가항목	현재 영향력	→ 5년 후 영향력
소프트파워·외교안보 자산화	(확대 중) 문화예술·창조산업을 외교적 영향력 강화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 주요 국가들이 콘텐츠 산업을 통한 국가브랜드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	(전략 심화) 외교·안보 전략과의 결합 흐름 강화 전망. 콘텐츠 산업·문화교류가 국가브랜드·국제 영향력 확대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본격 활용될 가능성
창조산업 생태계·정책 모델 수출	(시도 단계) 단순 콘텐츠 판매를 넘어 클러스터 운영·디지털 아카이빙·문화정책 가이드라인 등 제도·기술·운영 모델을 패키지화하여 확산하려는 전략 나타남	(확산 가능성) 창조산업 생태계 전반(콘텐츠 제작·유통·IP·교육)을 패키지 형태로 수출하는 움직임 확대 예상. 한국의 문화산업 정책 경험·K-콘텐츠 사례가 정책 모델로 주목받을 가능성
정부 주도 정책과 민간 생태계 균형	(편차·우려) 태국 등 정부 주도 탑다운 방식 소프트웨어 전략 추진 사례 등장. 산업 중심 정책 강화로 실험적 예술·자율적 창작 생태계 위축 우려 제기. 국가별 정책 추진 방식 편차 존재	(균형 필요) 정부 주도 문화산업 육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민간의 자율적 창작 활동과 산업 생태계 병행 활성화 필요성 제기. 직접 통제보다 민간 창작 환경 지원 방향으로의 전환 요구
소프트파워 경쟁·문화 정치화	(중간 수준) 문화산업 기반 소프트웨어 전략은 이미 국제적으로 확산된 흐름이나, 국가별 정책 환경·산업 구조·문화적 맥락에 따라 적용 방식과 영향력 수준에 차이 존재	(갈등 가능성) 국가 간 문화 영향력 경쟁 심화로 문화교류의 외교·정치적 활용 가능성 증대. 특정 국가의 가치·규범 확산에 따른 문화적 갈등·문화 식민주의 논쟁 발생 가능성 제기
문화 ODA 및 협력 모델	(등장) 콘텐츠 수출 중심 교류에서 나아가 문화정책·행정·창조산업 육성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 ODA 및 협력 모델이 새로운 교류 방식으로 확대 중	(고도화 필요) 문화 ODA·국제 협력 사업이 일방적 확산이 아닌 공동 창작·협력 기반 교류 모델로 발전 필요. 국가별 정책 환경·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 중요성 확대

다양성의 산업적 발견

- 현재 다양성의 산업적 발견이란 측면에서 실질적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라 보고 있음
- 소수문화·마이너리티 문화에 대한 글로벌 소비 확대와 함께 다양성이 문화콘텐츠 생산과 시장 확장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일부 국가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와 창조산업 육성을 연계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양성 관련 의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 추진 수준은 국가별로 편차가 커 산업적 확산에 한계 존재한다고 봄
- 그러나 향후 5년간은 사회적 다양성을 산업적 기회로 재해석하는 정책 흐름이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AI 기반 번역 기술의 발전은 문화콘텐츠의 국제 확산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번역 산업 구조 변화와 언어 고유성 훼손 등 새로운 쟁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청년 창작 생태계와 창조산업 스타트업 기반 구축의 필요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다만 AI-플랫폼 환경 변화, 정치·사회적 맥락 등 외부 요인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다양성 기반 산업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표 4-17 '다양성의 산업적 발견' 현재 및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가 이유

평가항목	현재 영향력	5년 후 영향력
다양성 기반 콘텐츠 산업화	(가능성 부상) 소수문화·마이너리티·언더그라운드 문화에 대한 소비 확대로 다양성이 새로운 문화콘텐츠 생산·시장 확장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흐름 나타남. 쿼어·다문화·정체성 기반 서사가 글로벌 플랫폼·관광 산업과 결합한 새로운 문화산업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 제기	(전략적 확대) 다언어주의·소수자 문화·청년 문제 등 사회적 다양성을 산업적 기회로 재해석하는 정책 흐름 확산 예상.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통합·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전략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
언어 다양성·번역 인프라	(전략적 부각) 다언어 번역·자막·통역을 국제문화교류와 콘텐츠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 일부 국가에서 번역 지원을 단순 서비스가 아닌 글로벌 문화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추진 중	(기회·쟁점 공존) AI 기반 번역 기술 발전으로 콘텐츠 국제 확산의 핵심 변수로 부상 전망. 다만 번역 산업 구조 변화, 언어 고유성 훼손, 데이터 보상 문제 등 새로운 쟁점 발생 가능성도 제기
다양성·포용성 담론 확산	(의제화) 젠더·언어·소수자 정체성 등 다양성·포용성 가치가 국제문화교류 담론의 중요 기준으로 부상. 일부 국가에서 관련 정책을 문화콘텐츠 산업·관광 산업·창작 생태계와 연계하는 시도 나타남	(국가별 편차 지속) 태국 쿼어 문화 허브·스위스 다언어 번역 지원·이집트 청년 창조산업 육성 등이 새로운 정책 모델로 주목받을 가능성. 다만 산업 기반·정책 환경·사회적 인식 차이에 따라 효과의 범위 상이
청년 창작 생태계·창조산업 정책	(정책 연계 시도) 일부 국가에서 청년 실업 대응을 위해 창조산업 스타트업 육성·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디지털 창작 산업 확대 정책 추진. 창작 생태계 확대와 문화산업 기반 강화의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	(구축 필요성 확대)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청년 크리에이터 산업 확대 흐름. 문화 ODA·국제 협력을 통한 청년 창작 생태계·창업 기반 지원 필요성 제기. 문화산업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이 핵심 정책 과제로 부각
국가별 수용성·불확실성	(영향력 제한) 젠더·성소수자 이슈 등 다양성 관련 의제는 국가별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수용성과 정책 추진 수준이 크게 상이. 일부 사회에서는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산업적 확산에 제약 존재	(불확실성 상존) AI 기술 발전·글로벌 플랫폼 구조·정치사회적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이 정책 효과에 영향. 다양성 기반 산업 전략의 실질적 효과는 정책 설계와 기술 변화에 따라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동성의 제약과 지방 소멸을 넘는 글로벌 연대, 공동체 회복

- 이동성의 제약과 지방 소멸을 넘는 글로벌 연대·공동체 회복은 현재 과도기적 전환 단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감염병 확산·브렉시트 등 국제환경의 다변화로 창작자의 물리적 이동이 제약되면서 단기 방문·투어 중심의 교류에서 공동제작·장기 레지던시·현지 협업 등 관계 기반 교류 방식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아울러 지방 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거점 중심의 국제문화교류 정책도 확대되고 있음
- 다만 지역 간 디지털 인프라 격차와 수도권 집중화 등 구조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며, 문화교류만으로 지역 소멸이나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제기됨
- 앞으로 5년간은 글로벌 연대와 관계 기반 교류가 국제문화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 특히 도시·지역 단위의 직접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문제 해결형 레지던시와 공동체 기반 교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기반 정책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가 핵심 과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입장이 있었음

표 4-18 '이동성의 제약과 지방 소멸을 넘는 글로벌 연대, 공동체 회복' 현재 및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가 이유

평가항목	현재 영향력	5년 후 영향력
교류 방식 전환: 이동→관계·협력	(전환 진행 중) 감염병·보호무역주의·브렉시트 등으로 창작자 물리적 이동 제약. 단기 방문·투어 중심 교류에서 공동제작·장기 레지던시·현지 협업 등 관계 기반 교류 방식으로 전환 경향 확대	(협업 모델 확산) 이동 비용·제도 제약·글로벌 분업 구조 등으로 설계와 실행을 분리하는 협업 방식 및 디지털 기반 공동제작 모델 확산 전망. 다만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신중한 평가 필요
지역 기반 교류·로컬 생태계	(정책 확대) 지방 소멸·지역 불균형 대응을 위해 지역 거점 중심 국제문화교류 정책 확대. 유휴공간 활용 국제 레지던시, 지역 창작자·해외 예술가 협업 프로젝트 등이 지역 활력 제고와 관계인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	(글로벌 전략 강화)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 기반 콘텐츠가 글로벌 문화상품으로 확장되는 글로벌 전략의 중요성 증대. 지역 소멸 대응 및 지역 활성화 전략과 연계한 문화교류 모델로 발전 가능성
도시·지역 단위 국제교류	(과도기적 단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사회문제 해결 시도 확대 중. 그러나 지역경제·인구 문제 등 복합적 구조 문제를 문화교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 존재. 정책 실험·제도 조정 진행 중	(도시·지역 단위 부상) 국가 단위보다 도시·지역 단위 교류 활성화 전망. 디지털 기술·네트워크 확대로 소규모 도시도 유사 특성을 가진 해외 도시와 직접 교류 가능한 환경 개선 예상
소규모·관계 기반 교류 모델	(디지털 보완) 디지털 플랫폼·디지털 노마드 문화 확산으로 물리적 이동 없이도 국제 협력·창작 가능. 단, 국가·지역 간 디지털 인프라 격차가 교류 참여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새로운 모델 정착) 탄소 배출·이동성 제약·지속가능성 관심 증가로 대규모 행사보다 주제·관심사 기반 소규모 교류 모델 확대 전망. 지역 문제 해결형 레지던시·공동체 기반 교류 등 관계 중심 방식이 새로운 표준으로 발전 가능성
구조적 제약·정책 한계	(한계 공존) 이동성 제약·수도권 집중 구조·지역 격차·디지털 접근성 등 구조적 조건이 교류 방식과 영향력에 지속 작용. 정책 실험과 제도 조정이 병행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평가	(차등적 영향력) 수도권 중심 구조·지역 간 격차·디지털 접근성 등 제약이 지속 영향. 정책 대응·제도 개선 여부에 따라 제약 완화 가능하며, 국가별 정책 역량·지역 기반에 따라 영향력 차등 발생 예상

■ 탄소 발자국과 ‘슬로우 모빌리티’로의 전환

- 탄소 발자국과 슬로우 모빌리티로의 전환은 현재 국제문화교류 분야에서 인식 확산과 의제화가 진행되는 단계이나, 실질적인 제도화와 구조적 전환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강화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 체류형 레지던서·리서치 중심 프로그램 등 슬로우 모빌리티 방식의 교류 방식과 함께 탄소 배출 관리·친환경 제작 기준을 지원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
- 향후 5년간은 기후위기 관련 친환경 기준이 국제문화교류의 중요한 원칙으로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국가 간 정책 우선순위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추진 속도와 영향력에는 상당한 편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적으로의 전면 정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설계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표 4-19 ‘탄소 발자국과 ‘슬로우 모빌리티’로의 전환’ 현재 및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가 이유

평가항목	현재 영향력	5년 후 영향력
다양성 기반 콘텐츠 산업화	(가능성 부상) 소수문화·마이너리티·언더그라운드 문화에 대한 소비 확대로 다양성이 새로운 문화콘텐츠 생산·시장 확장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흐름 나타남. 쿼어·다문화·정체성 기반 서사가 글로벌 플랫폼·관광 산업과 결합한 새로운 문화산업 모델로 발전 가능성 제기	(전략적 확대) 다언어주의·소수자 문화·청년 문제 등 사회적 다양성을 산업적 기회로 재해석하는 정책 흐름 확산 예상.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통합·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전략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
언어 다양성·번역 인프라	(전략적 부각) 다언어 번역·자막·통역이 국제문화교류와 콘텐츠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 일부 국가에서 번역 지원을 단순 서비스가 아닌 글로벌 문화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추진 중	(기회·쟁점 공존) AI 기반 번역 기술 발전으로 콘텐츠 국제 확산의 핵심 변수로 부상 전망. 다만 번역 산업 구조 변화, 언어 고유성 훼손, 데이터 보안 문제 등 새로운 쟁점 발생 가능성도 제기
다양성·포용성 담론 확산	(의제화) 젠더·언어·소수자 정체성 등 다양성·포용성 가치가 국제문화교류 담론의 중요 기준으로 부상. 일부 국가에서 관련 정책을 문화콘텐츠 산업·관광 산업·창작 생태계와 연계하는 시도 나타남	(국가별 편차 지속) 태국 쿼어 문화 허브·스위스 다언어 번역 지원·이집트 청년 창조산업 육성 등이 새로운 정책 모델로 주목받을 가능성. 다만 산업 기반·정책 환경·사회적 인식 차이에 따라 효과의 범위 상이
청년 창작 생태계·창조산업 정책	(정책 연계 시도) 일부 국가에서 청년 실업 대응을 위해 창조산업 스타트업 육성·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디지털 창작 산업 확대 정책 추진. 창작 생태계 확대와 문화산업 기반 강화의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	(구축 필요성 확대)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청년 크리에이터 산업 확대 흐름. 문화 ODA·국제 협력을 통한 청년 창작 생태계·창업 기반 지원 필요성 제기. 문화산업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이 핵심 정책 과제로 부각
국가별 수용성·불확실성	(영향력 제한) 젠더·성소수자 이슈 등 다양성 관련 의제는 국가별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수용성과 정책 추진 수준이 크게 상이. 일부 사회에서는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산업적 확산에 제약 존재	(불확실성 상존) AI 기술 발전·글로벌 플랫폼 구조·정치사회적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이 정책 효과에 영향. 다양성 기반 산업 전략의 실질적 효과는 정책 설계와 기술 변화에 따라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2차)

■ 1차 조사 결과를 세분화한 구체적 미래 시나리오 검증

- 1차 델파이 조사는 20개의 이슈에 대한 전반적 영향력 수준과 전문가 간 합의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어떤 이슈가 현재 및 향후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할지 파악함
 - 다만 각 이슈가 실제로 어떤 양상으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1차 조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2차 조사에서는 1차에서 도출된 이슈를 구체적인 미래 시나리오 문항으로 세분화해 재검증함
 - 이를 통해 이슈별 영향력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 간 인식차를 확인해 최종 트렌드 선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① 분석 결과

-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현재 영향력은 ‘특정 거점 도시로의 문화 자본 집중과 격차 심화’가 가장 높았으며, ‘탄소 책무제 전면 시행’이 가장 낮게 평가됨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현재 영향력 수준이 가장 높은 이슈는 평균 3.14점(5점 만점) ‘디지털 인프라가 우월한 특정 거점 도시들로 문화 자본과 인재가 더욱 집중되어, 정보 소외 지역과의 문화 격차가 회복 못할 가능성이 있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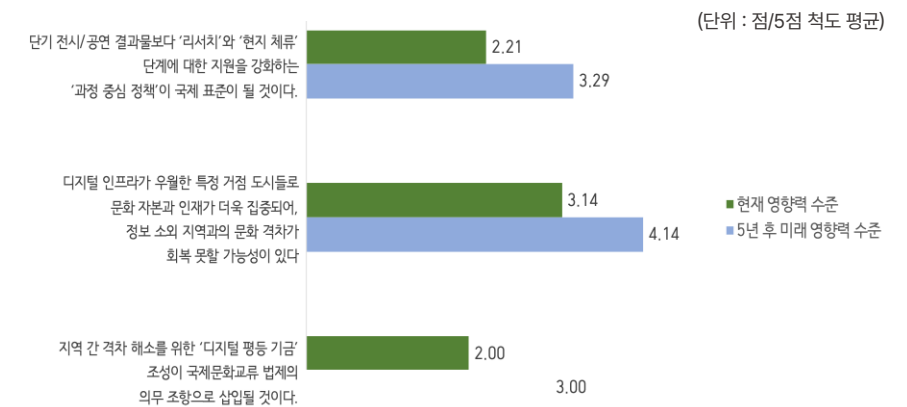


그림 4-8 델파이 2차 응답 결과(지역 간 불균형과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 2위는 ‘문화 정책이 외교·안보 전략과 완전히 통합되어, 국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소프트파워가 주된 무기로 활용될 것이다.’,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장애 등 사회적 의제를 담은 콘텐츠가 지원금 배분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 지표가 될 것이다.’, ‘소수자 및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포용적 교류’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 창작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주된 산업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3.0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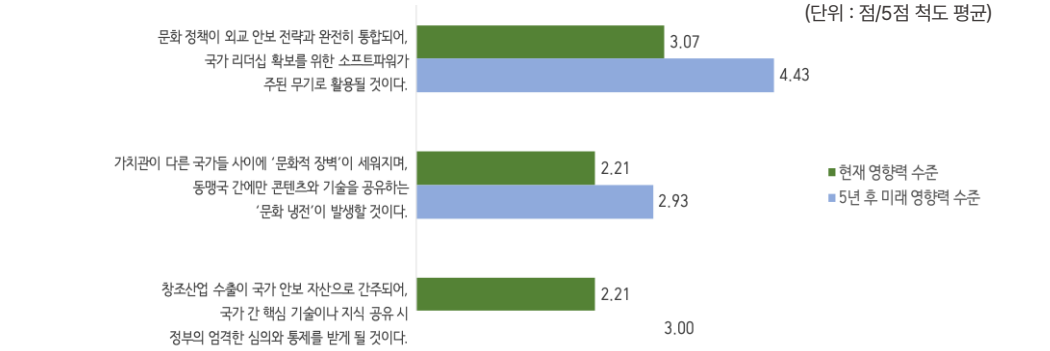


그림 4-9 델파이 2차 응답 결과(창조산업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자산화)

- 3위는 ‘플랫폼 수익 배분 및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3.00점)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현재 영향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평가된 이슈는 평균 1.86점을 받은 ‘예술가의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여 교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탄소 책무제’가 전면 시행될 것이다.’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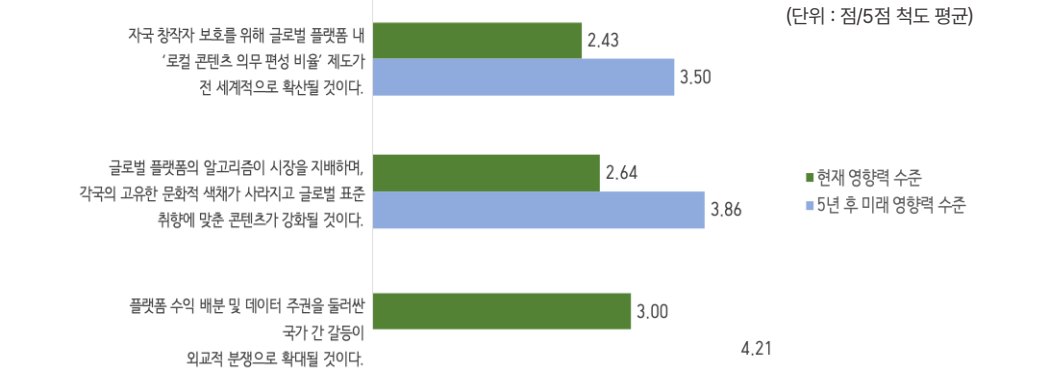


그림 4-10 델파이 2차 응답 결과(글로벌 플랫폼 vs 국가 문화 주권의 충돌)

• **현재 영향력 수준이 가장 높은 이슈에 대해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응답자 의견이 크게 분산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변동 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전문가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개도국 청년 인력을 저임금 하청 노동자로 활용하면서 ‘디지털 창조 노동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0.208), ‘AI가 제작한 유사 콘텐츠(예 : K-스타일)가 시장을 점유하면서, 인간 창작자의 오리지널리티 가치와 경제적 수익이 급감할 것이다.’(0.211) 등의 항목은 변동계수가 낮게 나타나 응답자 간 인식이 비교적 일관된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예술가의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여 교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탄소 책무제’가 전면 시행될 것이다.’(0.465), ‘자국 창작자 보호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내 ‘로컬 콘텐츠 의무 편성 비율’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0.449) 등의 일부 항목은 변동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응답자 간 의견 차이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됨

표 4-20 델파이 2차 응답 결과(현재 영향력 수준) - (1/3)

문항		현재 영향력 수준		
		평균	표준 편차	변동 계수
윤리적 교류 표준과 원주민 권리 보호	1) 원주민 공동체의 직접 동의와 수익 배분을 의무화하는 '글로벌 교류 윤리 인증제'가 국제 표준으로 정착할 것이다.	2.21	0.893	0.403
	2) 호주의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s)'과 같은 강제적 윤리 기준이 국제 표준화되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공공 지원에서 배제될 것이다.	2.50	0.941	0.376
	3) 윤리적 검증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민간 기업 및 중소 규모 단체의 국제 협력이 위축될 것이다.	2.36	0.842	0.357
포용적 가치 기반의 국제교류 고도화	4)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장애 등 사회적 의제를 담은 콘텐츠가 지원금 배분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 지표가 될 것이다.	3.07	0.917	0.299
	5) 소수자 및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포용적 교류'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 창작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주된 산업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3.07	0.917	0.299
	6) 난민, 이주민 등 소외 계층이 주체가 되는 예술 네트워크가 정부 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할 것이다.	2.29	0.726	0.318
글로벌 플랫폼 vs 국가 문화 주권의 충돌	1) 자국 창작자 보호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내 '로컬 콘텐츠 의무 편성 비율'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2.43	1.089	0.449
	2) 글로벌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시장을 지배하며,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색채가 사라지고 글로벌 표준 취향에 맞춘 콘텐츠가 강화될 것이다.	2.64	0.842	0.319
	3) 플랫폼 수익 배분 및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3.00	0.877	0.292
AI 시대 콘텐츠 IP 매니지먼트	4)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과 수익 배분을 위한 국제적인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것이다.	2.64	1.151	0.435
	5) AI가 제작한 유사 콘텐츠(예 : K-스타일)가 시장을 점유하면서, 인간 창작자의 오리지널리티 가치와 경제적 수익이 급감할 것이다.	2.36	0.497	0.211
	6) 창작자의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IP 인증 및 실시간 정산 시스템이 국제문화교류의 주된 인프라가 될 것이다.	2.21	0.802	0.362
디지털 문화유산 아카이빙과 디지털-하이브리드 레지던시	7)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 이동 없이도 현장감을 공유하는 '가상 레지던시'가 주류 교류 방식이 될 것이다.	2.07	0.829	0.400
	8) 기술 강국이 개도국의 문화유산 데이터를 독점하며, 원본 소유국보다 기술 보유국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2.64	0.842	0.319
	9) 유산 데이터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술 보유국(선진국)과 소유국(개도국) 간의 데이터 접근 및 활용권 불균형이 이슈화될 것이다.	2.64	1.008	0.381
창조산업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자산화	1) 문화 정책이 외교·안보 전략과 완전히 통합되어, 국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소프트파워가 주된 무기로 활용될 것이다.	3.07	0.917	0.299
	2) 가치관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 '문화적 장벽'이 세워지며, 동맹국 간에만 콘텐츠와 기술을 공유하는 '문화 냉전'이 발생할 것이다.	2.21	0.802	0.362
	3) 창조산업 수출이 국가 안보 자산으로 간주되어, 국가 간 핵심 기술이나 지식 공유 시 정부의 엄격한 심의와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2.21	0.893	0.403

표 4-21 델파이 2차 응답 결과(현재 영향력 수준) - (2/3)

문항		현재 영향력 수준		
		평균	표준 편차	변동 계수
표준 패키지 수출	4) 문화행정 모델을 시스템화하여 수출하는 것이 단순 콘텐츠 수출보다 더 높은 국가적 위상을 가져올 것이다.	2.07	0.829	0.400
	5) 표준화된 행정 시스템이 협력국에 도입되면서, 해당 국가의 자생적이고 특수한 예술 생태계가 획일화되거나 위축될 것이다.	1.93	0.730	0.379
	6) 중앙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주도에 기반한 '탑다운식' 산업 육성 모델이 협력국에 이식되면서 민간 자율성 위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이다.	2.21	0.975	0.440
문화 ODA와 글로벌 상생 리더십	7) 포용적 성장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 ODA가 소프트 파워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2.36	0.929	0.394
	8) 과거의 일방적인 문화 홍보에서 벗어나, 협력국의 문화 행정 역량 강화와 기술 전수를 통한 '상생형 ODA'가 주류가 될 것이다.	2.50	0.855	0.342
	9) ODA가 단순 지원을 넘어 '글로벌 문화협력체'로 진화하여, 협력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문화기술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일 것이다.	2.43	0.646	0.266
다양성의 산업화	1) AI 실시간 번역·자막 기술이 모든 언어 장벽을 허물어, 비주류 언어권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바로 진입하는 언어 접근성 대중화가 실현될 것이다.	2.71	0.726	0.268
	2) 쿼어 문화나 소수자 콘텐츠가 특정 국가의 독자적인 수출 상품 및 관광 자원으로 고도화되면서 강력한 틈새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2.21	0.975	0.440
	3) '다양성' 자체가 콘텐츠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되어, 소수자 서사를 보유한 국가들이 문화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것이다..	2.71	0.914	0.337
청년 창조 인력 육성 및 스타트업 생태계	4) 제조업 기반이 약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창조산업이 고학력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자 창업의 장으로 육성될 것이다.	2.50	0.855	0.342
	5)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개도국 청년 인력을 저임금 하청 노동자로 활용하면서 '디지털 창조 노동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2.79	0.579	0.208
	6) 국가 간 청년 크리에이터 교류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고용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될 것이다.	2.00	0.555	0.277
이동성 제약에 따른 국제 공동제작 가속화	1) 단독 국가 제작보다 '다국적 공동제작'이 지원 자금 확보와 글로벌 유통의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2.50	0.760	0.304
	2)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보다는 지역 간 독립 예술가들이 직접 연결되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소규모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2.71	0.726	0.268
	3) 비자 발급 및 이동 비용 증가로 인해 기존의 투어 방식 대신 현지 인력과 결합하는 '국제 공동제작'이 필수적인 교류 모델로 정착될 것이다.	2.57	1.016	0.395
지방 소멸 대응 관계인구	4) 지방 소도시들이 글로벌 예술가들의 거점이 되면서, 정주 인구가 아닌 '글로벌 관계 인구'를 통한 새로운 지역 경제 모델이 성공할 것이다.	2.29	0.825	0.361
	5) 유희 공간을 활용한 국제 레지던시 사업이 정주 인구가 아닌 '체류형 관계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다.	2.21	0.893	0.403
	6) 거대 도시를 거치지 않고 소도시와 소도시가 직접 연결되는 '글로벌 로컬 연대'가 중앙정부 주도 외교를 보완하는 새로운 채널로 작동할 것이다.	2.21	0.802	0.362

표 4-22 델파이 2차 응답 결과(현재 영향력 수준) - (3/3)

문항		현재 영향력 수준		
		평균	표준 편차	변동 계수
지역 간 불균형과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7) 단기 전시/공연 결과물보다 '리서치'와 '현지 체류'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과정 중심 정책'이 국제 표준이 될 것이다.	2.21	0.893	0.403
	8) 디지털 인프라가 우월한 특정 거점 도시들로 문화 자본과 인재가 더욱 집중되어, 정보 소외 지역과의 문화 격차가 회복 못할 가능성이 있다.	3.14	0.864	0.275
	9)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평등 기금' 조성이 국제문화교류 법제의 의무 조항으로 삽입될 것이다.	2.00	0.679	0.340
기후 위기 대응 슬로우 모빌리티	1) 예술가의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여 교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탄소 책무제'가 전면 시행될 것이다.	1.86	0.864	0.465
	2) 친환경 이동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제문화교류가 예산이 풍족한 대형 기관이나 부유한 국가의 예술가들만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2.00	0.784	0.392
	3) '결과물 중심'의 단기 투어 공연보다 '과정 중심'의 장기 체류 및 리서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주류가 될 것이다.	2.29	0.994	0.435
	4) '슬로우 모빌리티(천천히 머물기)'가 예술적 트렌드를 넘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의 필수적인 실천 양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2.36	0.842	0.357

▪ 5년 후 미래 영향력은 '디지털 유산 데이터 불균형'과 '문화-외교안보 통합'이 가장 높게 나타남

•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이 가장 높은 이슈는 평균 4.43점(5점 만점)을 받은 '유산 데이터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술 보유국(선진국)과 소유국(개도국) 간의 데이터 접근 및 활용권 불균형이 이슈화될 것이다.', '문화 정책이 외교·안보 전략과 완전히 통합되어, 국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소프트파워가 주된 무기로 활용될 것이다.'임

- 다음으로 2위는 'AI 실시간 번역·자막 기술이 모든 언어 장벽을 허물어, 비주류 언어권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바로 진입하는 언어 접근성 대중화가 실현될 것이다.'(4.36점), 3위는 '소수자 및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포용적 교류'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 창작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주된 산업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플랫폼 수익 배분 및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ODA가 단순 지원을 넘어 '글로벌 문화협력체'로 진화하여, 협력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문화기술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일 것이다.'(4.21점)로 나타남

- 반대로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이슈는 평균 2.21점을 받은 '중앙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주도에 기반한 '탑다운식' 산업 육성 모델이 협력국에 이식되면서 민간 자율성 위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이다.'로 나타남

•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이 가장 높은 이슈에 대한 합의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응답자 의견이 크게 분산되지는 않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변동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전문가 간 인식 차이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유산 데이터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술 보유국(선진국)과 소유국(개도국) 간의 데이터 접근 및 활용권 불균형이 이슈화될 것이다.’(0.146), ‘소수자 및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포용적 교류’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 창작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주된 산업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ODA가 단순 지원을 넘어 ‘글로벌 문화협력체’로 진화하여, 협력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문화기술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일 것이다.’(각 0.166) 등의 항목은 변동계수가 낮게 나타나 응답자 간 인식이 비교적 일관된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중앙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주도에 기반한 ‘탑다운식’ 산업 육성 모델이 협력국에 이식되면서 민간 자율성 위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이다.’(0.440), ‘창조산업 수출이 국가 안보 자산으로 간주되어, 국가 간 핵심 기술이나 지식 공유 시 정부의 엄격한 심의와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0.413) 등의 일부 항목은 변동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응답자 간 의견 차이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됨

표 4-23 델파이 2차 응답 결과(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 - (1/3) : 1순위 : 2순위 : 3순위

문항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균	표준 편차	변동 계수
윤리적 교류 표준과 원주민 권리 보호	1) 원주민 공동체의 직접 동의와 수익 배분을 의무화하는 '글로벌 교류 윤리 인증제'가 국제 표준으로 정착할 것이다.	3.29	0.611	0.186
	2) 호주의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s)'과 같은 강제적 윤리 기준이 국제 표준화되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공공 자원에서 배제될 것이다.	3.50	0.855	0.244
	3) 윤리적 검증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민간 기업 및 중소 규모 단체의 국제 협력이 위축될 것이다.	3.00	0.877	0.292
포용적 가치 기반의 국제교류 고도화	4)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장애 등 사회적 의제를 담은 콘텐츠가 지원금 배분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 지표가 될 것이다.	3.79	0.699	0.185
	5) 소수자 및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포용적 교류'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 창작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주된 산업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4.21	0.699	0.166
	6) 난민, 이주민 등 소외 계층이 주체가 되는 예술 네트워크가 정부 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할 것이다.	3.21	0.893	0.278
글로벌 플랫폼 vs 국가 문화 주권의 충돌	1) 자국 창작자 보호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내 '로컬 콘텐츠 의무 편성 비율'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3.50	1.092	0.312
	2) 글로벌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시장을 지배하며,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색채가 사라지고 글로벌 표준 취향에 맞춘 콘텐츠가 강화될 것이다.	3.86	1.167	0.303
	3) 플랫폼 수익 배분 및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4.21	1.051	0.249

표 4-24 델파이 2차 응답 결과(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 - (2/3) : 1순위 : 2순위 : 3순위

문항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균	표준 편차	변동 계수
AI 시대 콘텐츠 IP 매니지먼트	4)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과 수익 배분을 위한 국제적인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것이다.	4.14	0.864	0.209
	5) AI가 제작한 유사 콘텐츠(예 : K-스타일)가 시장을 점유하면서, 인간 창작자의 오리지널리티 가치와 경제적 수익이 급감할 것이다.	3.57	0.852	0.238
	6) 창작자의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IP 인증 및 실시간 정산 시스템이 국제문화교류의 주된 인프라가 될 것이다.	3.21	0.975	0.303
디지털 문화유산 아카이빙과 디지털-하이브리드 레지던시	7)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 이동 없이도 현장감을 공유하는 '가상 레지던시'가 주류 교류 방식이 될 것이다.	3.29	0.825	0.251
	8) 기술 강국이 개도국의 문화유산 데이터를 독점하며, 원본 소유국보다 기술 보유국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4.07	0.829	0.204
	9) 유산 데이터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술 보유국(선진국)과 소유국(개도국) 간의 데이터 접근 및 활용권 불균형이 이슈화될 것이다.	4.43	0.646	0.146
창조산업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자산화	1) 문화 정책이 외교·안보 전략과 완전히 통합되어, 국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소프트파워가 주된 무기로 활용될 것이다.	4.43	0.756	0.171
	2) 가치관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 '문화적 장벽'이 세워지며, 동맹국 간에만 콘텐츠와 기술을 공유하는 '문화 냉전'이 발생할 것이다.	2.93	1.207	0.412
	3) 창조산업 수출이 국가 안보 자산으로 간주되어, 국가 간 핵심 기술이나 지식 공유 시 정부의 엄격한 심의와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3.00	1.240	0.413
표준 패키지 수출	4) 문화행정 모델을 시스템화하여 수출하는 것이 단순 콘텐츠 수출보다 더 높은 국가적 위상을 가져올 것이다.	3.00	1.038	0.346
	5) 표준화된 행정 시스템이 협력국에 도입되면서, 해당 국가의 자생적이고 특수한 예술 생태계가 획일화되거나 위축될 것이다.	2.43	0.852	0.351
	6) 중앙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주도에 기반한 '탑다운식' 산업 육성 모델이 협력국에 이식되면서 민간 자율성 위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이다.	2.21	0.975	0.440
문화 ODA와 글로벌 상생 리더십	7) 포용적 성장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 ODA가 소프트파워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3.57	1.016	0.285
	8) 과거의 일방적인 문화 홍보에서 벗어나, 협력국의 문화 행정 역량 강화와 기술 전수를 통한 '상생형 ODA'가 주류가 될 것이다.	3.71	0.994	0.268
	9) ODA가 단순 지원을 넘어 '글로벌 문화협력체'로 진화하여, 협력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문화기술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일 것이다.	4.21	0.699	0.166
다양성의 산업화	1) AI 실시간 번역·자막 기술이 모든 언어 장벽을 허물어, 비주류 언어권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바로 진입하는 언어 접근성 대중화가 실현될 것이다.	4.36	0.929	0.213
	2) 쿼어 문화나 소수자 콘텐츠가 특정 국가의 독자적인 수출 상품 및 관광 자원으로 고도화되면서 강력한 틈새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3.00	1.177	0.392
	3) '다양성' 자체가 콘텐츠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되어, 소수자 서사를 보유한 국가들이 문화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것이다..	3.64	1.151	0.316

표 4-25 델파이 2차 응답 결과(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 - (3/3)

문항		5년 후 영향력 수준		
		평균	표준 편차	변동 계수
청년 창조 인력 육성 및 스타트업 생태계	4) 제조업 기반이 약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창조산업이 고학력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자 창업의 장으로 육성될 것이다.	3.79	1.122	0.296
	5)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개도국 청년 인력을 저임금 하청 노동자로 활용 하면서 '디지털 창조 노동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3.64	1.008	0.277
	6) 국가 간 청년 크리에이터 교류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고용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될 것이다.	3.00	0.877	0.292
이동성 제약에 따른 국제 공동제작 가속화	1) 단독 국가 제작보다 '다국적 공동제작'이 지원 자금 확보와 글로벌 유통의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3.93	0.730	0.186
	2)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보다는 지역 간 독립 예술가들이 직접 연결되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소규모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3.43	0.852	0.248
	3) 비자 발급 및 이동 비용 증가로 인해 기존의 투어 방식 대신 현지 인력과 결합하는 '국제 공동제작'이 필수적인 교류 모델로 정착될 것이다.	3.71	0.825	0.222
지방 소멸 대응 관계인구	4) 지방 소도시들이 글로벌 예술가들의 거점이 되면서, 정주 인구가 아닌 '글로벌 관계 인구'를 통한 새로운 지역 경제 모델이 성공할 것이다.	3.21	0.802	0.249
	5) 유희 공간을 활용한 국제 레지던시 사업이 정주 인구가 아닌 '체류형 관계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다.	3.43	0.852	0.248
	6) 거대 도시를 거치지 않고 소도시와 소도시가 직접 연결되는 '글로벌 로컬 연대'가 중앙정부 주도 외교를 보완하는 새로운 채널로 작동할 것이다.	3.29	0.994	0.303
지역 간 불균형과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7) 단기 전시/공연 결과물보다 '리서치'와 '현지 체류'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과정 중심 정책'이 국제 표준이 될 것이다.	3.29	0.914	0.278
	8) 디지털 인프라가 우월한 특정 거점 도시들로 문화 자본과 인재가 더욱 집중되어, 정보 소외 지역과의 문화 격차가 회복 못할 가능성이 있다.	4.14	0.949	0.229
	9)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평등 자금' 조성이 국제문화교류 법제의 의무 조항으로 삽입될 것이다.	3.00	0.784	0.261
기후 위기 대응 슬로우 모빌리티	1) 예술가의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여 교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탄소 책무제'가 전면 시행될 것이다.	3.00	0.784	0.261
	2) 친환경 이동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제문화교류가 예산이 풍족한 대형 기관이나 부유한 국가의 예술가들만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2.79	0.802	0.288
	3) '결과물 중심'의 단기 투어 공연보다 '과정 중심'의 장기 체류 및 리서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주류가 될 것이다.	3.21	1.051	0.327
	4) '슬로우 모빌리티(천천히 머물기)'가 예술적 트렌드를 넘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의 필수적인 실천 양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3.57	0.852	0.238

최종 트렌드 선정

04

- **이머징 이슈 후보군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1·2차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트렌드를 선정하였음**
 - 최종 트렌드 선정은 다음의 2가지 기준을 복합 적용하여 총 20개 이머징 이슈 후보군에서 최종 10개의 트렌드를 선정하였으며, 트렌드는 단일 이슈가 아닌 관련 이슈들을 통합한 상위 개념으로 구성함
 - (미래 영향력 기준) 델파이 2차 조사의 5년 후 미래 영향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1차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상위권으로 평가된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함
 - (전문가 합의도 기준) 변동계수 0.35 이하로 응답자 간 인식이 비교적 일관된 항목을 우선 선정하였음

1. 포용적 교류의 제도화와 윤리적 가치 기반의 교류

① 트렌드 배경

- 최근 국제문화교류는 원주민과 소외계층의 서사를 단순히 소개해 온 시각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권리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려는 포용적·윤리적 방향으로 전환
 - 국제문화교류의 역사는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문화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으며, 특정 공동체의 문화가 국제 무대에 오르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익은 외부 기획자에게 귀속되고, 공동체는 전시 대상에 머무르는 구조가 반복됨
 - 이러한 문제의식이 생겨나며, 이제 국제문화교류는 '무엇을 보여주는가'가 아니라 '누가 결정하고, 누구에게 수익이 돌아가는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호주 정부는 2023년 'Creative

※ 'Creative Austalia' 프로그램



1. 패션, 장신구 및 섬유 디자인 산업 분야의 원주민 창작자와 업계 전문가 교류 강화 프로그램



2. 원주민 공동체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레지던시 프로그램

자료: Creative Australia(<https://creative.gov.au/>)

Australia」 정책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모든 국제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First Nations Protocol’ 준수를 의무화하기 시작함

- 원주민 공동체와의 사전 협의, 문화적 권리 보호, 적절한 참여 및 수익 배분 체계 등을 지원 내용으로 포함된 것임

• 멕시코 역시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아프로멕시코인’ 권리를 공식 인정하고, 전통문화 활용 시 공동체 동의와 수익 환원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였음

•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원주민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난민·이주민·성소수자·장애인 등 기존 국제문화교류 무대에서 소외되었던 집단의 서사를 담는 것이 예술의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음

- 젠더·섹슈얼리티·인종·장애 등 사회적 의제를 담은 콘텐츠가 공공 지원금 배분의 주요 평가 지표로 점차 제도화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음

② 관련 현황 및 이슈

▪ 국제문화교류에서 포용적 가치는 필수 조건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

• 델파이 2차 조사에서 ‘소수자 및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포용적 교류가 실제 창작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주된 산업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문항은 미래 영향력 4.21점, 변동계수 0.166으로 높은 합의 수준을 보임

- 1차 조사에서도 ‘문화적 정체성 회복과 포용적 가치 기반의 국제문화교류 고도화’ 항목이 4.29점으로 높게 나타남

※ ‘LA WAYAKA CURRENT’ 레지던시



환경, 기후변화, 인간 외 존재들과의 공존을 탐구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주로 파나마의 정글이나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과 같은 오지에서 원주민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며,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비인간에 해당하는 동물 및 자연 생태계를 예술의 주체로 삼는 프로젝트를 지원

자료: LA WAYAKA CURRENT(<https://www.lawayakacurrent.com/>)

• 전문가 FGI에서도 “원주민 이슈를 이머징으로 두기에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장과의 간극이 많이 크다는 생각이 큼. 현장에서의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 담론에서는 이미 주류화되었으나 실제 교류 현장까지 내려오는 데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함

• 캐나다·호주·북유럽 등의 국가에서 원주민 예술가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성’의 범위가 인종·젠더를 넘어 동·식물을 포함한 ‘비인간’까지 확장되는 추세임

•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참가자 선정 기준에 다양성 지표가 포함되고, 국제 공연 및 음악 페스티벌 라인업 구성에서도 젠더·인종 등 아티스트 비율을 명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전문가 FGI에서도 “소수자·장애 예술가가 아니면 캐나다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만큼 포용성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③ 전망

▪ 포용적 가치는 향후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필수적 조건으로 제도화되는 동시에 콘텐츠 고유의 가치와 독창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 포용적 가치 기준이 지원사업의 필수 조건이 되어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선정 심사에서 ‘포용성 지표’가 정량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는 기관 및 사업이 증가할 것임

- 현재 영국문화원에서는 이미 성별 균형 및 다양성 지표를 프로젝트 심사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영국문화원’ 국제 협력 기금 신청서 양식

Section	Sub-section	Is this assessed?
Eligibility	• NA	No
1 – Administrative	• Lead institution • Association partner(s) • Application statements	No
2 – Project specifics	• Organisational experience & capacity • Project approach • Project outputs and benefits • Outcomes	Yes
3 – Social values	• Gender and EDI impact • Environmental, ethics and development	Assessed as part of screening.
4 – Finance & Budgets	• NA	Yes
5 – Risk	• NA	No
6 – Communication & engagement	• Communication plan	No
7 – Data protection etc	• NA	No
8 – Supporting documents	• NA	No

실제 공모 심사 표준 양식 내에 평가 지표로 ‘Gender and EDI impact’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

자료: British Council(<https://www.britishcouncil.org/>)

• 그간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으면서, 포용적 가치는 이제 도덕적 의무를 넘어 작품 고유의 매력을 더하는 요소로 강화될 것임

2. 문화유산 데이터 주권 전쟁의 시작

① 트렌드 배경

- 문화유산을 기후위기로부터 보존·보호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기술 의존으로 문화유산 데이터 소유권과 활용권이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나일강 수위 상승, 사막화 가속 등 기후위기로 인해 지중해 연안과 사하라 일대 고대 유적이 빠르게 손상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3D 스캔·디지털 트윈·AI 아카이빙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때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과 활용권이 기술 제공국에 귀속되는 '디지털 식민지화' 구조가 형성됨
 - 중남미 마야 유적 등 문화유산이 드론 등의 기술들로 아카이빙되는 과정에서 현지 원주민 공동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가 상업화되거나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U.S. Indigenous Data Sovereignty Network(USIDSN)'



USIDSN은 외부 기관에 데이터를 빼앗기지 않도록 각 부족에게 정부가 자체적인 데이터 법률, 연구 검토 위원회, 데이터 공유 협정 프로토콜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자문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자료: USIDSN(<https://usindigenousdatanetwork.org/>)

- 또한 이집트 카이로의 대이집트박물관은 내부 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ICT 인프라 등 일본국제협력기구 등 외국의 자금과 기술이 70% 이상 투입된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나, 실질적 기술 소유권 상당 부분이 외부에 귀속되는 현상이 발생함

② 관련 현황 및 이슈

- 문화유산 디지털 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데이터 소유권 불균형과 주권 종속 문제는 향후 국제문화교류에서 더욱 시급히 다뤄질 쟁점이며, 데이터 주권을 존중하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
 - 델파이 2차 조사에서 '유산 데이터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술 보유국(선진국)과 소유국(개도국) 간의 데이터 접근 및 활용권 불균형이 이슈화될 것이다'라는 문항은 미래 영향력 4.43점, 변동계수 0.146으로 전체 항목 중 영향력 평가 중 공동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난 이슈임
 - 1차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미래 영향력 3.86점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기술 강국이 개도국의 문화유산 데이터를 독점하며, 원본 소유국보다 기술 보유국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문항 역시 미래 영향력 4.07점으로 나타남
 - 전문가 FGI에서도 "소멸이라든지 하는 용어가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 이집트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된 바와 같이, 문화유산에 대한 소멸 위기를 강조하는 외부 시각과 자국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진 현지 인식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음

③ 전망

- 문화유산 데이터의 주권을 보장하는 국제 협약과 공동 소유 방식이 새롭게 등장할 것
 - 문화유산 데이터의 소유권·접근권·수익권 등을 명시하는 국제 협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함
 - 문화유산 디지털화 사업이 기술 이전에서 '공동 소유·공동 운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봄
 - 일방적 기술 제공이 아닌 데이터 공동 소유, 수익 공유, 현지 인력 역량 강화를 패키지화한 협력 방식이 논의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봄
 - 또한 AI를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 기술이 확대되며, 저작권 귀속 문제와 향후 원본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떠오를 수 있음

3. 콘텐츠 주권 갈등의 외교 분쟁

① 트렌드 배경

- 글로벌 플랫폼의 IP 독점으로 인한 문화주권 위축과 생성형 AI의 무단 데이터 학습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전 세계 문화산업계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성공을 거뒀으나, 핵심 IP 소유권이 해외 플랫폼에 귀속되어 국내 제작사의 수익 창출에 제한이 생기며 콘텐츠 산업계 전반에서 플랫폼 종속에 따른 'IP 주권'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창작자의 저작물이 AI 기업의 데이터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저작권 갈등이 가속화되기 시작함
 - 주요 미디어 및 문화 기업들이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 지구적인 법적·윤리적 의제로 부상

※ Disney vs Midjourney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디즈니가 이미지 생성 AI 기업인 미드저니를 상대로 이미지에 대한 무단학습을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함. 특히 최근 AI가 기존 캐릭터나 저작물과 지나치게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침해적 출력물 생성 경향성'을 핵심 쟁점으로 소송을 추진중에 있음

자료: Parametric Architecture
(https://parametric-architecture.com/disney-and-universal-sue-midjourney/?srsltid=AfmBOoyn87ebyGEF_A00AcLD_aLJto-6AU9FcuZ4eP4tyPlkaQSNuc2)

② 관련 현황 및 이슈

- 글로벌 플랫폼의 시장 독점과 AI 데이터 무단 활용에 대응해 각국이 문화주권 보호와 저작권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
 - 델파이 2차 조사에서 '플랫폼 수익 배분 및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 영향력이 4.21점,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과 수익 배분을 위한 국제적인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것이다'라는 문항도 4.14점으로 함께 상위권으로 조사됨
 - 1차 조사에서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미래 영향력이 4.36점으로 전체 2위로 상위권으로 분석됨
 - 전문가 FGI에서는 IP 무단 소비에 대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K-pop이나 콘텐츠에 대한 반응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정식 유통되는 게 없다, 볼 기회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IP가 그냥 무단 사용되고 있고 제대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 제도적이나 정책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처럼, K-콘텐츠가 비공식 채널로 소비되는 국가들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논의됨
 - 또한 멕시코 사례에서 보이듯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이 로컬 콘텐츠를 글로벌 히트 콘텐츠로 키우는 '글로벌화' 전략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면서, 각국 정부는 콘텐츠 쿼터제·세제 규제로 문화주권을 지키려는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

③ 전망

- 글로벌 플랫폼 규제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수립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로컬 콘텐츠 쿼터제의 확산으로 해외 진출 방식에 변화가 요구될 전망
 -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등과 같이 문화 분야 플랫폼으로도 규제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음
 - 무단 학습 및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EU 등 주요 콘텐츠 생산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동 대응 매뉴얼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
 - G7 주요국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AI 개발사의 저작권 및 학습 데이터 출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 운영중인 콘텐츠 쿼터제가 아시아와 남미 국가로도 확대되면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현지 진출 방식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EU 권역 내의 글로벌 플랫폼은 전체 콘텐츠 중 최소 30% 이상을 반드시 유럽산 콘텐츠로 채워야 하며, 또한 법에 근거해 현지에서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을 현지 제작물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캐나다의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 캐나다 콘텐츠 의무 편성 및 기금 기여 규제를 적용한 법안임

4. AI 번역이 바꾸는 콘텐츠 판도와 다언어 접근성의 대중화

① 트렌드 배경

- 언어 장벽 완화는 국제문화교류의 오랜 과제였으나, 최근 AI 실시간 번역·자막 기술의 발전으로 비주류 언어권 작품을 바로 만날 수 있게 됨
 - AI 실시간 번역 및 자막 기술의 발전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자체 AI 번역 시스템, 유튜브의 자동 자막 고도화, 오픈 AI의 실시간 음성 번역 기술 등이 연이어 등장하며, 비주류 언어권의 콘텐츠가 전 세계 플랫폼에 동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해짐
 - 또한 문화예술계에서도 연극 공연의 실시간 자막 서비스, 현대미술 도록의 AI 다국어 번역 서비스, 음악 가사의 실시간 번역이 이미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음
 - 스위스는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로망슈어 4개 공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통역·번역·자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이를 단순 보조가 아닌 시장 진입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함

② 관련 현황 및 이슈

- AI 기술로 국제 교류의 언어 장벽이 대폭 낮아진 반면, 문화적 정서와 뉘앙스를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는 계속해서 과제로 남아 있음
 - 델파이 2차 조사에서 'AI 실시간 번역·자막 기술이 모든 언어 장벽을 허물어, 비주류 언어권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바로 진입하는 언어 접근성 대중화가 실현될 것이다'라는 문항은 미래 영향력 4.36점으로 전체 2위를 기록
 - 1차 조사에서도 'K-콘텐츠 IP 매니지먼트 전략'이 미래 영향력 4.36점으로 나타남
 - 국제 연극 페스티벌에서 실시간 AI 자막 서비스가 인적 통역을 대체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며, 소규모 단체가 통역 비용 없이도 국제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 한편 기술 발전이 콘텐츠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번역 품질의 균일화로 인해 언어 고유의 문화적 뉘앙스가 소실될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문제도 있음
 - 이집트의 경우 아랍어 번역의 정확성 문제가 K-콘텐츠 현지화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전문가 FGI에서도 “아랍에서는 금기시되는 용어가 콘텐츠에선 그대로 드러나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을 들곤 했다”라고 언급된 것처럼, AI 번역의 기술적 발전과 문화적 정서 및 정확성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③ 전망

- AI 번역 기술의 대중화로 비주류 언어권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과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번역 품질이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AI 번역 기술의 보편화로 비주류 언어권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입 문턱이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K-콘텐츠가 그러하듯, 터키 드라마, 인도 발리우드 등이 AI 번역을 기반으로 전 세계 시장에 동시 진입하는 속도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
 - 단순한 차원의 언어 변환이 아닌 문화적 맥락·정서·관용 표현을 정확히 전달하는 '문화 번역' 역량이 콘텐츠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AI 번역 기술 자체가 새로운 문화 권력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영어·중국어·스페인어 등 주류 언어 중심으로 AI 번역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언어들의 번역 품질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5. 소프트파워 경쟁

① 트렌드 배경

- 창조산업을 국가 소프트파워의 전략 자산으로 삼는 정부 주도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2021년 영국 정부는 국가 안보 및 국제 정책을 포괄적으로 기술한 'Integrated Review」를 발표하면서 창조산업을 국가 안보·외교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명시했는데, 이는 브렉시트로 EU와의 물리적 연결이 약화된 상황에서 '문화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유지'를 국가적 대안으로 선택한 결과로 해석됨
 - 방송 콘텐츠·디자인·패션·음악 등 영국의 창조산업이 단순한 경제 성장 동력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위상을 유지하는 '소프트파워 자산'으로 재정의됨
 - 태국은 2024년 총리령으로 '국가소프트파워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THACCA(태국 창조문화진흥원)를 출범시켜 14개 창조산업 분야를 정부 주도로 육성하는 이 전략은 한국의 KOCCA·KOFICE 모델을 벤치마킹하되 더욱 강력한 정부 주도의 방식으로 설계됨
 - 특히 태국의 전통 공연예술인 '콘(Khon)'의 유네스코 등재, 송크란 축제로의 국제화 전략을 통해 전통 문화예술을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 자산으로 전면에 내세움
 - 문화가 국가 전략의 도구로 적극 활용될수록, 순수한 예술적 교류의 공간은 좁아지고 가치관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문화 냉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② 관련 현황 및 이슈

- 문화정책이 외교 및 안보 전략으로 자산화되는 경향에 공감함
 -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에서 '문화 정책이 외교·안보 전략과 완전히 통합되어, 국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소프트파워가 주된 무기로 활용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의 미래 영향력 4.43점, 변동계수 0.171로 나타남
 - 1차 조사에서도 '창조산업이 외교 및 안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라는 문항이 미래 영향력 4.43점으로 나타나, 두 조사 모두에서 높은 이슈임을 확인함
 - 반면 '가치관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 동맹국 간에만 콘텐츠와 기술을 공유하는 문화 냉전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문항은 미래 영향력 2.93점, 변동계수 0.412로 전문가 간 의견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이는 소프트파워 안보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높은 합의를 보이면서도, 문화 냉전으로까지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음
 - 주요국에서도 국제 페스티벌 및 비엔날레, 아트마켓 등의 순수한 예술적 성과보다 국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메가 이벤트 중심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한계를 보임

③ 전망

- 정부 주도의 문화 및 안보 전략 강화로 순수예술의 위축이 우려되는 한편, 가치관 중심의 '문화 동맹'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영국 정부가 창조산업을 안보 자산으로 명시한 것처럼, 문화 지원의 우선순위가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편되는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소프트파워 경쟁의 심화가 순수예술 교류 공간을 잠식할 위험이 있음
 - 정부 주도의 탑다운식 소프트파워 전략이 강화될수록 실험적·비주류 예술이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주요국 국가 간 갈등 심화와 지정학적 재편 속에서 '문화 동맹' 개념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특정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문화교류를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6. 콘텐츠가 아닌 시스템을 수출한다

① 트렌드 배경

- 문화예술산업 전반에서 단순 작품 수출을 넘어 제작 프로세스와 포맷 등 시스템 자체의 수출이 부상하고 있음
 - 영국 국립극장과 중국 국가대극원의 협약은 단순한 공연 수출을 넘어, 프로덕션 전반의 무대기술, 제작 프로세스, 연습 방식 등 공연예술 제작의 노하우 전체를 현지에 이전하는 '시스템 수출' 형태로 전개됨
 - 이러한 콘텐츠 자체가 아닌 이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수출함으로써, 중국은 자체적으로 수준급의 공연을 제작할 역량을 갖추게 되었음
 - 또한 미술 분야에서도 아트마켓 기획 방식, 큐레이터 교육 프로그램 등 통째로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이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 K-pop 아이돌 육성 시스템, 오디션 프로그램 포맷, 음악 제작 방식, K-드라마 포맷 수출, 감독 및 작가 인력의 현지 파견, 제작 시스템의 현지화 등은 동남아 및 중동 지역에서 도입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② 관련 현황 및 이슈

- 문화 행정 및 제작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이 부상하는 한편, 시스템을 내재화한 협력국이 독자적 경쟁자로 성장하는 딜레마도 공존함
 - 델파이 2차 조사에서 'ODA가 단순 지원을 넘어 글로벌 문화협력체로 진화하여, 협력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문화기술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일 것이다'라는 문항이 미래 영향력 4.21점, 변동계수 0.166으로 높은 합의 수준을 보였으며, '과거의 일방적인 문화 홍보에서 벗어나, 협력국의 문화 행정 역량 강화와 기술 전수를 통한 상생형 ODA가 주류가 될 것이다'라는 문항도 3.71점으로 나타남
 - 1차 조사에서 '콘텐츠 판매를 넘어선 창조 생태계 및 표준 패키지 수출' 항목은 변동계수 0.160으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변동계수로 나타나, 전문가 간 높은 합의를 보인 이슈로 확인됨

- 전문가 FGI에서는 "영국이 중국에 국립극장이라든가 큰 규모의 기관 프로덕션과 계약을 맺고 그 팀이 싹 다 중국으로 가서 노하우를 다 전수하는데, 무대 팀, 기술팀, 제작 과정이 이렇게 되고 연습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의 바이블이 되는거예요" 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함
- 한국의 KOCCA·KOFICE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THACCA를 설립한 태국, 영국이 창조산업 생태계·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패키지화하여 해외에 확산하는 전략, 한국이 협력국에 문화행정 노하우·콘텐츠 제작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이 이 트렌드의 핵심임
- 한편 FGI에서 "중국 분들이 엄청 빨리 학습을 해서 더 필요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한 것처럼, 시스템을 내재화한 협력국이 독자적 경쟁자로 부상하는 구조적 딜레마도 함께 제기됨

③ 전망

- 제작 프로세스와 포맷 등 시스템 자체의 수출 지속해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단순한 콘텐츠 유통을 넘어 자국의 창작 생태계 인프라와 제도를 협력국에 이식하는 방식이 향후 새로운 문화 주권의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함
 - 공연예술·음악·영화 등 각 장르별 제작 시스템의 표준화·패키지화가 더욱 가속될 것임
 - 단순한 자금·기술 이전이 아닌, 협력국과 함께 공연·전시·음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제작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파트너십 방식과 같이 문화 ODA가 '지원'에서 '공동 개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은 국가가 역량을 내재화한 이후 독자적 경쟁자로 부상하는 구조 속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될 수 있음

7. 틈새 문화의 전략적 산업화와 다양성의 경쟁력

① 트렌드 배경

▪ 비주류 문화가 독자적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시작함

- 기존 국제 문화교류에서 비주류·소수·지역 특수성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오히려 독자적 경쟁력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기존 국제문화교류에서 외면하거나 소외됐던 장르와 공동체 등이 글로벌 플랫폼과 국제 아트마켓을 통해 독자적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함
- 2024년 기준 빌보드 100 차트 중 45%가 비영어 가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스포티파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모국어가 아닌 언어의 음악을 정기적으로 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⁴⁸
- 아시아 각국이 성소수자 문화에 보수적일 때, 태국은 BL(Boys' Love)을 독점적 수출 상품화해 이를 이를 팬미팅 투어·촬영지 관광·파생 상품과 연계하는 '핑크 이코노미(Pink Economy)' 생태계를 구축함
 - GMMTV·Be On Cloud 등 민간 제작사들이 BL과 관련한 콘텐츠를 넷플릭스·iQiyi 등 글로벌 플랫폼과 공동 제작·배급하는 파트너십을 주도하고 있음

※ 'GMMTV의 <2gether>'



아시아 전역에 팬덤을 모으며 글로벌 팬미팅 투어 등 BL을 정착시킨 주요 드라마 <2gether>

자료: GMMTV(<https://www.gmm-tv.com/home/?time=1781597184>)

② 관련 현황 및 이슈

- 소수자의 서사와 문화 다양성이 독자적 산업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에 전문가들은 동의하였음
 - 델파이 2차 조사에서 '다양성 자체가 콘텐츠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되어, 소수자 서사를 보유한 국가들이 문화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문항은 미래 영향력 3.64점, '퀴어 문화나 소수자 콘텐츠가 특정 국가의 독자적인 수출 상품 및 관광 자원으로 고도화되면서 강력한 틈새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문항도 3.00점으로 나타남
 - 전문가 FGI에서는 "태국은 재빠르게 퀴어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를 관광과 연계하는 등 전략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또한 "미술 시장으로는 태국에서 한국 작가들에 대한 퀴어 문화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음

③ 전망

- 글로벌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주류·소수자 콘텐츠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며 관련 다양성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소수자의 서사·비주류 문화·지역 특수성을 활용한 콘텐츠가 글로벌 OTT 플랫폼의 알고리즘 다양성 요구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양성 콘텐츠의 시장성이 입증되면서 공공 지원 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보임
 - 소수자 서사 콘텐츠가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다양성 지표가 더욱 중요해질 것임
 - 한편 국가별 문화 수용 차이로 인한 시장의 차이점도 나타날 것임
 - 퀴어 콘텐츠에 우호적인 시장과 검열이 엄격한 시장 사이의 차이로 인해, 콘텐츠 수출 전략의 시장별 세분화가 필수적이 될 것임

48 Cristina Punzalan(2025.7.14.), "The Future of Music Is Global, Diverse, and Borderless", AMW(<https://amworldgroup.com/blog/globalization-of-music>)

8. 글로벌 공동제작 패러다임의 전환

① 트렌드 배경

- 비용 절감과 탄소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현지 결합형 및 장기 체류형 공동제작이 증가하고 있음
 - 브렉시트 이후 영국 창조산업의 핵심이었던 '자유로운 인적 교류'가 막히면서 EU 예술가들의 영국 투어·공연·레지던시 참여가 비자 문제로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예술가 및 단체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현지 인력과 결합한 공동제작'을 추진
 - 또한 기후위기도 이 흐름을 가속화했는데, 유럽을 중심으로 예술가의 항공 이동에 따른 탄소 발자국 문제가 자원 심사의 기준이 되면서 단발성 투어보다 현지 장기 체류형 공동제작이 선호되는 구조가 형성됨
 - 경제적 이유(비용 절감)와 환경적 이유(탄소 저감)가 동시에 공동제작 확대를 촉진

② 관련 현황 및 이슈

- 현지 결합형 공동제작이 글로벌 기금 확보와 유통의 필수 조건으로 정착되는 추세
 - 델파이 2차 조사에서 '단독 국가 제작보다 다국적 공동제작이 지원 기금 확보와 글로벌 유통의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라는 문항은 미래 영향력 3.93점, 변동계수 0.186으로 나타남
 - 또한 '비자 발급 및 이동 비용 증가로 인해 기존의 투어 방식 대신 현지 인력과 결합하는 국제 공동제작이 필수적인 교류 모델로 정착될 것이다'라는 문항도 3.71점으로 조사됨
 - 전문가 FGI에서는 "단발적인 투어가 아니라 한 개 도시가 아니라 몇 개의 도시로 연장한 투어라면 최소한 3~4개 도시 정도는 보기 편해져야 되는 게 있고, 레지던시 같은 경우도 단발적으로 일주일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다양한 시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게 있느냐가 투어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물리적 이동의 질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③ 전망

- 글로벌 플랫폼의 현지 편성 규제로 인한 공동제작 필수화와 탄소 규제 가이드라인 강화로 단발성 투어 대신 장기 체류형 문화교류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주요 플랫폼들이 현지 콘텐츠 의무 편성 비율을 높이면서, 현지 제작사와의 공동제작이 플랫폼 진입의 주요 요건이 될 것임
 - 또한 공동제작 과정에서의 IP 권리 배분이 새로운 분쟁 영역이 될 수 있음
 - 다양한 국가 간 공동제작이 증가할수록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IP 소유권·수익 배분·크레딧 표기 등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플라이트 셰임과 복수 도시 연계형 문화교류의 제도화
 - 예술가의 항공 이동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공공 지원사업의 주요 감점 요인이나 심사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플라이트 셰임(Flight Shame)이 개인의 윤리를 넘어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고착됨에 따라 단발성 비행을 줄이는 대신 한 번 이동해 오랜 기간 거주하는 장기 체류형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9. 지방 소멸 시대의 글로컬 연대와 관계인구의 부상

① 트렌드 배경

- 지방 소멸 위기 대응해 로컬 안착형 문화교류가 새로운 지역 소멸 대응 전략으로 부상
 -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폐교나 유휴공간을 국제 레지던시 공간으로 전환하여 해외 예술가를 장기 체류 시킴으로써, 정주 인구가 아닌 '체류형 관계인구'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각 지역별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
 - 이 개념은 일본에서 먼저 제도화되는데, 일본 총무성이 '관계인구' 개념을 공식화하면서, 이주도 관광도 아닌 그 중간 지점에서 지역과 연결된 사람들을 창출하는 것이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부상함
 - 국제 레지던시는 이 개념을 통해 국내외 예술가가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주민과 협력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등 국제무대로 나아갈 수 있게 연결하고 있음
 - 태국 역시 같은 문제를 다른 맥락에서 겪고 있는데 방콕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이 지방과의 디지털 인프라 격차를 심화시키고, 국제문화교류 기회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음
 - 한편 스위스는 26개 칸톤(주)이 각자 독자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분권형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② 관련 현황 및 이슈

- 예산 삭감과 인구 위기에 대응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제 레지던시와 소도시 간 직접 연대가 확산
 - 델파이 2차 조사에서 '유휴 공간을 활용한 국제 레지던시 사업이 정주 인구가 아닌 체류형 관계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의 미래 영향력은 3.43점으로 조사됐고, 또한 '거대 도시를 거치지 않고 소도시와 소도시가 직접 연결되는 글로벌 로컬 연대가 중앙정부 주도 외교를 보완하는 새로운 채널로 작동할 것이다' 시나리오도 3.29점으로 나타남
 - 1차 조사에서 '인구 절벽 시대,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로컬 문화교류' 항목은 미래 영향력 3.79점으로, 현재 영향력(2.86점)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확인됨
 - FGI에서 역시 "브렉시트 및 경제위기, 러·우 전쟁 등 국제교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대규모 공동제작이나 투어는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위주로 재편되는 경향도 확인되며, 국제교류 자체보다 지역사회 기여와 내수 결속을 다지는 방향으로 예산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견과 같이 이 흐름은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공통 현상임을 확인함

③ 전망

- 지방 소도시와 해외 예술가가 직접 소통하는 '글로벌 로컬 연대'가 확산될 것임
 - 지방 소도시와 글로벌 예술가가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되는 '글로벌 로컬 연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기존의 국가 대 국가 단위 문화교류를 보완하는 새로운 교류 방식으로 기능
 - 단순한 예술가 체류 프로그램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발굴·기록하고 국제 무대에 연결하는 콘텐츠 생산 거점으로 레지던시의 역할이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

1절 2026-2028년 국제문화교류 정책 방향 예측

2절 정책 시사점

3절 정책 수요자를 위한 전략적 제안

5

PART

문화예술산업 중심
국제문화교류 정책
전망 및 시사점

2026-2028년 국제문화교류 정책 방향 예측

01

▪ 전략화·디지털화·포용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국제문화교류 정책 방향

- 본 연구는 영국·호주·멕시코·스위스·태국·이집트·한국 7개국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STEEP 분석·텍스트마이닝·전문가 FGI·델파이 조사를 통해 향후 3년간(2026-2028) 국제문화교류를 주도할 10대 트렌드를 도출함
- 이 과정에서 확인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국제문화교류가 더 이상 홍보 차원의 수단에 머물지 않고, 외교·안보·경제·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복합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재위치되고 있다는 점임
- 도출된 10대 트렌드를 종합하면, 2026-2028년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방향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수렴할 수 있음
 - (전략화) 소프트파워의 안보 자산화, 시스템 수출, ODA형 문화교류 확대 등에서 확인되듯, 문화교류의 목적이 국가 전략적 이해관계와 결합되고 있음. 델파이 2차 조사에서 '문화 정책이 외교·안보 전략과 완전히 통합될 것이다' 시나리오의 미래 영향력이 4.43점으로 나타난 점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방증
 - (디지털화) 문화유산 데이터 주권 갈등, AI 번역의 대중화, 플랫폼 IP 분쟁의 등이 이 축을 구성. 디지털 전환은 교류의 물리적 제약을 낮추는 동시에 데이터 주권·저작권·플랫폼 종속이라는 새로운 불평등 구조를 야기하며, 이 구조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법·제도 설계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함
 - (포용성) 원주민 교류, 소수자 서사의 산업화, 글로벌 연대와 지방 소멸 대응과 같이 포용적 가치가 실질적 지원 조건과 지표로 제도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관 및 단체 등은 구조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정책 시사점

02

1. 국제문화교류 전략: '상생' 및 '협력'으로

- 10대 트렌드 도출 결과, 가장 일관된 방향성으로 확인된 점은 일방향적 문화 전파 방식의 한계
 - 영국은 창조산업을 외교 자산으로 명시하면서도 브렉시트 이후 일방적 문화 수출보다 현지와의 공동 제작을 필수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호주는 원주민 공동체와의 협의를 모든 국제 프로젝트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였음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역시 K-콘텐츠 확산 중심의 홍보형 모델에서 협력국의 문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상생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방향을 제안함
 - (문화 ODA의 상생형 재편) 단순 콘텐츠·기술 이전에서 협력국과 공동 개발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파트너십 모델로 고도화가 필요. 특히 협력국의 문화행정 역량 강화와 창작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장기 협력 관계가 유지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관건임
 - (공동제작 중심의 교류 지원으로) 단발성 행사 지원에서 장기 체류·복수 도시 연계·공동 IP 소유를 포함하는 공동제작 지원 구조로 전환이 요구됨
 - (포용적 가치 내재화) 사업 설계 및 작품 제작 시 원주민·소수자 협의, 예술가의 공정 보수 기준 마련, 탄소 저감 계획 등을 심사 기준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디지털 주권과 IP 보호 체계의 국제 협력 강화

-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문화유산 데이터 공동 소유와 AI 저작권에 대한 협력 강화
 - 델파이 조사에서 플랫폼·데이터·AI 관련 이슈들이 일관되게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디지털 전환이 국제문화교류의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큰 구조적 위협임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문화유산 데이터 기술 불균형 이슈화'가 미래 영향력 4.43점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기술 격차를 넘어 글로벌 문화 자산의 종속 위험을 경계하고 있음을 의미
 - (문화 IP 보호를 위한 노력)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제 저작권 가이드라인 수립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양자·다자 간 협약이 필요
 - (문화유산 디지털화 ODA의 접근·활용권 보장) 협력국의 문화유산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할 때, 디지털화된 데이터에 대한 협력국의 접근권과 활용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설정해야 디지털 문화 ODA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잠재 소비 시장의 공식 유통 채널 마련) 잠재적 콘텐츠 수요는 높으나 공식 유통망이 부재해 비공식 경로로 소비가 이뤄지는 시장을 대상으로 AI 번역 기술을 활용한 공식적 유통망 구축이 필요

3. 글로벌 연대와 지역 기반 국제교류 생태계 조성

- 지방 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한국의 구조적 과제는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지리적 불균형 문제와 맞닿아 있음

• 델파이 조사에서 ‘인구 절벽 시대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로컬 문화교류’ 항목이 현재 영향력 대비 미래 영향력의 상승폭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나타난 것은, 이 분야에서 가장 빠른 정책 변화가 요구됨을 시사함

- (지방 소멸 대응과 국제문화교류의 연계) 폐교·유허 공간을 국제 레지던시 거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단순한 지원 프로그램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파트너십 역량을 구축하는 장기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함. 스위스 칸톤과 같이 지자체가 독자적 국제 파트너십을 맺는 분권형 교류 생태계가 한국에 서도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함

- (KOFICE의 지역 연계 기능 강화) 현재 KOFICE의 사업에서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직접 지원하는 거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 기반 창작자·기관과 해외 파트너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이 KOFICE의 핵심 기능으로 정착할 것임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인프라 지원) 지역의 고령화와 디지털 소외로 인한 문화교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디지털 툴을 활용해 해외 체류 예술가와 소통하고 고유의 로컬 자원을 글로벌 콘텐츠로 공동 생산할 수 있도록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참여형 인프라 지원이 요구됨

정책 수요자를 위한 전략적 제안

03

▪ 사업 선정 심사 기준에 포용성 지표 도입

• 현재 국제문화교류 지원 사업 선정 심사에는 포용성·윤리성 관련 기준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호주·영국·캐나다 등 주요 협력국이 이미 원주민 협의 의무화, 공정 보수 기준, 탄소 저감 계획 등을 지원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사업 선정 기준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들과의 공동 사업 접점이 좁아질 위험이 있음

• 협력 대상국의 포용성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 기획 단계에서 반영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 신흥 시장 진입을 위한 번역 인프라 구축

• FGI와 델파이 조사 모두에서 K-콘텐츠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을 제외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공식 유통 채널이 부재하다는 점이 확인됨

- AI 번역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랍어권 등의 진입을 고려해봄직함

• 자막·더빙 품질 향상을 위한 AI 번역 파일럿 사업을 추진하고, 현지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 구조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함

▪ 디지털·하이브리드 교류 사업의 기후 대응 연계

• 유럽·영국을 중심으로 기후 책무성이 지원 심사의 필수 기준으로 제도화되고 있어, 지원사업 신청 시 탄소발자국 절감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디지털·하이브리드 교류는 물리적 이동의 완전 대체가 아닌 ‘사전 관계 구축 단계’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콘텐츠 IP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AI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 글로벌 플랫폼의 IP 독점, 비공식 채널 무단 소비 등 K-콘텐츠 IP를 둘러싼 구조적 위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정부·기관 차원의 국제 협력이 필요한 의제

• 유네스코·G20·한-EU 문화협력 채널 등 다자 포럼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수립 논의에 KOFICE가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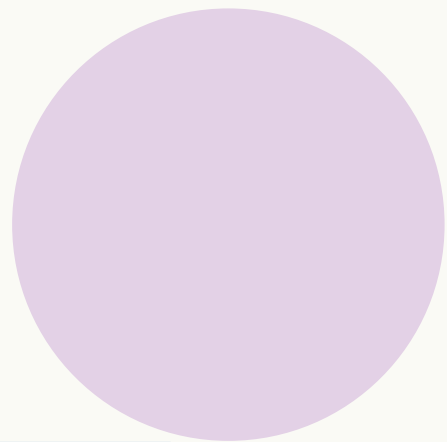
- 문화유산 디지털화 ODA 추진 시 데이터 공동 소유·수익 배분 원칙을 계약 조건으로 명문화하는 표준 협약 모델을 개발해야 함

■ 문화 ODA의 상생: 공동 개발·성과 공유로

- 현재 한국의 문화 ODA는 기술·콘텐츠 이전 중심의 일방향 지원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델파이 조사에서 'ODA가 단순 지원을 넘어 협력국과 공동으로 문화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일 것'이라는 문항이 미래 영향력 4.21점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이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음
- 협력국과 공동으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수익과 IP를 배분하는 '공동 개발형 문화 ODA'를 설계하고, 중점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협력국의 문화행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콘텐츠 제작 기술 전수를 패키지화하여, 한국의 문화 정책 모델이 협력국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

■ KOFICE 내부 권역별 전문가 풀 구축

- 전문가 FGI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인프라가 부재함을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 KOFICE에서는 해외통신원 체계가 있으나, 신흥 시장에 대한 동향을 더욱 선제적이고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인프라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됨
- 권역별 전문가 풀이 단순 정보 제공자가 아닌 공동 연구자·사업 파트너로 기능하도록 참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임



관계부처 합동(202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7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7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2015),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2023), 「제2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4),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문화체육관광부(2025),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25),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박종웅·박경신(2016), 「예술의 산업화 추진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종웅·박경신(2015),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열홍(2016), 「예술산업 미래전략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신혜선·조효정(2023), 「대외문화정책 담론의 변천과 국가 상황에 맞춰 국가적 대응을 옹호하는 한
국별 국제문화교류의 개념 고찰」, 『문화예술경영학연구』, 65-95.
양건열·임학순·최범(2006),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전진영(2021), 「문화예술산업 특수분류체계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교부(2025),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외교통상부(2004), 「2003년 외교백서」
유형선(2022), 「2022 콘텐츠산업 중장기 시장전망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동연·양현미 외, 『한국 문화정책의 이해』, p.336.
이상열(2016), 「한국문화 세계화 전략 연구 - 재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차민경·전진영·오서경·최봉현(2023), 「예술산업 특수분류 개선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Aiden Rogers(2025), The Lasting Impact of Gamal abdel Nasser’s Policies on
Egyptian Society, Journal of Student Research, 14(1).
British Council(1993). Royal Charter and Bye-Laws.
British Council(2022). Cultural Relations in a Digital Age(2021–2022).
British Council(2024a). Cultural Protection Fund Annual Report 2023–2024.
Bucher, C., & Weckerle, C.(2022). Switzerland: Short Cultural Policy Profile. IFACCA.
Cabinet Office(2021). 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Chihab El Khachab(2021), A Brief History of the Future of Culture in Egypt,
Journal of the African Literature Association, 15(3), pp.364–378.
Damien Helly(2014), Egypt Country Report, 2013–2014 Preparatory Action
“Culture in the EU’s External Relations,” pp.1–27.
DCMS(2023).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DIT(2021). UK Free Trade Agreements: Creative Industries Provisions.
FCDO(2024).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itiatives.
FCDO(n.d.).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ederal Council(Switzerland).(2014). Botschaft zur Förderung der Kultur in den J
ahren 2016–2020(Kulturbotschaft). Federal Office of Culture.
Federal Council(Switzerland).(2020). Botschaft zur Förderung der Kultur in den J
ahren 2021–2024(Kulturbotschaft). Federal Office of Culture.
Federal Council(Switzerland).(2023). Botschaft zur Förderung der Kultur in den J

ahren 2025–2028(Kulturbotschaft). Federal Office of Culture.
Nevine Nizar Zakaria(2025), The Impac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Management Autonomy on Museums’ Performance: The Case of Egyptian
Museums, Museum International, 76(3–4), pp.20–35.
Rodrigo Gómez(2014), Cultural Industries and Policy In Mexico and Canada
After 20 Years of NAFTA, Norteamerica, 9(2), pp.10–12.
Swiss Confederation.(1999).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
enschaft(SR 101). Federal Chancellery.
Swiss Confederation.(2000). Bundesgesetz über die Pflege des schweizerische
n Erscheinungsbildes im Ausland(SR 194.1).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Swiss Confederation.(2009). Bundesgesetz über die Kulturförderung(SR 442.1).
Federal Office of Culture.
Torrance, D.(2025). The Royal Prerogative and Ministerial Advice(House of Com
mons Library Research Briefing).
UK Government(2001).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s 2001.
UK Government(2018). Creative Industries Sector Deal.
UK Parliament(2004). A Public BBC: The Governance and Regulation of the BBC.
UK Parliament(2014). Persuasion and Power in the Modern World.
UNESCO(2022). Re³Shaping Policies for Creativity.
UNESCO(2024). Thailand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lid Mahmoud Abdelnasser(2011), Egypt–Japan Partnership Futuristic Vision,
Japan Spotlight, Jan/Feb, pp.31–33.
Winegar, Jessica(2009), Culture Is the Solution: The Civilizing Mission of Egypt’
s Culture Palaces, Review of Middle East Studies(MESAROMS), 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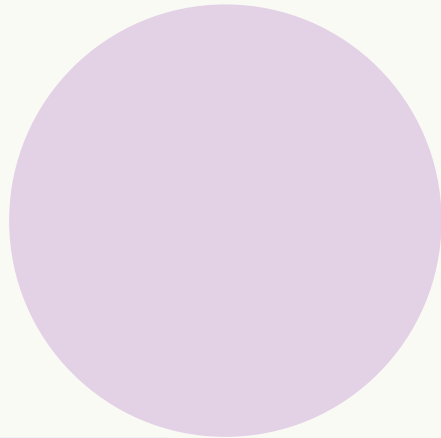
Bangkok Post, “Thai TV drama firm seeks global soft power”, 2024. 4. 27.
Basant Gamil(2024. 9. 1.), youm7.
Dramallama, “BL Industry Growth: How the Fandom Exploded in 2024–
25”, 2025. 5. 30.
EDM.com, “Tomorrowland Festivals Projected to Add \$360 Million to Thailand’s
Economy”, 2025. 8. 28.
Forever Vacation, “Thailand Tourism Statistics | Updated For 2025”, 2024. 8. 1.
HR Asia, “MQDC Unveils Cloud 11...”, 2023. 2. 23.
IFPI, “Jeff Satur, F.HERO, Kantong and Saran among artists honoured”, 2025. 7. 17.
IQ Magazine, “Thailand approves five-year deal with Tomorrowland”, 2025. 8. 12.
Nation Thailand, “Cultural Row Erupts as Thai Dress Seeks UNESCO Status Ami
d Cambodian Claim”, 2025. 7. 7.
Nation Thailand, “It’s official: Songkran 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
ity”, 2024. 2. 3.
Nation Thailand, “Stage set for grand Khon performance...”, 2024. 11. 3.
ORF Online, “Thailand’s soft power boom”, 2025. 2. 27.
PR Newswire, “88RISING Launches ‘ROAD TO FAM’”, 2025. 6. 16.
TAT Newsroom, “Thailand Welcomes Over 35 Million Visitors in 2024”, 2024. 12. 28.
The Nation Thailand, “Thailand to Host Tomorrowland Festival for Five Years”, 2
025. 7. 29.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Thailand’s UNESCO Gems”, 2024. 12. 11.
Travel and Tour World, “Thailand Tourism Surpasses Expectations”, 2024. 12. 31.

ODA 통합누리집(<https://odakore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자치법규시스템(<https://www.elis.go.kr>)
 외교부(<https://www.mofa.go.kr>)
 해외문화홍보원(<https://www.korean-culture.org>)
 OECD(https://www.oecd.org/en/publications/development-co-operation-profiles_04b376d7-en/korea_d358baed-en/)
 UN(<https://www.un.org/en/academic-impact/cross-cultural-collaboration-achieve-sdgs>)
 UNESCO(<https://www.unesco.org/en/interculturaldialogue>)
 ACE.(n.d.). ACE. <https://www.uk-ace.org.uk>
 BBC Studios.(n.d.). BBC World Service platform. <https://bbcnews.bbcstudios.com/platforms/bbc-world-service/>
 BFC.(n.d.). British Fashion Council. <https://www.britishfashioncouncil.co.uk>
 BFI.(n.d.). British Film Institute. <https://www.bfi.org.uk>
 BPI.(n.d.). 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https://www.bpi.co.uk>
 British Council.(n.d.-a). UK/Australia Season 2021–22. <https://www.britishcouncil.org.au/uk-australia-2021-22>
 British Council.(n.d.-b). Connections Through Culture Grants 2025. <https://www.britishcouncil.cn/en/programmes/arts/connections-through-culture-2025>
 DCMS.(n.d.).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ulture-media-and-sport>
 DIT(2021). UK Free Trade Agreements: Creative Industries Provision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ree-trade-agreements-creative-industries-provisions>
 FCDO(2024).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itiativ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ernational-cultural-exchange-bilateral-and-multilateral-initiatives>
 FCDO.(n.d.).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foreign-commonwealth-development-office>
 UK Government.(2001).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s 200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reative-industries-mapping-documents-2001>
 UK Government.(n.d.). Global Talent Visa. <https://www.gov.uk/global-talent-visa>
 Ukie.(n.d.). Ukie. <https://www.ukie.org>
 Torrance, D.(2025). The Royal Prerogative and Ministerial Advice(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Briefing).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877/>
 Federal Council.(2014). Botschaft zur Förderung der Kultur 2016–2020(Kulturbotschaft). <https://www.bak.admin.ch/bak/de/home/themen/kulturbotschaft/dokumente.html>
 Federal Council.(2020). Botschaft zur Förderung der Kultur 2021–2024(Kulturbotschaft). <https://www.bak.admin.ch/bak/de/home/themen/kulturbotschaft/dokumente.html>
 Federal Council.(2023). Botschaft zur Förderung der Kultur 2025–2028(Kulturbotschaft). <https://www.bak.admin.ch/bak/de/home/themen/kulturbotschaft/dokumente.html>
 Federal Office of Culture(FOC).(n.d.). Home. Swiss Confederation. <https://www.bak.admin.ch/bak/en/home.html>

[bak.admin.ch/bak/en/home.html](https://www.bak.admin.ch/bak/en/home.html)
 Swiss Confederation.(1999).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SR 101). <https://www.fedlex.admin.ch/eli/cc/1999/404/de>
 Swiss Confederation.(2000). Bundesgesetz über die Pflege des schweizerischen Erscheinungsbildes im Ausland(SR 194.1). <https://www.fedlex.admin.ch/eli/cc/2000/410/de>
 Swiss Confederation.(2009). Bundesgesetz über die Kulturförderung(SR 442.1). <https://www.fedlex.admin.ch/eli/cc/2011/854/de>
 House of Switzerland.(n.d.). House of Switzerland.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https://houseofswitzerland.org/>
 Pro Helvetia.(n.d.). Pro Helvetia – Swiss Arts Council. [https://prohelvetia.ch/en/Pro-Helvetia-Shanghai.\(n.d.\).-Pro-Helvetia-Shanghai.-https://prohelvetia.ch/en/our-offices-abroad/pro-helvetia-shanghai/](https://prohelvetia.ch/en/Pro-Helvetia-Shanghai.(n.d.).-Pro-Helvetia-Shanghai.-https://prohelvetia.ch/en/our-offices-abroad/pro-helvetia-shanghai/)
 Château de Lavigny(2025, July 16). Writer in Residence Suo Er 索耳’s Reading, July 2025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YkKQCGJmkEc>
 Zephyr Films, Shanghai Media Group Pictures, & Northern Ireland Screen(2019). Special Couple [Image]. https://www.rottentomatoes.com/m/special_couple



부록



I. 면접조사

II. 국가별 국제문화교류 정책

1. 미주: 멕시코

2. 오세아니아: 호주

3. 유럽: 영국

4. 유럽: 스위스

5. 아시아: 한국

6. 아시아:태국

7. 아프리카/중동: 이집트

부록 표 1	유럽연합-멕시코 문화펀드 주요 목적	172
부록 표 2	MONDIACULT 2022 Ministerial Declaration 핵심 내용	174
부록 표 3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기별 추진 배경 및 흐름	175
부록 표 4	멕시코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인 문화부의 변화 양상	177
부록 표 5	멕시코 외교부 내 문화부서 발전 흐름	180
부록 표 6	Creative Nation의 주요내용	184
부록 표 7	중앙대외문화관계처 주요 기능 및 사업	186
부록 표 8	리바이브(Revive)의 주요내용	187
부록 표 9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 변천 과정	189
부록 표 10	국제예술전략의 우선순위 지역 및 예술 형태	192
부록 표 11	국제 문화외교(International cultural diplomacy) 관련 조항	196
부록 표 12	부처별 국제문화교류 정책 담당 업무	197
부록 표 13	영국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적 근거 주요 내용	198
부록 표 14	영국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제도·정책 주요 내용	199
부록 표 15	Creative Industries Sector Deal(2018)의 주요 항목별 창조산업 관련 내용	199
부록 표 16	Integrated Review 중 소프트파워 관련 내용	200
부록 표 17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2023) 중 성장의 세부 목표	200
부록 표 18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2023) 중 인력의 세부 목표	201
부록 표 19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2023) 중 광범위한 영향의 세부 목표	201
부록 표 20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2023) 중 국제문화교류 주요 내용	201
부록 표 21	문화예술 부분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202
부록 표 22	문화산업 부분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203
부록 표 23	문화예술 및 창조산업 기관 국제교류 주체	205
부록 표 24	UK-Australia Season(2021~2022)의 분야	206
부록 표 25	Connections through Culture 분야별 교류 현황	207
부록 표 26	CPF 프로젝트 대상 국가	208
부록 표 27	스위스의 Kulturbotschaft(문화 메시지) 기본계획 주요내용	211
부록 표 28	스위스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적 근거 주요 내용	212
부록 표 29	문화메시지 2025-2028 주요 활동 분야	213
부록 표 30	2025-2028 스위스 대외 홍보처 전략의 3대 우선순위	214
부록 표 31	FOC의 주요 임무 및 담당 문화 분야	214
부록 표 32	FOC의 산하 기관	215
부록 표 33	스위스 문화재단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실행 방식	216
부록 표 34	스위스 문화재단의 해외, 지역 사무소 주요 기능	216
부록 표 35	스위스 대외 홍보처의 홍보 전략	217
부록 표 36	연방 문화청 핵심 정책 부서	217
부록 표 37	기관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219
부록 표 38	문화재 해외 이전 전문기구의 협력 절차	219
부록 표 39	기관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220
부록 표 40	스위스 대외 홍보처의 국가 브랜딩 전략	221
부록 표 41	유관기관 법적근거 및 미션, 비전, 전략과제 비교	227
부록 표 42	KF의 법적근거 및 미션, 비전, 전략과제	229
부록 표 43	태국 재단, THACCA 비교	236
부록 표 44	국가 소프트파워 개발위원회	238
부록 표 45	산업별 추진 소위원회	239
부록 표 46	THACCA 8대 핵심업무	240
부록 표 47	THACCA 주요 사업	240
부록 표 48	BACC 대표 사업 목록	243

부록 표 49	ICONSIAM Art & Culture 대표 사업	244
부록 표 50	파트라바디(Patravadi) 극장 국제 레지던시 대표 사업	244
부록 표 51	TTF 대표 사업	245
부록 표 52	시암 소사이어티(The Siam Society Under Royal Patronage) 대표 사업	245
부록 표 53	방콕 국제 공연예술 회의(BIPAM) 대표 사업	246
부록 표 54	B-Floor Theatre 대표 사업	247
부록 표 55	이집트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령 및 조약	257
부록 표 56	중앙대외문화관계처 주요 기능 및 사업	260
부록 표 57	민관과 박물관 협력 사례	266

부록 그림 1	멕시코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부처별 역할	173
부록 그림 2	마야 공동체 기반 국제문화관광 교류	182
부록 그림 3	OzAsia Festival(2024)	193
부록 그림 4	Parrtjima Festival	194
부록 그림 5	UK-Australia Season(2021~2022) 주요 내용	207
부록 그림 6	Connections through Culture(2025) 포스터	207
부록 그림 7	Cultural Protection Fund(2023~2024) 활동 사진	208
부록 그림 8	영-중 공동제작 영화 <Special Couple>	209
부록 그림 9	페루 문화 유물 반환	220
부록 그림 10	중국 작가 수오 얼의 낭독회	221
부록 그림 11	2024 메종 스위스	221
부록 그림 12	제1차 종합계획 개정 전/후	225
부록 그림 13	제2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225
부록 그림 14	KOFICE 조직운영도	229
부록 그림 15	200주년 뒤셀도르프 카니발 행진	231
부록 그림 16	비치코밍 행사 및 전시작품	232
부록 그림 17	잘츠부르크 세마나 현장	232
부록 그림 18	현대카드 MoMA의 큐레이터 교류 프로그램	233
부록 그림 19	5F 정책 홍보포스터, OFOS 홍보 포스터 및 대상 분야	235
부록 그림 20	아이콘시암(ICONSIAM)	244
부록 그림 21	UNESCO에 등재된 콘 가면 무극과 노라 남부 전통무극 사진	248
부록 그림 22	태국의 송크란 축제(Songkran festival)사진	249
부록 그림 23	투모로우랜드, 롤링라우드(Rolling Loud) 포스터	254
부록 그림 24	문화 카라반 홍보 포스터	255
부록 그림 25	공화국 결정 제2780호: '대외문화관계부의 책임과 조직' 규정	260
부록 그림 26	이집트 문화주간 및 카이로 국제 도서전	261
부록 그림 27	국제 미술 공연 축제 참여 지원	261
부록 그림 28	클러스터 맵핑 이니셔티브 카이로 및 카이로트로니카	268

I. 면접조사

문화예술산업 중심 국제문화교류의 국가별 트렌드 분석 및 전망 연구(2026-2028) 전문가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산업 중심 국제문화교류의 국가별 트렌드 분석 및 전망 연구(2026-2028)」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본 조사는 1차 조사(2026. 1. 21~28.)로, 2차 조사는 2월 초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문화교류 방식이 디지털, 공동 제작형, 주제 기반형(기후, 인권 등)의 교류로 다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문화예술산업 중심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트렌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조사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가별 사례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멕시코, 영국, 스위스, 태국, 호주, 이집트)의 최근 3개년 문화정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이 각각 국제문화교류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을 평가하고, 주요 영역별 이슈들의 미래 변화 또는 발현방향성에 대한 전망, 그리고 새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이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오니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01.

주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 ㈜메트릭스

※ 본 조사에서 '문화예술산업'은 '문화예술영역 전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활동과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으며, 대중예술과 콘텐츠 모두 아우르되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은 제외함

- 다음부터 제시되는 문화예술산업 중심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최근 이슈들에 대하여, 각각 문화예술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을 1점(매우 낮음)부터 5점(매우 높음) 사이에서 평가해주시고, 그렇게 평가해주신 이유를 설명해주시요.
- 이와 함께, 각 이슈와 관련된 미래 전망 및 예상되는 쟁점이나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주시요.

1. 문화적 권리·원주민, 그리고 윤리적 교류

원주민의 권리, 공동체 환원 등 교류의 윤리적 기준 강화

[멕시코] 원주민 문화 주권 기반의 공동체 및 보호 교류 모델

⇒ 과거 문화교류가 원주민 문화를 불거리로 홍보하는 데 그쳤다면, 최근 '해당 문화를 소유한 공동체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음. 앞으로 멕시코의 전통 문화를 활용할 때, 수익이 원주민 공동체로 환원되는지 따지는 윤리적 검증 절차가 필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을 확률이 높음

[멕시코] 문화적 정체성 회복과 포용적 가치 기반의 국제문화교류 고도화

⇒ 멕시코 예술가는 원주민, 젠더, 환경 등에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목소리를 담은 것을 새로운 신뢰의 기준으로 보고 있음

[호주] First Nations Protocol: 문화교류의 강제적 윤리 장벽화

⇒ 호주 정부 지원을 받는 모든 국제 프로젝트는 '원주민 문화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함

이슈 1 - 이슈 3	현재 영향력 수준 (1~5점)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 (1~5점)
원주민 문화 주권 기반의 공동체 및 보호 교류 모델		
문화적 정체성 회복과 포용적 가치 기반의 국제문화교류 고도화		
First Nations Protocol: 문화교류의 강제적 윤리 장벽화		

1-1) 현재 영향력 수준 평가의 이유:

1-2) 미래 영향력 수준 평가의 이유:

2.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IP보호부터 문화유산 아카이빙까지

기술 주도의 문화 유통구조에 대응해, IP 보호와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등 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
[멕시코] 거대 스트리밍 기업 주도 글로벌 문화 수출 vs 국가 문화 주권 방어
⇒ 거대 스트리밍 기업이 멕시코 로컬 콘텐츠를 글로벌 히트로 키우는 ‘글로벌화’ 전략으로 문화 수출을 독점하려 하고, 정부는 콘텐츠 쿼터, 세제 규제로 ‘문화 주권’을 지키려는 충돌이 지속해서 발생
[한국] 글로벌 표준을 향한 ‘K-콘텐츠 IP 매니지먼트 전략’
⇒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과 글로벌 플랫폼과의 수익배분 공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함. 이를 위해 창작자 권리 보호와 콘텐츠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가이드라인과 디지털 권리 구축에 주력
[이집트] 디지털 트윈: 기후위기로부터 유산 ‘백업’
⇒ 이집트의 문화유산 디지털화는 관광 편의, 아카이빙의 목적 보다 ‘소멸에 대비한 아카이빙’으로, 선진국에 데이터 접근권을 내어주고, 보존 기술을 받는 형태의 교류가 나타남
[호주] 디지털-하이브리드 레지던시 확산
⇒ 기술-스토리텔링 융합 프로젝트를 지원해 전통 스튜디오 중심의 고립적 창작에서 벗어나 디지털 네트워크를 병합한 지속적 교류가 확산하고 있음

이슈 4 - 이슈 7	현재 영향력 수준 (1~5점)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 (1~5점)
거대 스트리밍 기업 주도 글로벌 문화 수출 vs 국가 문화 주권 방어		
글로벌 표준을 향한 ‘K-콘텐츠 IP 매니지먼트 전략’		
디지털 트윈: 기후위기로부터 유산 ‘백업’		
디지털-하이브리드 레지던시 확산		

2-1) 현재 영향력 수준 평가의 이유:

2-2) 미래 영향력 수준 평가의 이유:

3. 소프트웨어의 ‘안보 자산화’와 시스템 수출 전략

문화교류가 단순한 친선 도모를 넘어, 국가안보, 경제적 이익, 외교적 리더십을 위한 핵심자산으로 활용됨
[영국] 창조산업이 외교 및 안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 창조산업을 단순 경제 산업으로 보지 않고, 브렉시트 이후 외교 안보의 무기로 삼고 있음. 향후 영국의 창조산업 정책은 순수 예술 지원보다, 방송, 미디어 등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큼
[영국] 콘텐츠 판매를 넘어선 ‘창조 생태계 및 표준 패키지’ 수출
⇒ 드라마, 음악을 파는 것에 있어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며, 지속가능한 창조산업 생태계, 문화유산 복원 기술 등의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패키지로화하여 수출하고 해외 자본을 영국 내로 유치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태국] 소프트웨어의 정책 주도성 강화와 탐다운 산업 육성
⇒ 태국의 소프트웨어 전략은 민간의 자율성보다는 정부가 모든 부처와 수단을 가동하여 대응하는 수준이며 한국의 KOCCA, KOFICE 모델을 벤치마킹했지만 더 강력하게 중앙에서 통제하여, 실험적 예술은 소외되는 불균형 현상 발생
[한국] 수출국에서 기여국으로: K-컬처 ODA와 협력국 맞춤형 교류
⇒ 과거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2025 APEC 경주 정상회담에서 강조된 포용적 성장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바탕으로 협력국에 문화행정 노하우와 콘텐츠 제작기술 등을 전수하기 시작함. 이를 통해 한국은 ‘문화 선진국’으로서 실질적 소프트웨어 리더십을 확보해가고 있음

이슈 8 - 이슈 11	현재 영향력 수준 (1~5점)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 (1~5점)
창조산업이 외교 및 안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콘텐츠 판매를 넘어선 ‘창조 생태계 및 표준 패키지’ 수출		
소프트웨어의 정책 주도성 강화와 탐다운 산업 육성		
수출국에서 기여국으로: K-컬처 ODA와 협력국 맞춤형 교류		

3-1) 현재 영향력 수준 평가의 이유:

3-2) 미래 영향력 수준 평가의 이유:

4. 다양성의 산업적 발견

언어장벽, 소수자 문화, 청년 실업 등 국가별 사회적 배경을 제약이 아닌 새로운 산업적 기회로 보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스위스] 다언어주의와 번역 지원의 산업화

⇒ 4개 공용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에게 ‘번역’은 생활이자 산업으로, 국제문화교류에서 언어 장벽을 낮추는 지원인 통역, 번역, 자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 보조가 아닌 시장 진입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

[태국] 아시아의 ‘퀴어 문화 허브’ 선점 전략

⇒ 태국은 아시아 국가들이 보수적인 틈을 타, BL(Boy’s Love)을 독점적 수출 상품으로 수출하고, 단순 판매를 넘어, 팬미팅 투어, 촬영지 관광 등 파생 관광 상품으로 연결하는 전략 펼침

[이집트] 청년 실업의 탈출구 ‘스타트업’으로서의 문화산업

⇒ 제조업 기반이 약한 이집트에서 창조산업은 고학력 청년을 흡수할 유일한 대안으로 정부는 문화정책을 일자리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청년들이 창업하고 뛰어들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음

이슈 12 - 이슈 14	현재 영향력 수준 (1~5점)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 (1~5점)
다언어주의와 번역 지원의 산업화		
아시아의 ‘퀴어 문화 허브’ 선점 전략		
청년 실업의 탈출구 ‘스타트업’으로서의 문화산업		

4-1) 현재 영향력 수준 평가의 이유:

4-2) 미래 영향력 수준 평가의 이유:

5. 이동성의 제약과 지방 소멸을 넘는 글로컬 연대, 공동체 회복

브렉시트,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는 위기 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결속을 다지고 공동체 회복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확산됨. 수도권 중심의 교류에서 지역의 맥락 속에서 창작자와 주민이 깊이 연결되는 ‘관계 중심 교류’로 사회적 치유와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영국] 창조 노동력의 이동성 제약에 따른 공동제작 강제화

⇒ 영국 창조산업의 핵심은 자유로운 ‘인적교류’였으나, 브렉시트 이후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며 신진·중소규모 예술가 및 단체의 직접 수출(투어) 길이 차단됨에 따라, 현지 인력과 결합하는 ‘국제 공동 제작’을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 채택

[스위스] 다양하고 실험적인 소규모 교류

⇒ 각 칸톤(주)이 독자적인 파트너십을 맺어 획일화된 국가적 슬로건이 없어도, 다양하고 실험적인 소규모 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독특한 모델이 있음

[한국] 인구 절벽 시대,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로컬 문화교류

⇒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국제문화교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도구로 재호출되고 있음(주로 폐교나 유헥공간을 국제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해 해외 예술가를 불러들이는 사업을 추진하여 정주 인구가 아닌 체류형 관계인구를 늘리려는 전략)

[태국] 방콕 중심주의와 디지털 디바이드

⇒ 디지털 보급 및 주요 국제문화교류 정책들이 방콕 중심으로, 불안정한 이중 구조가 심각한 수준임

이슈 15 - 이슈 18	현재 영향력 수준 (1~5점)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 (1~5점)
창조 노동력의 이동성 제약에 따른 공동제작 강제화		
다양하고 실험적인 소규모 교류		
인구 절벽 시대,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로컬 문화교류		
방콕 중심주의와 디지털 디바이드		

5-1) 현재 영향력 수준 평가의 이유:

5-2) 미래 영향력 수준 평가의 이유:

6. 탄소 발자국과 ‘슬로우 모빌리티’로의 전환

기후위기 시대,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장거리 이동과 대규모 축제 개최 대신, 현지에 깊게 머물며 생태적 책임을 다하거나 평가 및 선정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의 교류가 논의되고 있음

[스위스]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지원과 슬로우 아트 지원

⇒ 스위스 예술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전시/공연’보다 ‘리서치’ 단계에 대한 지원이 많으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발자국 이슈와 맞물려 ‘천천히 머물며(Slow Mobility)’ 현지 맥락과 섞이는 창작 활동을 국제 교류의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음

[영국] 기후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교류 가이드라인

⇒ 국제문화교류 지원 시, 평가 및 선정에 있어 항공 이동 최소화 및 친환경 제작 프로세스를 필수요건으로 둬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생태적 전환을 선도함

이슈 19 - 이슈 20	현재 영향력 수준 (1~5점)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 (1~5점)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지원과 슬로우 아트 지원		
기후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교류 가이드라인		

6-1) 현재 영향력 수준 평가의 이유:

6-2) 미래 영향력 수준 평가의 이유: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산업 중심 국제문화교류의 국가별 트렌드 분석 및 전망 연구(2026-2028) 전문가 의견 조사 (2차)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산업 중심 국제문화교류의 국가별 트렌드 분석 및 전망 연구(2026-2028)」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본 조사는 지난 번 참여해 주셨던 1차 조사에 이은 2차 조사입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각 이슈의 재분류 및 재구성을 통해 각 이슈별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영향력 수준에 대해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문화교류 방식이 디지털, 공동 제작형, 주제 기반형(기후, 인권 등)의 교류로 다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문화예술산업 중심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트렌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조사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가별 사례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멕시코, 영국, 스위스, 태국, 호주, 이집트)의 최근 3개년 문화정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오니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02.

주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 쥘메트릭스

※ 본 조사에서 ‘문화예술산업’은 ‘문화예술영역 전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활동과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으며, 대중예술과 콘텐츠 모두 아우르되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은 제외함

○ 다음부터 제시되는 문화예술산업 중심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이슈들의 미래 시나리오들에 대하여, 각각 문화예술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을 1점(매우 낮음)부터 5점(매우 높음) 사이에서 평가 해주십시오.

1. 문화적 권리·원주민, 그리고 윤리적 교류	현재 영향력 수준 (1~5점)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 (1~5점)
윤리적 교류 표준과 원주민 권리 보호		
1) 원주민 공동체의 직접 동의와 수익 배분을 의무화하는 '글로벌 교류 윤리 인증제'가 국제 표준으로 정착할 것이다.		
2) 호주의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s)'과 같은 강제적 윤리 기준이 국제 표준화되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공공 지원에서 배제될 것이다.		
3) 윤리적 검증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민간 기업 및 중소 규모 단체의 국제 협력이 위축될 것이다.		
포용적 가치 기반의 국제교류 고도화		
4)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장애 등 사회적 의제를 담은 콘텐츠가 지원금 배분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 지표가 될 것이다.		
5) 소수자 및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포용적 교류'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 창작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주된 산업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6) 난민, 이주민 등 소외 계층이 주체가 되는 예술 네트워크가 정부 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할 것이다.		

2.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IP보호부터 문화유산 아카이빙까지	현재 영향력 수준 (1~5점)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 (1~5점)
글로벌 플랫폼 vs 국가 문화 주권의 충돌		
1) 자국 창작자 보호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내 '로컬 콘텐츠 의무 편성 비율'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2) 글로벌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시장을 지배하며,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색채가 사라지고 글로벌 표준 취향에 맞춘 콘텐츠가 강화될 것이다.		
3) 플랫폼 수익 배분 및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AI 시대 콘텐츠 IP 매니지먼트		
4)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과 수익 배분을 위한 국제적인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것이다.		
5) AI가 제작한 유사 콘텐츠(예 : K-스타일)가 시장을 점유하면서, 인간 창작자의 오리지널리티 가치와 경제적 수익이 급감할 것이다.		
6) 창작자의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IP 인증 및 실시간 정산 시스템이 국제문화교류의 주된 인프라가 될 것이다.		
디지털 문화유산 아카이빙과 디지털-하이브리드 레지던시		
7)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 이동 없이도 현장감을 공유하는 '가상 레지던시'가 주류 교류 방식이 될 것이다.		
8) 기술 강국이 개도국의 문화유산 데이터를 독점하며, 원본 소유국보다 기술 보유국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9) 유산 데이터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술 보유국(선진국)과 소유국(개도국) 간의 데이터 접근 및 활용권 불균형이 이슈화될 것이다.		

3. 소프트웨어의 '안보 자산화'와 시스템 수출 전략	현재 영향력 수준 (1~5점)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 (1~5점)
창조산업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자산화		
1) 문화 정책이 외교·안보 전략과 완전히 통합되어, 국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주된 무기로 활용될 것이다.		
2) 가치관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 '문화적 장벽'이 세워지며, 동맹국 간에만 콘텐츠와 기술을 공유하는 '문화 냉전'이 발생할 것이다.		
3) 창조산업 수출이 국가 안보 자산으로 간주되어, 국가 간 핵심 기술이나 지식 공유 시 정부의 엄격한 심의와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표준 패키지 수출		
4) 문화행정 모델을 시스템화하여 수출하는 것이 단순 콘텐츠 수출보다더 높은 국가적 위상을 가져올 것이다.		
5) 표준화된 행정 시스템이 협력국에 도입되면서, 해당 국가의 자생적이고 특수한 예술 생태계가 획일화되거나 위축될 것이다.		
6) 중앙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주도에 기반한 '탑다운식' 산업 육성 모델이 협력국에 이식되면서 민간 자율성 위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이다.		
문화 ODA와 글로벌 상생 리더십		
7) 포용적 성장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 ODA가 소프트웨어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8) 과거의 일방적인 문화 홍보에서 벗어나, 협력국의 문화 행정 역량 강화와 기술 전수를 통한 '상생형 ODA'가 주류가 될 것이다.		
9) ODA가 단순 지원을 넘어 '글로벌 문화협력체'로 진화하여, 협력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문화기술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일 것이다.		

4. 다양성의 산업적 발견	현재 영향력 수준 (1~5점)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 (1~5점)
다양성의 산업화		
1) AI 실시간 번역·자막 기술이 모든 언어 장벽을 허물어, 비주류 언어권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바로 진입하는 언어 접근성 대중화가 실현될 것이다.		
2) 퀴어 문화나 소수자 콘텐츠가 특정 국가의 독자적인 수출 상품 및 관광 자원으로 고도화되면서 강력한 틈새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3) '다양성' 자체가 콘텐츠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되어, 소수자 서사를보유한 국가들이 문화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것이다.		
청년 창조 인력 육성 및 스타트업 생태계		
4) 제조업 기반이 약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창조산업이 고학력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자 창업의 장으로 육성될 것이다.		
5)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개도국 청년 인력을 저임금 하청 노동자로 활용하면서 '디지털 창조 노동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6) 국가 간 청년 크리에이터 교류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고용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될 것이다.		

5. 이동성의 제약과 지방 소멸을 넘는 글로벌 연대, 공동체 회복	현재 영향력 수준 (1~5점)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 (1~5점)
이동성 제약에 따른 국제 공동제작 가속화		
1) 단독 국가 제작보다 '다국적 공동제작'이 지원 기금 확보와 글로벌 유통의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2)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보다는 지역 간 독립 예술가들이 직접 연결되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소규모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3) 비자 발급 및 이동 비용 증가로 인해 기존의 투어 방식 대신 현지 인력과 결합하는 '국제 공동제작'이 필수적인 교류 모델로 정착될 것이다.		
지방 소멸 대응 관계인구		
4) 지방 소도시들이 글로벌 예술가들의 거점이 되면서, 정주 인구가 아닌 '글로벌 관계 인구'를 통한 새로운 지역 경제 모델이 성공할 것이다.		
5) 유희 공간을 활용한 국제 레지던시 사업이 정주 인구가 아닌 '체류형 관계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다.		
6) 거대 도시를 거치지 않고 소도시와 소도시가 직접 연결되는 '글로벌 로컬 연대'가 중앙정부 주도 외교를 보완하는 새로운 채널로 작동할 것이다.		
지역 간 불균형과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7) 단기 전시/공연 결과물보다 '리서치'와 '현지 체류'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과정 중심 정책'이 국제 표준이 될 것이다.		
8) 디지털 인프라가 우월한 특정 거점 도시들로 문화 자본과 인재가 더욱 집중되어, 정보 소외 지역과의 문화 격차가 회복 못할 가능성이 있다.		
9)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평등 기금' 조성이 국제문화교류 법제의 의무 조항으로 삽입될 것이다.		

6. 탄소 발자국과 '슬로우 모빌리티'로의 전환	현재 영향력 수준 (1~5점)	5년 후 미래 영향력 수준 (1~5점)
기후 위기 대응 슬로우 모빌리티		
1) 예술가의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여 교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탄소 책무제'가 전면 시행될 것이다.		
2) 친환경 이동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제문화교류가 예산이 풍족한 대형 기관이나 부유한 국가의 예술가들만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3) '결과물 중심'의 단기 투어 공연보다 '과정 중심'의 장기 체류 및 리서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주류가 될 것이다.		
4) '슬로우 모빌리티(천천히 머물기)'가 예술적 트렌드를 넘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의 필수적인 실천 양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I. 국가별 국제문화교류 정책

1. 미주: 멕시코

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흐름

① 문화예술위원회 설립과 국제문화교류의 시초(1910~1990년대)

▶ 문화예술의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 편입과 국가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인식

- 멕시코의 국제문화교류 추진은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기반으로 문화외교를 국가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인식하며 외교·지역발전·문화산업 연계 다중적 접근으로 시작됨
- 1990년대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이전부터 정부의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추진이 이어지며 1910년 멕시코 혁명 이후 등장한 문화 민족주의가 계기가 됨
- 정부는 인디오와 메스티소 문화의 재발견을 통한 국가 통합을 추진과 국제적인 홍보를 위해 문화외교를 활용하였으며 1920년대 이후 교육부 장관 호세 바스콘셀로스는 공교육과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함
- 특히 멕시코의 대표적 예술가인 '디에고 리베라', '프리다 칼로' 등을 통한 미술, 문학, 음악 분야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장려함

▶ 문화다양성 보호 주장과 문화 보호를 외교 노선으로 정립

- 1960년대 멕시코는 범아메리카 문화회의와 유네스코(UNESCO) 창립 멤버로 문화다양성 보호와 문화교류 중심의 외교노선이 시작되었으며 1997년 유럽연합과 경제·정치·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문화교류 조항을 도입함
- 1990년대는 멕시코가 경제적 개방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추진한 시기로, 문화외교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핵심적인 수단으로 보기 시작함⁴⁹
- 1990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린 <Mexico: Splendors of Thirty Centuries>는 멕시코 미디어 기업 'Televisa'가 참여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전시를 통해 멕시코 예술의 풍부함과 복잡성을 소개하며 멕시코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비평을 받음
- 특히 공연, 음악, 무용, 영화, 토론 등 행사가 병행되면서 멕시코 문화의 다면적 모습을 선보인 결과 타 임지는 문화외교의 다색적인 성공이라고 표현⁵⁰하는 등 정부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산업을 적극 활용함

49 European Union report, 'MEXICO COUNTRY REPORT' 2014.3.5

50 Robert Hughes, Art: Onward From Olmec: Mexico: Splendors of Thirty Centuries, <Time> 1990.10.15.(https://time.com/archive/6716139/art-onward-from-olmec-mexico-splendors-of-thirty-centuries/?utm_source=chatgpt.com)

- 1990년 멕시코 정부는 북미, 유럽 주요 도시에 '멕시코 문화원(Mexican Cultural Institutes)'을 설립함

- 전시, 음악, 학술교류를 통한 공공외교를 수행하며 이민자 공동체 대상 디아스포라 기반 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민간 네트워크 중심 국제문화교류 체계를 구축함

② 문화동질성 활용한 문화유산 보호 중심 주변국과의 교류 활성화(2000년대)

▶ 문화와 경제 및 외교를 결합한 국가 전략의 정착과 유럽 연합 네트워크 형성

- 2000년대 비센테 폭스 정부(2000~2006)와 펠리페 칼데론 정부(2006~2012)는 멕시코 내 범죄를 줄이기 위해 문화정책을 경제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아 영화, 음악 등 '창의산업(Creative Industries)' 육성을 강조하며 문화외교를 강화함⁵¹
- 특히 비센테 폭스 정부는 멕시코를 '문화 수출 국가'로 재정의하며 창의산업이 국가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며 문화산업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며 문화가 경제·무역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게 됨⁵²
- 2008년 멕시코는 브라질과 함께 라틴아메리카에서 유럽연합의 두 전략적 파트너로 3자 자금지원 협정을 맺었고 문화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2009년 7월 멕시코-EU 문화기금 1단계 문화 분야 협력 강화와 네트워크 장려를 위한 공동 선언문이 서명되었고 이후 유네스코 문화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의 이행에 관한 내용이 담김
- 협력의 일환으로 문화 부문에 보다 구조적인 정책적 대화 체계를 마련하였고 유럽연합과 멕시코는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정책 다이얼로그를 출범시켰음
- 당시 멕시코 정부 측에서는 문화정책, 문화 거버넌스, 문화 산업, 문화적 접근성과 문화적 다양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유럽연합 측에서는 문화교류와 문화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주목하고 있었음⁵³
- 2008년 유럽연합과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으로 'EU-멕시코 문화펀드(Cultural Fund EU-Mexico)(2009)'가 설립되며 이는 문화다양성, 창의 산업, 지역 공동체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국제기구형 협력 모델로 발전하며 주로 5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됨

51 Rodrigo Gómez, 'Cultural Industries and Policy In Mexico and Canada After 20 Years of NAFTA' Norteamérica vol.9-2, 2014. pp.10-12

52 Rodrigo Gómez, 'Cultural Industries and Policy In Mexico and Canada After 20 Years of NAFTA' Norteamérica vol.9-2, 2014. pp.10-12

53 EUROPEAN COMMISSION Report, 'The European Agenda for Culture - progress towards shared goals' 2010.7.19

부록 표 1 유럽연합-멕시코 문화펀드 주요 목적

목적	내용
① 양측 사회 간 상호 이해 증진 (Reciprocal understanding)	유럽과 멕시코 사회 간 서로의 문화, 예술, 가치 등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
② 문화적 교류 활성화 (Cultural exchanges)	예술가, 문화 단체, 예술제, 영화·연극·공연예술 등 다양한 문화 장르 간 교류 지원
③ 문화 산업 및 예술가 역량 강화 (Strengthening cultural industries / artists)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의 발전, 예술가 및 문화 단체의 운영 능력(cultural management), 창작 활동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
④ 문화정책, 공공정책 대화 (Policy dialogue on culture, access to culture, cultural heritage, inclusion)	접근성(access),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문화정책의 포괄성(inclusion),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특히 농촌지역(rural communities)과 원주민(indigenous) 문화의 정체성(identity) 보존 등
⑤ 불평등 완화 및 사회적 포함 (Social inclusion, reducing inequalities)	세대 간, 계층 간 문화소외 감소 및 문화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 해소

▶ 국립문화예술위원회(CONACULTA) 설립으로 문화예술 정책 총괄 대표 기관의 출범

• 멕시코 외교부 내 문화외교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면서 1988년 대통령 직속 ‘국립문화예술위원회(CONACULTA(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가 독립된 기구로 설립되고 멕시코 ‘국제 협력개발청(AMEXCID)’이 신설됨⁵⁴

- ‘CONACULTA’는 멕시코 문화정책 총괄 대표 기관으로 국가문화예술 진흥과 보존, 국제문화교류 및 예술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2000년대 독립부서로 신설 이후 멕시코 예술을 국내정책만이 아닌 대외 이미지 제고와 문화외교의 핵심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 2011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신설되어 국가 문화외교 및 국제 개발 협력을 통합 관리하며 멕시코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제문화교류, 개발 협력 사업을 조율하며 문화적 자산을 통한 소프트파워 증진과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함

③ 문화부(Secretaría de Cultura) 신설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본격화(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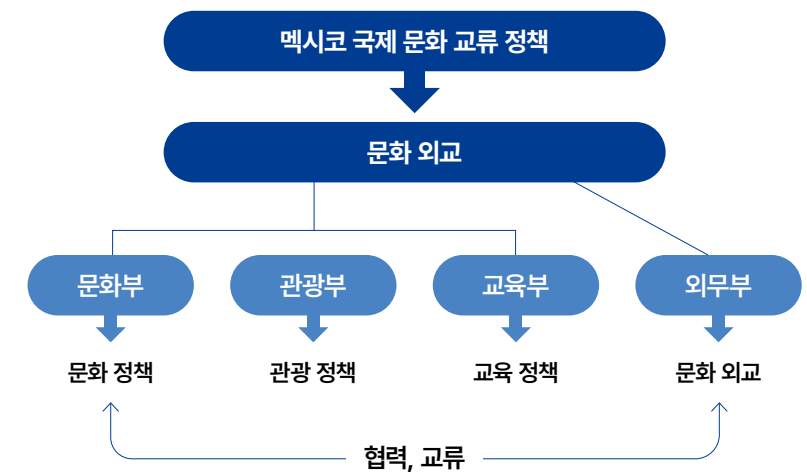
▶ 현재 문화교류의 뼈대가 형성되며 문화산업과 외교전략이 결합된 복합정책이 시작됨

- 멕시코 국제문화교류의 큰 특징인 문화산업과 외교전략이 결합된 문화외교의 제도화를 통한 복합정책이 본격화되며 소프트파워 전략을 활용함
- 2012년 문화 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정부 부처가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국립문화예술위원회, 멕시코 국제 개발협력단 및 프로멕시코(ProMéxico)와 같은 담당 기관이 신설되거나 재편됨

- 멕시코는 스페인 문화와 원주민 문화가 합쳐진 혼합문화, 즉 ‘메스티사헤(mestizaje)’로 일컬어지는 문화를 지녔으나 2010년대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멕시코를 통합된 문화의 이미지로 홍보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함

▶ 2015년 문화부 신설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문화외교와 교류 정책이 시작됨

- 1988년부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립문화예술위원회(CONACULTA)가 문화정책 조직으로 역할을 갖추고 문화행정, 문화유산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기능의 정부 부처는 부재했음
- 2015년 문화부(Secretaría de Cultura)가 신설되며 멕시코는 문화부(Secretaría de Cultura), 관광부(Secretaría de Turismo), 교육부(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의 3부 형태를 구축하게 됨
- 문화부는 2015년 12월 18일 「Ley Orgánica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Federal」이 개정되며 CONACULTA의 기능을 흡수한 독립 연방 부처로 승격함
- 관광부는 관광 정책, 관광지 개발, 국제 관광 홍보 담당,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프로그램도 공동 추진하기도 함
- 교육부는 교육과 연계된 문화·예술 교육 정책 담당, 문화 인력 양성,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 일부 문화 관련 정책을 수행함
- 문화부 승격 이후 외교부 협업으로 국가홍보, 문화외교 등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고 2010년대 오브라도르 정부(2018~2020) 시작으로 ‘지역 중심 문화외교’를 표방하면서 문화유산 보존정책과 전통문화 복원을 국제 협력과 연계함



부록 그림 1 멕시코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부처별 역할

④ 외교부와 협력한 포용과 지속가능한 국제문화교류 시대(2020년대)

▶ 멕시코 정부는 문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국가의 강력한 브랜드 창출을 목표로 함

- 문화예술과 국제문화교류를 멕시코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응하고 완화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20년대 포용적 글로벌 협력과 문화유산 복원이 핵심 화두로 부상하며 코로나19 이후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문화재 반환, 복원 사업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전통문화의 국제적 접근성을 확대함
- 유네스코 몬디아컬트 2022(MONDIACULT 2022)⁵⁵를 계기로 멕시코는 2020년대 국제문화정책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다자 간 문화협력의 장을 주도함
 - 2022년 9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 문화 장관회의 '몬디아컬트 2022'는 1982년과 1998년 이후 40년 만에 열린 역사적인 회의로 140개국 이상 문화장관이 참석함
 - '문화정책의 미래'에 대한 공동 비전을 제시하며, 문화를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재정의하고, 문화적 다양성, 창의성,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강조하는 최종선언을 채택함
 - 특히,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의 반환을 위한 윤리적 의무를 강조하며,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명시함

부록 표 2 MONDIACULT 2022 Ministerial Declaration 핵심 내용

목적	내용
문화는 세계적 공공재 (Global Public Good)	- 선언문에서 문화(culture)는 세계 공공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함. 이는 문화 보존, 문화다양성, 문화적 권리 등을 국가 및 국제 정책에서 우선순위로 둘 근거가 됨
문화적 권리 (Cultural Rights) 의 강조	- 예술가의 사회-경제적 권리, 예술의 자유(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원주민 및 소수자 커뮤니티가 그들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을 보존하고 전승할 권리 등이 선언문에 포함
문화정책과 공공정책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통합	- 문화가 교육, 기후변화 대응, 사회포용(social inclusion), 여성 및 청년 참여, 디지털 환경(digitalization) 등 다른 정책 영역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지침 강조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성 및 접근성 확보	- 플랫폼(platforms)의 규제, 예술가 저작권 보호, 온라인 콘텐츠의 접근성 확보 등 디지털화가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공정성을 확보
문화와 위기(crisis) 대응	- 팬데믹, 자연재해, 갈등 및 충돌 상황(crisis)에서 문화유산과 문화 표현이 처한 위험 보호, 복구(resilience) 및 위기 후 회복(recoveries)의 중요성을 인식
문화 유산 보호	- 국가 간 협력 강화, 시장(operator)의 책임, 출처가 불분명한 문화재 거래 금지 등을 포함
포스트-2030 아젠다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와 문화의 공식적 통합	- 문화가 SDGs의 여러 목표와 연결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국제 개발 아젠다에서도 문화가 독립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함

55 정식 명칭은 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MONDIACULT 2022 (문화정책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UNESCO 세계회의)임

부록 표 3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기별 추진 배경 및 흐름

구분	주요 특징	세부 내용
~1990년대	문화예술위원회 설립과 국제문화교류의 시초	-대통령 직속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멕시코 문화원이 북미 및 유럽 주요 도시에 설립됨 -범아메리카 문화회의와 유네스코 창립 멤버 국가 -문화다양성 보호를 주장하며 외교부에서 문화외교 개념 인식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의 영향력과 잠재력 확인
2000년대	문화동질성 활용한 문화유산 보호 중심 주변국과의 교류	-문화외교와의 연계가 정착되는 시기(문화, 경제, 외교가 결합) -문화정책을 경제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아 창의산업 육성 시작 -유럽연합과 네트워크가 형성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과 EU-멕시코 문화펀드 설립 등 국제기구형 협력 모델로 발전 -외교부 내 문화외교 전담 부서의 설치 및 문화외교적 국제문화교류 -국립문화예술위원회가 독립 기구로 설립, 멕시코 국제 협력개발청 신설
2010년대	문화부 신설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본격화	-문화 부문 포함한 정부 부처의 재편과 문화부의 신설. 문화부, 관광부, 교육부 3부 형태 구축 -지역 중심 문화외교를 외교부가 표방하며 문화유산 보존정책과 전통문화 복원을 강조하고 국제문화교류 및 협력 관계 형성
2020년대	외교부와 협력한 체제 구축	-외교부와 본격적으로 협력하는 국제문화교류 시대 -문화부, 외교부, 관광부, 교육부와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 -문화유산보존, 문화동질성 구축을 위한 교류 중심과 국가 경쟁력 확보, 폭력적인 국가 이미지 쇄신 등을 위해 문화교류를 활용 -디지털 플랫폼 활용 콘텐츠 중심 한국과의 양자 문화교류

나. 법·제도

▶ 멕시코는 성문법 체계 아래 문화부·외교부를 중심으로 국제문화교류를 주도함

- 멕시코 법 체계는 대륙법 계통(성문법 위주)이며, 헌법(La constitución), 조약(Tratado internacional), 연방법(Ley federal), 법규명령(Reglamento) 등 계층적 구조로 국제문화교류는 주로 문화부와 외교부가 주도함
 - 멕시코 국제문화교류에서 최근 중시되는 법 중 하나는 2022년 제정된 '원주민 및 아프로멕시코 공동체 문화유산 보호법'과 외교부 산하 'AMEXCID(Agencia Mexican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중심으로 2011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법(Ley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임

▶ 전통·원주민 문화유산 보호로 국제 협력과 문화권 보호 강화

- 2019년 멕시코의 헌법개정은 아프로멕시코인(Afro-Mexicanos)의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단일 메스티소(Mestizo)⁵⁶ 국가 정체성에서 벗어나 다문화 국가임을 헌법에 명문화한 역사문화적 전환점이 된 개혁임
 - 이전까지 멕시코의 아프리카계 후손은 사회적, 법적 존재가 지워진 집단으로,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공식 인구 통계에 아프로멕시코인이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음
 - 1821년 독립 후 스페인도 원주민도 아닌 새로운 국민이라는 인식이 등장하며 국가 통합과 국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다양성을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아프로-라티노 집단 및 원주민이 주변화되고 모두가 메스티소라는 이념이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지워버리는 양상을 불러일으킴
- 2019년 헌법개정을 시작으로 2021년 원주민·아프로멕시코 문화유산의 무단 상업화 및 도용 금지법, 2022년 원주민 및 아프로멕시코 공동체 문화유산 보호법이 제정되어, 집단 지적재산권과 문화유산 보호, 무단 도용 금지⁵⁷가 법제화됨
 - 원주민 및 아프로멕시코 공동체의 문화유산과 집단적 지식, 전통문화 표현을 ‘공동 지적 재산’으로 인정하며 문화적 권리의 법적 보호와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창작물·전통지식의 권리 보장, 상업적 이용 시 동의 및 이익환원 원칙을 명시함
 - 특히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문화하며 법이 시행된 후 원주민 예술가들이 전통문양, 전통기술, 공예 등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약 680건이 등록됨
- 중남미 지역 내 유사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경험을 가진 국가들(과테말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관련 공동체와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대됨
 - 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들의 아프로 및 원주민 공동체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학술, 예술 교류가 다층적으로 활성화되며 멕시코의 법적 제도화는 유엔,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 인정받으며 인접 국가들과의 남남협력 프로그램에 문화권 보호가 중요한 의제로 편입됨

▶ 국제개발협력법(Ley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 2011년에 제정된 멕시코 정부의 대외 및 국제 협력 활동을 규율하는 기본 법령으로 ‘AMEXCID’를 중심으로 문화협력 사업이 추진되며 국제개발 협력과 ODA 사업, 남남협력, 삼각협력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함

56 메스티소(Mestizo)란 라틴아메리카 특히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중앙아메리카 국가 등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원주민 사이의 혼혈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단순 인종적 혼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중심적 정체성을 혼혈 기반의 통합된 국민성으로 규정하는 관념

57 <https://www.ecija.com/en/news-and-insights/mexico-regulations-on-the-cultural-heritage-of-indigenous-and-afro-mexican-populations-and-communities/>

▶ 국제협정 및 문화외교 법제

- 한-멕시코 문화협정(1966), 미주연합기구 문화협정, 유네스코 등 다양한 문화협력 양자·다자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교류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정부 산하 문화부, 외무부 문화국, 국립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문화외교 사업과 관련 법령을 운영·집행함

다. 주관/전담기관 및 운영구조

① 멕시코 문화부(Secretaría de Cultura) 및 국립문화예술위원회(CONACULTA))

▶ 정부 부처 내 문화국 및 문화부 등 문화교류 전담 부서들이 유사 기능을 수행

- 멕시코 정부 내에는 외무부 산하 문화국과 문화부(Secretaría de Cultura) 등에서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외교 업무를 담당함
 - 공식적인 국제문화교류 및 홍보는 주로 외무부 문화국이 담당하며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해외 문화원 운영 등을 주도하고, 진행하며 문화부는 국내외 문화산업과 문화유산 보호, 국제 협력을 전담함

▶ 국립문화예술위원회(CONACULTA)

- 2015년 문화부가 신설되며 산하기관으로 흡수·개편 되기 전까지는 국립문화예술위원회(CONACULTA)가 문화정책, 예술행정, 국제교류 등의 기틀을 마련함
 - 문화유산 보호, 예술지원 및 진흥,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 외교(SRE협력), 문화행정, 예술지원, 문화유산 보호 등 대부분의 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국립 뮤지엄, 문화 관련 기관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며 민간 자금지원을 받아 국립 기관 운영에 전달하는 매개 기관 역할을 수행함

부록 표 4 멕시코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인 문화부의 변화 양상

조직명	연도	역할
CONACULTA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1988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문화정책 수립·예술 진흥·문화유산 보호 담당. 대통령 직속 기관 형태. 국제문화교류 일부 프로그램 운영
CONACULTA	1990 ~2000	점진적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확대. 해외 전시, 문화축제 지원, 멕시코 문화 홍보 활동 강화
Secretaría de Cultura 승격	2015. 12.18	CONACULTA 기능 흡수, 연방 부처로 독립. 내각 참여, 국가 문화정책 총괄.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 외교 공식 담당
Secretaría de Cultura	2015 이후	문화정책 기획·집행, 문화유산 보호, 예술 지원,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외교부(SRE)와 협력하여 문화 외교 수행
Secretaría de Cultura + SRE 협업	현재	해외 문화 전시, 교류 프로그램, 예술가 파견, 디지털 문화콘텐츠 확산 등 국제문화교류 활동 지속

① 문화부(Secretaría de Cultura)

- 2015년 문화부 신설 이후 멕시코 문화정책 및 국제문화교류 사업 기획 및 실행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주로 해외 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문화 외교 정책 개발과 추진(외교부 협력), 문화 인력 및 전문가 양성⁵⁸을 담당함
-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을 통해 해외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현지 정부 및 기관과 협력하여 멕시코 예술가 및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
 - 주요 사례로 라틴아메리카 최대 규모의 종합예술축제 중 하나인 '세르반티노 국제페스티벌(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을 주최·지원하면서 매년 다양한 외국 예술단체와의 교류 무대를 제공해 문화 예술인과 단체가 참가해 공연, 전시, 워크숍을 개최함
- 해외 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를 위해 미국, 유럽, 남미 국가와 다각적인 문화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 예술인의 해외 레지던시 파견, 공동 창작, 연구 교류를 추진함
 - 특히 아르코사업 연계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멕시코 문화부와 협력하여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 신작(2023))로 선정된 예술가 및 단체의 '멕시코 세르반티노 국제축제' 참가를 지원함
- 멕시코 문화 창조지원제도 및 문화사업(SACPC)은 국립예술원, 국립인류학연구소, 국립미술관 등 주요 문화기관 협력 예술전시·공연 등을 주요 도시에 개최함
 - 또한 UNESCO, EU, 남미 및 중남미 지역국가와의 다자협력 협정 체결 및 실행을 주도하고 해외 문화원(Instituto México) 등과 연계하여 멕시코 전통예술·현대미술·영화·문학 등 다양한 전시·상영·아카이브 프로그램 운영함
 - 특히 스페인어권 국가 간 문화교류의 허브 역할로, 예술인 레지던시, 번역·출판 프로젝트를 주도해 멕시코 예술가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문화산업 협업을 지원함

② 국제문화협력국(Dirección de Cooperación Cultural Internacional)

- 멕시코 문화부 내 국제문화교류 전담부서인 국제문화협력국은 국제문화협력, 문화교류 프로그램 주관, 해외 교류 사업 추진 등을 담당함
 - 국제문화협력국은 멕시코 문화와 예술을 국제무대에 확산하는 동시에 타국과의 문화적 이해 증진과 교류를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둠
 - 문화다양성 존중, 글로벌 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멕시코 문화유산의 보호와 현재 문화 예술의 발전을 타국과 연계시키는 역할과 문화 외교의 전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함

③ 산하 관리 기관 및 운영 사업⁵⁹

- 산하기관인 국립도서관, 국립미술관,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 국립예술원(INBA), 국립영화진흥원, 문화유산 보존위원회 등이 있음
 - 각 기관은 주로 예술·문화 창작 장려금, 작가 및 연구자 지원 펀드, 전국 문화발전 프로젝트, 세르반티노 국제페스티벌과 같은 대규모 국제 문화행사를 운영함

58 멕시코 문화부 누리집(<https://www.gob.mx/cultura>)

59 <http://www.conaculta.gob.mx>

② 외교부 SRE 문화국

① 멕시코 외교부 내 문화국은 국제 문화협력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외교를 전담하는 멕시코 외교부 내 문화국은 멕시코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국가 이미지 제고, 문화산업 진흥과 국제 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주도함
 - 문화국은 정부 간 문화 협정 체결, 국제문화교류 및 홍보, 문화유산 보호와 국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문화 인력 양성 등을 문화부와 협력하여 추진함
- 멕시코 국립 문화 예술 위원회(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Conaculta)의 중앙-지방 정부 문화협력 사업을 수행함
 - 문화 외교 정책 및 국제 문화협력 전략 수립과 실행, 해외 문화원, 문화교류 프로그램, 국제 예술인 교환과 협력 사업 및 국가브랜드 및 소프트파워 강화 등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외교 활동, 국제기구와의 문화교류 협력, EU-멕시코 문화기금 운영을 통한 양자 간 문화교류, 예술 프로젝트 지원과 협력 확대, 해외 멕시코 문화원 운영을 통한 멕시코 문화 예술 및 전통과 현대문화 홍보 등

② 멕시코 외교부 내 문화국 중점 수행 국제 협력 사업

- 멕시코 국립 예술문화 위원회(Conaculta) 내 국제문화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 다국가 및 양자 간 문화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중앙아메리카 등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보존,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과 같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현지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함
- 멕시코 세계 문화축제를 활용한 해외 문화 홍보 및 축제 지원
 - 멕시코 문화 외교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세르반티노 축제(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 지원 및 참가 예술가 파견 사업과 멕시코 전통문화 및 현대예술 홍보를 위한 다양한 다국적 문화행사 및 전시회를 기획, 지원하며, 해외 멕시코 문화센터와 협력해 멕시코 문화상품을 홍보함
- 해외 문화기관과 협력한 문화 인력 및 예술가 교류
 - 멕시코 예술가 및 문화 전문가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지원해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및 문화유산 복원 전문가 파견,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함
- 유네스코, 'Ibero-American' 등과 협력해 멕시코 문화 보호 및 홍보 등 국제 문화정책 협의 및 다자 간 문화협력체 참여 등 문화외교 정책 및 협력체계를 강화함

③ 멕시코 외교부 내 문화국 발전 흐름

- 1959년 외교부 산하 국제문화보급기구(Organismo de Promoción Internacional de Cultura, OPIC) 설립으로 타국 문화활동을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함

- 1960년 OPIC 확대·개편으로 외교부 내 문화관계총국(Dirección General de Relaciones Culturales, DGRC)이 설치되었으며 문화국은 라틴아메리카(당시 스페인어권 국가 중심)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제도와와 정부 간 교류를 담당하기 시작함
- 1970년대 DGRC는 교육적 기능이 추가한 '교육문화협력총국(Dirección General de Cooperación Educativa y Cultural)'으로 재편되어 국제 유네스코 활동, 문화 및 교육 교류, 인력 교류 사업 등을 총괄하며 교육·문화협력을 정책적 외교 수단으로 발전시킴
- 멕시코 외교정책에 문화외교 개념이 본격 도입되고 1990년대 NAFTA 협정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와 경제 협력 촉진에 문화외교가 수단이 되며 제도적으로 성장함
- 2000년대 외교부 내 문화국이 문화외교총국(Dirección General de Diplomacia Cultural)로 개편되며 국제문화협력 정비 및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장됨
 - 해외 멕시코 문화원 운영 등을 통해 멕시코 소프트파워 강화에 힘쓰기 시작하며 최근 멕시코 외교부 문화 부서는 유네스코, Ibero-American 문화기구(SEGIB) 등과 협력한 문화다자외교, 국제문화공동위원회 및 해외 문화행사 추진, 예술가 교류, 유산공동보존 프로젝트 실행, 문화산업 기반의 디지털 문화외교 확장 등의 역할을 수행함

부록 표 5 멕시코 외교부 내 문화국 발전 흐름

연도	구분	내용
1959년~1970년대	문화 외교 조직의 출발	외교부 산하 국제문화보급기구로 출범 멕시코 문화를 해외에 알리자는 인식 확산 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제도화함 1970년 교육 교류 개념이 처음 도입
1980년대~2000년대	문화외교의 제도적 성장	문화외교가 국가 이미지 제고와 경제 협력 촉진의 수단이 됨을 강하게 인식하기 시작 현재의 문화외교 방향성으로까지 이어짐
2000년대~현재	국제문화협력 정비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시기	전시 및 공연을 국제적으로 개최하기 시작 해외 문화원을 활용한 소프트파워 강화에 노력하는 시기

③ 외교부 SRE 내의 멕시코 국제 개발 협력 기구(AMEXID)

- 「멕시코 국제개발협력법(Ley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2011)에 근거하여 '멕시코 국제 개발 협력 기구(AMEXID)'가 설립됨
 - 이 법은 멕시코 대외원조 및 국제 협력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립하는 것으로 멕시코의 AMEXID는 한국의 KOICA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 AMEXID는 외교부 산하 준자율기구 형태로 공적개발원조(ODA), 미국, 라틴아메리카와의 협력, 지속가능발전연계 외교의 주축이며, 국가 간 상호학습과 역량 강화, 포용적 경제·사회 발전을 외교 전략의 핵심축으로 운영함

- 개발협력, 인적·기술적 교류 및 역량 강화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기술 교류, 교육, 기후대응, 보건 협력 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한국, 독일 등과의 협력을 추진함
- 국가 차원의 개발협력계획 PROCID(Program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수립과 협력기금 FONCID(Fondo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설립 및 운영으로 자원 조달을 체계적으로 운영함
- 또한 공무원, 공공기관, 대학 등과 협력해 개발도상국 인재 교육, 연구 교류, 기술 지원 프로그램 운영, 멕시코 내외 연구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 수행 등 인적·기술적 교류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함

라. 멕시코의 국제문화교류 추진 전략 및 방식

▶ 문화 동질성을 활용한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외교 정책 및 실행 전략

- 멕시코의 국제문화교류는 예술인 교류, 문화 행사, 학술 및 교육 협력, 유산 보호, 미디어 및 창작물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문화외교 간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고 국제문화교류를 국가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강화수단으로 보고 경제적 축을 형성하려는 문화외교적 측면이 매우 강함

① 교류 대상

▶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동질성을 기반으로한 국가 간의 문화교류

- 멕시코는 스페인어권의 거대 문화권과 일정부분을 공유하며 전통적으로 스페인어권 및 라틴문화권과 강한 연계를 활용한 국가 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원주민 보호법이 만들어지며 주변국의 아프로멕시코인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외 멕시코인(디아스포라), 중남미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스페인어권 국가들과의 '공동문화 정체성' 강조는 멕시코의 소프트파워 자산으로 문화외교적 측면에서 활용됨

▶ 멕시코 원주민 제도기반 국제문화교류

- 2022년 제정된 「원주민 및 아프로멕시코인 문화유산 보호법」은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원주민 및 아프로멕시코 공동체의 문화 표현과 전통지식을 공동체의 집단적 재산(collective heritage)으로 인정한 법임
 - 문화적 자산(언어, 전통예술, 의례, 공예, 의복, 지식 등)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소유이며, 외부가 상업적으로 이용 시 공동체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명시하며 원주민 및 아프로멕시코인이 국제문화교류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또한 언어 정체성 기반 문화 동질성을 활용한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기반 문화교류, 문화유산 보호 및 국외 소장 문화재 회수 협력, 디지털 문화외교 전략도 추진함

② 교류 내용

▶ 멕시코 원주민 보호법 시행 후 국제문화교류

- ‘마야 공동체 기반 국제문화관광 교류(Yucatán: Mosaic of Experiences)’는 유카탄주 마야 원주민 공동체와 UNESCO, 멕시코 문화부의 공동체 주도형 문화관광 모델임
- 마야 전통문화, 언어, 공예, 의식(ritual), 전통음식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설계한 문화체험 관광 코스를 국제 시장에 소개, 해외 관광객 및 문화 기관과 협력해 문화유산 기반 지속가능 관광모델을 전시·홍보⁶⁰



부록 그림 2 마야 공동체 기반 국제문화관광 교류

자료: UNESCO(2025.01.25.),
(<https://www.unesco.org/en/articles/mayan-and-mexican-community-based-tourism-model-displays-cultural-power-sustainable-development>)

- ‘멕시코-캐나다 원주민 문화교육 교류(Embajada Indígena de México en Canadá)’은 원주민 단체 및 교육기관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임
- 캐나다 내 멕시코 원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양문화·이중언어(bicultural, bilingual)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민 언어, 전통예술, 신화, 공동체 의례 등을 교육함으로써 멕시코 원주민 문화와 북미 원주민 문화 간 상호 전통지식을 교류함
- ‘중남미 원주민 간 문화·지속가능성 네트워크(Mesoamerican Alliance Exchange)’는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중미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됨
-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Territorial Exchange’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전통지식·자연자원 관리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 축제, 문화포럼, 전통예술 전시, 지속가능한 농업·생태 기술 워크숍을 진행함

▶ 멕시코 원주민 중심 국제문화교류 주요 특징

- 공동체 주도형의 문화관광·문화교육·전통지식의 활발한 정체성 교류
 - 공동체 주도 문화관광(Community-Based Tourism)을 통해 전통음식, 춤, 의식, 공예 등 자산을 관광객에게 공유하되, 운영과 수익이 공동체 내부로 돌아가도록 설계하였으며 UNESCO와 협력해 세계 박람회에도 소개되었음
 - 또한 캐나다 내 멕시코 원주민 커뮤니티가 원주민 언어, 전통예술, 신화를 가르치며 캐나다 원주민 단체와 협력을 통해 원주민 간의 정체성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짐
- 국제 협력 주체와의 다자 간 문화외교 및 지역연대 확대
 - 멕시코 정부(문화부·외교부)뿐 아니라, UNESCO, 캐나다 교육기관, 미국 대학, 중미 원주민 네트워크 등 다양한 파트너가 문화교류에 참여하며 멕시코 정부의 일방적 문화홍보에서 공동체가 정부 및 외국 기관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맺는 구조로 전환됨
- 자율성·지속가능성·정체성 강화의 문화적 효과 창출
 - 법이 공동체를 ‘문화의 주체’로 보호하면서 자율적 교류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원주민 문화가 단순히 ‘보존 대상’이 아니라, 관광, 교육, 예술, 환경 활동과 연계되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구조로 발전하면서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시킴

60 UNESCO, Mayan and Mexican community-based tourism model displays cultural pow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4)

2. 오세아니아: 호주

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흐름

① 국제문화교류정책의 등장(1990년대)

▶ 1994년 연방정부 최초의 'Creative Nation' 문화정책 발표

- '창의국가: 연방정부 정책(Creative Nation: Commonwealth Cultural Policy)'⁶¹은 예술, 문화유산, 창조산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호주 정부의 10년 단위 법정 문화정책임
- 폴 키팅 정부(1991-1996)가 처음으로 발표한 호주 연방정부의 공식 문화정책 문서로, 문화유산을 단순한 예술지원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하며 문화와 창조 산업을 통합해 대외 홍보, 수출과 연계하려는 기반을 마련함
- 문화예술이 호주의 정체성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필수적이며 정부가 문화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결과물로 2013년 10년 단위 정책수립 전까지의 정책적 방향임
- 호주의 다양성과 원주민 문화 보호, 문화산업의 혁신과 국제적 확장, 예술가 지원을 통한 문화 활성화 전략이 중점으로 설정됨

부록 표 6 Creative Nation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문화와 국가 정체성 방향성	호주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원주민 문화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사회 통합을 문화 정책의 중점 가치로 설정
경제적 창조산업 육성	문화 및 예술 산업을 경제 성장과 수출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예술가 및 창조 인력들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촉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기술 발전 및 미디어 시장과의 연계 강화(CD-ROM 등 당시 신기술 포함)
문화 참여 및 관광 개발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문화 정책 전환과 관객 개발과 문화 소비 증대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인정 및 다원적 문화 발전 지원함
원주민 및 다문화 문화 진흥	원주민 문화 보호와 활성화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인정 및 다원적 문화 발전을 지원함
공공 및 민간 협력 구조	정부, 비영리, 민간 부문 간 협력 강화와 마케팅, 후원, 국제교류 촉진 등에서 민간 참여 활성화 전략을 포함함
국제관계 및 문화 외교	호주의 문화적 위상 강화와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문화교류 확대 계획과 예술가와 문화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추진함
정책 실행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	자금 지원구조 및 관리 체제의 근본적 재검토와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호주예술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역할 확대 및 운영 효율성 강화

② 공공외교와 국제문화교류의 실무적 발전 단계(2000년대)

▶ 연방정부 외교통상부의 국제교류 및 지원 시작

- 1994년 연방정부의 문화정책 발표 이후 문화예술지원이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됨
- 연방정부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가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며 문화·창조산업 담론이 확대되면서 문화·관광·교육·콘텐츠 수출 등이 문화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기 시작함

▶ AICC(Australia International Cultural Council) 중심 문화 외교(Cultural diplomacy)시작

- AICC는 다른 국가와의 문화교류 증진과 그에 따른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호주 문화외교의 핵심기관으로 문화 예술계의 전문가들과 정부의 지도층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⁶²
- AICC는 외교부 산하의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2000년대 들어 문화교류가 단순 예술지원을 넘어 외교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수단이라는 인식이 반영되며 본격화되었음
- 2000년대 들어 정부 및 외교부 연차보고서에서 문화 외교(Cultural diplomacy) 항목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해외 주요 예술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협업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International Cultural Visits (ICV)'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문화교류가 이루어짐

③ 국제문화교류의 국제화와 지역전략 강화 단계(2010년대)

▶ 'Creative Australia' 정부 문화정책 발표⁶³

- 1994년 'Creative Australia'를 계승하며, 21세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예술과 문화산업의 혁신적 재구조화를 통해 5대 정책목표와 3대 실행 주제, 중점 분야와 주요 정책 및 문화교류 관련 계획, 정부 지원 사례를 발표함
- 문화교류 관련 계획은 호주 문화를 알리고 국제적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교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호주 예술가와 창작자가 국제 파트너와의 교류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재정을 지원하고 원주민 예술가 및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원주민 주도의 자율성을 부가하여 관련 교류 절차(문화 및 지적재산권 사용 프로토콜)를 엄격히 준수함

62 https://kofice.or.kr/c30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9595

63 호주 정부 발표보고서, Creative Australia: National Cultural Policy

• 정부는 국제교류 및 협력을 통해 호주 문화예술의 경쟁력과 다양성 확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문화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추진함

- 지역별 및 국제적 문화 행사 참여 및 공동 창작 프로젝트, 원주민 문화 패션 및 공연 등의 국제 무대 진출 지원, 아시아·태평양 현대미술 삼년제 전시 참여를 통한 원주민 문화교류 활성화, 국립 박물관·미술관 등 주요 문화기관 간 협력망 구축과 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부록 표 7 중앙대외문화관계처 주요 기능 및 사업

구분	주요 내용
정책목표	- 호주 정체성의 중심으로서 원주민 문화의 존중과 기념 - 모든 시민이 문화적 표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 - 예술가와 창작자의 탁월성을 지원하고 호주적 이야기 전승 - 문화 부문이 국가경제와 지역공동체 복지에 기여하도록 역량 강화 - 디지털 시대의 창의적 산업과 혁신 지원
실행주체	- (예술 지원 및 자금 구조의 현대화)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구조 개편, 새로운 보조금 시스템 도입 등 - (창작과 예술가의 역할 강화) 창작자의 경력경로·리더십·교육·직업역량 개발 - (예술을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예술과 문화의 사회적·경제적 효과 극대화(건강, 지역경제, 외교 등)
중점 분야 및 주요 정책	- (자금 구조 현대화)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구조 개편, 새로운 보조금 시스템 도입, 민간 파트너십 촉진 등 행정 유연성 확보 - (기부·투자 문화 확산) 민간 후원 활성화를 위한 'Creative Partnerships Australia' 설립 - (연방·주·지방 협력) 국가 차원의 예술 및 문화 협약(National Arts and Culture Accord) 체결 - (예술 진로 육성) ArtStart, ArtsReady, Creative Young Stars 등 청년 예술가 직업훈련 지원 - (예술교육 확대) 전국 공교육과정에 예술교육 도입 - (디지털 콘텐츠 발전) 온라인 제작기금, 인터랙티브 게임펀드 조성 등 - (원주민 문화진흥) 언어 보존, 시각예술산업 강화, 공정 거래 촉진, NITV 방송 지원 - (국제문화외교 강화)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재정비,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

➤ 2010년대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일원으로 주변 국가 중심 문화외교 방향의 전환

• 정부의 국가 장기 전략을 재정립하기 위해 발표한 국가 전략 백서인 '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 White Paper'(2012)에는 호주의 외교, 경제, 교육, 문화 전반의 방향성을 아시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선언적, 실행적 방향성이 담겨있음

- 호주가 아시아 경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화적·사회적 연결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를 아시아 외교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공식화함

- 'DFA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및 'Australia Council' 등과 협력해 아시아 문화기관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지원함

- 또한 파푸아 뉴기니 등을 비롯한 남태평양 지역의 토착문화를 보존하고자 여러 기금을 조성하였고 2011년에는 한국을 문화외교의 파트너로 지정하는 등 대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함

➤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개편 및 전략 변화

• 문화 분야 공적 지원기관인 호주예술위원회의 'International Arts Strategy 2015-20'에서 국제예술활동 및 국제교류, 해외시장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선정함⁶⁴

- 주요 목표는 호주 예술이 기존 시장에서 역량을 확장시켜 이머징 및 새로운 마켓과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과 국제문화예술 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채널 강화 등이며 원주민, 장애인, 청년,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함

➤ 호주국제문화위원회(Australia International Cultural Council, AICC)의 설립

• 2013년에 설립된 호주국제문화위원회(Australia International Cultural Council, AICC)는 호주와 타국 간의 문화교류 증진 및 관련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외교 핵심기관임

- AICC는 해외에 호주문화를 홍보하고 국제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결성한 자문기관으로 주요 사업은 문화외교 프로젝트로 아시아, 남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 미주 및 서유럽을 우선지역으로 호주의 다문화적이고 혁신적이며 토착민 문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④ 호주예술위원회 중심 국제문화교류 본격화(2020년대~)

➤ 새로운 국가 문화 정책인 '리바이브(Revive)' 발표

• 2023년 호주 정부는 '리바이브(Revive): 모든 이야기를 위한 장소, 모든 장소를 위한 이야기(Revive: a place for every story, a story for every place)'를 새로운 국가 문화 정책 및 전략으로 발표함

- 리바이브는 호주예술위원회의 확장고 현대화, 투자 확대 기능 추가를 통해 설립된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Creative Australia)'를 핵심으로 5개의 중점 과제를 발표함

부록 표 8 리바이브(Revive)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First Nations First	호주 원주민의 이야기와 문화가 호주 예술문화의 중심에 있다는 인식 변화이며 호주 원주민 대상 지원을 강화함
A Place for Every Story	모든 호주인이 문화창작자가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예술지원
Centrality of the Artist	예술가의 노동환경 개선, 보상 등을 포함
Strong Cultural Infrastructure	예술·문화·유산을 지탱하는 기관·시설·디지털·지역문화까지 포함한 인프라 강화
Engaging the Audience	해외와의 연결을 확장하여 국제문화교류, 시장개발과 연계함

64 https://creative.gov.au/investments-opportunities/international-arts-strategy?utm_source=chatgpt.com

- ‘Engaging the Audience’라는 핵심과제 아래 해외시장, 국제교류 측면을 명시함
 - 국제문화교류, 문화외교, 글로벌 관객, 시장진출이 포함된 전략으로 확장되었으며 원주민 문화 및 다양성 강조를 통해 교류적 측면에서 지원과 예술가의 노동환경 개선과제에서 해외 무대 진출, 국제공동작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 지원의 측면이 강화됨

나. 법제도

➤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법(Creative Australia Act)」 제정

- 호주예술위원회를 개편 및 확장한 기관 ‘Creative Australia’ 설립의 법적 근거인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법(Creative Australia Act)」(2023)을 제정함
- 호주 정부가 발표한 국가문화정책 ‘Revive: a place for every story, a story for every place(2023)’에서 문화·예술을 국가 발전 전략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선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함
 - 예술지원과 국제교류 기능을 보다 현대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려는 논의와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 환경 개선, 원주민 문화 보존 및 발전 등을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제정이었음
 - 법률 제정을 통해 국제문화교류에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주요 법적 사업과 음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신사업이 추가되며 단순 지원에서 나아가 호주의 예술·창의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연결성·교류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호주예술위원회의 명칭을 ‘Creative Australia’로 변경하며 그 기능이 확대되도록 한 규정임
 - 예술·문화 활동의 촉진, 지원 및 해외·국제활동 증진을 포함하며 예술가·예술단체의 지원, 투어 및 국제발표, 미술시장개발 등이 정부 보조사업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조항이 내포되었으며 새로운 부문으로 ‘Music Australia’가 추가되었으며, 본 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존 ‘Australia Council Act’(2013)을 폐지하고 전환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다. 주관/전담기관 및 운영구조

65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 누리집(<https://creative.gov.au>)

① Creative Australia(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Creative Australia) 변천 과정⁶⁵

-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Creative Australia)의 모기관은 1975년 설립된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로 2012년 거버넌스 및 설립 근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설립 이후 뒤늦게 호주예술위원회법이 제정되었음
- 2023년 호주 정부의 국가 문화 정책 Revive가 발표되었고 그 일환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 「Creative Australia Act」가 제정되었는데 이는 「Australia Council Act」을 폐지, 전환하는 법률이었음

- 이 법을 근거로 호주예술위원회는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요 사업들을 신설, 확대하였으며 예술 및 문화 부문을 강화했고 원주민 예술과 문화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핵심임
-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는 기술과 인력 역량 개발, 공정한 직업 및 근무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창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호주와 해외에서 원주민의 예술과 문화를 장려, 지원하기 시작함

부록 표 9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 변천 과정

연도	구분	변천 내용	관련 법
1967	설립과 초창기	연방정부 설립 발표	-
1975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설립	Australia Council Act 1975
2012	개편 및 거버넌스 변화	호주예술위원회에 대한 조직 검토 수행, 거버넌스 및 법률 체계 개편 추진	Australia Council Act 1975
2013		75년 법 개정으로 예술지원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기금을 포함한 예술지원 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	Australia Council Act 2013
2023	국가 문화정책과 새로운 기관 탄생	연방정부가 새로운 국가문화정책인 ‘Revive’를 발표 호주예술위원회를 현대화하고 확대된 지원체계의 기관으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됨 음악, 문학, 원주민 문화예술, 창작업계의 노동환경 개선이 강화됨	Creative Australia Act 2023

➤ 주요 사업

- 원주민위원회(First Nations Board) 감독하에 원주민 예술 및 문화 옹호 사업을 운영
 -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제도민 예술위원회(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Arts Board)의 유산과 1973년 원주민 예술가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원주민의 창작 주도권을 보장과 예술지원 및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함
 -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원주민 공동체에 2,550만 달러를 투자하고 국제적으로 지역 인재 지원과 베니스 비엔날레 호주관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맞춤형 컨설팅,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원주민 예술 및 문화 리더십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함
 - 원주민 예술 및 문화 프로젝트 기금 사업을 통해 원주민 청소년의 기술 개발, 진로 개발, 마케팅 및 청중 개발 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과 참여 유지 및 향상을 위한 10,000~20,0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원주민 개발 기금 사업은 예술 특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10,000~50,000달러까지의 보조금을 제공함
 - 원주민 음악 레지던시를 통해 신진부터 기성 음악가, 작곡가, 오디오 엔지니어, 프로듀서 등 원주민 창작자에게 스튜디오 공간, 멘토링 및 제작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 호주 예술가 및 창작자 등의 상호교류를 위한 국제문화교류 기금(International Engagement Fund) 운영

- 호주 예술가·창작자·문화단체가 해외 파트너와 함께 상호교환형 국제교류 활동 수행 지원 기금 사업으로 약 5,000~30,000달러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 활동으로는 창작 협업, 지식 및 기술 공유 등이 있는데 해외진출만이 아니라 양측이 참여하는 상호 교환의 형태임

• 국제 여행 기금(International Travel Fund) 운영

- 호주 예술가·창작단체 등이 해외 시장개발 또는 주요 국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행비(항공료, 체재비 등)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시장 및 네트워크 구축, 해외 기획자 및 에이전트 등과의 접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며 주요 국제 행사로는 북 페어, 아트페어 등이 있음

• 국제 출판계 초청 프로그램(Visiting International Publishers Program)

- 해외 출판사, 에이전트 등을 호주로 초청하여 호주 문학 및 출판 업계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문학출판 분야 특화된 국제교류 사업이며 해외 기획자, 출판시장과의 연계를 중시하며 일정 기간동안 해외 출판사가 호주를 방문하여 북페어, 미팅, 포럼 등을 진행함

• 뮤직 오스트리아(Music Australia)

- 뮤직 오스트리아는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 산하의 전담 기관으로 호주 현대음악 산업을 지원하고 투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음악가들에게 해외에서 협업하고 순회공연 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업계 전문가들의 국제 컨퍼런스 참석을 지원함

② 호주국제문화위원회(Australia International Cultural Council, AICC)

▶ 호주국제문화위원회(Australia International Cultural Council, AICC)의 설립 배경

• 호주국제문화위원회는 호주정부가 문화외교를 위해 만든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산하 자문 및 조정기구임

- 문화예술을 단순히 국내정책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교 및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 활용하며 타국 간의 문화교류 증진 및 관련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호주 문화외교 핵심기관으로 해외 호주문화를 홍보하고 국제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결성한 자문기관임

- 특히 아시아, 남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 미주 및 서유럽 등 우선 지역 선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문화교류를 통해 장기적인 문화적 관계 구축을 시도함

• 주요 역할은 정부 외교전략 및 문화외교 관점에서 지역 선정, 해당 지역에서 문화프로그램 수행 조정, 예술가·단체에 대한 국제 프로젝트 지원 및 문화교류사업 운영임

- 국가 포커스 캠페인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연도를 'Focus Country'로 선정하여 그 국가에서 전시, 공연, 영화, 문학, 워크숍 등 대대적 문화캠페인 및 행사를 운영함

- 원주민 주도로 전시회·영화제·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민 작가의 현대 미술 전시, 전통·현대가 결합된 공연 등을 지원하고 모든 큐레이터·기획자·정책담당자를 초대하는 국제 초청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추진함

라. 국제문화교류 추진 주체 및 내용, 방식

① 교류 대상

▶ 아시아·태평양 중심 문화외교 전략 심화

•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변화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세계 경제 및 문화지형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함

- 호주는 과거 문화외교에서는 유럽, 북미 중심경향이 강했으나 아시아 경제, 문화 영향력의 확대와 인구 중심 이동 등의 변화로 호주 내에서 '아시아 시대(Asian Century)'라는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문화외교 전략에도 아시아 중심의 조정이 요구됨

- 이에 따라 호주는 '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 White Paper'(2012)를 통해 호주가 아시아와 더욱 긴밀히 연계해야 함을 강조하며 유럽 및 미연방 중심 문화외교에서 벗어나 인접 지역인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와의 교류 및 문화외교 전략을 재정비하는 기반을 마련함

• 문화교류의 외교관점 인식 확대와 국가 이미지 제고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반영함

- 문화교류를 외교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며 문화교류가 단순 예술 작품의 국외 전시나 공연을 넘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 문화 신뢰 구조 구축 등을 통해 소프트파워 도구로 자리매김함

- 자국 문화예술 역량을 아시아, 태평양 맥락에서 활용하고 문화외교를 통해 지정학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심화하려는 전략을 수립하며 호주가 Asia-capable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사람-사람 연결 및 문화·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함

▶ 원주민 중심 국제문화교류의 필요성 인식

•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 및 연방정부가 '원주민이 자신의 문화와 이야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국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책적으로 채택함

- 문화외교나 국제교류에서 원주민이 주체가 되고 권리를 행사하며, 국제무대에서 동료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됨

• 국가문화정책 'Revive'에 '원주민 우선(First Nations First)'을 핵심 목표로 반영함

- 2023년 발표한 문화·예술·창작 생태계 발전 계획인 'Revive: a place for every story, a story for every place'에서 '원주민 우선(First Nations First)'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원주민 문화·예술을 국가 문화정책의 중심축으로 인식함

- 원주민 커뮤니티 주도 프로젝트 확대, 국제 파트너십 문화교류 활성화, 지식재산 보호 및 해외 시장 참여, 문화주권 확보 및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음

▶ 예술가 글로벌 창작 생태계 강화 전략적 전환 배경 및 정책 프레임워크

- 예술가의 국제 무대 협업이 국가브랜드 및 문화외교 그리고 호주 내부 문화산업과 연계, 문화수출 및 창조 경제 측면의 가능성을 인식함
 -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해서는 단순 해외 진출보다 예술가 중심 자율적 기획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우선지역과 우선장르 설정을 통한 핵심 분야 설정⁶⁶
 - Creative Australia의 'International Arts Strategy'에서는 국제시장 및 신규 시장에서 호주예술의 역량 강화, 예술가 국제교류 및 활동 지원, 예술가 및 단체의 국제적 활동 생태적 기반(제도·제작·시장·노동 환경) 강화 등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또한 연구, 시장 정보, 국제 개발 컨설턴트를 바탕으로 국제 예술활동의 우선순위 지역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주요 예술형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부록 표 10 국제예술전략의 우선순위 지역 및 예술 형태

지역	지원 분야
서유럽	신흥 및 실험 예술, 연극, 무용, 시각 예술
북미	문학, 시각 예술, 연극, 무용, 원주민 예술
남아시아	시각 예술, 댄스, 신흥 및 실험 예술
동남아시아	연극, 무용, 신흥 및 실험 예술
북아시아	연극, 무용, 신흥 및 실험 예술, 원주민 예술

② 교류 내용

▶ 아시아·태평양 중심 문화외교 심화 전략 추진방식 및 핵심 전략

- 국가 집중 연계 형태의 교류 모델을 활용한 파트너십과 상호 교류 및 포커스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 창작자, 단체가 호주와 아시아 지역으로 상호 방문하고, 공동창작, 워크숍, 전시 등과 같은 문화축제나 교류사업은 집중 대상국을 정함
- 문화외교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제도적 투자 및 거버넌스 구조의 기금사업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함
 - 2013년 기금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문화외교 및 예술국제교류에 대한 전략(International Engagement Strategy 2021-2025) 등을 통해 국내 문화기관 및 예술단체가 해외 파트너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됨

66 https://creative.gov.au/investments-opportunities/international-arts-strategy?utm_source=chatgpt.com

▶ 원주민 중심 파트너십을 통한 추진방식 및 핵심 전략

- 원주민 중심 국제문화교류는 단순히 원주민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해외 파트너와의 상호 교류 및 공동창작을 핵심으로 국제 무대에서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함
 - 해외 파트너와 협력관계 설계시 원주민 커뮤니티가 주도권을 가지고 문화적 지식 및 권리반영의 문화·지식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왜곡 위험 방지를 위해 호주는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원주민 예술가 및 단체의 권리·이익 보호를 위한 프로토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는 'First Nations Development Fund', 'Space to Create First Nations Music Residency' 사업 등 원주민 예술가 비즈니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예술가 및 창작자 역량강화와 지속가능성

- 해외 레지던시, 공동창작 프로젝트, 국제 투어 등을 운영하며 국제 파트너와의 상호 국제교류 활동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예술가의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함
 - Revive 정책 역시 예술가의 노동환경 개선, 공정보상, 안전한 작업문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술가의 국제교류활동은 제도적 장치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 계약체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법률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③ 교류방식

▶ 주요 사례

• 아시아 중심 문화 페스티벌: 오즈아시아 페스티벌(OzAsia Festival)

- 오즈아시아 페스티벌(OzAsia Festival)은 2007년 애들레이드 페스티벌 센터의 예술감독 더글러스 코티에에 의해 처음 개최되었고, 그후 매년 봄 3주 동안 열리며 아시아와 소통하는 현대예술 축제로 매년 최대 2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음
-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주요 국가 이니셔티브를 통해 매년 특정 국가를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했으며 2010년 한국이 주요국으로 초청됨



부록 그림 3 OzAsia Festival(2024)

자료: 오즈아시아 페스티벌 누리집(<https://ozasia.adelaidefestivalcentre.com.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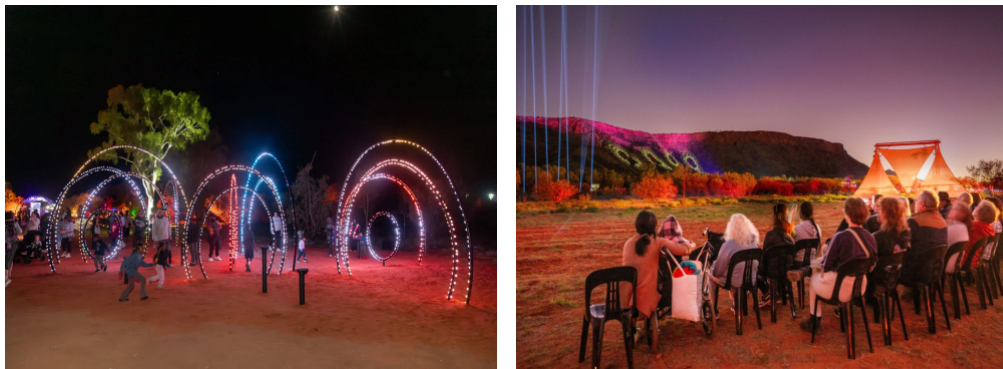
- 2015년 이후 매년 한 국가에만 집중하던 프로그램 방식을 전환하여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최고 현대예술을 소개하는 축제로 방향을 확고히 하며 연극, 음악, 무용, 시각예술, 영화, 문학 등 신작들을 선보이고 있음

• 원주민 문화를 현대 기술을 통해 보존하고 공유하는 'Parrtjima' 페스티벌

- 'Parrtjima'는 호주 노던준주 정부와 파트너들이 운영하는 정통 원주민 라이트 야간 페스티벌로, 호주 중부의 3억년 된 매그도넬 산맥을 배경으로 원주민 예술과 문화를 깁스프링스(마판트웨) 일대에서 야간 조명-예술을 활용하여 소개함

• 원주민 주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교육 사업 'Uplift'

- 'Uplift'는 원주민 주도 단체 및 기업이 지역 사회 내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주민 예술가 및 창작 중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개발,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함



부록 그림 4 Parrtjima Festival

자료: Parrtjima 홈페이지, (<https://parrtjimaaustralia.com.au/>)

• 예술가 및 창작자의 국제교류 활동 수행을 위한 국제교류기금

-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Creative Australia)는 국제교류기금(International Engagement Fund)을 통해 호주 예술가 및 창작자들이 해외 파트너와 국제교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여행기금, 출판계 초청 프로그램, 헬싱키 국제예술가 프로그램 등의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며 호주 예술가·창작단체 등이 해외 시장개발 또는 주요 국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행비(항공료, 체재비 등)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지원함

- 또한 해외 출판사, 에이전트 등을 호주로 초청하여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문학출판 분야 특화된 국제교류 'Visiting International Publishers Program'이 운영됨

3. 유럽: 영국

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흐름

①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출발(193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 2차 대전 종식을 계기로 소프트파워 확대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을 보임

• 영국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제국주의적 경향과 긴밀히 맞물려 2차대전 종식을 계기로 군사적 제국주의에서 문화 제국주의 시대로 이행한 것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함⁶⁷

- 1934년 영국문화원의 전신인 영국 대외문화교류위원회(British Committee for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출범을 통해 영국 문화 전파를 목적으로하는 정책이 수립됨

- 이후 1936년 영국문화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고 1940년 왕실 헌장(Royal Charter) 수여를 통한 공식 기관으로서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제도화가 시작됨

• 1940년, 왕실 헌장에 명시된 영국문화원의 사명(mission)⁶⁸에 따르면, 영국발(發) 국제문화교류는 언어(영어)를 포함한 문화 분야(문학, 연극, 음악 등)를 통해 이루어짐

- 언어 학교 설립(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El Colegio Británico),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중 언어 프로그램, Bilingual Education Programme), 국제 표준화 영어 능력 시험(IELTS) 등 제공

- 문화 분야 연극 해외투어(올드빅 극단(Old Vic Theatre Company)의 <햄릿> 등 셰익스피어 작품) 공연을 제공하고, 영화 제작(리슨 투 브리튼(Listen to Britain)) 및 배급하며 국제 음악 페스티벌(에든버러 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등을 제공함

② 창조산업의 형성과 오늘날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태동기(1990년대~)

➤ 1989년 냉전종식 이후 민주주의 확산 및 시장 경제 강화의 정책목표

• 세계화 흐름이 시작되면서 제국적 영향력 유지·확산 수단의 국제문화교류에서 교류·협력 증대를 통한 민주주의 확산 및 시장경제 강화로 정책목표가 옮겨감

- 1997년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이하 'DCMS')의 설립이 오늘날 국제문화교류의 태동이 되었으며^{69, 70} 1992년 설립된 영국 국가 유산 부(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DNH)가 1997년 DCMS로 명칭이 변경됨

67 British Council. (1993). Royal Charter and Bye-Laws. Retrieved from https://www.britishcouncil.org/sites/default/files/royal_charter_and_bye-laws_2021_0.pdf

68 "해외에서 영국과 영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증진하고, 영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더 긴밀한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키는 것(promoting a wider knowledge of [the UK] and the English language abroad and developing closer cultural relations between [the UK] and other countries)"

69 DCMS. (n.d.).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ulture-media-and-sport>

70 UK Government. (2001).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s 2001.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reative-industries-mapping-documents-2001>

- 1998년 DCMS는 「창조산업 지형 문서(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s, (1998)에서 창조산업 명칭을 공식화하고 이를 국가자산이자 경제적 가치 산출 분야로 간주함

- 2001년 해당 문서를 현행화하며 문화예술 영역을 포함한 라이프스타일 영역이 창조산업에 포함됨으로써 문화적 공공재에서 시장가치가 산업화 형태로 재구성되었고, 따라서 정책 방향도 영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산 및 상호 교류에서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로 변모함
- 문화·예술 영역을 산업화가 용이한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광고, 미술·예술품 및 골동품, 건축, 공예, 설계, 패션, 영화 및 비디오(게임 등), 상호작용 레저 소프트웨어,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 TV 및 라디오 등이 여기 포함됨

부록 표 11 국제 문화외교(International cultural diplomacy) 관련 조항

구분	내용
7.2	정부는 국제 문화외교를 통해 자국의 예술과 창조산업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사상과 기술의 개방적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즉 개방 사회로서의 영국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의 명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영국의 전통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 언론은 널리 존중받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해외 유학생과 창의적 기술 인재를 환영하는 태도 역시 높이 평가받는다.
7.8	그러나 런던과 영국이 제공하는 장점들은 명확하게 마케팅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상업적 교류와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되기 전에, 우리의 명성과 “브리튼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해외 마케팅 전략을 개발 중이며, 이는 창조산업에 대한 국내 홍보 강화와 긴밀히 연계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국제 문화외교 강화와 그와 관련한 우리의 활동에 의해 뒷받침된다.
7.17	문화와 창조산업은 공식적인 접촉 수단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국제 관계를 구축·발전·지속시킬 수 있다. 영화, 텔레비전, 패션, 디자인, 예술, 음악은 대중에게 강력하게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가 상호 이해를 형성하고 공통의 경험과 목적 의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7.18	우리는 이러한 가치 있는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특정 지역을 우선순위로 삼아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인도와는 프로그램 협력에 관한 고위급 협정을 추진 중이다. DCMS는 정부, 영국문화원, BBC 월드서비스가 문화 부문과 훨씬 더 긴밀히 연결되도록 하고, 공동의 우선과제와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및 계획 중인 국제 문화·창의적 교류 활동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더 나은 계획과 효율성을 보장할 것이며, 이 DCMS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장관 해외 방문 계획에도 활용될 것이다. “차이나: 영국-문화교류” 프로그램은 달성 가능한 성과의 좋은 사례다.

자료: DCMS(2008)

- 2011년 「창조산업 지형 문서」(1998)에서 영국 시장 확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서 ‘창조산업 위원회(Creative Industries Council)’가 출범함

- 창조산업 위원회는 정부 기관(DCMS 등)과 창조산업 관련 기업과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포럼 형태의 조직으로 2018년 수출 및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조산업 무역 및 투자 위원회(Creative Industries Trade & Investment Board, CITIB)를 하위 기관으로 둠
- 해당 조직은 문화예술 영역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문화교류 차원보다 영국의 창조산업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4년 외교 정책에 문화예술 및 창조산업이 핵심적인 영역으로 위치함

- 2014년 영국 상원의 「현대사회의 설득과 권력(Persuasion and Power in the Modern World)」, 를 계기로 영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산을 위해 문화교류에 주목함⁷¹

- 「현대사회의 설득과 권력」은 문화, 창조산업, 교육, 언론(BBC World Service 등), 영국문화원을 영국의 핵심 소프트파워 자산으로 규정함
- 외교 정책에 문화예술 및 창조산업이 핵심적인 영역으로 위치하므로 DCMS뿐만 아니라 영국 외무 개발청(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Office, 이하 ‘FCDO’)가 공동으로 국제문화교류 정책을 담당함

부록 표 12 부처별 국제문화교류 정책 담당 업무

구분	내용
DCMS	창의산업·문화정책을 수출·국가브랜드 전략과 연계
FCDO	외교·안보 전략 차원에서 소프트파워 관리

▶ 2016년 EU 탈퇴와 2020년 제도적 독립으로 독자적인 문화교류체제 수립

- 브렉시트(Brexit)라 불리는 영국의 EU 탈퇴를 통해 2020년 제도적으로 EU와 분리된 영국은 독자적인 문화교류체제를 이루며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정 체결을 통해 더 넓은 영역의 국제문화교류를 진행함

- 2021년 ‘위대한 영국(Great Britain)’을 발표하며 영국이 세계 무대에서 개방적이고, 외향적이며, 자신감 있는 국가임을 강조하고 소프트파워 슈퍼파워로 규정하면서 방송(BBC World Service), 영국문화원, 창조산업 등을 영향력의 핵심 자산으로 제시함⁷²

-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중 ‘영국 창조산업 기업이 협정 상대국에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규정으로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함⁷³

영국-미국 FTA 조항 중

영국의 세계적 수준의 창조산업 부문은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글로벌 체계와 연계된 저작권 규정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 산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이며, 특히 모든 규모의 영국 기업들이 번창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선진 디지털 무역 규정에 합의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자료: DIT (2021)

71 UK Parliament. (2014). Persuasion and power in the modern world: The role of soft power in the UK's global influence.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Soft Power and the UK's Influence.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314/ldselect/ldsoftpower/150/150.pdf>

72 UK Government. (2001).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s 2001.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reative-industries-mapping-documents-2001>

73 DIT (2021). UK free trade agreements: Creative industries provisions. UK Governmen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ree-trade-agreements-creative-industries-provisions>

- 74 DCMS. (2023).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4898de2b32b9e000ca96712/Creative_Industries_Sector_Vision_accessible_version_.pdf
- 75 British Council. (1993). Royal Charter and Bye-Laws. Retrieved from https://www.britishcouncil.org/sites/default/files/royal_charter_and_bye-laws_2021_0.pdf
- 76 UK Parliament. (2004). A public BBC: The governance and regulation of the BBC. Retrieved from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405/cmselect/cmcomeds/82/82i.pdf>

- 2023년 「창조산업 부문 비전(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에서 2030년까지 창조산업 분야에서 약 500억 파운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를 발표함⁷⁴
 - 전략의 목표는 창조산업 분야에서 수출 확대와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콘텐츠, 공연, 패션 등 문화적 생산물의 국제 유통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또한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영국의 국가 이미지와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궁극적 지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제적 목표만 축소해석하기는 어려움
 - 이 목표는 DCMS와의 공동 설계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구체적 실행을 위해 영국문화원을 비롯한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핵심 수단으로 강조함

나. 법·제도

① 법적 근거

▶ 왕립헌장과 일반 법령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기관 및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장

- 영국의 경우, 문화교류를 별도의 법령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왕립헌장 및 일반 법령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 및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장하고 있음

부록 표 13 영국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적 근거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영국문화원 왕립헌장	해외 문화·교육 교류를 핵심 임무로 두고 있음
BBC 왕립헌장	방송 및 저널리즘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음
정부조직 명령	국제교류란 국왕의 권한을 정부조직이 대신 행사하는 형태 국제교류가 외교와 직결된 만큼 원칙적으로 FCDO가 소관하되 문화교류 영역은 DCMS와의 협력 구조에서 운영

- 영국문화원 왕립헌장에 의거해 영국문화원은 해외 문화·교육 교류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구로 승인받으며 이들의 핵심 임무로서 국제문화교류를 명시함⁷⁵
 - 영국문화원의 목적은 영국과 영어에 대한 이해를 해외에 확산하고 타국과의 문화적 관계 발전과 교육 및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국가 간 상호 이해 및 신뢰의 구축임
- BBC 왕립헌장(BBC Royal Charter)에 의거해 BBC가 공영방송으로 승인 받으며 이들의 운영 활동 이자 목적이 헌장에 명시됨⁷⁶
 - 방송 및 저널리즘을 통한 국제문화교류를 수행하며 공영방송 BBC 운영의 핵심 목적에는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 전달 및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콘텐츠 제공을 통한 영국의 문화 가치 확산 그리고 영국 전체와 세계의 연결이 포함됨

- 정부조직 명령(Orders in Council)에 의거해 국왕의 특권 권한인 국제 관계와 관련한 운영을 FCDO 장관이 대신해 행사함⁷⁷
 - 국제문화교류가 국제관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FCDO 권한에 속하지만, 내용은 창조산업으로 대표되는 문화영역으로 FCDO와 DCMS의 협력 구조에서 제도화됨

② 주요 제도 및 정책

▶ 영국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3가지 주요 정책

- 브렉시트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국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주요 정책은 3가지로 창조산업 활성화를 통한 영국 시장의 확대 및 국가 영향력 확대를 공통목표로 두고 있음
 - 정부조직과 산업이 공동으로 합의한 정책으로 「Creative Industries Sector Deal」(2018)를 DCMS, 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산업부), 그리고 CIC가 공동 수립함⁷⁸. 해당 내용은 정부가 영국 창조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직접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부록 표 14 영국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제도·정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Creative Industries Sector Deal (2018)	국제문화교류를 수출 및 외교 강화와 결합
Integrated Review (2021)	국제문화교류를 국가 외교 및 안보 자산으로 간주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2023)	국제문화교류를 경제·산업 목표와 직결함

- 영국 전역의 생산성과 소득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5가지 차원으로 각각의 항목이 국제문화교류와 연결됨
 - 창조산업 성장과 국제문화교류를 연계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보기 시작하며 국제문화교류를 순수한 문화 영역이 아니라 산업 정책과 외교 정책이 결합된 초기형 모델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이 정책은 2023년 발표된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2023)」에 의해 재정립되었으며, 2025년 6월 23일부로 이전 전략이 철회되고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산업 부문 계획·산업전략에 의해 대체되었음

부록 표 15 Creative Industries Sector Deal(2018)의 주요 항목별 창조산업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아이디어	창조산업을 혁신 R&D의 대표 분야로 규정
사람	창의 인재 양성 및 다양성 확대 강조
인프라	디지털(통신) 및 문화(공연장, 제작시설 등) 인프라 확충
비즈니스 환경	세제 혜택, 벤처 캐피탈 투자 유치, IP 보호 강화
지역	수도권(런던) 집중 완화 및 지역 클러스터(맨체스터, 에든버러 등) 육성

자료: UK Government(2018)

77 Torrance, D. (2025). The royal prerogative and ministerial advice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Briefing). House of Commons Library. Retrieved from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877/>

78 UK Government. (2018). Creative Industries Sector Deal.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85bc85ac07c71e5a87097c3/_Withdrawn_creative-industries-sector-deal-print.pdf

- ‘Integrated Review’는 FCDO가 주도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국방·안보·외교·국제개발 전략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수립한 전략 문서임⁷⁹

- 문서는 국제문화교류를 단순한 문화정책이 아닌 소프트파워의 핵심 축,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국제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3월 외교 정책, 국방, 안보 및 국제 개발에 대한 1년간의 통합 검토(IR) 결과를 발표하며 2025년까지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특히 영국의 소프트파워를 슈퍼파워로 바꾼다(The UK will be a “soft power” superpower) 등 핵심전략을 제시함

부록 표 16 Integrated Review 중 소프트파워 관련 내용

구분	내용
미디어와 문화 (Media and culture)	BBC와 영국의 창조산업은 국가 이미지를 강화함 영국 문화에 대한 친숙함과 신뢰 형성
교육(Education)	세계 2위 유학지로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 배출 인적 교류를 통한 교육 차원의 문화외교 플랫폼
스포츠(Sport)	국제 대회 다수 유치를 통한 세계적 영향력 유지 스포츠를 매개로 한 문화교류와 초국적 공동체적 경험
사람간 연결 (People-to-people links)	다문화 인구와 관광객 유입, 다양성 캠페인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자료: Cabinet Office(2021)

-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2023)은 DCMS가 CIC와 협력해 수립했으며 2030년까지 창조산업 성장을 위한 로드맵에 해당하고 오늘날 국제문화교류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음⁸⁰

- 영국 창조산업의 성장, 인재 양성, 기술 혁신을 위한 공동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상위 목표(Goal)와 각 목표를 뒷받침하는 세 개의 세부 목표(Objective)로 구조화됨

- 목표 1은 성장(Growth)으로 영국 전역의 창조 클러스터를 성장시켜 총 부가가치(GVA)를 500억 파운드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부록 표 17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2023) 중 성장의 세부 목표

구분	내용
혁신(Innovation)	창조산업 혁신 관련 공공·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R&D 지출 확대
투자(Investment)	지역 투자에 힘입은 창조기업들의 성장 잠재력 실현
수출(Exports)	창조기업 수출 증대를 통한 영국 수출 목표액 달성

자료: DCMS(2023)

79 Cabinet Office. (2021). 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UK Governmen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0644e4bd3bf7f0c91eababd/Global_Britain_in_a_Competitive_Age_-_the_Integrated_Review_of_Security__Defence__Development_and_Foreign_Policy.

80 DCMS. (2023).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4898de2b32b9e000ca96712/Creative_Industries_Sector_Vision_accessible_version_.

81 FCDO. (n.d.).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foreign-commonwealth-development-office>

- 목표 2는 인력(Workforce)으로 고숙련·생산적·포용적인 인력 구축을 통한 영국 전역 10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부록 표 18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2023) 중 인력의 세부 목표

구분	내용
교육(Education)	창의적 재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 기회의 토대 마련
기술(Skill)	업계의 기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일자리 질 (Work Quality)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영국 전역에 생산적인 인력을 보장

자료: DCMS(2023)

- 목표 3은 광범위한 영향(Wider Impact)으로 창조산업이 개인, 공동체, 환경, 그리고 영국의 글로벌 위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극대화를 목표로 함

부록 표 19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2023) 중 광범위한 영향의 세부 목표

구분	내용
웰빙(Well-being)	창조산업 관련 활동이 웰빙 향상, 지역공동체 강화를 이끔
환경(Environmnet)	환경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국가 계획(Powering Up Britain)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
소프트파워(Softpower)	창조산업이 글로벌까지 도달 범위를 넓혀 세계에 영국의 소프트파워 강화

자료: DCMS(2023)

- 국제문화교류 차원의 효과는 크게 성장, 인력, 광범위한 역량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각각 영국의 시장, 국가브랜드 확장, 인적 교류 및 협력, 영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와 관련함

부록 표 20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2023) 중 국제문화교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성장	영국 창조산업의 해외 시장 확대 및 영국 브랜드·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인력	해외 인재 유입 및 교류 활성화 및 국제적 협력 기반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광범위한 영향	글로벌 페스티벌·전시를 통한 문화외교 및 문화·환경 의제에서 국제 리더십 강화, 지역 기반 문화의 세계적 교류 촉진

자료: DCMS(2023)

다. 주관/전담기관 및 운영구조

① 주관/전담기관

▶ 영국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FCDO와 DCMS의 공동, 전담기관이 수행함

- FCDO는 영국의 외교 담당 부서로 문화교류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영역을 관장하며 그중 영국의 국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자 자산으로 영국의 소프트파워를 주목하고 DCMS와 협력하여 국제문화교류 정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함⁸¹

- 국가 단위 문화 관련 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FCDO와 연계하여 영국의 국력 증대를 위한 전략 중 하나인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수립을 담당함⁸²

- 특히 문화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중앙부처로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략 수립, 법·제도 정비, 재정 지원을 담당하며 현장에서 집행은 여러 기관과의 협력하에 이뤄진다는 '팔길이 원칙(Arm's-length Principle)'에 입각한 정책을 수행함

▶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는 정책 집행 단계에서 담당 기관이 나뉘어 운영됨

- 문화예술 국제문화교류는 영국문화원과 방송사 BBC World Service가 전담하고 문화산업 국제문화교류는 DCMS의 총괄 아래 파트너 기관이 수행함

부록 표 21 문화예술 부분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구분	영국문화원	BBC World Service
소관부처	FCDO	DCMS
법적 지위	영국문화원 왕립헌장	BBC 왕립헌장
주요 임무	영어교육, 문화예술 교류, 문화유산 보호	국제 뉴스, 문화정보제공
역할	교육, 공연, 전시, 학술 교류 등	글로벌 방송을 통한 영국 정보·가치 확산
재정 구조	자체 수입(수험료) 및 FCDO 보조금	자체수입(수신료) 및 FCDO 보조금

자료: DCMS (n.d.); FCDO (n.d.)

- 영국문화원은 FCDO 소관으로 국제적 차원의 영어 교육, 문화예술 교류 등을 담당하며 교육은 FCDO의 관리 감독 아래 집행, 문화예술 교류는 DCMS와 협력하여 진행함

- 특히 문화예술 분야 또한 창조산업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어, DCMS가 창조산업 국제 진출 및 교류를 위한 정책과 재정 마련을 하는 한편, 이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실행은 영국문화원이 기존에 확보한 네트워크를 활용 집행하고 있음

- BBC World Service는 약 42개의 언어 서비스로 운영되며, 대략 4억 명 이상의 시청자·청취자를 확보한 방송사업자로서 BBC 수신료와 FCDO 보조금에 기반해 운영됨⁸³

- 단, 전체 BBC 자체가 DCMS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BBC World Service 또한 동일한 체계 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산업 부문 국제문화교류는 DCMS의 총괄 아래 세부 장르별로 파트너 기관들이 직접 수행함

- 영화 및 방송영상 분야(British Film Institute, BFI), 음악 분야(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BPI), 게임 및 디지털(UK Interactive Entertainment, Ukie), 출판 및 디자인(Arts Council England, ACE), 패션 분야(British Fashion Council, BFC) 등이 있음

부록 표 22 문화산업 부문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구분	분야	DCMS 관계	국제문화교류 역할
BFI	영화 및 방송영상	DCMS 예산 지원 및 감독	- 해외 영화제(런던 필름 페스티벌 등) 주관 - 해외 공동 제작 및 배급 지원 - 국가 간 공동 제작 협정 관리
BPI	음악	DCMS 예산 지원	- 영국 아티스트 해외 투어 및 홍보 지원 - 국제 음악 페스티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Ukie	게임	DCMS 예산 지원	- 국제 게임쇼 참가 지원 - 영국 게임산업 해외 진출 브랜딩
ACE	출판 및 디자인	DCMS 예산 지원 및 감독	- 국제도서전, 번역 지원 - 해외 예술 및 디자인 교류 펀딩
BFC	패션	DCMS 예산 지원	- 패션 행사(런던 패션 위크) 국제 홍보 - 해외 바이어, 언론 초청 등 글로벌 패션 네트워크 교류

- BFI는 1933년 설립, 영화 및 방송상 관련 정책 집행 및 지원을 담당하는 DCMS의 파트너 기관으로 DCMS의 보조금 및 복권 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음

- 영국 내 영화 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해외 영화제 주관(런던 필름 페스티벌) 및 다른 국가의 해외 영화제와의 협력, 해외 공동 제작 영화 수출 및 배급 지원, 공동 제작 협정을 직접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통해 국제문화교류 관련 역할을 수행함⁸⁴

- BPI는 1973년 설립, 음반사 및 음반 유통사 등을 주요 회원으로 삼고 있는 민간 산업 협회로 일부 정부 사업을 집행할 때는 DCMS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정부-민간 파트너십 모델에 해당함

- 국제문화교류 관련 주요 업무로는 영국 아티스트의 해외 투어 지원, 국제 페스티벌 참가 지원, 아시아, 남미 등 신흥 시장 진출 지원 등이 있음⁸⁵

- Ukie는 게임 분야 민간 산업 협회로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지만, DCMS와 협력한 정부 정책 집행은 부처 예산으로 운영됨

- 국제 게임 행사에 영국관 설치와 같은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영국 게임산업 진출을 위한 해외 협력 네트워크 마련, 투자자 유치 등 국제문화교류이긴 하나 콘텐츠 산업 무역 및 외교 차원에 가까운 프로그램들을 수행함⁸⁶

82 DCMS. (n.d.).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ulture-media-and-sport>

83 BBC Studios. (n.d.). BBC World Service platform. BBC Studios. Retrieved from <https://bbcnews.bbcstudios.com/platforms/bbc-world-service/>

84 BFI. (n.d.). BFI. Retrieved from <https://www.bfi.org.uk>

85 BPI. (n.d.). BPI. Retrieved from <https://www.bpi.co.uk>

86 Ukie. (n.d.). Ukie. Retrieved from <https://www.ukie.org>

• ACE는 1946년 설립, 출판 및 디자인 분야 영국 최대 예술 펀딩 기관으로 DCM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DCMS의 보조금과 복권 기금으로 운영됨

- 해외 도서전 및 문학 번역 사업 지원을 통해 출판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 자가 및 예술가의 해외 파견을 위시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지원 등 해외와 연계하여 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들을 수행함⁸⁷

• BFC는 1983년 설립된 영국의 패션산업을 대표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후원금 및 행사수익, 그리고 예산의 일부는 DCMS의 지원으로 운영됨

- 세계 4대 패션위크 중 하나인 런던 패션 위크(London Fashion Week)를 주관하며 영국 디자이너 및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패션 학교,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⁸⁸

② 전담기관 운영구조

▶ FCDO는 문화외교 차원에서 영국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음⁸⁹

• FCDO의 사업 미션은 “FCDO는 전 세계에서 영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책임을 지닌다. 여기에는 외교, 개발, 안보뿐만 아니라,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과 BBC 월드서비스 같은 기관들을 통한 영국의 소프트파워 강화도 포함된다”임

- 2022-2023년 기준, FCDO가 영국 문화원과 BBC World Service에 각각 대략 235백만 파운드(한화 기준 대략 4,400억 원), 361백만 파운드(대략 6,700억 원)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됨

- FCDO와 DCMS는 협력하는 프로그램에 한해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 구조는 DCMS가 영국문화원과의 공동으로 국제문화교류 정책을 집행할 경우(예: Cultural Protection Fund)와 DCMS가 총괄하는 영국 국제행사의 경우(예: 올림픽 등)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예산 편성의 형태는 부재함

▶ DCMS는 부처의 핵심 비전 중 하나로 영국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설정하고 있음

• 정책 그룹(Policy Group)에서 문화외교, 대출 및 방문자 경제(Cultural Diplomacy, Loand and Visitor Economy), 미디어 및 국제(Media & International)를 국제문화교류 전담 부서로 두고 있음⁹⁰

- DCMS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예산항목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일부 파트너 기관(BFI, ACE) 외에는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보조금이 아닌 프로그램 단위로 지원을 받는 구조임

- 파트너 기관의 경우 BFI는 2023-2024년 기준 대략 25백만 파운드(한화 기준 대략 460억 원), ACE는 495백만 파운드(한화 기준 대략 9,2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다른 민간 협회 기관은 대략 1.5-2백만 파운드(한화 기준 대략 28-37억 원)지원 추정됨

라.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진 주체 및 내용, 방식

① 교류 주체

▶ 국가, 문화예술 및 창조산업 관련 기관, 민간단체 3가지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 국가(또는 정부) 차원은 국제문화교류의 가장 거시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단위로, FCDO를 통해 양자-다자 간 형태의 국가 간 교류 형태로 진행함⁹¹

- (양자 간 협력) 시리아, 이라크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보호 협정, 미국, 일본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영국문화원을 매개로 한 100여 개 국 정부와의 교육 및 문화협력 협정 체결 등이 해당됨

- (다자 간 협력) UNESCO(세계유산), OECD(창조산업), EU 및 Council of Europe(예술·교육)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짐

• 문화예술 및 창조산업 기관(또는 단체)의 협력은 교류의 주요한 축으로 영국 내 유관 기관이 해외에 있는 유사 기관과 직접 교류하는 형태의 전시 공동 기획, 순회 전시, 교류전, 콘텐츠 공동 제작, 국제 행사 협력 등을 추진함

부록 표 23 문화예술 및 창조산업 기관 국제교류 주체

구분		분야
DCMS 산하기관	대영박물관	해외 박물관과 소장품 대여, 전시 협력 및 유물 보존 협력
	테이트 미술관	현대미술 국제교류 전시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	세계 디자인 기관과 협력
	영국 국립 미술관	해외 미술관과 걸작 교류전
DCMS 파트너	BFI	국제 영화제 파트너십 및 공동 제작 협정
	ACE	해외 예술 축제 기관 협력
DC MS 기타협력	BPI	해외 음반사, 공연기획사, 플랫폼과의 협업
	Ukie	국제 게임 전시회 공동 참가 및 해외 유통 및 투자자 매칭
	BFC	세계 4대 패션위크 및 해외 패션스쿨, 브랜드, 디자이너 협력

자료: ACE (n.d.); BFC (n.d.); BFI (n.d.); BPI (n.d.); DCMS (n.d.); Ukie (n.d.)

• 민간(또는 시민) 단체는 NGO, 재단과 같은 조직차원과 개인 차원으로 구분되며, 개인 단위는 창작자와 수용자로 다시 세분화됨

- DCMS가 주관하고 영국문화원이 집행하는 Cultural Protection Fund(CPF)는 NGO와 대학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며 분쟁 및 기후위험 지역의 문화유산 보호 프로젝트를 수행함⁹²

91 FCDO. (2024). (2024).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itiativ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ernational-cultural-exchange-bilateral-and-multilateral-initiatives>

92 British Council. (2024a). Cultural Protection Fund Annual Report 2023-2024. https://cultural-protection-fund.britishcouncil.org/sites/default/files/cultural_protection_fund_-_annual_report_2023-2024_-_signed_off.pdf

87 ACE. (n.d.). ACE. Retrieved from <https://www.uk-ace.org.uk>

88 BFC. (n.d.). British Fashion Council. Retrieved from <https://www.britishfashioncouncil.co.uk>

89 FCDO. (2024). (2024).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itiatives.

90 DCMS. (n.d.).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ulture-media-and-sport>

- 영국 정부에서 문화예술산업 분야의 차세대 리더 대상 '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 발급을 지원함에 따라 역량 있는 해외 소재 창작자들이 영국에서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으며 문화예술 관련 특별 비자 발급을 위한 공식 심사 기관은 ACE가 담당함⁹³
- 영화, 방송영상과 같은 일상 콘텐츠 소비와 관심을 보인 촬영지를 매개로 한 해외 관객 유치, 글로벌 관광 캠페인을 통한 참여로 국제 관객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진행함⁹⁴

② 교류 내용 및 방식

▶ UK-Australia Season(2021~2022): 영국-호주 정부 주도 아래 추진된 예술기관·산업 간 협업 중심의 문화교류

- 영국문화원과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가 공동 주관한 양방향 문화교류로 문화예술산업 전 분야를 다룸⁹⁵
- 영국과 호주의 1,707개 단체 및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영국과 호주 전역에서 277개의 행사를 개최했으며, 현장 관객 수는 775,523명, 온라인 관객 수는 80,000명 이상을 기록함

부록 표 24 UK-Australia Season(2021~2022)의 분야

구분	분야
공연예술	영국 국립극장이 호주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극을 제작 영국 무용단이 호주에 방문해 호주 무용단과 공동 무대를 진행 영국 지휘자와 호주 오케스트라단의 협업 연주회 진행
시각예술·디자인	영국 테이트와 호주 미술관의 공동 기획 전시로 현대 미술작가 교류전 진행 디자인 관련, 지속 가능한 건축(또는 환경 디자인) 공동 연구 및 전시
문학·학술	영국 작가들이 호주 도서 축제 참가. 대학 간 공동 학술 교류. 공동 번역. 출판 프로젝트
음악	양국 음악가 공동 쇼케이스 등

-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진행되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전시, 온라인 공연, 온라인 토크 세션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함

⁹³ UK Government. (n.d.). Global Talent visa.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lobal-talent-visa>

⁹⁴ British Council. (2024a). Cultural Protection Fund Annual Report 2023-2024. https://cultural-protection-fund.britishcouncil.org/sites/default/files/cultural_protection_fund_-_annual_report_2023-2024_-_signed_off.pdf

⁹⁵ British Council. (n.d.-a). UK/Australia Season 2021-22. Retrieved from <https://www.britishcouncil.org.au/uk-australia-2021-22>



부록 그림 5 UK-Australia Season(2021~2022) 주요 내용

자료: British Council 홈페이지, (<https://www.britishcouncil.org.au/uk-australia-2021-22>)

▶ UK-China "Connections through Culture"(2006~현재): 영국-중국 간 20여 년 이상 진행된 네트워킹 중심의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프로젝트

- 영국 문화원과 중국 문화부가 협력한 문화교류 프로젝트로 20여년 이상 진행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형태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임⁹⁶
- 수천 명의 예술가와 기관을 지원하며 기본적인 재정은 영국 FCDO를 기반으로 하되 영국문화원 중국 지사를 연계한 양국 정부 파트너 기관이 협력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일부 DCMS와 ACE의 지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규모 이벤트성 문화교류보다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방식의 문화교류 모델을 지향하며 2025년 현재 기준, 400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진행함

부록 표 25 Connections through Culture 분야별 교류 현황

구분	분야
공연예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동 워크숍 및 콘서트 및 양국 젊은 음악가 대상 교육 포함
시각예술 및 박물관	테이트-중국 현대미술관, 현대미술 교류 전시 기획 및 대영박물관-베이징 시안 박물관, 고고학·유산 보존 기술 협력, 유산 보존 워크숍, 전시품 교류
문학 및 출판	영국 작가-중국 출판사, 공동 낭독회, 워크숍, 번역·출판 협약 및 런던 도서전 및 베이징 국제도서전에서 공동 이벤트
패션 및 디자인	런던 패션위크-상하이 패션위크, 신진 디자이너 교류 및 영국-중국 대학, 지속가능 건축 공동 워크숍
교육 및 청년 교류	양국 대학간 협력을 통한 교환학생, 합동 워크숍 지원 및 청년 예술가 양국 교환 레지던시 프로그램 활성화

자료: British Council(n.d.-b)



부록 그림 6 Connections through Culture(2025) 포스터

자료: British Council 홈페이지, (<https://www.britishcouncil.cn/en/programmes/arts/connections-through-culture-2025>)

⁹⁶ British Council. (n.d.-b). Connections Through Culture Grants 2025. Retrieved from <https://www.britishcouncil.cn/en/programmes/arts/connections-through-culture-2025>

▶ Cultural Protection Fund(2023~2024): 네트워크 기반 위기 지역 문화유산 보호 및 회복력 구축

- DCMS의 재원 아래 영국문화원이 집행하는 해외 위기 지역 문화 유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유산 보호란 가치를 기술개발 및 인력 고용으로 연결해 해당 지역의 회복을 도모함⁹⁷
- 2025년 기준, 4개 권역 16개 국가의 지원을 완료했으며 영국문화원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현지 대학과 NGO 등 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맺어 진행함

부록 표 26 CPF 프로젝트 대상 국가

권역	국가
중동-북아프리카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케냐,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중동 남부	예멘

자료: British Council(2024b)

- 전통적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를 목적으로 두면서 위성 이미지, VR 복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자료의 데이터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보존 프로젝트를 병행함으로써 물리적 보존을 넘어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을 확장함



부록 그림 7 Cultural Protection Fund(2023~2024) 활동 사진

자료: British Council 홈페이지, (<https://cultural-protection-fund.britishcouncil.org/about>)

97 British Council. (2024b). Cultural Protection Fund Annual Report 2023-2024. https://cultural-protection-fund.britishcouncil.org/sites/default/files/cultural_protection_fund_-_annual_report_2023-2024_-_signed_off.pdf

98 BFI. (n.d.). BFI. Retrieved from <https://www.bfi.org.uk>

▶ BFI의 UK Global Screen Fund 관련 산업 주도 영국 영상 분야 글로벌 진출 지원

- BFI는 DCMS의 지원 아래 'UK Global Screen Fund'를 조성해 공동 제작, 국제 영화제 참가, 해외 배급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수행함⁹⁸
- DCMS의 산하 기관인 BFI의 주도 아래 유관 산업이 공동으로 참여, 협력하며 공동제작 조약(Co-production Treaty)에 기반해 영국 제작사와 해외 제작사가 공동으로 진행 제작비를 분담하고 양국 배우 및 스태프가 공동 참여하는 형태임
- 칸, 베를린, 토론토, 부산 등 국제 영화제에서 'UK Pavilion'을 운영했으며 '배급사-투자자-프로듀서 미팅'을 통해 작품 판매·투자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해외시장 개봉을 위한 홍보·마케팅 자금 지원 및 스트리밍 플랫폼(예: 넷플릭스, 아마존 등) 배급 계약 체결을 지원함



부록 그림 8 영-중 공동제작 영화

<Special Couple>

자료: Rotten Tomatoes(n.d.)

▶ ACE의 Artists' International Development Fund 관련 글로벌 진출 및 협업 지원

- BFI는 DCMS의 지원 아래 UK Global Screen Fund를 조성하여 교류 등을 수행함
- DCMS의 산하 기관인 ACE의 주도 아래 유관 산업이 공동으로 참여, 협력하는 방식으로 영국 신진 창작자가 해외에 체류해 현지 창작자와 협업하여 공동 전시, 공연 등을 진행함
- 국제도서전(런던, 프랑크푸르트, 볼로냐 등)에 영국 작가 및 출판사들의 참가를 지원하고 한국 및 일본 출판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영국을 소개하며 및 아시아 문학과 교류를 진행함
- 영국 무용단이 현지 단체와 협업하여 유럽·아시아 축제 공동 공연을 진행하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공동 창작공연 스트리밍을 제공함

4. 유럽: 스위스

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흐름

① 초기 문화정책과 제도 형성(1960~1980년대)

▶ 칸톤(Canton, 州)의 초기 문화법 제정이 문화 자율성을 고려한 스위스의 문화 정체성 보존과 예술 진흥을 제도화한 첫 단계로 보고 있음⁹⁹

- 연방국가의 특성을 가진 스위스는 칸톤의 문화 자율성이 강하게 작용함에 따라 1960년대, 칸톤 단위의 개별적인 문화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문화법 제정 이후, 각 지역 전통을 강조하면서도 연방 차원의 문화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함
- 현재도 스위스 공공 문화 지출의 약 90%는 주(Canton)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의 역할은 '보충적(subsidiary)'이고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사업에 중점을 둠

▶ 1965년 스위스 문화재단(Pro Helvetia) 법제화로 공식적인 외교정책 수립¹⁰⁰

- 2차대전 직전인 1939년에 스위스의 문화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1965년 연방법에 의해 공적 지위를 부여받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
- 주요업무는 스위스의 예술·문학 해외 홍보, 해외 예술인과의 교류, 언어 격차 해소 문화 균형 발전 등으로 국제문화교류를 문화외교의 부수적 차원이 아닌 핵심적인 전략 도구로 파악함
- 1975년 연방문화청(Federal Office of Culture, 이하 FOC) 설립으로 문화유산 보존 및 국가 정체성 유지에 초점을 둔 문화정책이 먼저 수립됨¹⁰¹
- FOC는 연방 내무부(FDHA) 소속으로, 문화정책을 총괄 수립(Policy-making)하는 주체(영국의 DCMS와 유사)로서 Pro Helvetia와 함께 연방 문화정책을 공동으로 시행함
- 주요 업무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역사적 건축물, 기록보관소, 박물관 등의 체계적 지원과 국가 정체성 유지를 위한 네 개의 공용어(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보호와 국가적 자산으로 다양한 지역 문화 보호가 있음

99 Bucher, C., & Weckerle, C. (2022, November). Switzerland: Short cultural policy profil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Retrieved

100 Pro Helvetia. (n.d.). Pro Helvetia – Swiss Arts Council. Retrieved October 20, 2025,

101 Bucher, C., & Weckerle, C. (2022, November). Switzerland: Short cultural policy profil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② 문화정책의 확대와 현대화(1990년대~현재)

- 1990년대 세계화 흐름에서 연방 차원의 새로운 문화진흥계획 'Kulturförderungskonzept (Cultural Promotion Concept, 문화진흥 개념)'¹⁰²이 도입됨
- 2012년, '문화진흥법(Kulturförderungsgesetz, KFG)' 제정, 스위스 연방의 문화정책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이 제정됨¹⁰³
 - 법률 제정을 통해 스위스 문화재단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며 "스위스 문화 활동을 해외에 알리는 것"을 연방정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연방 정부의 문화지원 범위를 문화유산, 현대예술, 언어권 균형, 국제교류 4가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 세부적인 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 중점 분야, 세부 실행 전략 등이 포함된 4년 단위의 기본계획 'Kulturbotschaft(문화 메시지)'을 수립해 정부가 해당 계획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면 의회가 승인하는 체계를 갖추

부록 표 27 스위스의 Kulturbotschaft(문화 메시지) 기본계획 주요내용

구분	내용
2016~2020 문화 메시지 ¹⁰⁴	문화참여 확대, 디지털 전환 대응, 국제 네트워크 강화
2021~2024 문화 메시지 ¹⁰⁵	다양성·지속가능성, 지역 간 균형, 국제 문화외교 심화
2025~2028 문화 메시지 ¹⁰⁶	문화참여, 지속가능성, 전환

③ 국가 브랜딩 정책의 분리(2000년대~현재)

▶ 2000년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정책적 움직임 등장

- '연방 해외 스위스 이미지 증진에 관한 법률(Bundesgesetz über die Pflege des schweizerischen Erscheinungsbildes im Ausland)' 제정으로 문화진흥법과는 별개인 문화외교의 정책적 움직임이 등장함¹⁰⁷
- 법률 제정을 통해 스위스 외무부(FDFA) 산하 스위스 대외 홍보처(Presence Switzerland)가 스위스를 홍보하는 국가 브랜딩을 총괄함

102 Bucher, C., & Weckerle, C. (2022, November). Switzerland: Short cultural policy profil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103 Swiss Confederation. (2009). Bundesgesetz über die Kulturförderung (SR 442.1).

104 Federal Council (Switzerland). (2014). Botschaft zur Förderung der Kultur in den Jahren 2016–2020 (Kulturbotschaft). Federal Office of Culture.

105 Federal Council (Switzerland). (2020). Botschaft zur Förderung der Kultur in den Jahren 2021–2024 (Kulturbotschaft). Federal Office of Culture.

106 Federal Council (Switzerland). (2023). Botschaft zur Förderung der Kultur in den Jahren 2025–2028 (Kulturbotschaft). Federal Office of Culture.

107 Swiss Confederation. (2000). Bundesgesetz über die Pflege des schweizerischen Erscheinungsbildes im Ausland (SR 194.1).

나. 법·제도

① 법적 근거

▶ 스위스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헌법적 차원 「연방헌법(Bundesverfassung, BV)」과 「문화진흥법」 차원으로 구분됨^{108, 109}

• 「연방헌법」 제69조(Kultur, 문화) 및 제70조(Sprachen, 언어)에 의거, 스위스의 문화정책이 국가의 주요 임무 중 하나임을 파악할 수 있음

- 제69조(Kultur, 문화) 문화 활동 촉진 및 문화다양성과 국가적 통일성을 증진할 책임, 예술과 음악 교육을 장려할 책임, 제70조(Sprachen, 언어) 언어 다양성 보호 및 소수 언어권을 지원할 책임

• 「문화진흥법」은 스위스의 문화적 존재감을 국제적으로 강화하며 국내외 문화교류를 촉진한다는 내용(제2조), 국제문화교류 전담 기관 스위스 문화재단에 관한 법적 지위(제30조-제34조), 문화진흥 메시지 수립 및 의회 승인에 관한 의무(제35조) 등을 포함함

부록 표 28 스위스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적 근거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연방헌법	연방 차원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문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근거로 기능
문화진흥법	스위스 연방의 문화지원과 국제교류 정책을 규율하는 기본법
연방 해외 스위스 이미지 증진	스위스에 대한 긍정적 태도, 다양성, 혁신성을 홍보하는 국가 브랜딩 정책을 총괄

▶ 「연방 해외 스위스 이미지 증진에 관한 법률(Bundesgesetz über die Pflege des schweizerischen Erscheinungsbildes im Ausland)」¹¹⁰

• 해당 법률은 스위스 대외 홍보처(Presence Switzerland)의 활동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로, 목표는 스위스 국가 이익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 대외 홍보처의 주요임무는 스위스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스위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시키며 스위스의 다양성과 매력을 해외에 알리는 것임

108 Swiss Confederation. (1999).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SR 101).

109 Swiss Confederation. (2000). Bundesgesetz über die Pflege des schweizerischen Erscheinungsbildes im Ausland (SR 194.1).

110 Swiss Confederation. (2000). Bundesgesetz über die Pflege des schweizerischen Erscheinungsbildes im Ausland (SR 194.1).

② 주요 제도·정책

▶ 스위스의 국제문화교류 주요 정책은 문화 메시지와 스위스 대외 홍보처 계획임

• Kulturbotschaft(문화 메시지)는 향후 4년간의 연방 문화정책 방향의 전략을 수립하고 문화정책 수행을 위한 지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함

- 주요 내용은 스위스 문화재단의 핵심 임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스위스 문화의 대외 홍보, 예술 창작 지원, 스위스 내 상이한 언어권 간의 문화교류 촉진 및 그 외 각종 제도적 지원이 포함됨

- 그중 '문화 부문 협력(Zusammenarbeit im Kulturbereich)'¹¹¹은 3가지 부문(국내, 범부처, 국제)으로 구분되며, 국제 부문 협력으로는 EU를 통한 다자 간 연계 정책, 스위스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해외 거점 강화가 있음

부록 표 29 문화메시지 2025-2028 주요 활동 분야

구분		내용
문화메시지 2025-2028 주요 활동	근무 환경	문화 분야 전문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전문적 조건과 기회균등 개선
	자금 지원	창의적 가치 창출 프로세스 전반을 포괄하는 자금 지원 조치 고려 및 새로운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제안의 적응
	디지털화	문화 주체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새로운 디지털 및 하이브리드 제작, 유통 및 중재 형식 고려
	지속 가능성	문화 부문의 지속 가능성 지원 및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성을 통한 사회적 응집력 증진
	문화유산	스위스의 유형, 무형, 디지털 문화유산의 보존, 개발 및 전달과 역사적으로 부담스러운 문화유산의 투명한 처리
	협력	문화 주체 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다른 정책 분야 및 국제 문화정책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문화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국제 협력 부문	다자 간 정책 협력	EU를 가장 중요한 국제 문화정책 파트너로 규정 정치적 문제로 EU의 '크리에이티브 유럽(Creative Europe) 2021-2027'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2025년 EUPA(EU Programmes Agreement) 체결로 향후 문화 분야의 협력 재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
	스위스 문화재단 지역 거점	국제 문화교류 핵심기관인 스위스 재단의 해외 사무소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의 스위스 문화 홍보 및 교류를 강화

자료: Federal Council(2023)

• Presence Switzerland(스위스 대외 홍보처) 계획은 스위스의 소프트파워 구성 및 스위스의 해외 이익 보호를 정책 목표로 연방 외무부(FDFA)의 연간 예산을 통해 충당하며, 국제 행사(예: 세계박람회 등)가 있을 시 추가예산을 편성함

- 주요 내용은 연방정부가 4년 주기로 스위스 대외 홍보처의 임무를 조정한다는 점이며, 2025-2028년의 3대 전략 우선순위는 신뢰, 혁신, 지역협력으로 설정되었음. 이 전략과 계획은 스위스의 안정성과 신뢰, 현대성과 매력, 그리고 지역성이라는 다층적 가치를 글로벌 무대에 투영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고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둠

111 Federal Council (Switzerland). (2023). Botschaft zur Förderung der Kultur in den Jahren 2025–2028 (Kulturbotschaft). Federal Office of Culture.

부록 표 30 2025-2028 스위스 대외 홍보처 전략의 3대 우선순위

구분	내용
신뢰	스위스의 안정성, 신뢰성 강조. 스위스가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임을 지속적으로 알림
혁신	스위스의 현대성, 매력 강조. 전통적인 이미지(관광, 금융 등)를 넘어, 스위스가 과학, 연구, 첨단 기술, 지속가능성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국가임을 홍보
지역협력	스위스의 지역성 강조. 스위스의 외교 및 경제적 이익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파트너 그룹(유럽연합 및 G20 국가)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자원을 집중 투입

자료: Presence Switzerland(n.d.)

다. 주관/전담기관 및 운영구조

① 주관/전담기관

▶ FOC(연방문화청)은 스위스 연방의 문화정책 전문기관으로 운영됨

• FOC는 스위스의 핵심 정체성인 문화다양성 기반 문화를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의 필수 요소로 다루며 구체적인 임무는 문화 창의성 증진, 문화 참여 강화, 문화유산 보존, 건축문화 옹호, 기반 문화 지원, 사회 통합, 국제적 역할로 구분됨¹¹²

- FOC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 분야는 창의문화, 문화유산, 건축문화, 언어 등을 포함하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음

부록 표 31 FOC의 주요 임무 및 담당 문화 분야

	구분	내용
주요 임무	문화 창의성 증진	문화 창작 활동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는 것을 지원
	문화 참여 강화	국민들이 문화생활에 폭넓게 참여하는 것을 강화
	문화유산 보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높이는 데 기여
	건축문화 옹호	지속가능하고 수준 높은 건축 문화를 옹호
	기반 문화 지원	아마추어 문화, 살아있는 전통, 전통 수공예를 지원
	사회 통합	다국어 사용을 장려하고, 스위스 내의 여러 언어 및 문화권 간의 이해 증진
	국제적 역할	국제 무대에서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다양성을 위해 노력
담당 문화 분야	창의문화	예술, 디자인, 영화 등 스위스 창작 환경의 기반이 되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 문화상품, 문화종사자-기관 등이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
	문화유산	스위스의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의 기반이 되는 공유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함 불법 문화재 반출 방지 등
	건축문화	‘건축은 문화이며 문화를 위한 공간을 창출한다’는 개념 아래, 건축 문화 전문기관 역할과 지속가능한 수준 높은 건축 문화 장려 및 건축 유산 보호
	언어	문화의 사회통합적 기능 강조를 목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언어 및 문화적 소수자를 인정하는 사회적 결속 강화, 다국어 사용 장려 등

자료: Presence Switzerland(n.d.)

부록 표 32 FOC의 산하 기관

	구분	내용
국립 도서관	스위스 국립 음반 보관소 (Schweizerischen Nationalphonothek)	오디오 유산(음반, 라디오 방송 등)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국가 음향 아카이브
	스위스 문학 아카이브 (Schweizerischen Literaturarchiv)	작가들의 원고, 서신, 유품 등 문학적 자료를 보관하고 연구하는 기관
	그래픽 컬렉션 (Graphischen Sammlung)	포스터, 판화, 사진, 원본 드로잉 등 스위스의 시각 및 그래픽 디자인 유산을 수집하는 컬렉션
	뒤렌마트 센터 (Centre Dürrenmatt Neuchâtel)	스위스의 저명한 작가이자 화가였던 프리드리히 뒤렌마트의 회화 작품과 문학적 유산을 전시하는 박물관
연방 직영 방문관	오스카 라인하르트 박물관 (Sammlung Oskar Reinhart)	수집가 오스카 라인하르트가 기증한 고흐, 르누아르 등 유럽 거장들의 회화 작품을 소장한 미술관
	빈첸초 박물관 (Museo Vincenzo Vela)	19세기 사실주의 조각가 빈첸초 벨라의 생가에 설립되어 그의 작품과 동시대 미술품을 전시하는 박물관
	뮤직 오토마톤 박물관 (Museum für Musikautomaten)	정교한 스위스 뮤직 박스부터 대형 자동 연주 악기까지 기계식 자동 악기(오토마톤)를 전문으로 전시하는 박물관
	장크트 게오르겐 수도원 박물관 (Museum Kloster Sankt Georgen)	스위스에서 가장 잘 보존된 중세 후기 수도원 단지 중 하나로, 당시의 프레스코화와 수도원 생활상을 보여주는 박물관
	연방 미술 컬렉션	스위스 연방 정부가 소유한 미술품 컬렉션을 관리하고 운영

자료: FOC (n.d.)

▶ 스위스 문화재단은 연방문화청(FOC)과 협력의 핵심 집행 기관에 해당함

• 스위스의 문화예술 진흥을 담당하는 연방문화청(FOC)과 국가 브랜딩을 담당하는 스위스 대외 홍보처가 있고 스위스 문화재단은 스위스 국제문화교류를 핵심 집행함¹¹³

- FOC가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산업을 관리함 스위스 문화재단은 더욱 구체적인 국제문화교류(레지던시, 해외 투어 지원 등)를 집행하는 협력 구조를 보임

- 주요업무는 스위스 예술가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창작 활동(공연, 디자인, 문학, 음악, 시각예술 등) 지원과 국내 차원에서 스위스 내 여러 언어권 및 문화권 간의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업무가 있으며, 국외에는 스위스 예술과 문화를 해외에 홍보·보급하고 주(Canton)나 지자체의 문화 활동을 지원함

-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은 국제 행사 참가 지원, 해외 투어 및 전시 지원, 번역 지원, 공동제작 및 레지던시 지원으로 구분됨

112 Federal Office of Culture (FOC). (n.d.). Home. Swiss Confederation.

113 Pro Helvetia. (n.d.). Pro Helvetia – Swiss Arts Council. Retrieved October 20, 2025,

부록 표 33 스위스 문화재단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실행 방식

구분	내용
행사 참가 지원	스위스 예술가들이 베니스 비엔날레, 아비뇽 페스티벌 같은 주요 국제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
해외 투어 및 전시 지원	스위스 예술가들의 해외 순회공연, 전시, 낭독회 등을 지원
번역 지원	스위스 문학 작품이 다른 언어로 번역·출판될 수 있도록 지원
공동 제작 및 레지던시	해외 사무소를 통해 스위스 예술가와 현지 예술가 간의 공동 제작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자료: Pro Helvetia(n.d.)

• 해외 사무소와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며 스위스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현지 문화 생태계 간 공동작업을 지원하며 지역 간 연결을 유도함

-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는 구체적으로 두 유형으로 구분되며, 문화센터는 유럽 내 핵심 문화도시, 연락사무소는 비유럽권 신흥 문화 거점에 위치함

부록 표 34 스위스 문화재단의 해외, 지역 사무소 주요 기능

구분	내용
지역 사무소	네트워크 형성 (현지 네트워크 연결) 스위스 예술가나 문화 프로젝트를 현지의 주요 문화 행사 기획자, 큐레이터, 기관에 직접 소개하고 연결 (공동 제작 기획) 스위스 예술가와 현지 문화 종사자가 함께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공동 제작 프로젝트 기획, 지원 (레지던시 운영) 스위스 예술가들이 현지에 머물며 연구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
	장기적 관계 구축 스위스-현지 문화 관계자들 간 관계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음
해외 사무소	문화센터 파리, 로마, 뉴욕, 샌프란시스코, 밀라노 등 주로 유럽과 북미의 핵심 문화 도시에 위치, 스위스 문화의 상설 쇼케이스 및 교류 거점 역할
	연락사무소 카이로, 요하네스버그, 뉴델리, 상하이 등 비유럽권 신흥 문화 거점에 위치, 현지 문화계와의 네트워킹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자료: Pro Helvetia(n.d.)

④ 스위스의 외교적·전략적 목적 Presence Switzerland(스위스 대외 홍보처)¹¹⁴

• 연방 외무부(FDFA) 소속의 공공외교 전담 기구에 해당하는 Presence Switzerland(스위스 대외 홍보처)는 2001년 관광이나 문화를 홍보하는 것을 넘어 스위스의 국가적 이미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전략적 목적으로 설립됨

- 1990년대 말 불거진 '휴면 예금(unclaimed assets)' 문제로 스위스 연방 정부는 국가 이미지를 방어하고 긍정적인 서사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중앙 집중식 홍보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스위스 대외 홍보처를 설립함

- 이후 2001년 스위스 국가 이미지 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에 2012년 문화 외교 기능을 통합하며 문화예술 자체의 진흥과 교류를 담당하는 연방문화청(FOC), 스위스 문화재단과는 구별되게, 문화를 공공외교, 해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부록 표 35 스위스 대외 홍보처의 홍보 전략

구분	내용
대형 이벤트 플랫폼	특정 기간 중 스위스를 물리적으로 경험케 하는 임시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주로 스위스의 첨단 기술과 지속가능성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전 세계의 정계, 재계, 언론계 리더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스위스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네트워킹의 중심지 역할 (사례) 세계 박람회 및 하우스 오브 스위스
타깃 그룹 공략	스위스의 국가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인물들을 대상으로 함 (사례) 방문 초청, 맞춤형 경험 제공
조정 및 협력	스위스라는 국가브랜드가 해외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일관성) 보장하는 거버넌스 도구로 전 세계 스위스 대사관 및 영사관과 직접 협력하여 현지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이행하고 연방 내 다른 부처들과 사전에 정책을 조율하여 메시지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며 국내외 민간 행위자(예: 기업, 금융기관 등)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
콘텐츠 및 디지털 전략	스위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각종 홍보 자료(브로슈어, 영상, 보도자료 등)를 개발하여 해외에 배포하며 스위스의 역사, 정치, 제도, 문화를 소개하는 8개 언어로 된 공식 국가 정보 웹사이트를 직접 관리·운영함

자료: Presence Switzerland (n.d.)

② 전담기관 운영구조(예산)

➤ FOC(연방 문화청)은 핵심 정책 부서를 크게 2개의 축으로 운영함¹¹⁵

• FOC(연방 문화청)은 연방 정부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2개의 축으로 문화유산 보존, 영화 진흥, 산하기관 운영 등에 예산을 집행함

- FOC의 문화메시지 정책 관련 예산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며 2025-2028년 전체 예산은 대략 9억 8,900만 프랑(대략 1조 7,800억 원)으로 파악됨

부록 표 36 연방 문화청 핵심 정책 부서

구분	내용
문화 창의성 및 다양성	문화 창의성(예술, 디자인, 문학, 공연 등), 영화, 문화와 사회(언어, 소수민족, 문화참여 등)
문화 유산 및 전파	박물관 및 컬렉션, 건축문화

자료: FOC (n.d.)

114 Presence Switzerland. (n.d.). Presence Switzerland – Promoting Switzerland's image abroad.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115 Federal Office of Culture (FOC). (n.d.). Home. Swiss Confederation.

▶ 스위스 문화재단은 취리히 본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사무소를 운영함¹¹⁶

- 핵심 문화교류 집행 기관으로 스위스 문화재단은 영화를 제외한 모든 예술 분야(공연예술, 디자인, 문학, 음악, 시각예술)를 담당함
- 예술가 창작 지원, 국내외 교류, 해외 네트워크(연락사무소) 운영, 레지던시 및 번역 지원 등에 예산을 집행하며 스위스 문화재단의 운영 예산은 문화메시지 정책 예산의 일부로 운영되며 2025-2028년 총 예산은 1억 8,690만 프랑(대략 3,340억 원)으로 추정됨

▶ 스위스 대외 홍보처는 기본예산과 특별예산으로 예산 이원화를 통해 운영됨

- 스위스 대외 홍보처는 2012년 외무부 내 '문화 외교 역량 센터(Competence Centre for Cultural Foreign Policy)'와 합병되면서, 스위스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 및 집행함
- 스위스 대외 홍보처는 기본 예산과 특별 예산, 2가지 성격의 예산으로 구성되며 특별 예산의 경우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관련 예산인 총 1,760만 프랑(대략 316억 원) 중 2/3을 연방 특별 예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됨. 나머지는 1/3은 민간 스폰서에서 충당함

라. 정책 추진 전략 및 교류 방식

① 교류 주체

▶ 스위스 국제문화교류는 국가(연방), 주(지자체), 기관, 민간 총 4가지 차원임

- 국가(연방) 차원은 국제교류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외교를 담당하며 연방 문화청과 대외 홍보처로 구분할 수 있음
- (연방 문화청) 국제기구(UNESCO 등)와의 협력, 국가 간 영화 공동제작 협정 체결, 문화유산 보호 및 반환과 같은 정부 대 정부(G2G) 차원의 국제교류 업무를 직접 관장함
- (대외 홍보처) 하우스 오브 스위스(House of Switzerland)나 엑스포 국가관 운영을 통해 스위스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교류 활동을 전개함
- 주(지자체)는 스위스 국제문화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류 주체로 사실상 스위스 공공 문화 지출의 약 90%는 연방 차원이 아닌 주(지자체) 차원에서 집행됨
- 연방 정부(FOC, 스위스 문화재단)는 주(지자체) 차원의 국제문화교류를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는 제네바, 취리히, 바젤 등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대형 박물관, 미술관, 오페스트라, 극장을 운영하며 자체적인 국제교류를 활발히 수행함
- 기관 차원은 크게 FOC 산하기관, 스위스 문화재단, 스위스 대외 홍보처, 총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음

116 Pro Helvetia. (n.d.). Pro Helvetia – Swiss Arts Council. Retrieved October 20, 2025,

117 Federal Office of Culture (FOC). (n.d.). Home. Swiss Confederation.

부록 표 37 기관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구분	내용
FOC	(국립도서관) 해외 도서관 및 아카이브와 문학/디자인 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 디지털 아카이빙 협력, 자료 교류 등을 수행 (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유럽 거장들의 작품이나 19세기 조각품을 해외 유수 미술관에 대여해주거나 해외 기관과 공동으로 기획 전시를 개최하는 방식 (미술 컬렉션) 스위스 작가들의 작품을 해외 미술관이나 비엔날레 등 전시 대어
문화재단	전 세계 주요 거점에 해외 사무소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스위스-현지 문화 기관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함 해외 거점을 통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위스 예술가와 현지 예술가 간의 국제 공동 제작을 기획하고 지원
대외 홍보처	자사 홍보 플랫폼에 스위스 문화예술가의 작품을 스위스의 혁신 사례로 활용

자료: FOC (n.d.); Presence Switzerland (n.d.); Pro Helvetia (n.d.)

- 민간 차원은 문화예술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문화교류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국제문화교류로 나뉘며, 문화예술 관계자 부문에서는 예술가, 디자이너, 작가 등 개인 창작자와 문화단체들이 실제 국제문화교류를 수행하고 대중 부문은 하우스 오브 스위스, 엑스포관 등을 운영함

② 교류 내용 및 방식

▶ 연방 문화청(FOC) '문화재 해외 이전 전문기구'와 국제 문화재 반환 협력¹¹⁷

- 문화재 해외 이전 전문기구와의 국제 문화재 반환 협력은 스위스가 불법 문화재 밀거래의 경유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네스코 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이전 문화유산을 위한 재정 지원과 스위스 문화유산 보호, 다른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 기여, 박물관 반환 보장, 미술품 거래 및 경매 사업을 위한 특별 실사 등을 추진함
- 문화재의 합법적인 반환을 통해 국가 간 양자 외교 관계 강화와 양자 협정 체결, 불법 문화재 압수 및 반환, 그리고 국제 공조, 이렇게 총 3단계의 협력절차가 이뤄짐
- 2023년 5월 기준, 양자 간 협정 체결 국가는 이탈리아, 이집트, 그리스, 콜롬비아, 중국, 키프로스, 페루, 멕시코, 터키임

부록 표 38 문화재 해외 이전 전문기구의 협력 절차

구분	내용
양자 협정 체결	페루, 이집트, 중국, 멕시코 등 문화재 밀반출 위험이 높은 국가들과 문화재 반환 및 보호에 관한 양자 협정을 주도적으로 체결
불법 문화재 압수 및 반환	스위스 세관이나 경매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다 적발된 문화재 (예: 고대 유물, 식민지 시기 약탈 문화재)를 압수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원산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환하는 외교 행사 주관
국제 공조	유네스코(UNESCO), 인터폴(Interpol)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문화재 보호 및 밀거래 방지를 위한 정책 공조를 수행

자료: FOC (n.d.)

• 2024년 12월, 스위스 시민에 의해 페루 유물 2점이 반환되어 페루의 수도 리마로 귀환되었으며 이 사례를 포함해 지난 1년 동안에만 78점의 페루 문화유산이 이와 유사한 자발적 반환 결정을 통해 스위스에서 페루로 반환됨

- 정부의 압수 절차가 아닌 수년간 이 유물들을 소유해 온 가족의 자발적 결정으로 이뤄졌으며 스위스 시민들의 자발적인 반환 결정이라는 점에서 스위스와 페루 양국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가짐



부록 그림 9 페루 유물 반환

자료: FOC 홈페이지(<https://www.bak.admin.ch/bak/en/home/cultural-heritage/transfer-of-cultural-property.html>.)

스위스 문화재단 상하이 해외 사무소 현지 네트워크 기반 국제 예술 교류

• 스위스 문화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닌 스위스 예술가들과 중국의 역동적인 문화 현장 간의 장기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해외 사무소를 통한 글로벌 협력으로 현지 밀착형 문화예술 교류를 수행하며 스위스 예술가들에게 중국 시장과 네트워크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예술가 간의 공동 작업을 촉진함

• 교류 내용 및 방식은 대표적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공동 제작 펀딩, 그리고 현지 행사 참가 지원이란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됨

부록 표 39 기관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구분	내용
아티스트 레지던시	스위스 예술가(시각예술, 디자인, 등)를 선발하여 일정 기간 상하이나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에 체류시키며 현지 기관과 협력하여 창작 및 리서치 활동을 지원
공동 제작 펀딩	스위스 예술가/단체와 중국 파트너가 함께 새로운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할 경우, 이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펀딩을 제공
현지 행사 참가 지원	스위스 작가들의 중국 내 도서전 참가(번역 지원 포함), 스위스 디자이너들의 상하이 디자인 위크 참가, 갤러리들의 '웨스트 번드 상하이' 등 주요 아트페어 참가를 지원

자료: Pro Helvetia Shanghai (n.d.)



부록 그림 10 중국 작가 수오 얼의 낭독회

자료: Château de Lavigny (2025. 7. 16.)

- 2025년, 광저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중국 문학 작가 수오 얼(Suo Er, 索耳)이 2025년 레지던시 선정 예술가로 선정되었고 해당 작가는 스위스 소재 국제 작가 레지던시 기관인 샤토 드 라비니(Château de Lavigny)에 거주하며 낭독회(Reading) 등 교류 활동을 진행함

스위스 대외 홍보처의 대형 이벤트 플랫폼 활용 국가 브랜딩 전략

• 스위스의 혁신, 신뢰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 네트워킹 플랫폼을 제공하며 임시 플랫폼 구축, 미디어 허브, 브랜딩, 총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됨

부록 표 40 스위스 대외 홍보처의 국가 브랜딩 전략

구분	내용
임시 플랫폼 구축	올림픽 개최 도시(예: 2024 파리)나 엑스포 행사장(예: 2025 오사카), 다보스 포럼 행사장 등 핵심 장소에 스위스를 상징하는 임시 국가관(Pavilion)을 설치
미디어 허브	스위스 선수단 메달 축하연, 스위스 기업들의 신기술 발표회, 해외 미디어 브리핑, 고위급 인사 초청 리셉션 등을 개최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브랜딩	방문객들은 건축 디자인, 전시 콘텐츠, 제공되는 음식과 이벤트를 통해 스위스의 '혁신성'(기술,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안정감, 품질)을 오감으로 체험함

자료: Presence Switzerland (n.d.)

• 2024년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기간 동안 파리 7구에 위치한 주프랑스 스위스 대사관(Hôtel de Besenval)의 정원에 2층 규모의 메종 스위스의 파빌리온을 운영함

- 메종 스위스는 일반적인 패쇄형 국가관과 달리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면 개방되며 스위스의 문화를 체험하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며 스위스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



부록 그림 11 2024 메종 스위스

자료: Hosue of Switzerland (n.d.)

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흐름

▶ 문화외교의 시작과 법적 기반 형성

-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문화예술을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며, 외교 다변화의 전략 및 국가 브랜드 제고의 일환으로 국제문화교류를 시도함
-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국제문화교류의 정의 및 지원 근거가 명시되기 시작하며 법적 기반이 형성됨
- 이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前,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을 통해 주로 순수예술 중심의 일반적 파견 및 소개 형태의 제한적 지원체계가 시작됨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1972. 8. 14., 법률 제2337호)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정 1991. 5. 31., 법률 제4363호)

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 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화회·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당시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이하 KF)'이 1991년 설립되어 문화교류를 포함한 학술, 인적 교류를 담당하며 국제교류의 외연을 확대하고 문화가 국가 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함

▶ 한류 확산과 함께 문화산업 연계 및 지원 기관 전문화

- 1993년 영화 <쥬라기 공원(Jurassic Park)>이 흥행하며, 김영삼 정부(1993~1998)가 문화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화산업국'을 설치하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118 이동연·양현미 외, 『한국 문화정책의 이해』, p.336.

- 이후 김대중 정부(1998~2003)에서 '한류'를 포함한 문화산업 지원정책의 체계가 본격적으로 실행¹¹⁸⁾

- 김대중 정부는 문화산업 관련 최초의 계획 수립, 「문화산업진흥진흥 기본법」의 제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을 통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동시에 KF에서는 해외 박물관/미술관의 한국 전시 지원 등 학술 연계형 문화교류 사업을 확대하며, 한국학과 한국 문화를 묶는 정책을 추진함

- 노무현 정부(2003~2008)는 드라마와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지속적 확산에 대응해 콘텐츠의 질적 성장과 유통 기반 강화에 집중함

- 200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 합의회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ARKO)'로 출범하면서 국제 예술교류 지원 사업을 체계화하기 시작함

- 2006년 순수예술 분야의 국제 유통,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 등 예술의 산업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KAMS)'를 설립함

- 이명박 정부(2008~2013)는 한류를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면서 대외 경제 협력 및 외교 영역에 적극 연계하기 시작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이하 KOFICE)'을 통해 한류 확산 지원을 전문화하기 시작함

▶ 문화예술산업의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 활용 및 교류 정책 전문화 심화

- 전통예술을 포함한 순수예술을 '문화융성'의 근간으로 인식했던 박근혜 정부(2013~2017)는 문화와 산업, 기술의 융합을 강조한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활용하며,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출범 등 K-컬처로 국가브랜드 가치 높이는 데 주력함

-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주요 대외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다변화를 시도했던 문재인 정부(2017~2022)는 주요 계획으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2020) 수립, 민관이 함께 참여한 '한류협력위원회' 운영, KOFICE의 전담기관 지정 등 교류의 전문성을 확보함

▶ K-컬처 전략의 자산화와 공동 협업 중심의 교류방식 다변화

- 최근 3년간의 윤석열 정부(2022~2025)는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목표를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통한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 강화'에 두고, 순수예술 분야에서는 'K-아트'라 명명하며, 단순 지원을 넘어 해외 유통 및 거점 활용을 극대화함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국내 연극의 현지화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ARKO는 사업 연계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해외 방송사·콘텐츠사와 한국 제작사 간 공동제작을 위한 지원 등 '공동 기획 및 협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이처럼 일방향 교류 지원, 창작 중심의 교류에서 공동 기획, 장기 협력 기반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류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를 전담하는 정책 조직이 재편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제 문화 전담 부서인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2024년 신설함
- 한국 문화의 해외 홍보를 담당했던 '해외문화홍보원'이 문체부 소속기관에서 본부 조직으로 편입됐으며, 해외 한국문화원과 주요 기관과의 교류망을 구축, 관계부처와 협업을 확대, AI를 활용한 국제 여론 분석을 담당함

나. 법·제도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국제문화교류가 정부의 정책적 책무로 제도화됨

-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가 세계적 문화현상으로 성장함에 따라, 문화교류를 국가브랜드로 인식하게 되었고 정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교류 활동을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제정됨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는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담기관 지정,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단일 법률의 주된 목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법으로 이전의 개별 법률들이 단편적으로 다룬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함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정 2017. 3. 21., 법률 제146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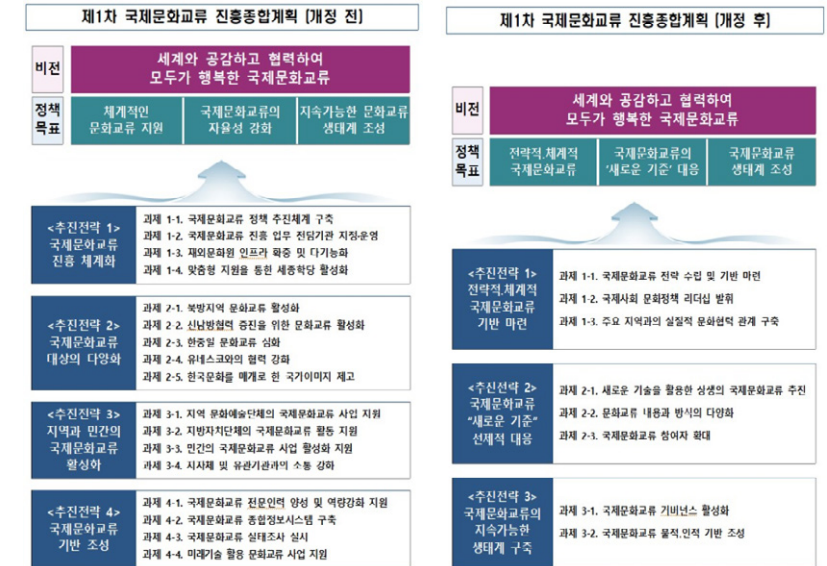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9.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기반 마련

-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은 법정계획으로서 유관기관의 역할 설정, 정부와 지자체의 법령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처음으로 제시함
- 주요 내용은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라는 비전하에 ①체계적인 문화교류 지원, ②국제문화교류의 자율성 강화, ③지속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 조성이라는 3가지의 정책목표를 담음
- 4대 추진전략으로는 <추진전략 1>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추진전략 2>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 <추진전략 3>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추진전략 4>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으로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이후 코로나19 등의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한 개정안을 발표함

- 개정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문화예술로 한정돼 있던 국제문화교류의 영역을 '체육' 분야까지 포함했으며, 개정 전 4대 추진전략을 3대 추진전략으로 통합 및 체계화함
- 통합된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추진전략 1>은 신북방·신남방·중국 등 전략적 문화교류 대상 국가를 설정하였으며, <추진전략 2>는 코로나로 인해 이동 제약에 따라, 비대면 교류, 기술 활용 등의 다변화를 꾀하였으며, <추진전략 3>은 자생적 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체계를 보완함



부록 그림 12 제1차 종합계획 개정 전/후

자료: (좌)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 (우)문화체육관광부(2020),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 개정판」

- 제2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23~2027)의 비전은 '전 세계로 통하는 독보적 매력의 K-컬처, 글로벌 시민과 동행하는 문화 솔루션 플랫폼'이며, 3대 추진전략과 8대 추진과제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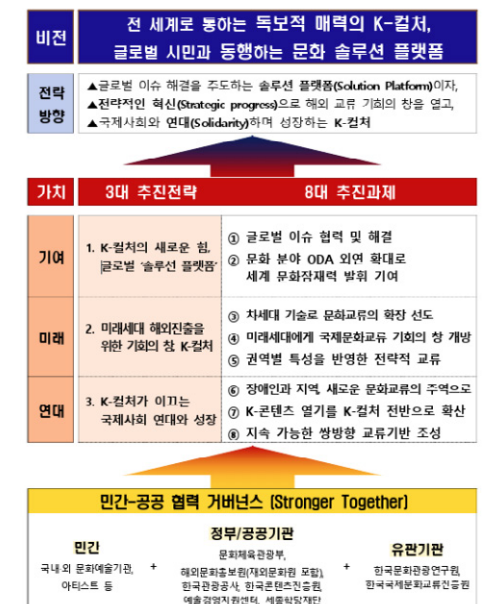
- 2차 계획은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쌍방향 교류 기반 조성, 신기술을 통한 문화교류 확장, 포용적 문화교류, 글로벌 이슈 협력 및 해결, 민간의 유기적 협력 등을 강조함

부록 그림 13

제2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3), 「제2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23~2027)」



▶ 한류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원 기반 확립

- 한류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 동력이자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기존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체계적인 진흥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2024년 제정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정 1999. 2. 8., 법률 제5927호)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전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제1조에서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 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법은 중·장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제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함

다. 주관/전담기관 및 운영구조

① 주관/전담기관 현황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12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전담기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2003년 아시아문화교류재단으로 출범해 조사연구, 문화교류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으로 명칭 변경, 2018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및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지정됨

- 민간과 공공의 중간지원 조직 성격으로 출범해 한류 확산과 국제문화협력 지원 사업 본격화

- K-컬처 부상 등 한류 활성화에 기여하며, 국가 간 상호이해 및 우호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해외진출 지원, 조사연구 등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업무와 기능을 단일 전문기관으로 집중시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정 2017. 3. 21., 법률 제14627호)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유관기관 기능 중복에도 불구하고, 국제문화교류의 법적·제도적 추진 기반 확립

- KOFICE가 국제문화교류 진흥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여전히 KOCCA, ARKO, KAMS 등 산하기관들과 일부 영역에서 기능적 유사와 중복성이 존재함

-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 속에서 KOFICE는 문화교류의 ‘현장 파트너’로서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국제교류’와 ‘해외진출’은 교류 중심인지, 산업·수출 중심인지에 따라 개념이 구분되지만,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두 영역이 쉽게 중첩되는 한계가 나타남

- 예를 들어 K-pop은 콘텐츠 수출 촉진과 관객과의 상호교류라는 성격을 함께 지니며,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경계가 융복합되고 지원 대상 또한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함

부록 표 41 유관기관 법적근거 및 미션, 비전, 전략과제 비교

구분		내용
KOFICE	법적 근거 및 주요 사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문화교류의 전략 수립, 조사·연구, 네트워크 허브 역할, 대규모 국가 간 교류 행사, 해외문화교류 전문가 양성 및 교류 등 포괄적 ‘교류’ 지원
	미션	국가 간 문화교류 사업으로 국제 협력 기반 조성
	비전	경계를 넘어 연결하고 문화로 소통하는 국제문화교류 현장 파트너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국제문화교류 생태계 조성) ①전략국 문화교류 고도화 ②국제문화교류 매개 기능 강화 ③한국문화 국제사회 기여도 확대 (글로벌 한류 지속 성장성) ④K-컬처의 일상화 ⑤한류 융복합 환경 조성 지원 ⑥한류 정보 공신력 강화 (혁신경영 체계 정착) ⑦윤리·인권경영 내재화 ⑧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⑨효율적 조직환경 조성
KOCCA	법적 근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방송, 게임, 음악, 만화 등 K-콘텐츠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고 해외 마켓 참가 지원, 비즈니스 매칭, 현지화 지원 등 ‘산업적 진출’ 지원
	미션	콘텐츠산업 진흥으로 문화강국 실현과 국민행복에 기여
	비전	넥스트 K를 선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
	전략방향	K-콘텐츠 경쟁력 강화, K-콘텐츠 세계화 확대, 콘텐츠산업 지속성장 기반조성, 선도적 기관 경영혁신
	전략과제	①세계적인 콘텐츠IP 발굴·육성 ②AI·신기술 콘텐츠 시장 선점 ③콘텐츠산업 R&D 지원 강화 ④해외진출 거점 강화 ⑤해외진출 지원 체계 고도화 ⑥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⑦미래인재 양성, 창업 활성화 ⑧정책금융 활성화, 투자유치 기반 강화 ⑨지역 주도 산업생태계 조성 ⑩글로벌 사업추진 역량 강화 ⑪정책기능 고도화, 고객 서비스 강화 ⑫콘텐츠 산업 책임경영 선도

구분		내용
ARKO	법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문학, 시각, 공연 등 순수예술 분야 작가 및 단체의 해외 초청·진출, 국제 협업 및 공동제작 지원 등 '예술적 교류' 및 창작 역량 강화 목적
	미션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
	비전	문화예술과 국민을 잇고, 문화예술의 내일을 함께하는 아르고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문화예술의 창의성 발현) ①창작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원 영역 확장 ②문화예술 인적자원 육성 ③아르고 창작플랫폼 특성화 ④창작 성과의 국민 체감 확대 및 대외 확산 (문화예술의 매력 국민 공유) ⑤취약계층 향유 프로그램 다양화 ⑥일상 속 문화예술 경험 확산 ⑦미래의 문화예술 향유자 발굴 (문화예술의 가치 공감과 지지) ⑧예술가치 사업 다각화 ⑨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⑩예술자원 추적 및 활용 (선진형 예술위원회 경영모델 확립) ⑪예술정책 선도 및 파트너십 강화 ⑫조직운영 전문성 및 효율성 확립 ⑬ESG경영 선도 및 강화 ⑭기관 브랜드가치 및 고객 만족 향상
KAMS	주요 사업	예술단체의 해외 아트마켓 및 아트페어 시장 진출에 특화된 사업이 주를 이루며, 경영 컨설팅, 투자유치 연계 등 '시장(유통)' 측면 지원
	미션	예술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
	비전	예술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예술경영 전문 기관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한국예술 경쟁력 강화) ①문화예술 창제작·유통 지원 확대 ②한국예술 해외진출 강화 (예술 지속 성장 기반 조성) ③정보 생산 및 확산 ④예술인력·단체 육성 (공정·책임 기반 경영 혁신 체계 확립) ⑤효율·생산적 경영 혁신 체계 마련 ⑥지원 체계 재정비

▶ 한국국제교류재단(외교부)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KF는 외교부 산하의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 광범위한 국제 교류 사업을 수행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정 1991. 12. 14., 법률 제441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KF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각종 행사를 주관하거나 지원하고, 국내외 인사의 초청 및 파견, 한국학 연구 지원 및 보급하는 업무를 주로 추진함

부록 표 42 KF의 법적근거 및 미션, 비전, 전략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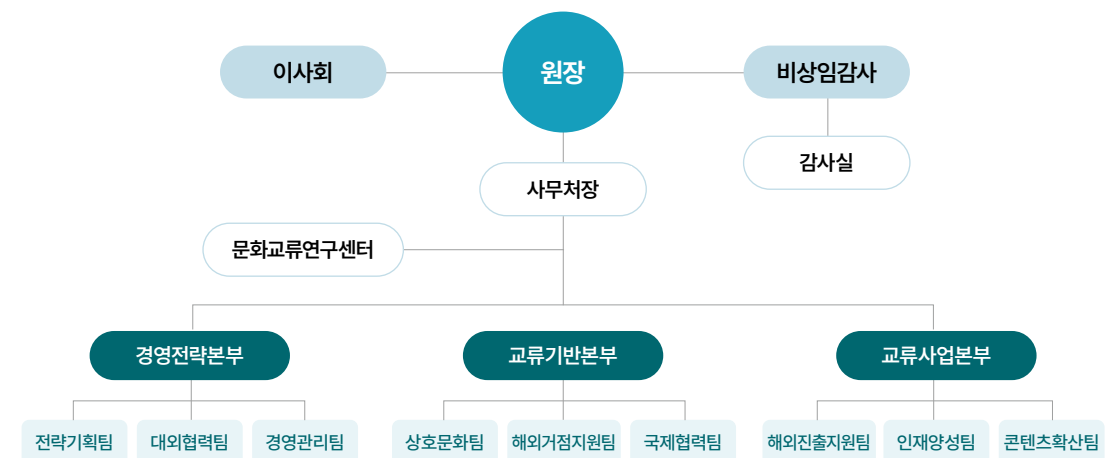
구분	내용
법적 근거 및 주요 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해외 한국학 진흥,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문화교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주로 전시, 프로그램, 연구를 지원
미션	대한민국의 대표 공공외교기관으로서 외국와의 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
비전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플랫폼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고도화) ①전략적 인적 네트워크 및 대화채널 강화 ②외교전략지역 중심 정책 플랫폼 활성화 ③글로벌 가치 연계형 사업 고도화 (글로벌 한국학 성장기반 확대) ①한국학 저변 확대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②차세대 한국 전문가 전략적 양성체계 강화 ③온·오프라인 연계 강화로 한국학사업 고도화 (문화기반 공공외교 지속성 강화) ④글로벌 문화공공외교 인프라 역량 확대 ⑤쌍방향 문화교류 네트워크 고도화 ⑥국민·청년 공공외교 역량 강화 (혁신 중심 미래경쟁력 제고) ⑦경영·사업·조직 혁신 및 전사적 효율성 강화 ⑧ESG 소통 중심 지속가능경영 고도화 ⑨대내외 협업·전환경영 통한 미래성장 동력 개발

② 전담기관 운영구조

▶ KOFICE는 글로벌 문화교류 사업 추진,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 조성, 한류 정책 연구를 통해 수행하여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민간 교류를 지원하고 있음

- KOFICE는 1처, 1센터, 3본부, 9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직은 국제문화교류 전문 역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문화 확산, 민간교류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교류사업본부)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계기별 문화교류 행사 및 협력사업
- (교류기반본부)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기반조성 및 각종 지원사업
- (문화교류연구센터) 콘텐츠 해외동향 조사 및 정보제공 등



부록 그림 14 KOFICE 조직운영도

자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누리집(<https://kofice.or.kr/>)

▶ KOFICE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정책적 역할에 따라 크게 매개 기능, 집행 기능, 연구 기능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매개 기능)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주체를 연결하고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매개자 역할
 - 국가 간 문화이해 증진과 우호 증진을 위한 고위급 대화 채널인 '문화장관회의' 및 '상호 문화교류의 해' 등의 행사 지원과 해외 우수 플랫폼과 민간 예술 단체를 연결하는 쌍방향 국제문화교류 협업 지원 등이 매개 기능에 해당함
- (집행 기능) 대규모 행사 개최와 직접적인 지원,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
 - 해외 주요 계기 또는 전략 지역 대상 한국 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코리아시즌' 및 '수교계기 문화행사'와 전문인력 해외파견 등을 집행 기능으로 볼 수 있음
- (연구 기능) 매년 해외 한류 현황 및 추이 파악

라.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진 주체 및 내용, 방식

① 교류 대상

▶ 전통적인 문화교류 국가를 넘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제도적 협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신흥 전략 지역 파트너) 한류의 새로운 확산 지역이자 개발 협력의 수요가 높은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을 주요 전략 지역으로 설정하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KOFICE는 이 지역 국가들과 '미래혁신 문화교류 사업' 등 장기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일회성 교류가 아닌 장기적 차원의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공공 및 민간 유관 기관) 해외 문화원, 비영리 단체 등 외국 문화센터 또는 국제개발 파트너기관들을 협지 협력 주체로 활용하여 문화예술산업의 간접 확산 채널로 삼거나,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참여시킴

▶ 문화교류의 저변 확대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계층과 집단을 파트너로 포용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음

- (청년) 잠재적 한류 소비자이자 차세대 창작자로 성장할 청년 예술가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젝트, 해외 파견 지원 등을 제공해 글로벌 협업 역량을 키우고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게 함
- (지역) 수도권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지방 문화도시의 문화 활동가 및 예술가들을 발굴하여 국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적 다양성을 포괄하도록 함
- (민간) 공공기관 지원을 넘어 자발적인 국제활동을 하는 민간 예술단체를 실질적 교류 파트너로 설정하고 이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매개 및 재정을 지원함

② 교류 내용

▶ K-컬처의 산업적 도약과 글로벌 시장 내 국제적 위상 강화

- 영화, 음악 등 핵심 콘텐츠를 넘어 패션, 음식, 관광 등 연관 산업까지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형 페스티벌 등의 사업과 한류의 지속가능한 일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 주요 행사 일부 코너 중 체험부스에서는 한글 쓰기, 떡볶이·식혜 등 한식체험과 웹 드라마 방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한류 팬들에게 한국의 일상문화를 전파함

▶ 전통예술을 포함한 무형문화유산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교류 강화

- 전통예술, 공예, 의상 등을 부채춤과 현대무용의 융합, 3D 미디어 아트, 태권도 퍼포먼스 등 현대 예술기법과 결합해 세계 주요 축제와 플랫폼에서 선보이고 있음
 - 특히 한복, 판소리, 탈춤 등을 현대적인 콘텐츠 포맷으로 재창작하여 독일 뒤셀도르프 카니발, 밀라노 디자인 위크 등 해외 주요 축제 및 플랫폼에 소개함으로써 한국 문화예술산업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국제적으로 각인시키고 있음
 - 또한 전통문화 관련 학술 세미나, 장인 워크숍 등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지원하여 전통에 기반한 문화적 다양성 담론 형성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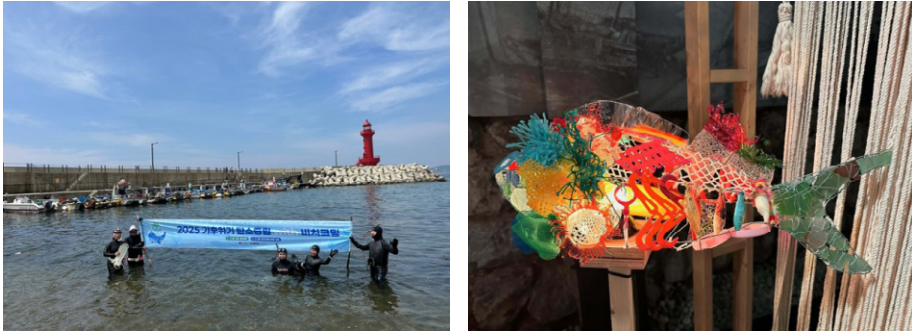


부록 그림 15 200주년 뒤셀도르프 카니발 행진

자료: 나복찬(2025.3.6.), "200년 그날의 축제, 뒤셀도르프-코레아 헬라우", 재외동포신문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926>)

③ 포용성 확대 및 예술의 사회적 역할 증진

- 평화, 인권, 환경, 젠더 등 글로벌 이슈를 담은 전시, 공연, 워크숍을 기획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치유 기능을 강조해 국제적 연대와 가치 공유의 장을 마련함
- 부산문화재단은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치코밍' 활동을 예술 프로젝트와 결합하여 추진하였으며, 수거된 해양 쓰레기를 활용해 업사이클링 예술 작품 제작 및 전시를 통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림



부록 그림 16 비치코밍 행사 및 전시작품

자료: (좌)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bscf.or.kr/portal/bbs/view.do?mId=0403000000&bIdx=45423&ptIdx=115>)

(우) 김은영(2025.6.19.), "해녀-예술가-시민이 참여하는 이색 비치코밍 행사",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60423100333184>)



부록 그림 17 잘츠부르크 세미나 현장

자료: (좌) 참여자 개인 블로그(<https://blog.naver.com/cococoxon/222977926058>)

(우)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https://soci.ajou.ac.kr/kr/ajou/news02.do?mode=view&articleNo=74232&article.offset=310&articleLimit=5>)

- ARKO는 현시대 문화예술의 역할에 관심 있는 청년 예술가를 지원해 평화, 정의 및 안전,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지구촌 이슈에 대한 소통과 해결책 모색을 목표로 매년 세미나를 개최함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세계 50여국에서 선발된 35세 이하의 젊은 문화 혁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고, 교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③ 교류 방식

▶ 한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주도하고 지역-국가-국제 간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

- 화성시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정조 효 문화제'는 지역 고유의 역사자원인 용·건릉에서 왕실 장례문화 및 궁중정재를 기반으로 제작한 공연을 상연하고, '영유원 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프랑스 몽펠리에 꼬레디시 페스티벌에 참여함
- 창작 무용과 지역 전통문화 키트를 교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축제 기간 중 몽펠리에 시민들은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맥간(麥秆) 공예 키트를 체험하는 등 도시와 도시의 교류, 지역 예술인, 행정, 민간의 협력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민간 주도 전략적 파트너십

- 정부 재정 부담 없이 민간 자본을 활용해 문화교류의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민간 주도의 파트너십이 운영되고 있음
- 현대카드와 미국 뉴욕의 MoMA의 파트너십은 민간 간 기업의 자본력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립 전문기관의 전문성이 결합된 형태
- '큐레이터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MoMA 큐레이터가 한국 현대 미술을 연구하고, 국내 큐레이터가 MoMA 전시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예술가와 기획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지식 기반의 공동 협력을 통해 예술 생태계 역량을 강화함
- MoMA의 연구 서전 시리즈(primary documents series) 한국편을 공동제작함으로써 한국 근현대 미술의 학술적 사료를 확보하고 위상을 국제적으로 정립하는 지식 생산 중심의 공동제작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부록 그림 18 현대카드 MoMA의 큐레이터 교류 프로그램

자료: 현대카드 DIVE(<https://dive.hyundaicard.com/web/main.hdc>)

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흐름

▶ 태국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시작과 제도화(1960~2010년대)

- 1960년대 베트남 전쟁과 미군 주둔을 계기로 태국은 전통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시작하며, 고전 무용·쿤마스극연극·무에타이·음식 등을 문화외교 수단으로 활용해 국가 이미지 개선과 관광 수입 증대 목표를 추구함
- 1960년 태국관광청(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TAT) 설립을 기점으로 문화외교와 관광 진흥의 연계 체계가 형성되어, 선점 효과를 통해 인근 국가 대비 문화적 우위 확보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함
- 2001년 세계 최초 체계적 '가스트로디플로마시(Gastrodiplomacy)'¹¹⁹ 도입으로 글로벌 타이 프로그램·타이 셀렉트(Thai SELECT) 인증제를 통한 본격적인 음식 외교를 도입함
- 2002년 외무부 문화관계부 설립 및 2015년 공공외교 정보부서(Public Diplomacy Information Division)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적 기반을 강화함
- 외무부·문화부·관광체육부·상무부 등 4개 주요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문화·음식·관광을 3대 핵심 자산으로 통합 추진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형성함

▶ 최근 3년간 태국 국제문화교류 정책(2022~2025년)

- 뽀랏웃(Prayut Chan-o-cha) 정부의 '5F 정책(Food·Film·Festival·Fighting·Fashion)'에 서 세타 정부의 '11개 창조산업' 정책으로 확장함
- 케이팝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게임·음악·서적·예술·디자인·관광을 추가로 소프트파워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리사(블랙핑크)·뱌뱌(GOT7) 등 태국 출신 아티스트를 계기로 음악 분야 집중 투자 및 글로벌 문화 트렌드 선도전략을 추진함
- '문화부 2023~2027' 계획에서 소프트파워 상품·서비스의 상위 15개 수출 품목 포함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영화제 홍보 및 글로벌 영화 타이틀 판매를 위한 전문협상가 양성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함
- BL 드라마 장르 글로벌 선도지위를 활용한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확산 전략 강화와 아기하마 '무맹' 등 바이럴 콘텐츠에 동물 문화대사를 활용하여 전통적 하향식 문화외교에서 유기적 문화 확산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을 벤치마킹한 태국창작협회(THACCA) 설립 추진을 통해 분산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원 패밀리 원 소프트파워(One Family One Soft Power, 이하 OFOS)' 정책을 통해 2,000만 국민의 창조적 인력 양성 목표를 설정함

- (OFOS 정책) 태국 전체 2,000만 가구에서 가구당 최소 1명의 고급 창의적 기술을 갖춘 근로자를 양성하여 각 가구가 연간 최소 20만 바트(약 550만 원)의 소프트파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창의인재 개발 정책을 추진함
- (창의력 인큐베이션 센터 운영) 전국에 하위 지구→지방→국가 수준의 3단계 창의력 인큐베이션 센터를 설치하여 전 국민이 접근 가능한 업스킬-리스킬 교육 제공, 기초부터 전문가 수준까지 레벨별 교육과정 운영 및 잠재력 증명서를 발급함
- (해외 유학 장학금 프로그램) 국내 교육과정 이수 후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을 원하는 수혜자에게 무료 해외 유학 장학금을 제공하여 글로벌 수준의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
- (THACCA와의 연계 체계) OFOS 정책으로 양성된 2,000만 명의 창의적 근로자를 위해 THACCA가 최소 2,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재 개발 정책'과 '일자리 창출 기관'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함
- (치앙마이 지역 소프트파워 프로젝트) 총 7,900만 바트(한화 약 33억 9천만 원)를 투입하여 상위 50개 제품 강화 1,100만 바트(한화 약 4억 7천만 원), 고부가가치 관광 개발 6,800만 바트(한화 약 29억 9천만 원) 등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



부록 그림 19 (좌) 5F 정책 홍보포스터, (우) OFOS 홍보 포스터 및 대상 분야

자료: (좌) 태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thailand.go.th>),
(우) THACCA, Homepage(<https://ofos.thacca.go.th/aboutus>)

- 2022년부터 태국 외무부와 태국 재단(Thailand Foundation)은 '태국 공공외교상(Thailand's Public Diplomacy Award)'을 공동 운영하여 국민과 단체의 대외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 향상에 기여함^{120, 121}
- 태국 외교부가 국제사회의 친선과 우호 증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태국의 공공외교와 소프트파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행하고 국제교류 및 태국 문화·역사 학술단체(The Siam Society Under Royal Patronage)와 협력해 유산·문화 홍보 사업을 진행함

119 국가의 음식 문화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문화외교의 한 형태. 2002년 《이코노미스트》지가 태국의 음식 문화 세계화 정책을 소개하면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위(胃)를 통해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의미에서 음식을 통한 소프트파워 전략을 의미

120 <https://www.mfa.go.th/en/content/tpda2024-en>

121 <https://thailandfoundation.or.th/thailand-public-diplomacy-award/>

부록 표 43 태국 재단, THACCA 비교

구분	태국 재단(Thailand Foundation)	THACCA(Thailand Creative Culture Agency)
설립 목적	태국의 공공외교 및 소프트파워 증진, 대외 이미지 홍보	문화콘텐츠·창작산업 진흥 및 소프트파워 산업 기반 구축
주관	태국 외무부 산하 비영리 공공외교 기관	태국 문화부 산하 창의문화산업 육성 국가기관 (2027년 법제화 예정)
주요 역할	국제사회 내 태국 이미지 제고 공공외교사업, 문화·관광 홍보 'Thailand Public Diplomacy Award' 운영	영화, 음악, 게이밍, 디자인, 패션, 음식, 예술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체 지원 정부·민간 협력, 해외 진출 촉진 창작자·기업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대표 사업	Thailand Public Diplomacy Award (태국 공공외교상) 국제교류, 태국 문화 홍보 활동	콘텐츠 제작 지원 국제영화제 및 T-Expo 개최 예정 창의산업 인재 재교육 프로그램(5.25백만 달러 규모) 글로벌 전문가 멘토링, 해외 연수 사업 등

나. 법·제도

▶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 설치에 관련 총리령을 제정함

• [총리령 제290/2566호]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 설치에 관한 총리령¹²²

- 한류와 같은 아시아 소프트파워 경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 차원의 문화산업 조직적 육성 의지 표명하며 전략·개발·실행의 3단계 조직 체계를 통해 14개 창조산업 분야에서의 소프트파워 증진 달성 목표, '①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 수립 및 추진 ② 소프트파워 산업 발전 촉진 ③ 창조경제 및 문화산업 육성'을 설치 목적으로 명시함

• [총리령 제216/2566호] 국가 소프트파워 개발위원회 설치에 관한 총리령

- 총리령 290호에 근거한 개발 위원회 설치 및 구체적 실행 기구 조직 설립, 50여 개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 정부 차원의 총동원 체계를 구축함

- 총리령 290호가 14개 분야 전략 설정이었다면 216호는 50여개 기관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누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화하고 문화예술진흥청·소프트파워진흥청·관광관련청 등 전문기관과 특별전담위원회를 운영하여 정부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 정부 차원의 총동원 체계를 마련함

▶ 국가 소프트파워 강화를 목적으로 태국 창조문화 진흥법(THACCA법)을 발의함

• 창조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 소프트파워 강화를 목적으로 총리실 주관(최고책임자 총리)하에 태국창의문화진흥원(THACCA) 설립과 12개 창조문화산업 분야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함

- 12개 산업(축제·관광·스포츠·게임·패션·디자인·음악·영화·예술·도서·음식 등)과 기타 정책위원회 추가 지정 분야까지 포괄하며 최대 4년을 기점으로한 국가 전략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함

• THACCA를 공공기관(독립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정책 지원·예산 조정·연구개발·컨설팅·홍보·투자 유치·교육 훈련·인프라 조성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 창조문화 진흥기금(정부 출연금·정부복권 수익·관광세·투자 수익·기부금·과태료 등)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직접 지원·연구개발·긴급 지원·투자·운영비 등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

▶ 국가 전략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관련 조항인 태국 창조문화 진흥법안 제4장

• 태국 창조문화 진흥법안 제4장 국가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의 이원적 계획 체계를 통해 장기비전과 단기실행의 연계성 확보 및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 동시 달성을 목표로함

- 국가 전략계획(제44조)은 장기 국가 정책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12개 창조문화산업 분야 모두를 포함하는 종합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계획(제47조)은 최대 4년 기간의 구체적 추진 방안 및 예산을 포함함

- 각 부처별 역할 분담과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한 전략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여 4년마다 국가 전략계획 재검토 시기와 실행계획 수립 주기를 일치시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 국가 전략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관리를 통한 창조문화산업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 수립 시 명확한 비전·목표·전략을 설정하고 정기적 성과평가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 문화부 소프트파워 진흥 중기계획(2023-2027) 수립

• 문화부 수립 2023~2027년 소프트파워 진흥 중기계획을 통해 소프트파워 상품과 서비스를 국가 상위 15개 수출 품목에 포함시키는 구체적 목표와 실행방안을 마련함

- (목표) 소프트파워 상품·서비스의 상위 15개 수출 품목 진입을 통한 국가 경제 기여도 제고, 문화산업의 수출 주력 산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 (분야) 음식·영화·패션·무술·축제·엔터테인먼트는 물론 미신과 신성한 것들(superstitious beliefs and sacred things)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문화 자원 활용

- (전략)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상품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문화적 정체성과 상업적 가치의 조화

• 국제 영화제 홍보 및 태국 영화 판매를 위한 전문협상가 양성 등에 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

- 국제 영화제에서 태국 영화 홍보 활동 체계화, 칸·베니스·베를린 등 주요 국제 영화제 참가 지원 및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글로벌 무대에서 태국 영화 타이틀 판매를 담당할 전문협상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국제 계약 협상 기술, 저작권 관리, 배급 전략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함

- 최근 영화제에서의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해 제작부터 수출에 이르는 영화산업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

다. 주관/전담기관 및 운영구조

① 국가 소프트웨어 위원회 조직구조(주관기관)

▶ 상원 위원회

- 총리령 제290/2566호 및 제216/2566호에 의거하여 구성된 3단계 위원회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함
 - (국가 소프트웨어 전략위원회(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ยุทธศาสตร์ซอฟต์แวร์แห่งชาติ))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전략 수립, 정책 방향 설정, 부처 간 조정 및 예산 배분 등 거시적 정책 결정 담당
 - (국가 소프트웨어 개발위원회(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พัฒนาซอฟต์แวร์แห่งชาติ)) 50여 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실행 조정 기구로서 전략위원회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부처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운영
 - (14개 분야별 산업추진 소위원회(คณะอนุกรรมการขับเคลื่อ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 14 คณะ)) 각 산업별 세부 추진 업무 담당,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 및 성과 관리
- 50여개 정부기관 참여를 통한 전 정부 차원의 총동원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전문성과 자원을 결집하여 소프트웨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여 각 기관별 전문 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소프트웨어 정책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중복 투자 방지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부록 표 44 국가 소프트웨어 개발위원회

구분	기관명
정부부처·행정조직	공공보건부, 관청청, 관세청, 국가혁신청, 국세청, 농촌지역개발청, 문화예술진흥청, 법무부위원회 관련 기구(교육·청소년·아동 분야), 사회복지부, 소프트웨어개발기구, 소프트웨어진흥청, 예술청, 전국 토지개발청, 전략 지식재산청, 전략기획청, 태국체육청, 홍보청
공공기관·국가기관	공익단체, 디지털경제진흥청, 외교부 산하 공공외교 부서, 지역 창작센터(지방 창의허브), 창조경제진흥원, 태국 창조디자인센터, 해외문화홍보단체
민간·산업단체	게임·e스포츠 산업협회, 농업·수공예 단체, 디지털위원회, 미술산업·미술인 협회, 방송·미디어 협회, 사회적기업·스타트업 대표, 산업연합, 여성·다양성 대표 기구, 영화·영상협회, 외국영상제작협회, 음악산업협회, 장애인·사회약자 문화단체, 전통문화 단체, 지역축제 조직위원회, 출판산업·도서협회, 태국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패션디자인 협회, 푸드·외식업 협회, 혁신기술·메타버스 협회
학술·연구기관/전문가 대표	11개 소프트웨어 산업별 분과위원회(영화·음악·음식·패션·디자인·게임/e스포츠·출판·미술·관광·전통문화·스포츠), 유명 예술가·셀럽 대표(배우, 감독, 아티스트), 주요 대학 대표, 청년대표·학생대표, 학계·연구기관(대학 연구소 포함)

▶ 15개 분야 산업별 추진 소위원회

- 분야별 산업 추진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산업별 맞춤형 정책 추진 체계 마련하고 각 산업의 특성과 발전 단계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을 실행함

부록 표 45 산업별 추진 소위원회

구분	분야	소위원회명
① 핵심 산업분야 소위원회	문화예술	예술산업 추진 소위원회(ท่องเที่ยว)
		공연예술산업 추진 소위원회(ศิลปะการแสดง)
		음악산업 추진 소위원회(ดนตรี)
		디자인산업 추진 소위원회(การออกแบบ)
	콘텐츠	영화·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산업 추진 소위원회(ภาพยนตร์ สารคดี และแอนิเมชั่น)
		게임산업 추진 소위원회(เกม)
		도시산업 추진 소위원회(หนังสือ)
	라이프 스타일	음식산업 추진 소위원회(อาหาร)
		패션산업 추진 소위원회(แฟชั่น)
		주류·음료산업 추진 소위원회(เครื่องดื่ม)
	체험 이벤트	관광산업 추진 소위원회(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
		스포츠산업 추진 소위원회(กีฬา)
		페스티벌산업 추진 소위원회(เทศกาล)
② 지원·운영·정책 소위원회		소프트파워 국제회의 관리 조정 소위원회 (คณะอนุกรรมการ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การประชุมนานาชาติด้านซอฟต์แวร์) (소프트파워 포럼 담당)
		경제사회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법률 초안 작성 소위원회 (คณะอนุกรรมการจัดทำร่างกฎหมายว่าด้วยการพัฒนาซอฟต์แวร์เพื่อเศรษฐกิจและสังคม)

② 태국 창의문화진흥원(THACCA) 조직구조 및 운영체계(전담기관)¹²³

- 태국 창조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설립 예정인 공공기관(독립법인) 형태의 전문 실행기관으로서 창조 문화산업 진흥 및 국가 소프트웨어 강화 전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 (법적 지위)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 한국의 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를 모델로 한 통합적 문화산업 진흥기관
 - (설립 근거) 태국 창조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설립 예정, 본부는 방콕 또는 인근 지역에 위치하며 필요시 해외 지부 설치 가능
 - (조직 특성) 기존 부처별로 분산된 문화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정책 지원부터 현장 실행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제공

123 현재는 국가소프트파워전략위원회(National Soft Power Strategy Committee)의 산하기관인 전략전환 사무국(Strategic Transformation Office, STO)의 창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식설립 전 단계. 2025년 말 발효예정. 공식적인 설립 이후에는 기존 창의경제진흥원(Creative Economy Agency)을 대체하며, 소프트웨어 진흥 미션을 STO로부터 완전히 이관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

- 국가 창조문화 진흥 정책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동시 확보함
 - (정책위원회 구성) 위원장(총리), 당연직 위원(11개 부처 장관), 전문위원(12~16명) 등 총 24~28명으로 구성
 - (협력 체계) 기획재정부·외교부·관광체육부·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디지털경제사회부·상공부·내무부·노동부·문화부·교육부·산업부 장관 등 11개 부처 참여로 범정부적 협력
 - (주요 기능) ① 국가 전략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② 정부 부처 간 조정 및 감독 ③ 법령 개선 건의 ④ 기금 관리 감독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

부록 표 47 THACCA 8대 핵심업무

핵심업무	상세 내용
정책 지원	국가 창조문화 전략계획 수립 지원 및 부처별 정책 조정, 창조문화산업 트렌드 분석 및 정책 제안을 통한 정부 정책 결정 지원
예산 조정	정부 부처별 창조문화 관련 예산 배분에 대한 전문적 조언 제공, 중복 투자 방지 및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한 정책 효과성 극대화
연구개발	창조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 시장조사, 정책연구 등을 통한 산업 발전 기반 조성, 국내외 모범사례 연구 및 정책 벤치마킹
컨설팅	창조문화 분야 개인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화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밀착형 지원
홍보	국내외 태국 문화상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해외 진출 촉진
투자 유치	창조문화 분야 자금 조달 및 투자 연결 서비스, 벤처캐피털·엔젤투자자와의 매칭,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 등 금융 지원
교육훈련	창조문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재교육·신기술 교육 제공,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인프라	창조문화 거점 조성 및 운영, 공용 제작시설·장비 제공, 창작 공간 및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을 통한 창작 생태계 조성

부록 표 48 THACCA 주요 사업

사업 분야	상세 내용
콘텐츠 제작·개발 지원	86개 프로젝트(영화, 시리즈, 애니, 다큐 등) 2.2억 바트 지원 ¹²⁴ , 예: 9 Temples To Heaven
글로벌 진출 지원 및 콘텐츠 마켓 개최	국제영화제 ¹²⁵ , T-Expo, SPLASH 포럼 ¹²⁶ , 마스터클래스,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킹
창작자 인큐베이팅 및 인재양성	창조문화 분야 개인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화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밀착형 지원 ¹²⁷
민간 협력·해외 기관 네트워킹	국내외 태국 문화상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해외 진출 촉진
세제 혜택·로케이션 인센티브	창조문화 분야 자금 조달 및 투자 연결 서비스, 벤처캐피털·엔젤투자자와의 매칭,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 등 금융 지원

라. 태국의 국제문화교류 현황: 교류 주체, 내용, 방식 분석

- 정부 주도의 소프트파워 전략과 민간 역량의 결합을 통해, 전통과 현대, 지역성을 성공적으로 접목한 국제문화교류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 UNESCO 등재를 통한 태국전통문화의 국제적 인정 확보,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BL 드라마와 음악 페스티벌의 글로벌 성공 등은 모두 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재해석과 국제적 확산 전략 결과로 볼 수 있음

① 교류 주체

▶ 정부-민간 기업 협력

- 태국 문화부와 UNESCO는 2018~2023년 총 4개의 무형문화유산을 연속으로 등재함¹²⁸
 - 태국 문화부 산하 문화진흥부(Department of Cultural Promotion, DCP) 주도로 매년 5개의 국가 문화 아이콘을 선정하여 UNESCO에 제안함¹²⁹
- 태국 문화부와 'ICONSIAM'는 문화부 현대미술진흥기금과 양해각서(MOU) 체결함
 - Contemporary Art Promotion Fund 네트워크 파트너 및 Winter Art Fair Festival을 공동 주최하며 문화부 산하 Office of Contemporary Art and Culture를 통해 현대미술진흥기금으로 2018~2025년 총 8,700만 바트를 지원함
- 'THACCA (Thailand Creative Culture Agency)'는 제작사 'Be On Cloud'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통합 스튜디오를 운영함
 - Be On Cloud는 'KinnPorsche' 제작으로 유명한 BL 드라마 제작사이며 완전 통합 스튜디오 모델로 제작부터 아티스트 관리까지 수행하며 'Shine' 시리즈 등을 통해 태국 문화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함. THACCA의 소프트파워 산업 통합 지원 정책의 주요 수혜 대상임
- 'Creative Economy Agency(CEA)'는 음악 산업에 14억 바트 규모의 재원을 투입 및 관리하며, 창의경제 분야 전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
 - THACCA가 공식기관으로 전환 시 해체될 예정이며 이후 THACCA로 통합되어 창의경제청 이사회가 임시로 THACCA 이사회 역할을 수행함

124 <https://streamlined.news/thailand-creative-content-agency-2025-funding-news/>

125 <https://deadline.com/2024/11/thailand-creative-culture-agency-chalermchatri-yukol-1236167476/>

126 <https://thailand.prd.go.th/en/content/category/detail/id/48/iid/296541>

127 <https://www.kocis.go.kr/kocc/>

128 <https://www.m-culture.go.th/en/>

129 https://culture.go.th/culture_en/

-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는 태국 제품·서비스·관광 홍보를 연계해 국가 차원의 소프트파워 전략 수립 및 정책을 조정함

- 전략전환사무소(Strategic Transformation Office, STO) 운영 및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후 국가창의 문화정책위원회로 전환되어, 창의문화 촉진 전략 및 실행 계획 수립 담당 예정임

- 상무부-민간제작사 협력을 통해 상무부는 제작사와의 협력을 통한 BL 콘텐츠 해외 판매를 주관하며 태국 문화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함

- DITP는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의 정부 기관이자, 태국 왕립정부(Royal Thai Government) 소속¹³⁰으로 1952년에 설립되어 73년의 역사를 가진 무역 진흥 기관임¹³¹

- 전 세계 58개 Thai Trade Centre를 운영하며 태국 기업의 국제 진출을 지원하며 국제무역진흥청(DITP)에 BL 콘텐츠 해외 판매 마케팅 등을 연결하고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함

▶ 정부 주도 다자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

- ‘방콕 문화예술센터(Bangkok Art and Culture Centre, BACC)’는 예술 네트워크¹³²를 통해 독일, 영국, 일본 등 다국가 문화기관과 협력함¹³³

- 방콕 시민 사회와 예술문화 네트워크의 협업으로 2008년 설립되어 전시, 음악, 공연, 도서관 등의 시설이 모인 복합 허브로 기능하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Wuju Bakery 프로젝트’는 태국의 ‘Be On Cloud’와 한국의 ‘Hanyang Studio’ ‘A-Plan’의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이자 BL 콘텐츠 공동 제작의 선구적 사례로 다국가 협력을 통한 아시아 BL 시장 확대, 제작, 배급, 마케팅의 국제적 분업 체계를 구축함

- 태국 Be On Cloud와 한국 A-Plan International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BL 콘텐츠 공동 제작 및 배급, 아시아 시장 공동 진출 전략을 수립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협력의 성공 모델로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에 기여, 글로벌 BL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함

- ‘Studio On Saturn 공동 관리 시스템’은 Jeff Satur가 2023년 2월 Be On Cloud를 떠나 독립적으로 설립한 아티스트 주도형 협력의 새로운 모델임

- 태국-한국 간 엔터테인먼트 산업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Be On Cloud’와 파트너십을 맺고 제작은 한국의 ‘Hanyang Studio’에서 담당하며, ‘Studio On Saturn’에서 관리해 아티스트 중심의 독립 스튜디오와 대형 제작사가 국제적 분업을 통한 효율적 콘텐츠 제작 체계를 마련함

130 LinkedI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DITP)”, n.d.

131 The Nation Thailand, “DITP: Thailand’s Gateway to Global Trade Success”, September 7, 2025

132 <https://artinculture.kr/webzine/art-education-2022>

133 <https://culture360.asef.org/insights/cultural-mobility-interview-luckana-kunavichayanont-bangkok-art-and-culture-centre-bacc/>

부록 표 48 BACC 대표 사업 목록

분야	사업명	상세 내용
국제 예술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문화교육 국제 심포지엄	테이트모던(영국), M+뮤지엄(홍콩), 모리미술관(도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 등 18개 이상의 아트센터가 참가
아세안 및 아시아 지역 문화 파트너십	Bangkok ASEAN Art and Culture Festival	BACC가 주관하는 동남아시아권 최대의 예술·문화축제 중 하나. 동남아시아 미술관 및 컬렉터와 연대하며, 아세안 경제공동체 및 사회문화 공동체의 비전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	‘One Bangkok’ 프로젝트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예술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외 예술가, 건축가, 기술자와 협력하여 진행한 공동 창작 프로젝트
아시아 및 유럽 문화 기금·네트워크에 참여	Asia-Europe Foundation(ASEF), Arts Network Asia(ANA) 참여	국제 문화 네트워크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아시아-유럽 문화모빌리티 기금 등 글로벌 연계 네트워크 확대
교육 및 창작 프로그램	도서관 팟캐스트	예술창작을 교육하는 팟캐스트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위기 시대의 예술’ 대담, <고령화 사회와 현대 미술전> 개최	전 연령대의 시민을 대상,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는 대담 및 전시 개최
	‘아트 매니저 트레이닝’	전국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는 예술 교육 제공
artHUB@bacc	태국 방콕 아트 & 컬처 센터(Bangkok Art and Culture Centre, BACC) 내에 위치한 큐레이팅된 리테일 공간으로 예술가 제품 전문 상점과 카페가 모인 공간으로 태국의 현대 예술과 디자인 문화를 접할 수 있음. BACC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함. 현대 미술 전시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의 역할	

▶ 민간 교류

- 방콕 짜오프라야 강변에 위치한 ‘아이콘시암(ICONSIAM)’은 총 540바트를 투자해 문화공간과 쇼핑몰을 조성한 태국 민간 부문 최대 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평가됨

- 상업시설을 넘어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ICONSIAM Art & Culture’ 설립을 통한 예술가 지원 체계 구축과 민간 기업의 자발적 문화 투자 사례이자 민간 부문의 공공역할 수행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함

- 국내외 예술가 개인과의 직접 협력하거나 민간 전시기획사 관련 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민간교류 활성화와 신진 예술가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하고 전시공간 무상제공, 마케팅 및 홍보지원, 작품 판매 기회를 제공함

부록 표 49 ICONSIAM Art & Culture 대표 사업

전시명	참여예술가
Lost in DOMLAND ¹³⁴	우돔 타에파닉(Note Udom)
The Art Walk Exhibition ¹³⁵	토모코 콘노(Tomoko Konno, 일본) + 8명 태국 예술가 ¹³⁶
TORITO DE PUCARÁ	5명 태국 예술가 ¹³⁷ + 디에고 코르네호(Diego Cornejo, 페루)



부록 그림 20 아이콘시암(ICONSIAM)

자료: 아이콘시암(ICONSIAM) 홈페이지, (<https://www.iconsiam.com/th/attraction>)

• ‘파트라바디(Patravadi)’ 극장 국제 레지던시는 1992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공연예술 민간 운영¹³⁸ 공간으로 태국의 유명 배우이자 연출가, 극작가인 파트라바디 메주돈(Patravadi Mejudhon)이 설립함¹³⁹

- 현재는 파트라바디의 딸인 벨바디 스리트라이라타나(Velvadi Sritrairatana)와 가족들이 운영하며 정부 지원이 없는 가족 중심의 완전한 민간 독립 운영 기관으로 교육-공연-레지던시 통합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부록 표 50 파트라바디(Patravadi) 극장 국제 레지던시 대표 사업

사업명	시기	주요 내용	특징
VIC Hua Hin 예술 복합단지 운영	2010년 ~현재	종합 예술 복합 단지 운영 (극장, 갤러리, 숙소, 학교)	320석 극장, 매주 토요일 정규 공연
Patravadi School Hua Hin	2010년 ~현재	태국 최초 공연예술 중심 대안 고등학교	정규 교육 + 예술 교육 통합 (발레, 전통 음악, 드럼 등)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Artist-In-residence) 운영	연중 상시	국제 예술가 대상 창작 레지던시 및 교류	숙박 제공, 태국 전통예술 수업, 국제 협력 프로젝트
Bangkok Fringe Festival	연례 행사	국제 공연예술 페스티벌 개최	2010년부터 화헌에서 개최, 다양한 국내외 공연

134 <https://laotiantimes.com/2025/07/11/>

135 <https://www.bangkokpost.com/life/arts-and-entertainment/3074046/>

136 Pim Suttikan (พิมพ์ สุตทิศา), Chanakan Semachai (ชานกานต์ เสมอชัย), Kritsaya Luengnantakul (กฤษยา ลึงอนันตกุล), Vinita Setthasunthon (วินิตา เศรษฐสุนทร), Prisita Thansiri (ปริสิตา ธารศิริ), Kamolchanok Phanuwet (กมลชนก พนุเวช) 외 2명

137 Chira Chirapravati Na Ayudhaya (ชิระ จิราประวัติ ณ ออยุธยา), Professor Sukumarl Sarakasetri (ศ. สุภมาล สารกษेत्र), Nakrob Moonmanas (นาครบ มูนมนัส), Wasinburee Supanichvoraparch (วสินบุรี สุภนิชวรพารค์), Somnuek Klangnok (สมนึก กลางนอก)

• 태국 극장 재단(Thai Theatre Foundation, TTF)’은 태국 극장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설립된 단체로 태국과 미국 양국에서 활동함¹⁴⁰

- 2018년 태국에서 비공식 단체로 시작해 2019년 5월 미국 뉴욕에서 501(c)(3) 자선단체로 정식 등록, 세금 면제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부록 표 51 TTF 대표 사업

사업명	상세 내용
Theatre Fund	현대 태국 극장 및 극장 서비스 단체에 운영 보조금(Operating Grants)과 파트너십 보조금(Partnership Grants) 지원
Theatre Classroom	공연예술 행정 관련 지식 공유 및 교류(기사, 비평, 팟캐스트, 영상, 웨비나 등)
Theatre Hub	예술가, 극장 단체, 예술 행정이, 관객 등 국내외 네트워크 연결 및 소통 지원
Theatre Survey	현대 태국 극장 현황 조사 및 연례 보고서 발행(‘Theatre Goers – Theatre Makers’)
Theatre Consultant	극장 단체 및 서비스 조직 대상 공연예술 행정 컨설팅 서비스 제공(무료, 맞춤형)
Theatre Advocacy	태국 정부 부문 현대 극장 정책 대변 및 공적, 정책적 지원 확보
Internship Program	예술행정, 모금, 비영리 경영 등 분야 인턴십 기회 제공(국내외 학사·석사 과정 대상)

• ‘시암 소사이어티(The Siam Society Under Royal Patronage)’는 1904년 설립된 왕실 후원 민간 비영리 문화 단체로 태국과 동남아시아의 순수예술 및 전통예술 보존·연구·교육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와 학술 교류를 선도하는 국제적 문화 학술 기관임

- 2013년 1904~2004년 의회 회의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며 2012년 태국 문화부로부터 지방·지역·국가 차원에서 “최고 문화단체” 지위를 수여받음

- 고고학, 미술, 건축, 문학, 공연예술 등 순수예술 전반과 태국 전통 무용, 음악, 공예 등 전통예술의 보존, 학술 연구, 교육을 핵심 활동으로 수행함

부록 표 52 시암 소사이어티(The Siam Society Under Royal Patronage) 대표 사업

사업명	시기	주요 내용	특징
Kamthieng House Museum	상시 운영	전통 북부 태국 가옥 박물관 및 민속학 전시	란나 문화 전시, 전통 공예품·가면·인형 컬렉션 보유
주간 강연 프로그램	연중 매주	예술, 역사, 문화유산 관련 영어 강연	국내외 학자·전문가 초청, 고고학·전통예술·현대예술 등을 다룸
문화 스터디 투어	연중 정기	태국·아시아 문화유산 현장 학습 여행	전문가 인솔, 유산 보존부터 인류학·식물학까지 다양한 주제

138 <https://culture360.asef.org/resources/>

139 <https://vichuahin.com/about/>

140 <https://www.thaitheatre.org/>

• ‘SEA Junction’는 태국 비영리 단체인 Foundation for Southeast Asia Studies(ForSEA) 산하에 설립된¹⁴¹, 2018년에 등록된 비영리 태국 재단으로¹⁴² 방콕 예술문화센터(BACC) 내 위치함

- 설립 파트너들이 각 2,500달러 기부 혹은 3년간 연 900달러를 약정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며 동남아시아 문화와 사회에 대한 지식 공유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문화 기관으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함
- 특히 예술, 문화, 경제, 개발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측면을 다루며, 일반인과 학자, 예술가, 학생 등이 자유롭게 지식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함

• ‘방콕 국제 공연예술 회의(BIPAM)’는 민간 예술가 집단¹⁴³이 설립한 조직으로 조직간 공동 프로젝트로 설립됨

- 2016년부터 연례공연예술 회의를 개최하며 방콕 기반의 공연예술 관리 서비스 조직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메인 페스티벌 외에도 공연 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조직으로 성장함
-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Thailand Convention & Exhibition Bureau(TCEB), 문화부 현대미술진흥기금, The Japan Foundation, Creative Economy Agency(CEA) 등의 지원을 통해¹⁴⁴ 공연 세미나, 쇼케이스, 워크숍 등이 진행되어 지역 공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있음

부록 표 53 방콕 국제 공연예술 회의(BIPAM) 대표 사업

사업명	시기	주요 내용	특징
BIPAM 국제 공연예술 페스티벌	2025년 3월 12-16일	동남아시아 및 세계 공연예술가 교류 플랫폼	6번째 개최, 7개국 6개 공연, 268명 참가, 테마: "The Tip of an Iceberg"
국제 공연 쇼케이스	페스티벌 기간 내 진행 연중 정기	현대 공연예술 작품 상영	Jim Thompson Art Center 등 방콕 시내 여러 장소(티켓 별도)
BIPAM Routes		방콕 예술 현장 투어	예술가와 창작 활동가의 관점으로 방콕 탐방 (티켓 별도)
공연예술 워크숍		실험적 사운드 창작, 극작 등 전문 워크숍	전문가 대상 심화 프로그램 (일부 유료)

• ‘B-Floor Theatre’는 1999년 배우, 연출가, 디자이너 그룹에 의해 설립된 비주류 독립극단^{145, 146}으로 예술가들의 자발적 협업으로 운영되는 민간 극단임

-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태국 공연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독립극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독일, 한국 등과 국제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함

부록 표 54 B-Floor Theatre 대표 사업

작품명(연도)	작품 상세 설명
〈A Thai Mirror〉(2022)	프랑스의 Compagnie franchement, Tu와 협업한 작품으로, 태국과 프랑스 사이의 정치적·로맨틱 관계를 탐구하고 양국의 언어와 이야기를 결합해 정치적 행동주의(activism)와 사회적 긴장 속에서의 개인적 관계를 다룸
〈I Don't Care〉(2019~2022)	독일 뮌헨의 Residenztheater와 함께 제작한 다큐픽션(docufiction)으로, 태국과 독일의 트랜스젠더들을 인터뷰하여 만든 작품으로 성 정체성, 트랜스젠더가 직면한 법적·사회적 어려움, 다양한 사회에서의 포용성 문제를 다룸
〈Something Missing〉(3부작)	한국의 극단 ‘몸골(Theatre Momggol)’과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신체 연극을 통해 복잡한 감정과 사회 문제를 표현
〈Girl X〉(2022)	일본의 Hanchu-Yuei 극단과의 협력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의 여파와 인간 내면의 상실을 주제로 하며, 일본 재단의 후원을 받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 ¹⁴⁷

• 드라마 제작사인 ‘GMMTV’는 OTT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태국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콘텐츠 제작, 아티스트 관리, 라이브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상품 및 라이선싱의 4가지 핵심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
- The One Enterprise의 관리 및 감독하에 One31과 GMM 25 채널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드라마, 텔레비전 시리즈를 제작해 2022년 기준 20개의 시리즈와 1편의 영화를 제작하는 등 활발한 콘텐츠 제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¹⁴⁸
- Asia TV Forum & Market(ATF), American Film Market(AFM) 등 국제 영화제 및 콘텐츠 마켓 참여를 통해 태국 프로덕션을 홍보하는 등 해외시장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킹 활동으로 태국이 아시아 콘텐츠 제작 및 프로덕션 경관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음

• 드라마 제작사인 ‘Be On Cloud’는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이자 연출가인 Krisda Witthayakhajorndet(Pond)가 설립함¹⁴⁹

- 2022년 매출 약 3억 바트(순이익 약 1억 바트)로 신생 제작사로서는 놀라운 재무 성과를 달성했고, Y 시리즈 콘텐츠 시장의 가치는 연간 약 20~30억 바트 규모로 추정되며, Be On Cloud는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며 더 높은 수익 성장이 예상됨¹⁵⁰
- 중국의 선도적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iQiy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작한 ‘KinnPorsche The Serie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최초의 태국 시리즈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Be On Cloud는 글로벌 동시 배급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용함

141 <http://seajunction.org/event/immigration-detention-and-alternatives-in-thailand/>

142 <https://altersea.hypotheses.org/sea-junction>

143 Bangkok Theater Network (BTN), Thail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Critics (IATC) center, Alliance of Performing Arts in Higher Education of Thailand (PATH)

144 <https://www.nationthailand.com/lifestyle/art-culture/40025699>

145 https://www.artsnetworkasia.org/content/travelgrants_bfloorTheatreGroup_prop.htm

146 <https://www.esplanade.com/offstage/arts/thailands-thriving-independent-theatre-scene>

147 <https://www.nationthailand.com/blogs/lifestyle/art-culture/40022685>

148 Prensario Zone, “GMMTV”, November 27, 2022

149 The BL Xpress, “MileApo: the Story Behind One of the Biggest BL pairing of Thailand”, May 2, 2024

150 Bangkok Post, “Thai TV drama firm seeks global soft power”, April 27, 2024

- 'MQDC(Magnolia Quality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은 태국의 민간 부동산 개발회사로 88rising과의 협력을 통해 Cloud 11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하고자 함
- 미국음반사 88rising은 Cloud 11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FAM Studios Bangkok을 설립했으며, 이는 신진 아티스트들을 위한 전용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레지던시 프로그램, 녹음 및 촬영 시설, 글로벌 작품 발표 기회 등을 제공¹⁵¹
- 2025년 7월 개최된 SPLASH - Soft Power Forum 2025에서 88rising은 공식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정부의 문화 비전과 연계됨¹⁵²
- Cloud 11의 성공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MQDC는 30개 이상의 글로벌 및 현지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주요 파트너로는 88rising, CJ ENM, SM True, New York Film Academy, 그리고 4회 그라미상 수상 프로듀서 James Fauntleroy가 공동 설립한 1500 Sound Academy 등이 포함됨¹⁵³
- 스튜디오 공간, 자금, 인재, 최첨단 장비, 교육 프로그램, 유통 플랫폼 등을 아우르는 상류(창작 교육)부터 하류(상업화 및 유통)까지의 완전한 가치사슬을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음악 산업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전을 실현하고 있음¹⁵⁴

② 교류 내용

▶ UNESCO 등재를 통한 전통예술의 글로벌 브랜딩 및 관광산업 연계 확대

- 2016년 UNESCO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이후 전통예술 등재를 추진하며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문화 브랜드가치 상승, 문화외교 및 관광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함
- 2018년 콘 가면무극(Khon masked drama), 2019년 태국 전통 마사지(Nuad Thai), 2021년 노라 남부 전통무극(Nora dance drama), 2023년 송크란 축제(Songkran), 2024년 톰얌쿵(Tom Yum Goong)과 커바야(Kebaya, 동남아 공동) 총 6개 항목이 등재됨¹⁵⁵
- 2026년에는 태국 전통 의상(Chud Thai)이 등재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무에타이(Muay Thai), 파카오마(Phakhaoma, 전통 천), 라이끄라통 축제(Loy Krathong) 등 4개 항목이 추가 등재 대기 중¹⁵⁶



부록 그림 21 UNESCO에 등재된 콘 가면 무극과 노라 남부 전통무극 사진

자료: (좌)UNESCO, <https://ich.unesco.org/en/RL/khon-masked-dance-drama-in-thailand-01385>,
(우)UNESCO, <https://ich.unesco.org/en/RL/nora-dance-drama-in-southern-thailand-01587>

- 2023년 UNESCO 등재 이후 송크란을 '세계 물 축제(World Water Festival)'로 리브랜딩하여 글로벌 축제로 확대함
- 2024년 문화진흥국은 마하 송크란 세계 물 축제를 전국 77개 주에서 4월 1-21일간 개최하여 국제 관광객 유치 및 전통문화 이해 증진을 추진함¹⁵⁷
- 송크란 축제는 전통 의례(사원 참배, 물 뿌리기)와 현대 음악 페스티벌을 결합하여 문화적 정체성과 상업적 성공을 동시에 달성하며 태국뿐 아니라 2025년 한국 서울에서 'S20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등 해외로 수출되며 글로벌 문화 브랜드로 성장 중임



부록 그림 22 태국의 송크란 축제(Songkran festival)사진

자료: UNESCO(<https://ich.unesco.org/en/RL/songkran-in-thailand-traditional-thai-new-year-festival-01719>)

- 태국을 아시아 '페스티벌 허브'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Tomorrowland Academy' 설립을 통한 국제 전문성 이전 및 인적 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함
- 2025년 태국 내각이 Tomorrowland 개최를 위한 5년 계약(2026-2030)을 승인하여¹⁵⁸, 2026년 12월 촌부리(Chonburi)에서 첫 개최 및 이후 매년 개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글로벌 페스티벌 브랜드와의 장기 파트너십 모델 구축함

- 151 PR Newswire, "88RISING LAUNCHES 'ROAD TO FAM - THE FINALE' WITH LEVI'S® AND FAM STUDIOS BANGKOK TO EMPOWER THE NEXT GENERATION", June 16, 2025
- 152 The Manila Times, "88RISING LAUNCHES 'ROAD TO FAM - THE FINALE' WITH LEVI'S® AND FAM STUDIOS BANGKOK TO EMPOWER THE NEXT GENERATION", June 16, 2025
- 153 The Manila Times, "Elevating Thailand's Creative & Entertainment Industry, Cloud 11 Collaborates with 30 Global Giants and Partners to Establish Itself as Asia's New Creative Destination", July 11, 2025
- 154 HR Asia, "MQDC Unveils Cloud 11 as Asia's Largest Hub for Content Creators with 'Empowering Creators' Concept", February 23, 2023
- 155 UNESCO, "Thailand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25; TAT Newsroom, "UNESCO Recognition for 'Tomyum Kung' and 'Kebaya' Enhances Thailand's Cultural Prestige", December 11, 2024
- 156 Nation Thailand, "Cultural Row Erupts as Thai Dress Seeks UNESCO Status Amid Cambodian Claim", July 7, 2025
- 157 Nation Thailand, "It's official: Songkran 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February 3, 2024
- 158 IQ Magazine, "Thailand approves five-year deal with Tomorrowland", August 12, 2025

- 2018년 UNESCO 등재 이후 시리깃 왕비 후원 재단의 지원 하에 ‘콘 가면무극’의 상업화 등 연례 대형 공연이 정례화됨

- 2024년 11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태국 문화센터에서 시리깃 왕비 92세, 국왕 72세 생일을 기념하는 특별 제작 공연인 ‘프라 차크라와탄(Phra Chakrawatarn)’ 에피소드 공연이 개최되었으며, 티켓가격은 600-2,000바트로 측정됨¹⁵⁹
- 방콕 그랜드 팰리스 방문객은 입장권(500바트)에 포함된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 살라 찰럼끄롱 왕립극장(Sala Chalermkrung Royal Theatre)에서 공연을 감상함¹⁶⁰

▶ 전통예술과 관광산업의 융합을 통한 소프트파워 강화

- 태국은 관광 상품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태국은 3,500만 명의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수입 1.8조 바트(약 500억 달러)를 달성하고¹⁶¹ 관광객 수는 2023년 대비 15.1% 증가했으며, 관광 수입은 2023년 1.24조 바트에서 43.8% 증가함¹⁶²
- 태국 관광청(TAT)은 2025년을 ‘어메이징 태국 그랜드 관광 및 스포츠의 해(Amazing Thailand Grand Tourism & Sports Year 2025)’로 지정하여 3,600만-3,900만 명의 국제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수입 1조 9,800억-2조 2,300억 바트 목표로¹⁶³ 93개국 시민 대상 60일 무비자 체류 허용, 16개 주요 국경 통과 지점에서 TM.6 입국 신고서 폐지 등 입국 절차 간소화 정책을 시행함¹⁶⁴
- 전통예술 교육 및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연계한 상호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 방콕대학교 ‘BU Theater Company’는 브로드웨이 라이선스 제작을 통해 국제 수준의 공연예술 교육 제공과 ‘파트라바디 극장(Patravadi Theatre)’ 태국 전통 무용·음악·드럼 마스터 클래스를 제공, 일본 부토(Butoh), 인도네시아 와양 쿨릿(Wayang Kulit) 등 아시아 무용 융합 실험을 진행함
- 치앙마이 ‘막함폼 시어터(Makhampom Theatre)’는 커뮤니티 극장 워크숍 및 훈련 세션을 통해 지역 예술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피췌 클런쉐(Pichet Klunchun)’은 전통 콘 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나는 악마다(I Am a Demon)’ 등 과 같은 실험적 작품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호평 받으며 다국가 아티스트 협력 프로젝트를 주도함

159 Nation Thailand, “Stage set for grand Khon performance to mark two Royal milestones”, November 3, 2024

160 The Grand Palace, “Khon Performance”, 2025; Renown Travel, “Khon masked dance show - Authentic Thai cultural experience”, 2025

161 Travel And Tour World, “Thailand Tourism Surpasses Expectations in 2024, Gears Up for Even Greater Growth in 2025”, December 31, 2024

162 Road Genius, “Thailand Tourism Statistics”, 2025

163 TAT Newsroom, “Thailand Welcomes Over 35 Million Visitors in 2024”, December 28, 2024

164 Forever Vacation, “Thailand Tourism Statistics | Updated For 2025”, August 1, 2024

165 SCB EIC, “Thai BL series growth expected to generate over 4.9 billion baht”, January 2025

166 Nation Thailand, “Thailand becomes the world's market leader for Y-series”, January 11, 2025

167 Dramallama, “BL Industry Growth: How the Fandom Exploded in 2024-25”, May 30, 2025

▶ 지역·장르·플랫폼 다양성 확대를 통한 포용적 문화교류 강화

- 방콕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지방, 청년,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를 교류 참여자로 확대하여 문화 교류의 저변을 확장하고, 글로벌 플랫폼 파트너십 및 디지털 마케팅 전략으로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포용적 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
- ‘88rising-THACCA’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기반 음악 레이블 88rising과 THACCA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FAM Studios Bangkok’을 설립함으로써 아시아 아티스트 발굴 및 제작 인프라 구축, Cloud11과의 파트너십과 같은 유통·마케팅 지원 체계를 마련함
- 후아람퐁 기차역 무료 공연 개최, MILL, BIBI, Seori, 청하 등 다국적 라인업 마련, 일반 대중 접근성 확대 및 문화 민주화 실현, 청년 아티스트에게 글로벌 네트워크 진입 기회를 제공

▶ BL 드라마·음악·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관광산업 연계 교류 확대

- 케이팝 영향을 받은 한류 중심의 문화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최근에는 BL 드라마, 음악, 페스티벌 등 태국의 문화콘텐츠를 관광산업과 연계한 교류로 전환됨
- 단순 콘텐츠 수출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BL 드라마-T-Pop 음악·국제 페스티벌 등 현대 문화콘텐츠를 관광 및 브랜딩과 연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진입, 국제 페스티벌 유치 등 문화산업 전반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태국 아티스트 및 창작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
- BL 드라마 중심 콘텐츠 수출이 관광산업과 직접 연계되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
- 시장 규모 및 창출에 관련해 SCB EIC(태국 시암상업은행 경제정보센터)는 태국 BL 시리즈 시장이 2025년까지 49억 바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¹⁶⁵
- 태국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제작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0.7%에서 2025년 3.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17% 성장률을 기록하며¹⁶⁶ 2024년 기준 아시아 BL 시장의 50% 이상으로 지난 10년간 340개 이상 시리즈를 제작함¹⁶⁷
- 또한 관광 연계 효과를 통해 BL 드라마 촬영지 방문 및 팬미팅 참석을 위한 국제 관광객 증가로 태국 지역 경제 기여, BL 스타들의 글로벌 브랜드 모델 계약 확산으로 태국 제품·서비스 간접 홍보 효과를 창출함

③ 주요 방식

▶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통해 자국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과 소프트파워를 강화함

- 온라인 전시, 가상 갤러리, 실시간 스트리밍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전통예술 교류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온라인 전시 및 공연 플랫폼을 활용해 ‘방콕 예술문화센터(BACC)’는 가상 갤러리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세계 관람객이 온라인으로 태국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공연 플랫폼으로 ‘사운드박스 온라인(Soundbox Online)’을 구축하여 페이스북 라이브, Zoom, JOOX를 통해 전통예술 공연을 송출하고 ‘GMM 온라인 페스티벌’은 네이버 V라이브 협업으로 동남아시아 관객에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함

•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태국 관광청 및 문화기관은 유튜브에 전통예술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태국 전통문화를 시각적으로 홍보함

- 2024년 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2018년 58%에서 대폭 상승한 88%로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이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문화교류 확대의 기반이 되었으며¹⁶⁸, 틱톡(TikTok) 등 젊은 세대 대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통예술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확산을 촉진함

• OTT 플랫폼 기반 글로벌·역내 플랫폼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동시 방영, 다국어 자막·더빙, 지역 맞춤형 큐레이션을 추진함

- WeTV 등 아시아 지역 플랫폼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역별 맞춤형 콘텐츠 큐레이션으로 시리즈 시청 중 감상 공유, 의견 교환 등 활발한 소통, 트렌드 생성 및 인기를 확산함

- 문화적 다양성 존중, 다국어 더빙·자막 서비스 확대로 언어 장벽 극복 및 포용적 접근성 구축, 물리적·언어적 장벽을 완화, 태국 드라마·영화·예능의 해외 시청자 기반을 확장하는 한편, 플랫폼 간 경쟁을 활용해 제작 투자와 공동 기획을 유도하고 있음

• 소셜미디어 측면에서 태국은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활용한 바이럴 캠페인과 팬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콘텐츠 소비를 실시간 소통과 결합시키고 있음

- BL 시리즈 등 핵심 장르를 중심으로 해시태그, 팬 아트·리뷰 공유, 라이브 방송 등의 활성화로 전 세계 팬 참여와 자발적 홍보를 촉진하고, 이는 브랜드 인지도와 관광·굿즈 소비로 연계되는 확장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 음악 스트리밍 측면에서 태국은 ‘Spotify’, ‘Apple Music’, ‘YouTube Music’ 등과 연계하고 공식 태국 차트를 운영하여 디지털 음악 생태계를 제도화하고 있음

- 정기적인 차트 공표와 시상 행사, 국제 음반기구(IFPI)와의 협력 등을 통해 로컬 아티스트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해외 프로모션·투어·콜라보레이션의 근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음악 산업을 국가 소프트파워·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IFPI와 협력하여 매주 업데이트되는 공식 순위를 제공하는 공식 태국 차트(Official Thailand Chart)를 운영하며, Jeff Satur ‘Ghost’는 2024년 TOP 로컬송을 달성하고, D Gerrard ‘Galaxy Express’ 등이 상위 차트에 진입함¹⁶⁹

▶ 전통예술 체험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전통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 소프트파워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태국 공예 목적지(Thai Craft Destination)’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전통 공예 및 지역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치앙마이, 프레, 콘깬, 사콘나콘, 나콘시탐마랏, 파타니 등 6개 창조도시에서 전통예술·문화·지역 지혜를 보존·복원·개발하여 지식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소득을 창출함¹⁷⁰

- 관광-경제-문화 융합 모델에 힘입어 2024년 1-6월 방콕, 푸껫, 촌부리, 치앙마이 4개 주가 관광 수입의 66%를 차지하며 총 8,430억 바트(약 237억 달러) 수익을 기록하고¹⁷¹ 전통예술 관련 관광 상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또한 태국 관광청은 ‘ITB Berlin 2025’에서 난 올드타운(Nan Old Town)과 치앙칸(Chiang Khan)이 지속가능한 관광 부문 수상을 받으며, 전통문화 보존과 생태 친화적 관광을 결합한 모델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¹⁷²

▶ 민간 주도 국제문화교류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민간기업 및 문화단체 주도의 국제교류는 정부 간 공식 교류와 차별화되며,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 문화외교 차원의 홍보를 담당하고, 민간은 콘텐츠 제작, 글로벌 유통,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정부-민간 협력체계 구축하며 시리깃 왕비재단의 콘 공연은 민간 주도의 정부 간 접 지원 모델로 지속적인 전통예술 공연을 제작·유통함

- 글로벌 페스티벌 브랜드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페스티벌 허브’로 포지셔닝하여 2025년 8월 태국 내각은 ‘Tomorrowland’ 개최를 위한 5년 계약(2026-2030) 승인, 2026년 12월 촌부리(Chonburi)에서 첫 개최 예정임¹⁷³

- 민간 주도 협력구조 사례인 미국 기반 음악 레이블 88rising과 태국 문화기관 THACCA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FAM Studios Bangkok’을 설립함

- 아시아 아티스트 발굴 및 제작 인프라 구축, Cloud11과의 파트너십으로 유통·마케팅 지원 체계 마련하여 정부 직접 재정 지원 없이 민간 주도로 지속 운영되는 모델을 구축하며 정부 직접 재정 지원 없이 민간 주도 지속 운영 모델을 구축함

▶ 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

• 디지털 데이터 활용 및 글로벌 차트 성과 축적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음

- 태국 관광청은 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주요 시장별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함에 따라 2024년 항공 좌석 용량이 26% 증가하여 4,700만 석에 도달했으며, 12월 성수기에는 311편의 추가 항공편이 투입되어 7만 석 이상이 증가하면서¹⁷³ 아시아, 유럽, 북미, 중동에서 직항 노선이 확대되어 접근성이 향상됨

- UNESCO 등재를 통해 전통예술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상업화와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을 추진하며 전통예술 교육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전승을 도모함

- 글로벌 차트 성과 및 수상 실적 축적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전통예술의 현대적 재해석과 글로벌 유통을 통해 문화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며, 관광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등 장기적 신뢰 기반을 마련함

168 Money & Banking Magazine, “Thailand becomes the world’s market leader for Y-series”, January 11, 2025

169 IFPI, “Jeff Satur, F.HERO, Kantong and Saran among artists honoured”, July 17, 2025

170 Tourism Product Thailand, “Thai Craft Destination – Tourism Product”, November 28, 2024

171 Forever Vacation, “Thailand Tourism Statistics | Updated For 2025”, August 1, 2024

172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Thailand’s UNESCO Gems: Unveiling Natural and Cultural Wonders”, December 11, 2024

173 IQ Magazine, “Thailand approves five-year deal with Tomorrowland”, August 12, 2025

174 Forever Vacation, “Thailand Tourism Statistics | Updated For 2025”, August 1, 2024

▶ 공동 제작을 통한 문화예술산업 국제교류의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

- 단순한 콘텐츠 수출이나 일시적 공연 중심의 교류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과의 공동 배급 전략 등 '공동 제작'을 문화교류의 핵심 구조로 발전시키고 있음
-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과의 글로벌 동시 배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담아내는 글로벌 문화콘텐츠를 창출하고 제작-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
- 출판 산업에서는 BL 시리즈가 소설, 만화로 각색되어 독자층이 확대되고, 온라인 도서 판매 사이트에 3,800권 이상의 BL 소설이 판매되었으며 2024년 제52회 전국 도서관에서 BL 소설이 일반 소설 다음으로 약 21%인 두 번째로 높은 관심을 받음¹⁷⁵
- 국제적인 페스티벌 공동 기획 및 장기 계약을 진행함. 예를 들어 'Tomorrowland'는 2026~2030년 5년 장기 계약으로 지속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고 국제 페스티벌 운영 노하우 교환 및 공동 마케팅 전략 수립,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 기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며 5년간 120억 바트 이상의 경제 효과로 투자 대비 수익을 확보함



부록 그림 23 투모로우랜드, 롤링라우드(Rolling Loud) 포스터

자료: (좌) tomorrowland 홈페이지, (<https://www.tomorrowland.com/>)

(우) 태국관광청 홈페이지, (https://www.tourismthailand.org/Search-result/event?sort_by=datetime_updated_desc&page=1&perpage=15&menu=event)

175 Money & Banking Magazine, "Thailand becomes the world's market leader for Y-series", January 11, 2025

7. 아프리카/중동: 이집트

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흐름

① 이집트 문화정책의 전개와 국제문화교류 확장

▶ 중앙통제형 문화정책에서 문화개방과 민간·국제 협력 중심으로 전환

- 군주제 폐지와 등장한 1952년 나세르(Gamal Abdel Nasser)의 정권은 문화·관광·언론·박물관·극장 등을 담당하는 국가지도부(Ministry of National Guidance)를 설립함
- 이후 1958년 국가지도부를 '문화·국가지도부(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Guidance)'로 개편하였으며 오늘날 문화부의 전신이 되었음
- 주요 정책으로는 지방 문화 확산과 대중 계몽을 위한 문화궁전(Culture Palaces) 건립, 문화 카라반(Cutrral Caravan) 운영 등¹⁷⁶이 있으며, 이후에도 예술가를 동원한 국가 프로젝트, 민속예술 보전, 출판 및 예술 검열 등을 추진함
- 이집트의 주요 문화기관인 문화궁전총괄관리청(General Organization of Culture Palaces, GOCP)은 대중문화 수준 향상과 국가적 인식 증진을 목표로 하며, 영화·연극·음악·문학·민속 등의 관리감독과 문화궁전 운영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됨
- 문화궁전은 전국적으로 설립한 공공문화복지시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리적 소외된 농촌 및 소도시 주민 대상 문화 카라반을 통해 문화를 전파함
- 또한 국가적 이벤트나 혁명 기념 사업 등에서는 예술가를 동원해 홍보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사회 안전, 음란행위, 가족 가치' 등의 용어를 사용해 예술가들의 창작과 표현을 검열하여 예술활동을 관리하려 했음¹⁷⁷

- 1964년 공화국 결정 제2780호로 '대외문화관계부(في جهاز العلاقات الخارجية)'가 하나의 독립 부처(Ministry)격으로 신설되었으며, 1967년에는 대외문화관계부의 독립적 지위가 폐지되고 문화부로 이관됨

- 1970년부터 안와르 사다트(Muhammad Anwar El Sadat) 대통령은 그간의 국가주의·사회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와 개인주의 요소를 일부 수용하면서 문화정책에도 변화가 시작됨



부록 그림 24 문화 카라반 홍보 포스터

자료: Past&Present
(<https://pastandpresent.org.uk/the-government-of-culture/image-1-culture-caravan/#:~:text=Cover%20of%20a%20booklet%20called%20The%20Culture,and%20National%20Guidance%20in%20Egypt%2C%20c.%201962.>)

176 Winegar, Jessica(2009), Culture is the Solution: The Civilizing Mission of Egypt's Culture Palaces, MESAROMS (Middle East Studies Association. Review of Middle East Studies), 43(2)

177 Aiden Rogers(2025), The Lasting Impact of Gamal abdel Nasser's Policies on Egyptian Society, Journal of Student Research, 14(1)

• 사다트가 암살된 이후, 무바라크(Muhammad Hosni El Sayed Mubarak) 정권(1981~2011년)에 이르러 문화부의 역할이 확대되며 일본 정부 및 문화재단과의 연계사업, 프랑스 파리의 이집트 문화센터 설치 등 해외 예술기관과의 협력 사업이 증대됨

- '카이로 오페라 하우스(국립문화센터)'는 일본 정부의 무상원조로 건립 및 개관하였으며, 개관 이후에도 일본 영화 상영, 일본어 수업 등 이집트-일본 공동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함¹⁷⁸

- 파리에 이집트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이집트 문화에 대한 토론을 시작으로 아랍어 강좌, 콘서트, 강연 및 컨퍼런스 등 프랑스인들에게 이집트 문화와 전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¹⁷⁹

• 1990~2000년대 문화부 산하 자문기관인 최고문화평의회(Supreme Council of Culture, 이하 SCC) 주최 회의에서 세계화 속 이집트 문화의 정체성과 국제관계의 논의를 주도하며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시작함

- '아랍문화의 미래(1997)', '새로운 문화담론을 향하여(2003)' 등과 같은 회의는 아랍국가와의 관계 정상화 시도를 지원하는 외교·문화 무대로 작동하는 동시에 세계화 속에서 이집트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 및 강화하려는 담론의 발전과 국가 차원의 문화외교와 국제 협력 노력을 제도화함

② 2011년 혁명 이후 문화정책 전환과 국제문화교류의 논의

▶ 문화부 개혁 중심의 지식인, 예술가의 참여와 논의를 통한 국제문화교류정책 재정립

• 무바라크 퇴진 이후, 혁명과 테러 위협 등 불안정한 시기 속에서도 민간 주도의 예술활동과 국제문화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문화부-외교부 협력의 전시·공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과 소프트웨어 제고에 집중함

- 도심 현대 예술제(Downtown Contemporary Arts Festival, D-CAF)¹⁸⁰는 민간 프로덕션 회사 'Orient Productions' 주관으로 기획·운영하는 축제로 2012년부터 카이로 공공공간에서 연극, 무용 등을 선보이고 현지·해외 예술가 간 공동작업·워크숍을 정례화함

- 또한 카이로 현지 관객뿐만 아니라 국제 투어링 공연, 비영어권 작품의 원어 상연, 해외 비평가와 학자 초청 등을 통해 현장 공동창작에서 국제 순회로의 흐름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음

• 문화부 개혁·국제교류·표현의 자유·유산보호 등을 주제로 '이집트 문화의 미래(Mustaqbal al-Thaqāfa)' 담론이 본격 확산되고, 이를 대표해 SCC가 2013년 회의를 열어 향후 문화정책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함¹⁸¹

- 문화부 개혁 의제로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정치적 검열 폐지, 국가유산 보호, 지적재산권 강화, 민간 문화활동 지원 확대와 부처 간 문화정책 조정 및 협력 강화 등이 공론화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국내 문화정책과 국제문화교류 방향을 공식적으로 논의함¹⁸²

178 Walid Mahmoud ABDELNASSER(2011), Egypt-Japan Partnership Futuristic Vision, JapanSpotlight(January/February), pp.31-33.

179 아랍 세계 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imarabe.org/fr>)

180 D-CAF Homepage(https://d-caf.org/about-us-d-caf/?utm_source=chatgpt.com)

181 Chihab El Khachab(2021), A brief history of the future of culture in Egypt, Journal of the African Literature Association, 15(3), pp.364-378.

182 Damien Helly(2014), Egypt Country Report, 2013-2014 Preparatory Action 'Culture in the EU's External Relations', pp.1-27.

• 이집트 사회 내부의 세속·진보·개방 진영과 종교 세력 간의 긴장 관계를 배경으로,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문화가 국가 주도의 근대화 및 문명화 프로젝트를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이와 동시에 국가유산 보호, 지적재산권 확립, 대중적 접근성 제고 등 국제적 표준을 의식한 정책 대안들이 함께 제안됨

- 주요 지식인들이 "문화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육성해야 할 전략적 자원"이라고 언급하며, 문화부·교육부·청소년부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세속·진보적 문화 구축을 강조함

나. 법·제도

① 법적 근거

▶ 이집트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률과 제도가 미비하며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관련 법령의 초점이 주로 유물과 문화유산 보호에 맞춰져 있으며 예술가 교류나 문화예술산업의 국제교류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률은 상대적으로 미비함

- 한편, 헌법에는 '시민의 문화권', '창의 표현의 자유', '문화 접근성 평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실제 행정 및 법 집행 과정에서는 검열이 엄격하여 국제문화교류 차원에 있어 자율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병존하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 관련된 별도의 포괄적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문화다양성 조약, 카이로 선언 등 일부 국제 협약에 있어 관련 내용이 제한적으로 명시됨

부록 표 55 이집트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령 및 조약

법령 및 조약(연도)	관련 내용
지적 재산권 보호법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02)	- 저작권, 인접권, 지적 재산권을 포괄적으로 규정 - 문학·예술 작품의 저작권 보호, 복제 권한, 공연권 등의 조항 포함
고고·문화재 보호법 (Antiquities Protection Law, 1983)	- 고고 유물 및 무형 유산, 문화재의 탐사, 발굴, 보존, 전시, 불법 거래 금지 등 규정 - 예술 작품이 '유물' 또는 '문화재'로 평가될 경우 이 법령 보호 대상이 되며, 유출 등에 제약이 있으며 전시 목적의 임시 수출은 허가 가능
도시조화법 (Urban Harmony Law, 2008)	- 역사적·문화적 가치 있는 도시경관·건물의 조화로운 보존
형법 제 98(f) 등 신성 모독 조항 (Penal Code Article 98(f) - Blasphemy/Contempt of Religion)	- 종교 비방·신성 모독·사회적 가치 모욕 처벌 규정 - 예술 표현이 종교적 가치와 충돌할 때 적용 가능
비상법 제162호(Law No.162 - Emergency Law, 1958)	- 비상사태 선포 시 언론·집회·표현에 대한 정부 권한 확대 - 공연·출판·예술활동 제약 가능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2005)	- 문화다양성 보호 및 문화교류 촉진 조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무형문화유산 보호 조약, 문화 표현과 교류를 포괄할 수 있는 틀 제공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 문화재의 불법 수출·이동을 막는 국제을 기준 제공하고, 조약 이행을 국내법과 연결하는 역할
카이로 선언 (Cairo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2004)	- 중동 /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문화재 보호와 국제문화교류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한 선언문 - 문화재 보호, 복원, 상호 도움 및 문화재 반환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

자료: E-Justice Portal(<https://esc.gov.eg>),
UNESCO(https://www.unesco.org/en/countries/eg/conventions?utm_source=chatgpt.com)

② 제도 및 정책

▶ 문화유산의 보존과 창의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 소프트파워 강화 및 경제 성장 조성

- 이집트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2016년에 발표된 「이집트 비전 2030(Egypt Vision 2030)」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으며, 문화 부문을 사회통합 및 경제 핵심 동력 그리고 소프트 파워 구축의 주요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음
 - 2016년 발표된 ‘이집트 비전 2030’은 글로벌·지역·국내 변화에 대응하도록 조정되었으며, 문화와 창의산업의 GDP 기여도 제고를 국가 장기 목표로 설정하는 등 국가 개발 전략에 문화 부문을 통합함
 - 주요 추진과제는 전통 수공예 및 문화유산 보존, 산업 인력 양성, 영화·출판·음악 등 콘텐츠 생산, 수공예인 연합 설립, 영화관 확충, 문화 수출 매년 20% 증대 등이며, 이러한 정책은 문화산업을 새로운 고용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디지털 전환 전략에 따라 디지털 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창작공간 확충, 전통공예 대중화 및 국제전시 지원 등의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2007년에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약(2005)」에 가입하여, 문화적 표현과 교류의 자유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고, 문화상품 교류 및 공동기획 등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확보함
 - 대표적으로 ‘전국 문화산업 지도 작성(Mapping and Supporting Cultural Industries in Egypt)¹⁸³’은 전국 문화산업 현황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시각화하여 정책 기반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로, 국제 협력사업 추진의 토대가 됨
 - 유럽연합과의 협력하에 ‘이집트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지원 프로그램’ 등 국제 다자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과 창의산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정부 주도하에 통합정책을 추진하며, 문화예술산업이 핵심요인으로 재정의되고 있음

- 이집트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문화부 단독이 아닌, 국가 발전 전략과의 연계를 위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는 구조로 이행되고 있음
- 문화부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콘텐츠 기획을 주도하고, 외교부는 외교 채널 및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추진의 외연을 확장하며, 기획경제개발부는 이를 국가발전계획 및 예산체계와 연계해 실행력 확보

- (문화부) 중앙대의 문화관계처를 통해 양자·다자 간 문화교류 협정을 이행하고, 해외 문화 행사를 주최/참가하며 이집트 문화콘텐츠의 확산을 총괄함
- (외교부) UNESCO 등 고위급 회의에 참여하고, 해외 주재 대사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집트 고유의 문화를 홍보하며,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일부 지원함
- (기획경제개발부) 문화공전, 박물관 현대화 등 문화 부문의 인프라 개발 및 개선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예술 창작 및 창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ODA와 연계한 문화프로젝트 재정 지원을 담당함
- (국제 협력부) 민간 및 국제 파트너들이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부, 외교부 등 다수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국제문화협력 사업을 추진함¹⁸⁴

- 이 세 부처는 국가 차원의 문화외교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화·외교·경제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개발함

- 최근 3년 동안에는 디지털 문화플랫폼 확장(전자도서관, 문화유산 DB구축 등)과 대형 국제문화행사 개최, 지역사회·여성·청년 대상 문화접근성 확대, 이집트학(Egyptology) 및 세계유산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신규로 시행되고 있음
- 공동위원회 또는 공동사업단 형태로 각 부처 간 세부 실행계획을 조정하여, 문화교류 활동이 단기행사 중심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함¹⁸⁵

▶ 국제 파트너 국가 및 다자 기구와의 협력적 문화정책 설계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음

- 이집트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중앙정부의 미흡한 지원을 극복하고, 국제 파트너 국가 및 다자 기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삼음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약(2005)」에 가입하여 문화적 표현과 교류의 자유를 국제적 보상과 문화상품 교류 및 공동기획 등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확보하고 유럽연합과의 다자협력 하에 ‘이집트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지원 프로그램’ 등 국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와 같은 신흥 경제 블록에 참여하여 문화외교의 지평을 넓히고자, 창의 경제 지원,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 AI의 문화적 활용 등 미래지향적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논의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이집트 국가유물최고위원회는 한국 문화재청 등 해외 기관과 ‘문화유산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 복원 사업 및 이집트 문화유산 디지털화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183 Support to Cultural Diversity and Creativity in Egypt (<https://www.bibalex.org/culture/en/theme/EventTheme.aspx?ID=2>)

184 국제 협력부(<https://moic.gov.eg/page/multi-stakeholder-platforms>)

185 국제 협력부 보도자료(<https://moic.gov.eg/news/1130>)

다. 주관/전담기관 및 운영구조

① 이집트 국제문화교류 주관/전담기관

➤ 문화부 산하 '중앙대외문화관계처(الهيئة العامة للعلاقات الثقافية الخارجية)'¹⁸⁶는 이집트의 문화적 소프트파워 증진 및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주요 창구로서 역할

• 중앙대외문화관계처는 이집트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예술, 콘텐츠 등을 세계에 알리며 국제교류를 강화해 문화적 영향력과 리더십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1964년 '공화국 결정 제2780호'에 근거하여 하나의 독립 부처로써 대외문화관계부가 신설됨

- 1967년 '공화국 결정 제1734호'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되고, 대외문화관계부에 부여되었던 권한의 이관을 규정함에 따라, 오늘날 문화부 산하 공식 행정조직인 '중앙대외문화관계처'로 운영되고 있음

- 중앙대외문화관계처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예술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문화예술산업 분야에 있어 국제 협력 협정 및 양해각서를 이행하고, 상호문화교류를 촉진하며, 아랍 및 아프리카 대륙 모두를 포괄하는 지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문화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부록 그림 25 공화국 결정 제2780호: '대외문화관계부의 책임과 조직' 규정

출처: Ministry of Foreign Affairs(<https://www.mfa.gov.eg/ar/ForeignPolicies/CulturalDiplomacy>)

② 주관/전담기관 운영구조

➤ 중앙대외문화관계처 산하 각 부서가 상호 연계하여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됨

• 주요 기능 및 사업은 '국제 문화 행사 기획 및 참여', '다/양자 간 문화 외교', '해외 문화 대표 시스템 관리', '문화콘텐츠 수출 및 교류 증진'으로 구분할 수 있음

부록 표 56 중앙대외문화관계처 주요 기능 및 사업

사업영역	주요 내용
국제문화 행사 기획 및 참여	국제 규모의 대형 문화주간 및 예술 축제를 기획 및 주최하여 이집트 문화의 우수성 소개 및 국제 행사 참여를 통한 네트워킹 강화
양자 간/다자 간 문화 외교	UNESCO 등의 국제기구 및 BRICS 등 주요 국제 연합체와의 협력 논의 참여 및 개별 국가와의 문화교류 협정 이행 총괄
해외 문화 대표 시스템 관리	이집트 정부가 해외에 설립한 문화 센터 및 예술 아카데미 관리, 이집트 문화 관련 인력의 해외 파견 및 교류 지원
문화콘텐츠 수출 및 교류 증진	도서, 영화, 음악, 시각예술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국제적인 교류와 상업적 수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관여

➤ 국제문화 행사 기획 및 참여

• 이집트 문화주간(Egyptian Cultural Week) 개최를 통해 특정 국가에서 이집트의 예술 공연, 도서 전시회, 영화 상영, 전통 공연 등을 선보이는 행사를 주최함

- 2025년 1월 28일부터 31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이집트 문화주간은 이집트와 카타르 각 정부의 문화부와 대사관 간 협력을 통해 전통공연, 음악, 공연, 문화 심포지엄, 전통음식 시식 등 이집트의 문화 유산을 카타르 국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됨

• 카이로 국제 도서전'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도서 박람회로서 매년 카이로에서 개최되며, 외국 정부 및 출판사의 참여 유치 등 국제 협력을 관리함

- 도서전에서는 외무부 주최 하에 '이집트 외교의 전략적 비전' 세미나를 도서전 공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아랍 국가 간 문화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아랍국가들이 매일 두 나라씩 짝을 이뤄 문화, 문학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Arab Days'라는 세션을 추진함



부록 그림 26 이집트 문화주간 및 카이로 국제 도서전

자료: (좌) Ministry of Culture, State of Qatar Homepage (<https://www.moc.gov.qa/en/2025/01/31/a-remarkable-conclusion-to-the-egyptian-cultural-week-at-darb-al-saai/>)
(우) : EGYPT Daily News (<https://www.dailynewsegypt.com/2025/01/25/cairo-international-book-fair-attracts-high-public-turnout/>)

• 이집트 예술가와 예술 단체의 해외 주요 축제 및 비엔날레 참여를 지원함

- 그리스 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Mikis Theodorakis) 헌정의 해 선포 기념을 위해 '그리스 라디오 텔레비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National Symphony Orchestra of the Greek Radio Television)'와 '카이로 아카펠라 합창단'이 공동 협연을 진행함

- 협연은 이집트 국립 문화 기관인 '카이로 오페라 하우스' 주관, 그리스 대사관과 중앙대외문화관계처가 주요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장기적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부록 그림 27 국제 미술 공연 축제 참여 지원

출처: Sada Elbalad English (<https://see.news/greek-embassy-in-cairo-hosts-reception-celebrating-ert-symphony-orchestra-acapella-choir-of-cairo-opera-house/>)

▶ 양자 간/다자 간 문화외교

- 이집트가 다양한 국제·지역 협의회 및 개별 국가와의 문화협력을 통해 문화외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양자/다자 간 차원의 문화협력과 리더십을 강화함
- 'BRICS' 문화협력에 논의 참석하여 창의경제 지원, 문화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 등 미래 지향적 국제 문화협력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등의 양자 간 문화외교를 수행함
- 튀르키예 문화부 협력을 통해 각 문화부 장관 회동에서 번역교류 지원, 문화유산 보존 협력, 예술가 상호 파견 등 양자 협력 로드맵 구축 등의 양자 문화협정을 이행함

▶ 해외 문화대표 시스템 관리

- 해외 거점 예술 아카데미 운영 및 관리하며 문화 인력의 해외 파견과 교류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외교 거점을 구축함
- 이집트 예술 아카데미는 유럽 문화 거점에 위치한 예술 아카데미의 운영을 감독하여, 이집트 예술가와 학자들의 해외 연구 및 창작 활동을 위한 역할을 수행함
- 이집트 국립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주요 기관의 인력 및 예술가를 해외 문화 센터와 연계하여 파견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및 전문성 함양을 지원함

▶ 문화콘텐츠 수출 및 교류 증진

- 문화산업 기반 체계화, 디지털 전환 추진을 통해 문화산업 지도 작성 및 지원을 통해 이집트 전역의 문화산업 현황과 자원을 시각화하여, 국제 협력 파트너들에게 투자 및 협력 기회 제공의 인프라를 구축함¹⁸⁷
- 이집트의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자도서관 확장 등 디지털 전환 전략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국제적인 접근성 및 유통 채널을 확보함

라.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진 주체 및 내용, 방식

① 교류 주체

▶ '민간·시민사회·국제개발파트너(ODA)'와 협력 체계를 통한 정책 실행 기반 확장

- 이집트는 혁명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정치·경제 검열이 이뤄지는 가운데 민간·시민사회가 대외 문화교류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하였음
- 전통적인 중앙정부 주도 방식이 지닌 자원 및 인력의 한계(자원의 제약)를 극복하고 정책 실행력 확보의 필요성 증대로 주체의 다각화와 민간, 시민사회, ODA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정책 실행 기반이 강화됨
- 중앙정부는 주요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협정, 다자 협의회 및 국제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외교의 상징적 주체로서 외교적 교류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문화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등 외교 중심의 전략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

- 민간 부문의 영화·음악·디자인 등 창의산업 분야는 고부가가치 문화 수출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이집트 비전 2030'이 제시한 '문화 수출 증대 목표'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임
-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등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유럽·서구 기관의 지원을 받은 시민사회단체가 현대 예술, 문화정책 연구, 전시·공연을 추진함으로써 비정부 차원의 교류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국제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
- 이집트는 한국, EU, 미국 등과 협력하여 문화유산 복원, 디지털화, 전문인력 양성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개발파트너(ODA)'를 통해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술교류와 제도 역량 강화의 매개 역할을 함
- 이집트의 국제문화교류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설정 및 외교 조정 역할, 민간의 창의산업을 중심 경제 기반의 문화교류 추진, 시민사회의 비정부 차원 문화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성과 지속성을 확장하고, ODA가 기술·재정 협력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보완함

▶ 문화기관과 문화센터는 정부-민간 연결의 중간 채널 및 국제문화교류의 실행 거점

- 이집트의 중앙정부 산하 문화기관 또는 준공공기관들이 국제 전시·교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조정하며 카이로 내 위치한 프랑스 문화원, British Council, 일본 문화센터 등 외국 문화센터들도 현지 교류의 실질적 주체로 기능함
- 알렉산드리아 도서관(Bibliotheca Alexandrina), 국립문명박물관(NMEC) 등은 유네스코 및 해외 대학과의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연구교류를 추진함
- 카이로의 'British Council-Institut Français d'Égypte' 등과 같은 외국문화센터 또한 현지 예술가와의 협업, 전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매개체로 작용함

② 교류 대상

▶ 국가 자원 한계와 기술 및 제도 역량 강화를 위해 특정 주체를 전략적 파트너로 설정

- 한국, EUM 미국, 일본국제 협력기구 등 ODA 공여국 및 국제기구를 주요 협력 대상으로 설정하고, 문화유산 복원, 디지털화, 재정 등을 지원받음
- 창의산업 관련 민간 기업 중심의 영화, 음악 등 분야의 창업가와 같은 주체를 주요 육성 및 협력 대상으로 삼음
- 주요 국제기구인 카이로에 위치한 'British Council', 'Institut Français d'Égypte', 유네스코 등은 현지 교류의 실질적 거점으로 이집트 예술가와 협업 및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현지 실행 파트너로 기능함

▶ 정치적·경제적 검열 속에서 부상한 시민사회 및 민간의 역할 확대와 교류 포용성 강화

- 'Arab Digital Expression Camps' 여름 캠프와 'All-Around Culture' 프로젝트 모두 청년을 대상으로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경험하게 하는 주요 교류로, 국제기관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청년층 문화활동을 포함하려는 시도가 증가함

③ 교류 내용

▶ 전통 고대 문명 중심에서 벗어나, 영화·공연예술·디자인 등 창의산업 중심 교류 확대

- 전통적으로 고대 문명과 문화유산 중심의 전시·보존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최근에는 현대적 문화 콘텐츠와 창의산업 중심의 교류로 전환되고 있음
 - 문화유산 보존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영화·공연예술·디자인 등 현대 문화콘텐츠를 주요 교류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 영화제, 공연 교류 등 문화산업 전반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이집트 예술가 및 창작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
- 독일국제 협력공사인 'GIZ Egypt'가 운영하는 'Doroob'¹⁸⁸은 이집트인들 대상으로 한 보조금 플랫폼으로 2023년부터 문화예술과 디자인, 디지털콘텐츠, 문화기술 등이 결합된 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함
 - 월 600유로 수준의 사업화 지원금과 멘토링 등을 제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 협력 기관 및 글로벌 멘토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집트 문화콘텐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교류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함
- 유네스코에 등재된 '비물질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교육·전시·워크숍을 개최하여 고대유산 중심의 국가 이미지를 '살아 있는 문화'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비물질유산을 현대예술·공연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음

▶ 예술·문화교류 주제로 설정하는 등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글로벌 문화이슈 반영

- 평화, 환경, 인권, 난민 등의 글로벌 이슈를 예술과 문화교류의 주요 주제로 설정하고, 예술치유, 공동체 연대 강화 프로젝트 등 사회적 가치를 담은 교류가 점차 증가함
- 2025년 카이로 국제아트페어에서는 'Peace upon all lands'라는 주제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 치유, 지역 목소리 강조에 집중함¹⁸⁹
 - 난민·분쟁·환경 등 글로벌 이슈를 반영한 전시, 팔레스타인 작가의 저항의식, 이라크전 때의 기억을 다듬는 테마전 등 현장성이 강한 기획이 다수 진행되며 토론·대화 세션 등을 통해 국내외 큐레이터, 비평가, 작가가 사회적 메시지, 지역성, 연대의 의미를 심도 있게 논의함
 - 또한 중동·아프리카 등 지역의 주요 갤러리 및 작가 참여 비중을 높이고 유럽의 주요 갤러리와 연대 기획을 추진
- 'Stand for Arts'¹⁹⁰는 아랍 지역 예술가와 문화 행위자가 정치적·사회적 억압, 폭력, 구금 등 안전 위협에 직면했을 때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함
 - 단돈 보호 차원을 넘어 국제기구·예술 레지던시·옹호 단체 등과 연계하여 예술가들이 세계 문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와 문화 네트워크를 확장함
 - 생활비, 여행경비, 법률지원, 심리 및 건강 관리 등 다양한 긴급지원과 함께 해외 레지던시 및 국제 협력기관 연결을 통해 예술가들이 새로운 문화 환경 속에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랍 지역의 문화적

188 Doroob Hoempage(<https://doroobegypt.org/en/grants>)

189 Art Cairo Homepage(<https://www.artcairo.com/>)

190 Mawred Homepage(<https://mawred.org/stand-for-art/?lang=en>)

다양성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며, 억압적 상황 속에서 예술적 표현과 문화적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국제문화교류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함

▶ 지역·세대·성별 다양성 확대를 통한 포용적 문화교류 강화

- 다양한 집단의 문화활동가를 교류 참여자로 선정해 문화교류의 저변을 확대하고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지역축제 지원으로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포용적 문화교류로 활성화함
 -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등 대도시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지방 문화도시·청년 예술가·여성 창작자 등 다양한 집단이 교류의 새로운 참여층으로 부상함. 또한 국제기관이 지원하는 문화프로그램에서 청년 층·비도시권 문화활동가를 포함하려는 시도가 이뤄지며, 지역과 세대 간 문화교류의 저변을 확대함
- 'Arab Digital Expression Camps(이하 ADEC)'¹⁹¹가 주최로 알렉산드리아에 열리는 여름캠프는 전세계의 청소년(12~15세) 대상 예술·기술·스포츠를 통합한 합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적 실험장이자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함
 - 서로 다른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참여 청소년들이 공동의 워크숍을 통해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경험하며 지역과 국경을 초월한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 공연, 야간 문화행사 등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참가자들이 서로의 전통과 표현 방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과정으로 기획됨
- 'All-Around Culture'는 아랍 지역 7개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적·사회적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된 장기 프로젝트임
 -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머무르지 않고 타국 청년 및 국제 문화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실험을 창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국제적 차원에서 확장함

④ 교류 방식

▶ 국가 재정 약화 및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도입

- 이집트 박물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소유·운영되다 국가 재정 약화와 행정 비효율로 인해 '민관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¹⁹²이 대안으로 부상함¹⁹³
 - '그랜드 이집션 박물관(The Grand Egyptian Museum, GEM)'의 경우, 2025년 개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고고학 박물관으로 일본국제 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자금과 이집트 정부 및 국제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달함, 박물관 소유권 및 전시·유물 관리권은 이집트 정부가 보유, 상업·서비스 부문은 민간 기업에 장기 위탁하여 운영됨
 - JICA와의 협력은 단순 자금조달을 넘어, 전시기획부터 운영인력의 학예 연수 등 일본식 박물관 운영 노하우 전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임

191 Arab Digital Expression Foundation Homepage(<https://home.adeef.xyz/>)

192 이집트 PPP유형: ①(관리위탁형, Management Contract) 정부가 소유권 유지하고, 민간이 운영과 관리 책임 ②(임대형, Lease Contract) 민간이 시설 일부를 장기 임대해 서비스 제공 ③(공동투자·공동운영형, Joint Venture) 공공·민간이 자본과 운영을 공동 투자, 수익 공유 ④(후원 협력, Sponsorship) 기업이 전시 및 복원 프로젝트 재정 지원 ⑤(컨세션형, Concession) 민간이 장기간 전체 운영권을 갖고,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

193 Nevine Nizar Zakaria(2025), The Impac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Management Autonomy on Museums' Performance: The Case of Egyptian Museums, Museum International, 76(3-4), pp. 20-35.

- ‘이집트 문명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vilization, NMEC)’는 일부 전시와 행사, 카페, 상품점 등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스폰서십을 통해 특별전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왕가의 미라 퍼레이드(Royal Mummies Parade)’, ‘투탕카멘 몰입형 전시’ 등 대규모 이벤트로 글로벌 미디어 효과를 활용해 국제 스폰서십을 확보하고 있음

- 이러한 PPP 도입은 박물관 재정 안정화와 운영 효율성 증대, 국제 스폰서십 확보 및 글로벌 문화 행사 가치를 가능케 하여 결과적으로 국제문화교류를 확대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음

부록 표 57 민간과 박물관 협력 사례

구분	GEM	NMEC
핵심목표	세계 최고 수준 관광·문화 허브 구축 대형 국제 전시·행사 유치	이집트 문명 전 주기 전시 글로벌 브랜드 후원 통한 문화외교
재원구조	JICA 장기 저리 차관 이집트 정부 예산 국제 기부금	이집트 정부 예산 민간 스폰서십(글로벌 브랜드) 국제 협력 기금
민간참여 범위	상업·서비스 시설 장기 운영(컨세션) 기념품샵, 카페·레스토랑, 이벤트홀, 주차장	일부 전시·행사 기획·운영 위탁 카페·문화상품점·교육센터 운영
박물관 전경		

출처: (좌) The Grand Egyptian Museum Homepage(<https://grandegyptianmuseum.org/about/>)

(우) 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vilization Homepage(<https://nmec.gov.eg/museum-history/>)

▶ 민간기업 및 민간 문화단체 주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 2003년 아랍 문화운동가들의 주도로 설립된 비정부·비영리 문화기관인 ‘Al-Mawred Al-Thaqafy’는 아랍권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정책 연구를 통해 국제문화교류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함
 - 정부지원 없이 국제 재단의 후원과 자체 펀딩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국경을 넘어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민간 주도의 문화협력 모델을 구축함
 - 창작보조금, 예술가 이동 지원, 문화경영 교육 등을 통해 예술가의 국제 창작·협업·발표를 지원하고, 문화정책 연구 및 공유로 순환적 국제문화교류 구조를 실천
- 교육·문화·환경 복원에 재투자하는 농업 기반의 사회적 민간 기업인 ‘SEKEM’은 ‘SEKEM Festival’과 같은 브랜드형 행사를 직접 조직·운영함

- SEKEM 운영 헬리오폴리스대학교 학생 14명과 오스트리아 학생 12명이 참여하는 국제교류 ‘Erasmus+’ 프로그램을 통해 사막화 대응과 기후 행동을 주제로 예술과 환경을 접목한 공동 창작 활동을 진행
- 오스트리아 학생들에게는 이집트 가정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과 가족 전통, 그리고 한 대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

- ‘Arab Fund for Arts and Culture(이하 AFAC)’¹⁹⁴는 아랍문화운동가들의 주도로 설립된 재단으로, 매년 200건의 지원금을 장르별 공모 형태로 제공함

- 역량 강화를 위한 트레이닝 및 멘토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타 국가 예술가 간 기술 및 경험을 교환하는 기반을 마련해 아랍 예술가 및 연구자들의 창작과 발표, 공동작업을 지원하는 ‘Arab European Creative Platform’을 운영함
- 미디어 파트너십을 통해 여성 영화감독과 같은 신진 예술가 대상 보조금 지급과 시나리오, 제작, 연출 등 분야별 멘토링을 제공하며, 우수 참여자에게 업계 전문가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최근 신설하였음
- 이처럼 AFAC는 다장르 협업, 글로벌 문화교류 네트워크,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십 등 실질적인 국제문화 교류 방식을 전략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 모든 활동은 민간(기업+재단) 주도이며, 정부 직접 재정 지원이나 행정 운영 관여 없이 자체 수익과 국제 후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속 운영되며, 단순한 문화가 아닌 지속가능한 생활방식과 사회모델을 공유하는 국제교류 형태의 실천임

▶ 디지털 기반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인프라 구축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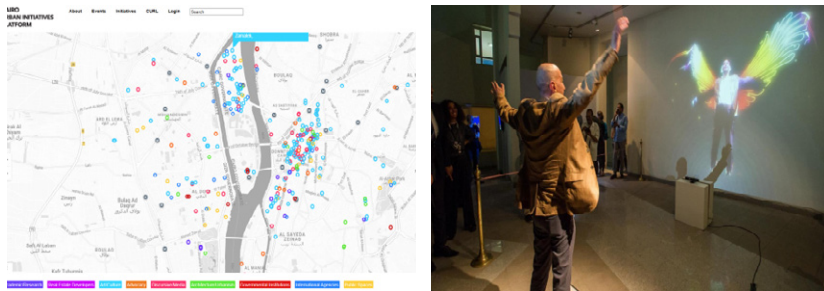
-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국제 협력 환경의 조성과 유통·소비 구조를 지속적 확장함과 동시에 글로벌 참여자를 위한 포용적 국제교류 환경을 구축함
 - 온라인 공동제작, 원격협업, 가상전시 및 공연 비대면 창작 플랫폼과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예술가, 기관, 기업 간 교류체계를 기록하는 등 장기적 신뢰 기반을 마련함
- ‘Cluster Mapping Initiative’ 플랫폼¹⁹⁵은 카이로의 도시 공간을 맵핑해 문화·예술·공공장소 프로젝트들을 온라인 환경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네트워크화함
 - 다양한 프로젝트가 도시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별 공간과 활동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
 - 도시의 예술 및 공공공간 프로젝트를 하나의 인터랙티브 맵과 데이터 플랫폼 안에 집약함으로써 개별적 활동이 도시 구조라는 공동의 맥락 속에서 문화교류의 네트워크로 확장됨
 - 또한 누구나 직접 이니셔티브를 등록하고 이벤트를 갱신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큐레이터, 예술가,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등 자생적 생태계를 이루며, 독립적인 프로젝트들을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조망할 수 있음

194 Arab Fund for Arts and Culture Homepage(<https://www.arabculturefund.org/About>)

195 Cluster Mapping Initiative(<https://multicity.clustermappinginitiative.org/>)

• 카이로트로니카(Cairotronica)는 카이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예술과 기술의 융합 플랫폼으로서 국제적 문화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등 현대기술의 미학적·사회적 의미를 해석하고 예술적 대응을 모색하며 이집트와 해외 창작자들이 함께 교류함으로써 청년예술가들에게 협업의 기회를 제공함



부록 그림 28 클러스터 맵핑 이니셔티브 카이로 및 카이로트로니카

출처: (좌) Cluster Mapping Initiative(<https://multicity.clustermappinginitiative.org/>)

(우)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https://www.aucegypt.edu/news/stories/cairotronica-where-art-technology-meet?utm_source=

▶ 공동 제작을 통한 문화예술산업 국제교류 협력 모델 구축과 문화 네트워크 확장

• 단순한 작품 교환이나 일시적 전시 및 공연 중심의 교류를 넘어 공동 제작을 문화교류의 핵심 구조로 발전시키고 있음

- 특히 공동제작은 문화콘텐츠 생산의 공동 기획, 예술적 자원 교환, 기술 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이익과 창의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함

• 카이로 국제영화제(Cair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이하 CIFF)¹⁹⁶ 프로그램 중 필름 커넥션(Cairo Film Connection, 이하 CFC)은 국제 공동제작 마켓으로 전통적인 영화 상영 중심의 축제에서 창작 자체를 국제문화교류의 장으로 확장함

- 완성된 작품의 상영과 평가보다 CFC는 영화 기획에서 제작 초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업을 촉진해 교류의 성격을 '결과 공유'에서 '과정 협업'으로 전환시킴

- 서로 다른 국가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영화감독, 프로듀서, 투자자, 배급사 등이 영화 프로젝트 피칭, 네트워킹 세션, 자금 조달 및 배급 상담 등을 수행함으로써, 단순한 산업적 협업을 넘어 창작 과정 속에서의 문화적 교류를 논의함

-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젊은 창작자들에게는 국제 무대 진출의 기회 제공하고 유럽 및 아시아 등 타 지역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와 지속가능한 협업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이러한 구조는 지역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담아내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창출로 이어지며, 영화제의 기능을 상영 축제에서 협업을 실현하는 장으로 발전시킴

• '카이로 국제 도서전(Cairo International Book Fair)'은 단순 도서 홍보 및 판매에 국한되지 않고 번역, 저작권 계약, 학술 세미나, 저자 교류와 각국의 출판사 및 문화기관이 번역 지원 등을 협의해 공동 출판 추진하는 등 국제문화교류의 장으로 기능함

- 최근 중국 도서의 아랍어 번역 수요가 증가하고, 현장에서의 계약 및 공동출간 논의가 확산되면서 프랑스 문화원, 독일 괴테인스티튜트의 번역 지원 등 타국 프로그램과 연계한 아랍어권 번역 출판이 활성화되고 있음

- 도서전은 현지 대학생 통역 봉사단을 활용해 해외 참가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중 참여 문화교류, 정부 차원의 협력, 출판 산업계 내부의 협력이 동시에 이뤄지는 복합적 플랫폼임

• 카이로 다운타운 현대예술축제(D-CAF) 같은 주요 행사에서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여러 예술 기관 및 독립 예술가들의 공동 기획·공연·워크숍 진행이 이뤄지는 등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공동 플랫폼이 부상하고 있음

- 이런 협력은 창의적 결과물뿐 아니라 협업의 과정 자체를 문화적 실천으로 간주하며 현지 예술 생태계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결과를 가지고 옴

▶ 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 협력 생태계 구축

• 공동제작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가 확대되면서 단발성 프로젝트에서 정책적 차원의 장기 협력 체계인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의 협력 생태계 구축이 추진됨

- 파트너십 기관들이 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함으로써 공동제작, 창작교류, 연구 프로젝트 등 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관 간 MOU를 넘어 정책 차원의 장기협력 체제 구축을 의미함. 타 국가·타 지역의 문화기관과 민간 창작자들이 연계되는 네트워크형 협력 생태계가 조성됨

• 2021년 Goethe-Institut과 EU의 재정적 협력으로 시작된 '할라캣(Halaqat)'은 아랍 지역과 유럽 간 예술·문화교류 강화 목표의 국제 프로젝트로, 아랍어로 '고리, 순환'을 뜻하는 이름처럼 상호 연결과 문화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향함

- 2024~2027년까지는 '돌봄(care)과 젠더'를 핵심 주제로 설정하고, 형평성과 포괄성, 권력 구조에 대한 탐구를 예술적 창작과 교류 활동으로 확장하며, 핵심 주제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워크숍, 전시, 포럼 등으로 담론화

- 창작 지원, 레지던시, 멘토링 등을 통해 매년 이집트와 유럽의 예술가 및 기획자의 창작과 협업을 지원하며, 현지와 해외에서의 공동작업, 작품 유통 등의 경험을 직접으로 제공함

- 할라캣은 장기적 교류 네트워크, 사회적 주제의 글로벌화, 국제교류 확대, 구조적 지원 체계화 등을 통해 아랍-유럽 간 실질적인 국제문화교류 모델을 전략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 아랍문화운동가들의 주도로 설립된 'Arab Fund for Arts and Culture(이하 AFAC)' 재단은 매년 200건의 지원금을 장르별 공모 형태로 제공하며 역량 강화를 위한 트레이닝 및 멘토십 프로그램을 통해 타국가 예술가 간 기술 및 경험을 교환하는 기반을 마련함

연구책임	이소민(KOFICE 문화교류연구센터 연구원)
공동연구	김정현(KOFICE 문화교류연구센터 연구원) 송명진(관악문화재단 미래정책본부 정책기획팀 과장) 이경미(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객원교수)
연구지원	이지현(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수료)
조사/분석	메트릭스(MetriX)

문화예술산업 중심 국제문화교류의
국가별 정책 트렌드 분석 및 전망 연구(2026-2028)

발 행 일	2026년 2월 28일
발 행 처	진흥기획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전화 02-3150-4820 팩스 02-3150-4872 홈페이지 http://www.kofice.or.kr
연구기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문화교류연구센터
인 쇄 처	진흥기획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비매품/무료

95300



9 791191 872576

ISBN 979-11-91872-57-6(PDF)